

공군

AIR FORCE QUARTERLY

제 21
권 1호
1987



공군본부



이 황량한 하늘의 길을 향해
덕세게 날아가라 불새들아
너의 영원한 이름은 「Comet-Alpha」
저 뜨거운 태양의 용광로 속까지도
저 차가운 밤의 별무리 속까지도
이 길을 따라 날아가라.
우리는 그렇게 커온 불새들 이니라

“내나라 내겨레 내가 지킨다”



“어떠한 상황도 완벽대처”

전두환 대통령은 유시를 통해*

“時代가 바뀌고 상황이 변화하는데 따라 군에 대한 時代的 요청과 課題도 달라질 수 있지만 나라의 安全과 국민의 生存을 확보해야 할 軍 本然의 임무에는 변함이 있을 수 없다”고 말하고 “군은 언제라도 國民의 요구가 있으면 모든 것을 다 바쳐서 나라를 危難으로부터 구출해야 할 사명을 안고 있다”고 강조했다.

순대통령은 “그러므로 민주화 반영, 그리고 平和와 統一에 대한 期待가 한껏 부풀어가고 있는 오늘날 이시점이야말로 갈로 기회와 위험이 同時에 交叉하고 있는 時機임을 잠정 모두가 깊이 인식해서 어떠한 상황에도 완벽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충성심과 임전태세를 가일층 강화해 주기를 당부한다”고 하였다.

공군

AIR FORCE QUARTERLY

권 두 언 정 훈 감 (2)

기획특집 “건군 39주년을 맞는 공군의 결의”

살신성인하는 마음 강 구 영 (6)

완 전 무 결 박 충 민 (9)

웅 장 한 분 열 송 기 명 (11)

철 마 는 달 리 고 싶 다 홍 성 범 (13)

논 단

경 제 와 노 사 관 계 김 영 배 (18)

우 리 나 라 의 영 공 신 성 환 (26)

개 항 기 한 · 중 관 계 의 진 밀 화 권 석 봉 (48)

미·소 동 향

미 국 의 외 교 정 책 과 동 북 아 시 아 편 집 부 (56)

베 령 앙 주 등 조 령 군 의 전 력 분 석 장 경 환 (80)

군사지식

- 군용항공기의 비용에측에 관한 유의성 검토..... 허 증 준 (91)
 새로운 空对空 유도탄 — AMRAAM — 소개 김 용 홍 (109)
 경쟁이 격렬한 항공위성 SERVICE 황 정 화 (117)
 분란의 위협과 대응책..... 김 석 우 (126)
-

정훈교육자료

- 변증법의 유험론..... 권 태 창 (138)
 신제국주의론 비판..... 공 진 구 (146)
-

- 시 38선 휴게소..... 천 호 명 (151)
 수필 용문산 은행나무..... 손 민 호 (158)
 기행문 브라질 유학기..... 최 영 실 (161)
-

- 교임 간주된 음악사..... 최 성 근 (168)
 도시 공간속의 미술..... 김 미 애 (171)
-

건군 제 39 주년

國軍의 날

건군 39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이 열렸는데, 가장 큰 규모로 발족된 이래로 경축분위기를 극대화 시키기 위하여 광장에서 각종 최신형 국산 무기 및 전투도 담당한 장년국군의 퍼레이드로 성대히 베풀어졌다.





공군기수단의
행진 모습



공군의장대의
시가행진 모습
(비행기모형연줄)



공군사관생도들의
힘찬 행진모습



공군 장병에게
화환을 걸어주는 연예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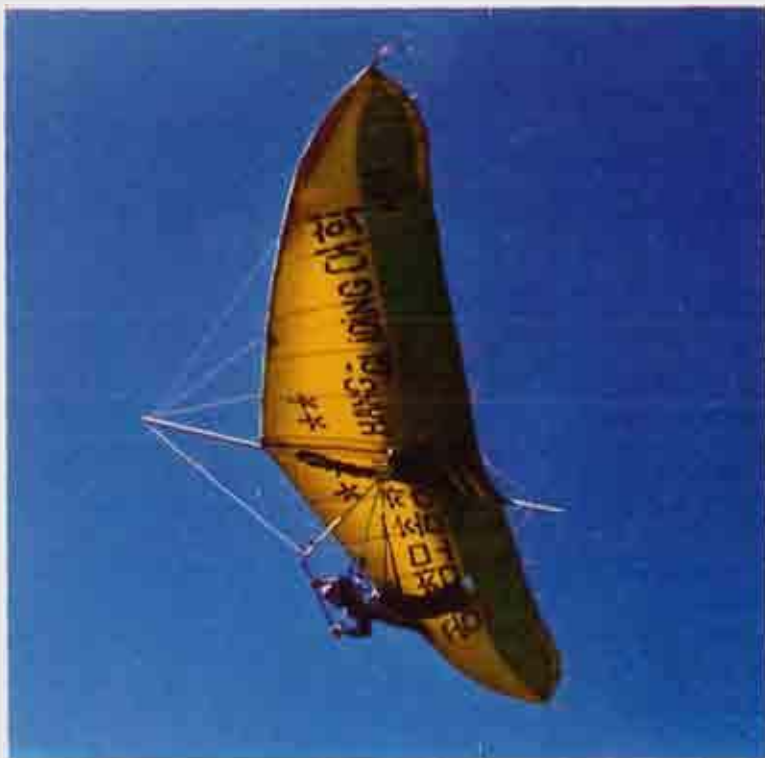
그라운드에서 보라매의 꿈을.....

제34회 3군사관학교 체육대회

전국 39주년 국군의 날을 기념하는 제34회 3군사관학교 체육대회가 정규종목인 축구와 럭비 그리고 천천도보를 위한 전외경기로 펼쳐졌다. 3군사관학교 제전의 목적은 선수들의 기량을 자랑함보다는 단결과 실사로 정신발휘에 있는 것이며 승패의 집착보다는 부지와 질서와 모범을 보이는데 있다.



푸른 창공에 나라를 펼쳐라!



'87 공군참모총장배 헬글라이딩 대회

항공스포츠 인구의 서번확대를 위한 공군참모총장배 헬글라이딩대회가 '85년 대회에 이어 두번째로 10월 13일 남양산성에서 개최되었다.

이번대회는 50회 이상의 경력자 49명이 참가하여 남양산성에서 남양대 골프장까지 3km를 날았다.

이 날 대회에서 배공시간, 과잉훈련회, 착륙정밀도, 착륙각세 등이 뛰어난 6명이 공군참모총장배와 한국항공협회장상을 받았는데 이들은 내년 1월 세계헬글라이딩 선수권대회에 출전하게 된다.

제9회 모형항공기 대회

국민들에게 과학적 향의학과 항공사상을 증진시켜, 항공과학분야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제9회 공군참모총장배 모형항공기대회가 공군사관학교 연평장에서 성대히 거행되었다.

이 날 대회는 전국에서 예선을 통과한 초·중·고, 대학생, 주한 외국인 등 2천여명의 선수와 2만여명의 시민학생이 참가하여 대외사상 자장 큰 성황을 이루었다.

이 날 대회는 글라이더, 고무동력, 유선 및 무선조종 등 4개부분의 28개 종목에 걸쳐 갖가지 표기가 행해졌다.



공군부대를 견학하며



장병들의 활약상과 우수함 장비를 견학하고 공군의 역할의 중요성 인식을 위하여 공군에서는 문화계 인사들을 초청하여 작전사령부와 17비전투비행단을 방문 견학토록 하였다.

이 날 참가자는 각 신문사 문화부장과 소설가, 극작가, 작곡가들이 참석하였다.

▲ 문화예술인 부대방문

▼ 언론인 부대방문



언론기관의 사회부장들을 초청 협찬 장비를 이용하여 공군의 전설을 연구 개발하고 이를 작전훈련에 활용하는 역할을 경학토록하여 공군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켰다.

항공

AIR FORCE QUARTERLY

1987년 제 3 호 (통권 202호)

항공권본부

“장년공군의 힘찬 함성”



정 훈 감
공군준장 고 인 규

지난 10월 1일 國軍의 날을 맞이하여 여의도 광장에서 건군 39주년을 기념하는 행사가 성대하게 거행되었다.

이 날 기념행사는 화려한 카드섹션과 3군 군악대의 광파르가 힘차게 울려 퍼지는 가운데 육·해·공군·예비군 및 호국단의 사열과 분열 공수특전용사들의 낙하 및 태권도 시범, 지상기계화부대의 행진 등 다채로운 내용으로 장식된 것이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렁찬 비행음과 함께 가을을 맞이하여 유난히 높고 푸른 하늘을 꼭예 하며 수 놓은 우리 공군의 자랑인 「필승보라매」의 위용에 힘찬 박수를 아끼지 않았으니 이를 지켜보는 우리 공군가족 모두는 가슴에 뿌듯한 보람과 긍지를 느꼈으리라.

진국 이듬해 육군항공대로부터 20여대의 연락기를 가지고 창군하여 미국으로부터 원조받은 비무장 경비행기 12대와 국민 헌금으로 어렵게 마련한 연습기 10여대로 북괴의 6·25기습남침을 맞이하여 오로지 피 끓는 조국애와 필승의 신념으로 싸웠던 당시를 돌이켜 보면 실로 놀라운 발전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우리 공군의 발전은 곧 국가발전과 그 맥을 같이하여 왔다고 볼 수 있다. 경제력의 뒷바침이 없이는 고가의 항공장비를 도입할 수 없으며 사회저변의 기초과학의 밑바탕이 없이는 첨단 과학기술의 응집체인 항공산업을 생각조차 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편 속도전으로 특징지워지는 현대전의 양상은 바로 공군력의 증강이 국가안보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고도의 기동성을 요하는 현대전에 있어서 제 공권의 장악은 곧 전쟁의 승패를 가늠하기 때문에 우리 공군이 현대 과학무기의 총아인 F-16 펄승보라매를 보유하여 실전 배치하게 된 것은 명실상부한 장년공군으로써의 위용을 갖춘 것이며 또한 제공권 확보에 대한 자신감과 아울러 자주 영공방위에 대한 긍지를 심어주는 것이 된다고 볼 수 있다.

더구나 지구상에서 가장 호전적이라 할 수 있는 북괴가 기습남침을 기도하면서 우리의 수도 서울에서 북방으로 불과 수십마일의 휴전선 일대에 전투력을 전진배치하였고 호시탐탐 도발 기회만 노리고 있는 상황에서는 더 더욱 우리 공군의 역할이 중요해진다고 볼 때 건군 39주년을 맞아 장년공군으로 성장한 우리 공군가족 모두는 배전의 사명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우리는 지금 국운상승의 기운을 타고 정치적으로는 민주화의 단단한 초석을 쌓고 경제적으로는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온 국민이 매진하고 있다. 특히 양대선거와 서울 올림픽대회를 목전에 두고 있는 앞으로의 1년이 미래의 영원한 조국번영을 담보하고 있다고 볼 때 우리는 한시도 방심할 수 없다.

세계사 속에는 흥망성쇠를 거듭하며 명멸해간 국가가 수 없이 등장하였지만 흥한 나라 중에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훌륭한 지도자를 중심으로 온 국민이 총화단결하여 난국을 타개하고 국운을 열어간 나라가 많았으며 그의 많은 나라가 내부의 분열과 외침을 당해 사라져 갔다. 굳건한 안보력은 다소의 의견대립을 포용할 수 있으

권 두 언

나 안보에 헛점이 생겼을 때는 그동안 피와 땀으로 그나마 쌓아온 모든 것이 송두리째 빼앗기고 망국의 한을 품으며 치욕 속에 살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러한 중요한 시대적 상황에 발맞추어 창군 이래 불철주야 기량을 닦으며 필승의 신념으로 무장하여 나날이 발전해온 우리 공군은 이제 밖으로는 북괴로 하여금 한치의 오판의 빈틈도 허용치 않고 안으로는 온 국민이 안심하고 민주화와 선진조국 건설에 전력할 수 있도록 배가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한편 우리가 오늘날 이처럼 자랑스러운 장년공군의 모습을 갖추기까지는 수 많은 사람들의 고귀한 희생이 바탕이 되었음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하늘이 좋아 공군에 입대하여 조국을 위해 봉사하다 뜻을 피우지 못하고 산화하신 호국영령들의 희생과 창군 이래 오늘까지 우리 공군의 발전을 위하여 짧으면 짧은대로 길면 긴대로 청춘을 바쳐 묵묵히 소임을 다하고 전역하신 선·후배 장병 및 수 많은 군무원들의 성실한 땀을 잊을 수 없을 것이며, 또한 분단조국의 아픔을 간직하며 투철한 안보의식 속에 공군의 발전을 기원해 온 국민의 성원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부품 하나 기름 한 방울이 모두 국민의 세금으로 마련된 것인 만큼 티끌만큼의 낭비도 잊어서는 안 되며 호국의 간성으로 국민에게 항상 신뢰받을 수 있는 공군이 되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지금 이 시간에도 필승의 영광방위를 위해 말은 바 소임을 다하는 우리 공군가족 모두의 전투를 빌면서 보라매의 기상이 저 푸른창공을 뚫고 백의 민족이 우주를 지배하게 되는 그날까지 힘차게 전진합시다.

기획특집

建軍 39 周年을

맞는

空軍의 決意



“살신 성인하는 마음”

강 구 영

〈대위, 제3659부대〉

1907年 일제에 의하여 대한제국 군대가 강제해산된 以後, 實로 38년만인 1945年 11월 13일 군정법령 28호로 국방사령부를 설치함으로써 우리 軍의 모체가 되는 조직을 형성하는 감격을 맛보게 되었다. 10月 1日은 國軍의 날이요, 空軍이 창설된 날이다. 올해로 39돌을 맞는 우리 국군은 이제 世界열강들과 어깨를 나란히 겨룰만큼 양적으로, 質的으로 막강한 國軍으로 成長했다.

지난날을 돌이켜보면 우리 국군의 39年史는 祖國과 겨레의 안녕과 질서를 지키기 위한 선도적인 역할을 유감없이 발휘해 온 헌신과 봉임의 발자취로 집약될 수 있다.

해방後, 政府樹立時까지의 혼란하고 위약한 정부를 수호하였고 북괴의 무모한 남침시에도 뜨거운 祖國愛로 民主國權의 말살위기를 굳건히 지켰으며 휴전 이후 혼란을 틈

탄 간단없는 국지도발에서도 단호히 분쇄하였던 것이다.

오늘날 우리 國軍은 세계 유수의 정예강군으로 成長하였으며 한반도의 안보 뿐만아니라 동북 Asia 지역의 安全과 平和에도 크게 기여하는 위용을 자랑하고 있다. 1949年 10월 1일 1천 6백명의 병력과 불과 20여대의 훈련기로 창설된 우리 공군은 오늘날 팬텀기와 F-16을 주력으로 하는 최첨단 공군으로 발전하여 하늘의 불침번으로서 祖國의 領空을 완벽하게 지키고 있다. 第2次 세계대전과 6·25전쟁을 통하여 항공전의 가능성과 전쟁에 있어서 필수 전력으로 확인된 항공전력은 中東戰과 Iran-Iraq戰에서 航空戰力이 전쟁에서 승패를 좌우하는 핵심전력으로 그 위치를 굳히게 되었다.

現代戰은 정밀한 科學무기와 고성능의

기획특집 : 건군 39주년을 맞는 공군의 결의

航空力이 동원됨으로써 전쟁초기에 대세가 판가름되는 속전속결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 전쟁의 승패가 空軍力에 의해서 좌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다. 우리 공군은 바로 이러한 궁지아래 全 장병이 일치단결하여 對北우위의 空軍力 확보에 오늘도 힘차게 매진하고 있는 것이다. 최신에 MiG기를 200여대 앞세우고 북괴 공군이 쳐들어 왔을 때도 우리 공군은 비무장 항공기 22대로 폭탄을 싣고 출격하여 용맹스럽게 북괴에 대항했던 선배 조종사들의 무훈담을 우리는 알고 있다.

美空軍으로부터 MUSTANG 10대를 인수받은 9명의 조종사들은 단 하루동안의 훈련을 받고 곧바로 출격하여 시흥 상공에서 적 탱크와 수송차량 및 보급물자를 격파하고 남하중인 북괴군을 사살하는 첫 전과를 올렸다. 그 후 우리의 선배 조종사들은 전선에 출격, 본격적인 지상군 근접지원작전과 적후방 차단작전을 수행하였으며 1951년 1월 15일의 승호리 철교차단작전과 52년 8월 29일의 평양 대폭격작전은 우리 空軍史에 길이 빛날 큰 업적으로 손꼽히고 있다. 6·25전쟁동안 27명의 전투조종사가 적지상공에서 장렬히 산화하는 희생을 치르기도 했다.

휴전以後 정비期를 맞은 공군은 55年 F-86F와 T-33을 美空軍으로부터 인수받았데

이어 56년에는 F-86F를 추가 인수함으로써 프로펠러時代에서 처음으로 제트時代를 向해 도약하는 기틀을 마련하였다. 70年代 들어와서 전술기의 대량導入과 다양한 전술개발로 전투상비태세를 획기적으로 強化하였다.

이제 건군 38돌을 맞은 우리 공군은 국산전투기 제공호의 대량생산에 이어 F-16의 導入으로 독자적인 작전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戰力을 충분히 확보하였다고 생각된다. 바야흐로 空軍은 명실상부한 自主의 領空防衛時代에 돌입, 모든 장병이 우리의 하늘은 우리의 손으로 지킨다는 높은 自信感과 긍지로 그 어느 때 보다도 용기백배하여 各自의 임무수행에 전념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들의 앞에는 先進祖國을 만들어야 하는 막중한 과업과 88서울 Olympic이라는 큰 行事가 있다. 이런 重要한 시기에 우리 국군, 우리 空軍이 해야 할 일은 모든 장병들이 성실히 복무하고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해야 겠으며 우리 전투조종사들은 살신성인 하는 마음으로 國民을 爲한 군대임을 유감없이 보여주어야겠다.

시간은 우리편이라는 소극적인 미래관은 버려야 하고 우리가 준비하고 努力한 만큼의 댓가가 우리들 앞에 펼쳐진다는 事實을 명심해야 한다. 先進文化民族으로서의 긍지와 자부로 Olympic主權國다운 면모를 보여

기획특집 : 건군 39주년을 맞는 공군의 결의

주어야 겠으며 철저한 領空방위태세로 경계가 미약했던 37年前의 6·25재발을 사전에 분쇄시켜야겠다. 광복 42주년을 보내고 이제 제2의 광복이라할 평화통일을 向해 매진해야 할 이 때 다시 한 번 북괴의 적

화전략, 폭력혁명 전략을 경계하고 民族화합, 民主統一의 그 날을 앞당길 수 있도록 각자가 맡은 바 직분을 충분히 이행해갈 것을 굳게 다짐해야겠다.

“완 전 무 결”

박 충 민

〈대위, 제3975부대〉

세계 제 2 차대전에서 일본이 패망하고 조국이 해방되자 온 겨레는 다시는 외부로부터의 침략으로 나라를 빼앗기는 굴욕을 겪지 않고 우리의 주권을 영원토록 보전하겠다고 굳게 다짐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결의로 주권을 수호하고 민족의 독립을 지키기 위하여 하루속히 충분한 군사력이 갖추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였기에 창군에 대한 열망은 간절했다.

이런 열망속에 창군이 이루어 졌으며 이어서 조국의 영공방위와 현대전에서 공군력의 중요성을 절감하여 드디어 1949년 10월 1일 육·해군에 이어 공군이 독립 탄생하였다.

초창기의 무수한 어려운 환경에서도 선배님들의 투철한 국가관과 사명감으로 이룩된 결실은 지금의 초정밀 전자전의 확고한 초석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동족상잔의 비극인 6·25 사변으로 북괴의 야욕과 잔악성을 통감하였으며 또한 공산당의 실체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교훈이었다. 개전초 북괴는 소련의 전폭적인 지원과 사주를 받아 전투기 211대를 보유하고 우리 상공을 위협하였으나 우리는 L-4, L-5, 연락기 12대와 T-6 전국기 10대로 그들과 맞서 싸웠다. 이런 열세속에서도 우리 공군은 적을 맞아 싸우겠다는 결연한투지로 손으로 폭탄을 투하하여 지상의 적을 섬멸 하였으며 드디어 7월 1일 F-51 전투기 10대를 인도받아 우리 공군의 맹활약과 유엔공군의 참전으로 제공권을 완전 장악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는 장비의 열세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이기겠다는 필승의 신념과 투철한 국가관의 발로였던 것이다. 북괴는 휴전 후 6·25의 패전원인은 제공권의 상실이 가장 치명적

기획특집 : 건군 39주년을 맞는 공군의 결의

이었다는 사실을 통감하고 중공과 소련의 수십대의 최신의 전투기 지원과 과다한 국방지출도 불사하고 제공권 우위의 확보를 위해 발버둥 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 공군도 급격한 경제성장과 고도의 기술축적으로 제공호를 우리 기술진에 의해 생산하여 투입하였고 최첨단의 F-16기 보유로 막강 공군력을 자랑하고 있으며 아직도 남침야욕의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북괴가 어떤 도발을 자행한다 하더라도 도발 즉시 방어개념에서 공격개념으로 즉각 분쇄 한다는 확고한 신념으로 무장되어 있다.

이런 최첨단 과학의 집결체인 전투기 보유와 함께 요구되는 것은 조종사의 우수한 기량과 정신무장이며, 신념이 투철할 때 영공방위의 목표는 달성되는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훌륭한 조종사라도 작전임무 수행시 항공기의 각종 기능이 정상적으로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면 임무를 완벽하게 수행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정비사의 한 사람으로 그 동안의 경험으로 배우고 느낀 것이라면 기계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과 대중이라는 타협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복잡하고 다양한 부품이 정비사의 손을 통해 정확히 만져져서 제각기 기능을 완벽하게 할 때 최첨단 항공기라는 이름에 걸맞게 임무를 100% 완

전하게 수행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연유로 정비사는 항상 고도의 축적된 기술을 습득하여야 하고 중요도를 인식하여 정비지원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겠다는 사명감을 지녀야 한다. 이는 다른 분야의 업무에 비해 더 힘들고 중요성을 강조하여 알아달라는 것이 결코 아니며 모든 정비사들이 그 동안 견뎌온 마음과 굳은 의지와 책임감으로 자신의 일에 묵묵히 일해온 결과로 완벽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 동안의 각종 사고사태의 분석결과도 아주 작은 실수가 원인이 되어 대형사고를 초래한 것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정신이완에서 온 나태와 기계와 타협하려다가 오히려 기계에게 인생을 빼앗긴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정비사는 고가의 정밀부품과 인명까지도 연관된 작업을 수행하므로 항상 T.O에 입각한 작업과 재확인하는 습관을 생활화하고 확고한 신념과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발전하는 공군의 한 일원으로 최대의 노력을 경주하여야 한다. 또한 불철주야 영공방위의 최일선 지원부서로써 자긍심을 가지고 새벽 여명을 가르며 치솟는 전투기의 굉음속에 희망찬 포부를 간직한 채 퇴근길 아름답게 깔린 하늘의 별을 쳐다보며 내꿈도 저별처럼 하늘에 있다는 것을 되새겨 본다.

“웅 장 한 분 열”

송 기 명

〈대위, 공군본부〉

우리에게는 국가의 주권과 민족의 생존권을 수호할 숭고한 의무가 있다.

이제 건군 39주년을 맞게 되고 서울을 위협받을 1년 앞둔 현시점에서 10월에 여의도광장에서 펼쳐질 웅장한 분열을 떠올리며 군인으로서의 우리를 되돌아 본다.

창군 이래 39년!

많은 것이 변했지만 역시 제일 큰 변혁은 무기체계의 현대화라 할 수 있다. 창군 당시 개인화기마저 빈약하고 공용화기나 전차, 전투기도 보유하지 못하고 6·25초 압담한 패주를 거듭했던 우리가 이제는 세계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손색없는 무기체계를 보유하게 되었다.

개인화기 M-16의 생산은 오래전의 일이고, 국산전차, 야포, 발칸포, 한국형 구축함 그리고 국산전투기 제공호의 생산에 이

어 최신에 F-16 전투기를 보유하는 막강 국군이 된 것이다. 더구나 한반도는 세계평화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곳이다. 지정학적 위치로 소련의 팽창주의를 저지하고 동서 세력의 완충지대의 역할에다 중공을 위협하는 소련에게는 목을 겨눈 비수 같은 역할로 동북아 나아가 세계의 평화에 기여하는 것이다. 그러나 군대라고 시대와 장소를 막론하고 다같은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아니다. 즉 침략의 역할을 수행했던 군대와 우리의 국군의 역할을 비교해 보고 싶은 것이다.

과거 남미를 침략하여 원주민을 학살한 스페인군, 세계대전의 참화를 안겨준 독일군, 그리고 현재 캄보디아를 침공 중인 베트남군이나 아프가니스탄의 소련군은 분명 평화의 적이며 그 시대 그 장소에 군복을

기획특집 : 건군 39주년을 맞는 공군의 결의

입고 있음은 하나의 불행이라 볼 수 있다. 그에 비해 대한민국 국군은 크게는 세계평화, 작게는 북한의 침략노선을 저지하며 국토를 수호하는 신성한 역할을 수행하므로 같은 군대, 군인이라 해도 긍지와 자부심에 차이가 있는 것이다.

북한은 해방이후 무력남침이라는 망상을 하루도 버린적이 없으며 이러한 저들의 의지를 관철하기 위해 군사력 증강에 주력하고 우리의 헛점만을 노리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북한의 부당한 침략노선은 세계가 알고, 민족이 알고, 우리 군이 알고 있으므로 결코 이를 수 없으리라.

물론 아직 군사력의 숫적 우세는 북괴에 있다. 기습공격의 잇점까지 감안한다면 지극히 염려스러운 일이다. 더구나 조국영공의 공중감시를 담당하고 있는 방공관제사의 입장에서 볼 때 북의 위협은 그야말로 피부에 와닿는 절실한 문제인 것이다. 북괴는 소련에서 구입한 미그23기 등 최신예기를 이미 오래전에 휴전선 가까운 비행장에 전진배치 시키고 있다. MiG-23이 그들의 기지를 출발하여 우리의 수도상공에 나타나는 시간은 불과 3~5분. 현대전의 특성을 일일이 열거하지 않더라도 전투기에 의한 기습공격이 남침의 첫 신호라는 것을 알고 있다.

따라서 북괴의 마수같은 야욕을 없애기

위해 공중에 의한 적의 도발을 휴전선 이북에서 탐지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적기의 항적을 하나도 빠짐없이 추적해야 한다. 피로한 눈을 비벼가면서 부릅뜨고 레이다 스코프에서 눈을 떼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남침의 저지에 있는 것이다.

현 동북아정세는 변수와 위협요소가 많다. 일본의 재무장 조짐, 중공의 실용화바람, 소련의 팽창주의 등 여러 가지 요소가 어울려 있고 무엇보다 88년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방해하려는 북한의 위협이 있어 우리로 하여금 경제의 눈초리를 한시도 풀지 못하게 한다. 그러나 반만년의 한민족 역사에 많은 나라가 서고 많은 군대가 조직되고 외적을 물리치고 방어하지만 지금처럼 희망찬 미래가 가까이 온적이 없는 것 같다.

88년 올림픽 후 대망의 90년대에 대한민국이 세계의 정치, 경제, 문화, 과학, 종교의 중심지가 되고 남북대화의 장에 북한을 끌어 들여 먼 훗날이라도 통일을 바라 볼 날이 있을 것이다.

아울러 앞으로 군대가 필요없는 평화로운 세상이 올 때까지 또한 내 운명이 인도하는 한 국토를 수호하고, 민족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이 신성한 임무를 자랑스럽게 수행할 것이다.

“철마는 달리고 싶다”

홍 성 범

〈중위, 공군본부〉

“鐵馬는 달리고 싶다”

무성한 잡목수풀 속에 淒然하게 서 있는 늑슬은 기관차의 외마디 絶叫는 아직도 남아 있는 온 국민의 한서린 悲願을 대변해 주고 있다.

철조망에 발을 묶인 채 비바람을 맞으며 35개 星霜을 우뚝서서 북녘땅을 바라보는 鐵馬의 애타는 마음은 우리 자신의 안타까운 심정, 바로 그것일 것이다. 그 鐵馬가 신의주에서 부산까지, 금강산에서 지리산까지 마음껏 달릴 수 있을 때 우리의 悲願은 祝願으로 바뀔 것이다. 우리의 祝願을 위해, 평화통일의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것이 건군 39주년을 맞는 우리의 역사적 사명인 것이다.

10월 1일은 우리 국군이 창설된지 서른 아홉돌을 맞는 국군의 날. 창군 당시 병력,

장비면에서 극히 미비했던 우리 軍은 한세기를 지나는 동안 괄목할만한 成長을 해오면서, 이제는 북괴의 어떠한 侵略挑発도 즉각 격퇴할 수 있는 막강국군의 모습으로 탈바꿈했다.

돌이켜 보면, 국군의 39년사는 창군이래 수많은 逆境과 試鍊을 극복해 온 荆棘의 길이라고 할 수 있다. 오늘의 무적국군은 어려움을 딛고 일어나 자유와 평화를 지키는 護國의 尖兵으로서, 그 사명을 다해 온 값진 결과로 회고된다. 이제 건군 39주년을 맞아 자랑스럽고 영광된 空軍의 발자취를 살펴보고 우리의 각오를 새롭게 다짐해 본다.

1948년 9월 5일.

조선경비대는 육군으로 개편되었고, 11월 30일 국군조직법이 국회에서 인준되었다.

기획특집 : 건군 39주년을 맞는 공군의 결의

당시 전 병력은 장교 1천 4백여명, 사병 4만 9천 87명에 불과했으며, 장비는 주로 일본군이 남기고 간 99식소총과 미군의 철수시 인계받은 M1소총이 고작이었다.

공군은 육군에 예속되어 1개의 航空軍으로 시작, 49년 10월 1일 1천 6백여명의 병력과 20대의 연락기를 가지고 육군에서 분리, 조국의 영공을 수호하는 막중한 임무를 맡게 되었다. 이렇게 독립된 공군은 육군항공사관학교를 공군사관학교로, 비행부대는 공군비행단, 항공기지부대는 항공사령부, 항공사령부의무처는 공군병원으로 각각 개편하여 기구를 정비하였다. '50년 3월에는 국민의 헌납금으로 마련된 "T-6기" 10대를 구입했으며, 5월 14일에는 여의도기지에서 "建国機"라 칭하는 命名式을 가졌다.

'48년 8월 15일 정부수립에 뒤이어 9월 9일 김일성은 북괴정권수립을 선포하고 "승리는 저절로 오지 않으며 반드시 쟁취해야 한다"라는 연설과 함께 남침준비에 광분하기 시작했다. 당시 미군의 對韓軍事政策은 소련의 적극적인 侵略政策에 비하여 극동방위선에서 한국을 제외한다는 50년 1월 12일의 발표 등 한국의 위치적 가치를 誤判함으로써, 북괴로 하여금 침략의 여지를 만들어 놓았다.

마침내 50년 6월 25일 새벽 4시, 북괴는 국군의 수배에 달하는 많은 병력과 각

종 포, 전차, 그리고 국군의 10배가 넘는 항공기로 不法南侵을 해왔다. 북괴의 기습 남침으로 전쟁이 시작되었을 때 북괴는 200여대의 항공기를 보유한 반면, 우리 공군은 비무장훈련기 22대 뿐이었다. 무장이라고는 육군병기창에서 시험 제작한 15kg폭탄 2백 74개와, 수류탄 5백여개에 불과했다.

그러나 우리 空軍飛行隊는 T-6 建国機에 폭탄과 수류탄을 싣고 출격, 적전차와 수송차량, 북괴지상군에게 目測投下하는 등 북괴군의 南侵을 필사적으로 저지하였다.

'50년 7월, 美空軍으로부터 "무스탕" 기 10대를 인수받아 空軍史上 최초로 4機編隊가 출격하고, 북괴군을 섬멸하는 戰果를 올렸다. 특히 美軍이 5백회 이상 출격하고도 폭파하지 못했던 난공불락의 "승호리철교"를 우리 공군이 단 2차례의 공격으로 폭파해버린 戰果는 평양대폭격작전과 함께 우리 空軍戰史에서 찬연히 빛나는 戰果로 후배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다.

이제 건군 39주년을 맞는 우리 空軍은 우리 손으로 만든 전투기 "制空号"가 양산됨에 따라 자주적 영공방위시대에 돌입했으며, "F-16필승보라매" 전폭기로 制空權確保에 自身感和 矜持로 임무를 완수하고 있다. 또한 조기경보체제를 自動化시켜 대량 요격능력을 확보함은 물론, 물샴틈 없는 조기공중감시체제 및 요격체제를 확보하고

기획특집 : 건군 39주년을 맞는 공군의 결의

있다.

이렇게 막강위용의 空軍이 있기까지는 적진 깊숙이 불타는 愛機와 함께 고성상공에서 자폭한 故 임택순 대위, 시흥상공에서 “조국의 하늘을 부탁한다”라는 한 마디 말을 남기고, 流星처럼 散華한 故 이근석 장군, 그리고 월비산적전에 장렬히 자폭한 김현일 중위 등 수많은 우리의 선배들이 흘린 값진 피와 뜨거운 民族魂의 덕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러나 건군 39주년을 맞아 우리에게 있어서 정작 필요한 것은 建軍紀念의 祝杯가 아니라, 더욱 발전되고 더욱 막강한 空軍을 만들기 위한 跳躍의 轉換點을 구축하는 것이다.

지금 우리는 民族의 跳躍과 雄飛를 위한 출발선상에 서 있다. 폐허속에서 이룩한 經濟的 奇蹟뿐 아니라, 政治的 民主化와 함께 先進韓國의 일대장정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소련의 팽창주의에 편승한 북괴는 소련과의 밀착을 加速化하는 가운데 SCUD-B미사일, SS-20미사일, MiG-23 등 각종 최신에 전쟁장비는 물론, 「사린」화학탄 등 치명적인 각종 화학무기로 무장한 가운데 김일성의 전쟁교시를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다.

아울러 대통령선거와 개헌정국에 편승 우리의 국론분열과 사회혼란 조장, 그리고 대

공경각심의 解弛를 노리는 한편 군축협상제의, 88서울올림픽의 남북한 공동개최요구 등 위장평화공세를 획책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적화통일야욕에 광분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건군 39주년을 맞는 오늘의 시점에서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과연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하는 당위성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동족의 피가 뿌려졌던 이 강산, 우리 조국에 다시는 피 한 방울이라도 다시 스며들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과 조국의 무궁한 발전을 위해서는 자신들의 땀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저기에는 훈련의 땀과 국가와 민족의 영원함을 保存해야 한다는 자랑스러운 命題가 우리 모두의 가슴속에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5천년동안 아시아대륙의 주변부에 자리잡고 있으면서 우리는 931회의 침략을 당해 왔다. 혹자는 이러한 이유를 대륙과 바다를 잇는 통로에 자리잡고 있기 때문에 운명적으로 외세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는 “地政學的 運命論”으로 돌린다.

그러나 잘 생각해 보면, 이것은 敗者의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 일본이 적당한 힘을 갖추기 전까지는 감히 우리의 바닷가를 범접하는 일이 없었다. 오히려 禮를 갖추어 가르침을 청하고 우리의 文物을 수입해가는 왜족들에 불과했다. 또 고구려가 번성했을 때 우리의 국경선은 까마득한 북쪽땅 요동

기획특집 : 건군 39주년을 맞는 공군의 결의

까지 뺏치고 살수대첩 등 중국을 상대로 당당하게 일전을 겨루어 승리를 거두기도 하였다.

1944년에 발표한 미국의 國防白書에는 이러한 귀절이 있다.

“한반도는 일본의 심장을 찌르는 비수와도 같고, 중국의 머리를 내리치는 해머와도 같다”

그렇다. 이제는 비수가 되고 해머가 되어야 한다. 히틀러가 스위스 침공을 포기하고, 거대한 아랍국가가 이스라엘을 감히 견드리지 못하는 것처럼 国力을 伸張시켜야 한다.

“힘이 적으면 적게 이루고, 힘이 크면 크게 이루고 힘이 없으면 하나도 이룰 수 없다”는 도산 안창호 선생의 말처럼, 우리는 自力으로 어떠한 敵도 분쇄시킬 수 있는 강력한 安保力量을 結集해야 한다.

古今을 통하여 힘이 없고 용기가 부족한 國民은 亡國의 비극을 겪게 되고 歷史의 노예로 轉落하였다. 그러기에 힘이 없는 곳에 自由가 있을 수 없고, 강력한 軍事力이 없는 곳에 平和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이제 우리도 땀땀하게 국제사회에서 가슴을 펼 수 있도록 자립의 강인한 意志를 다지며, 자위능력이 바로 自由國民의 자격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民族自存의 투철한 使命感

을 바탕으로 한 必勝의 精神戰力을 함양해야 한다.

1952년 1월 15일, 06시 30분 강릉기지. 작전회식 벽두, 제 1 전투비행단장 장덕창준장이 말을 열었다.

“미제 5 공군측에서 승호리철교를 폭파해 달라는 요청이 정식으로 통보되었다. 본단은 오늘을 기하여 승호리철교의 폭파작전을 감행하려 한다”

우뢰와 같은 박수소리가 일어났다. 이번에는 제10전투비행전대장 김신대령이 몸을 일으켰다.

“방금 단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비행전대는 오늘부터 막중한 작전을 수행하게 되었다. 제관들도 잘 아는 바와 같이 이 목표는 美空軍이 연500회나 출격했으면서도 성공치 못한 상대다. 그러나 美空軍이 하지 못한 것이니 우리도 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장비면에서 현대공군의 最尖端이지만 美空軍이 실패한 근본원인은 단 한 가지가 부족하다……” 김신대령은 일단 말을 멈추었다. “본관은 이렇게 생각한다. 미공군 조종사들에게는 決死의 覚悟가 없었다는 것이다. 죽음을 각오하고, 목숨을 걸고, 기필코 폭파하겠다는 使命感이 없었던 것이다.

하지만 우리에게서 그 使命感이 있다. 비록 세이버전투기가 아닌 무스탕기이지만

기획특집 : 건군 39주년을 맞는 공군의 결의

죽음을 각오하고 돌입해 나갈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러므로 成功을 自信하는 것이다...”

使命感과 責任意識은 必勝의 精神力에 필요한 제일의 要素라 할 수 있다. 이제 많은 수의 戰後世代가 軍에 入隊하고 있으며 社會의 中樞的 役割을 담당하기 시작했다. 어른들이 어려운 시절을 이야기 할 때 “쌀이 없으면 라면을 먹고, 라면이 없으면 빵을 먹지” 하는 사고방식으로는 투철한 使命感이 나올 수가 없다. 왜냐하면 使命感은 바로 忍耐와 克服속에서 달려되고 커지기 때문이다. 祖國과 民族앞에 겸손해 지자. 그리고 푸른 제복의 강인한 투혼을 이어 나가자.

反共의 자장가를 들으며 발걸음을 하기

시작한 우리 軍은 공산주의의 침략과 포성 속에서 뼈를 굳혔고, 장년으로 성장하고 있다. 이제 39세, 不惑의 나이를 앞둔 장년으로 성장했다. 그간 월남의 자유수호전선에서 귀중한 경험을 쌓으면서 反共의 尖兵으로서 또한 現代戰의 寵兒로서 이제 세계에서 막강을 자랑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오늘에 빛나는 막강공군의 전통을 계승하고 이어 나가기 위해서는 부단한 연구와 精進이 필요하며, 명실상부한 기술공군의 명예를 위해서 각고의 노력이 뒤따라야 하겠다.

建軍 39週年을 맞는 이 시점에서, 다같이 空軍의 決意를 힘차게 외쳐보자!

1. 序 論

經濟와 勞使關係



金 榮 培

(勞動經濟研究院, 首席研究員)

略 歷 : 1979 中央大 卒
 1981 經總調查部 勤務
 1986 美 Georgia大學 經濟學博士
 現在 韓國經總 부설
 勞動經濟研究院 首席研究員

하나의 商品을 生産하기 위하여는 勞動과 資本, 그리고 經營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물론 과거에는 一般的으로 勞動과 資本, 그리고 土地 등이 要求된다고 定義되던 때 도 있었으나 現代인 概念으로는 土地 등 도 一定한 資本의 概念으로 吸收하여 勞動과 資本, 그리고 經營技術로 정의한다. 아무리 좋은 勞動과 資本이 있어도 훌륭한 企業經營의 技術이 없이는 生産活動의 유지 확대가 不可能하다는 前提 하에 最近 새로운 生産要素의 하나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 바로 經營技術이다.

이러한 生産要素들은 서로 結合하여 商品이 되고 이 商品이 市場에 供給되어 消費者에게 전달됨으로써 企業은 收益을 가지게 되고 이 收益에서 生産活動에 기여한 生産要素들, 즉 노동과 資本에 대한 代價인 임금과 利子 등의 費用을 제하고 特定 利潤을 남기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企業이 노력하는 과정은 原料의 확보, 人力의 확보 및 관리, 판매로의 확보, 자금관리, 생산관리 등의 여러 가지 部門이 있는데 그 중에서 특히 勞動이라는 生産要素에 대한 企業家와의 關係를 우리는 個別企業次元의 勞使關係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勞使關係는 國家經濟와 어떠한 關係에 있으며 어떠한 經路를 통하

여, 그리고 어떻게 확립되고 어떠한 方向으로 나아가야 하며 그 主要 이슈는 무엇인가 하는 문제를 놓고 여기서 論議하고자 한다.

2. 勞動市場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企業이 生産한 商品을 消費者에게 판매하고 반대로 消費者가 이 商品을 購入하기 위해 企業과 만나는 곳 또는 그 過程을 우리는 生産物市場이라 부르며 企業이 오히려 消費者 立場에서 生産에 必要한 原材料와 勞動을 구입하기 위하여 그러한 原材料와 勞動을 팔 사람과 만나는 곳을 要素市場이라 부른다. 그러나 여러 가지 要素市場中에서 企業生産에 必要한 原材料의 要素市場은 한 企業의 商品을 다른 企業이 原材料로 사용하는 수가 많음을 감안할 때 앞에서 言及한 生産物市場과 크게 다를 바는 없으나 勞動에 관한 要素市場 만큼은 形態나 性格面에서 特異하게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勞動市場이라고 부른다.

이러한 勞動市場에서 勞動을 供給하는 個人들과 勞動을 需要하는 企業들 間에 賃金を 놓고 계약을 맺게 되는 것이다. 근로자가 요구하는 임금과 기업이 제시하는 임금이 일치하는 수준에서 임금이 결정되면 그 임금에서 일할려는 사람들은 모두 雇傭될 것이다. 따라서 과거 우리나라와 같이 일할려는 사람이 일자리보다 많았던 때에는 賃金水準이 낮을 수밖에 없었고 선진국과 같이 일자리가 일할려는 사람보다 많은 경우

에는 賃금이 높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따라서 낮은 賃金を 가진 나라는 높은 賃金を 가진 나라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싼 勞動을 더 많이 이용하게 되고 高賃金國家는 低賃金國家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싼 勞動을 덜 이용하게 된다.

이런 경우 前者, 즉 低賃金國家의 産業은 勞動集約的인 形態를 띠게 되고 高賃金國家는 資本集約的인 形態를 띠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低賃金國家에서는 勞動을 많이 必要로 하는 제품을 값싸게 많이 공급할 것이고 高賃金國家에서는 資本을 많이 必要로 하는 製品을 상대적으로 값싸게 많이 공급할 것이다.

과거 우리나라는(지금도 어느 정도 그렇지만) 섬유제품이나 신발, 가발, 수산물 등을 많이 수출하였는데 그것은 이러한 제품이 한국에서 생산되는 것이 더욱 값이 싸므로 外國의 立場에서는 수입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나 점점 이러한 노동집약적인 商品을 우리가 수출하다보니 貿易으로부터 많은 利益이 생기게 되고 그로부터 國民의 소득이 상승하게 되면 人件費도 점차 올라가고 産業이 發展하게 되니 失業도 줄어들고 많았던 노동공급도 서서히 줄어들게 되었던 것이 우리나라의 '70年代 後半이었다. 따라서 지나치게 값싼 노동을 많이 使用하는 業種들은 Oil파동이 오면서 문을 닫게 되었고 점차 資本集約的인 産業들이 우리나라에서도 발전하게 된 것이다.

과거 우리나라는 사실 해방이후 産業資本

이란 것이 全無한 형편이었으며 産業育成을 위해 필요한 資本의 蓄積은 그 당시 가장 절실한 問題였던 것이다. 따라서 海外的 資本을 겨우 빌려서 出資하다시피한 우리의 低賃産業이 지금 이 정도로 育成된 것은 괄목할만한 것이라 할 수 있다. '60年代初 日本이 美国에 가장 많이 수출하던 제품들이 양말, 옷, 지팡이, 파리지 등 형편없었던 제품이었던 것을 생각해 볼 때 지금 우리 産業의 위치는 가히 자랑스럽다 할만하다.

흔히 一部에서는 우리 産業이 低賃에 의존해서 성장한 産業이었다는 自省내지 批判의 소리가 있으나 그 당시 짠 것은 賃金만이 아니었다. 經營技術도 싸고 국내 原材料도 싸고 모든 것이 싼었다. 다만 外國에서 関心을 가지고 購入해 준 것은 低價商品 뿐이었다. 그렇다면 이러한 賃金은 도대체 무엇인가? 왜 使用者와 勤勞者는 이러한 賃金を 놓고 対立을 벌이는 것일까? 그러나 이러한 対立은 資本主義 世界에서는 必然的인 것이며 가장 自然스러운 것인지 모른다. 더구나 각 集團이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 의사를 表現한다는 것은 굳이 対立이라는 用語보다는 절충이라는 意味가 더 適合한지 모른다. 따라서 勞動을 供給하는 자와 需要하는 者 사이에는 一次契約과 二次契約이 있다.

一次契約이란 처음으로 社에 入社할 때의 契約이고, 二次契約이란 社內에서 每年 契約의 환경내지 條件이 變하였다고 가정하고 使用者와 새로운 契約을 체결하는

것이다.

3. 賃金과 그 決定過程

앞에서 一般的으로 賃金은 使用者와 勤勞者 사이에서만 決定된다고 언급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賃金水準의 決定은 絶對水準의 決定과 引上率의 決定으로 나눌 수 있다.

특히 이러한 水準의 決定에는 勞·使 当事者만이 아니고 政治·社会·經濟的인 모든 要素들이 여러 가지 形態로 介入하게 된다. 여기에 관련하는 各集團의 立場을 보면 참 흥미로운 것임을 알 수 있다. 즉 賃金水準 자체는 노동수급에 의해 均衡水準에서 決定된다고 치더라도 每年 타결되는 賃金引上率의 決定에 관해서는 각 集團이 다양한 立場을 보이고 있다. 즉 勤勞者는 적어도 生計費는 保障되는 賃金水準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일정 가족수가 영위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생계수준을 비용항목별로 계산하여 여기에다 매년 物價水準을 감안한 實質費用을 고려한 賃金水準까지 引上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使用者側은 企業의 支払能力을 초월해서 人件費를 支払한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기존 근로자들에게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주장하고 적어도 企業의 재무구조상 自己資本의 比率이나 利益水準 등을 고려하여 決定하여야 하며 특히 勤勞者의 기여도가 높은 경우에는 1人當 生産量의 증가로 측정되는 勞動生産性的의 上昇分을 고려하여 賃金

水準을 決定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雇傭關聯當局은 과거 勞動供給이 勞動需要보다 많아 특히 人口의 增加와 農村 人口의 都市移動으로 失業이 급증하였을 때에는 가장 重要한 것이 人件費의 上昇보다 雇傭機會의 擴大였으며 아직도 몇몇 部門에서는 失業이 높고 특히 勞動供給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人件費의 지나친 상승은 雇傭 機會의 감소를 가져 오므로 賃金은 무리하게 인상되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전지하고 있다.

그렇다면 物價當局의 立場은 어떠한가? 勤勞者는 職場에서는 勞動의 대가로 所得을 획득하지만 家庭으로 돌아가면 消費者의 立場이 된다는 論理下에 지나친 賃金上昇은 物價의 上昇을 유발하여 궁극적으로 그 效果가 근로자에게 상당부분이 損害로 돌아간다고 物價當局은 주장하고 있으며 특히 이러한 物價上昇은 生産을 위축시키고 서민생활을 위협하기 때문에 賃金의 지나친 上昇은 이롭지 못하다고 논리를 전개하고 있다.

그렇다면 輸出入을 담당하고 있는 貿易政策當局의 立場은 어떠한가? 우리나라가 과거에 수출을 시작할 수 있었던 것은 人件費가 저렴했기 때문이며 특히 外國企業들이 국내에 진출하여 合作工場을 설립하여 생산한 제품을 전부 자기나라로 가져 가서 파는 등의 수동적인 輸出도 상당부분을 차지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점차 우리나라가 貿易으로부터 이익이 증가하고 外國의 技術을 터득하게 되면서 소득이 상승하고 국민

생활의 物的 精神的 水準이 向上되면서 人件費(賃金)의 引上에 대한 要求가 커가고 있으나 이러한 賃金의 引上속도는 低賃에 의존해서 수출하는 우리나라의 제품이 高品質에 의해서(외국보다 우수한 제품으로) 수출할 수 있는 여건으로 변화하는 속도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좋은 품질의 제품을 수출할 수 있을 때 임금 인상은 부드럽게 해결될 것이라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福祉政策을 추진하는 行政當局의 立場은 어떠한가? 잘사는 層이 증가하고 國民의 所得水準이 上昇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高所得계층의 소득은 계속 상승하고 低所得계층의 소득은 제자리에 머무는 가운데 經濟가 成長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政府는 最低賃金制의 실시라든지 의료보험의 확대, 국민연금제의 도입 등으로 기업에게는 人件費로 인한 支出이 증가하는 것과 비슷한 부담을 지도록하고 반면 低所得 근로자들을 보호할 여러 정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賃金引上에 대하여 社會의 부분별로 또 政府內에서도 다양한 의견과 주장이 存在하여 이러한 주장들이 그 때 그 때 상황에 맞추어 조화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정부라고 무작정 特定集團을 옹호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많은 요소들과 함께 다양한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위와 같은 여러 要素들이 個別 企業次元에서, 개별 근로자 차원에서 또는 국가차원에서 한꺼번에 고려되면서 賃金의 引上幅이

毎年 決定되어 나가는 것이다.

특히 이러한 賃金は 보는 層의 立場에 따라 개념에 차이가 있게 된다. 즉 使用者 側面에서는 임금을 노동의 대가에 따른 지급분과 그 외의 근로자에게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격려차원에서 추가로 주는 지급분으로 대별하여 보는 반면 근로자들은 임금을 기본 생활의 유지에 필요한 생계비적인 임금과 그것을 충족시키고 남아서 저축할 수 있는 저축성 임금으로 나누어서 생각하고 있다.

반면 회사 내에서 사용자의 입장을 대변하여 생산근로자를 감독하는 관리자 측면에서는 임금을 보는 시각이 일반근로자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것이다. 이들은 사용자의 입장을 대변하는 한면이 있는 반면 다른 한편으로는 使用者로부터 임금을 받는 근로자라는 입장이 있으므로 임금인상이나 임금의 결정에 자본가와 근로자의 입장을 동시에 고려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勞使紛糾의 발생시에도 이를 완충시킬 수 있고 또 事前에 해결할 수 있는 能力을 가진 집단이 이러한 管理者들이므로 그 役割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크다.

어떤 회사의 경우 賃金を 낮게 지급했더니 이상하게 돈이 더 많이 나간다는 의견이 있어 살펴보았더니 월급명목으로 지급되지 않는 여러 가지 要因들, 즉 교통비 식권등의 비급여적 지출 내지 복리비용이 급격하게 증가하더라는 뒷얘기도 있다. 따라서 이러한 관리자 측면에서 근로자를 컨트롤하면서 자기 만족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관리임금이

란 것이 최근 새로 등장하는 임금의 개념이다. 이러한 임금의 인상률을 결정하는 데도 주는측과 받는측의 입장은 상이하다. 근로자측은 전년도의 회사 영업실적을 기준으로 신년도 임금인상률을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기업의 사용주는 이와 달리 신년도 예상목표와 경기전망을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즉 지급되는 임금은 해당기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이므로 임금의 인상을 위한 조정은 그해에 예상되는 기업의 매출을 감안하여 즉 경기 전망에 따라 결정하여 지급하되 年末에 나타난 예상외의 실적은 특별급여의 幅을 통하여 다시 해결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작년에 불황이었다고 올해 임금을 깎을 수 없듯이 작년에 호황이었다고 올해 불황이 예상되는 상태에서 어떻게 임금을 많이 줄 수 있겠냐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임금인상조정은 재원의 측면에서 볼 때 전년도의 실적치도 신년의 임금조정, 중요한 변수가 되는 주지의 사실이고 또 신년의 경기전망을 무시하고 임금을 무작정 올려줄 수도 없어 양자의 견해는 어떤 조화를 이루는 구체적 대안이 마련되어야지 무작정 자기 주장을 중심으로 극단적인 논리를 펴기에는 분명히 무리가 있다.

4. 勤勞者와 勞動組合

勤勞者들은 使用者에 대하여 個別的으로

대등한 위치를 확보하기가 곤란하며 때로는 그 불만사항이나 要求사항이 많고 다양한 경우가 많아 그들의 창구를 일원화하고 사용자와 대등한 관계를 확보하기 위하여 勞動組合을 결성할 수 있다. 조합원 30名이상 또는 전체종업원 $\frac{1}{5}$ 이상으로 조직이 가능한 노동조합은 그 대표를 통하여 근로조건이나 기타 임금 등 제반 이익이나 권리와 관계되는 사항을 중심으로 사용자와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따라서 근로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노동조합은 그 조합원을 구성하여 구체적으로 사용자와 모든 조항을 중심으로 협의하고 불만을 처리할 수 있다. 이러한 노조의 조직과 그 활동에 대하여 美國의 경우 크게 상반된 견해가 존재한다. 특히 신고전학과 경제학자들의 경우 기본적으로 자유경제체제를 표방하고 어떤 경우이든 모든 경제주체의 이익은 가격기구에 의해 최대한으로 달성될 수 있으며 勞動組合의 등장은 일반적으로 勞動의 供給을 독점함으로써 자유경쟁하의 가격기구를 왜곡시켜 經濟에 不作用을 초래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最近 신고전학과의 거두 밀턴 프리드만 교수는 노조가 조합원의 임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반면 노조로 인하여 임금이 인상된 기업은 되도록 사람을 덜 쓰려고 함으로써 雇傭이 감소되고 이러한 기업들에 고용되지 못한 사람들이 노조가 없는 기업으로 몰려가 그쪽 기업에 노동공급을 증가시킴으로써 오히려 노조가 없는 기업의 임금을 떨어뜨리게 되어서 노

조가 있는 기업과 없는 기업의 임금 격차만 가속화하게 된다고 주장하면서 노조의 사회, 경제적 불이익 현상을 강조하는 편이다. 반면 하버드대학의 프리드만교수나 매도프교수 같은 이들은 프리드만교수의 주장을 반박하고 노조란 노동의 독점으로 가격기구를 왜곡시켜 경제적 손실을 주는 것은 인정하지만 노조가 존재함으로써 근로자들이 대표를 통하여 그 때 그 때 불만을 해소시키고 그들의 충지를 모우면서 생산활동에 종사함으로써 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集團意思反映의 經濟的 利益이 앞에서 설명한 독점효과의 경제적 손실을 감당하고도 남을 정도로 크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양측의 견해를 종합해 보면 두 가지 相反된 효과는 모두 인정할 수 있으며 다만 어느 효과가 더 큰지 알기란 불가능할 따름이다. 다만 노조가 비노조원의 희생과 효율적인 경제의 기능감소 하에서 조합원의 이익에만 치중한다는 비난도 사실이고 다른 한편 노조가 조합원의 이익증대와 함께 생산성의 향상, 그리고 사회 정치적 안정에도 기여한다는 옹호론도 분명 사실이다.

중요한 것은 노조가 활동하면서 정말 효율적으로 조합원의 이익을 대변하고 기업내부 문제의 해결에서 어떻게 긍정적인 역할을 해줄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외국의 경우에도 그러하듯이 철도노조의 경우 지나치게 잦은 파업으로 서민들이 출·퇴근에 큰 불편을 겪게 되자 그러한 파업을 규제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더 필요하다는 여

론이 등장하여 서서히 의회가 이에 개입하게 된적도 있다. 따라서 勞組의 쟁의방법과 그 강도는 사회 내에서 大衆의 여과기를 거치게 되어 있는 것이다.

사실 英國의 경우 노동자의 天國이라 불릴 정도로 노동운동이 활발하였으나 보수당의 대처수상이 등장한 후 약 6年間に 걸쳐 3단계로 점진적 노동관계법의 개선이 이루어지면서 노조가 파업을 하기 위해서는 자체 내에서 사전에 투표를 하도록 하는 등 대폭적인 개편이 있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제 출발하는 단계에 있는만큼 사회적 충격을 고려하여 勞組活動도 지나친 시행착오를 겪어서는 안 될 것이다. 성숙된 서구 여러 나라의 경우 노조의 대표가 사용자와의 투쟁 그 자체보다 무엇을 더 얻어낼 것인가에 관심이 큰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우리 근로자들도 상당히 참조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勞組의 조합원과 비조합원의 문제에 대하여 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勞組代表들은 한 기업내에서 해당 근로자는 전부 노조에 가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노조조합원이 조합비를 내면서 노조의 활동을 통하여 얻은 이익을 비조합원들이 같이 향유한다는 불합리성과 비조합원들 때문에 노조의 정상적 활동내지 단결이 어렵다는 사실 때문이다.

따라서 외국에서도 기업에 취업하려면 반드시 노조의 조합원이어야 한다는 클로스드·샐제도나 취업 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노조

에 가입할 것을 의무로 하는 유니온·샐제도를 주장하는 반면 사용자측은 오히려 오픈·샐제도를 주장하고 있다. 오픈·샐제도란 노조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취업할 수 있는 제도로서 누구나 자유의사로 일을 할 권리가 있으므로 취업에 있어서 제도적 법적 간섭을 받을 이유가 존재할 수 없다는 논리에서 나온 것이다.

이에 대하여 사용자와 근로자들의 이러한 주장을 혼합하여 나온 것이 에이젠시·샐제도나 프리퍼런스·샐제도이다. 에이젠시·샐제도란 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도 조합비는 계속 내게 함으로써 양측 견해를 혼합한 것이고 프리퍼런스·샐은 채용시 조합원을 우선 채용토록 혜택을 주는 것이다.

이외에도 메인터넌스·샐이란 것이 있어서 勞組加入 여부와 관계없이 취업할 수 있되 취업 후 일단 노조에 加入하게 되면 그 직장에 있는한은 勞組를 탈퇴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제도의 유형에 따라 노조의 조직과 활동은 큰 영향을 받을 것임에는 틀림없지만 근로자의 자유의사도 존중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조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은 두말할 나위 없다. 어떻든 특정 형태의 노조 하에서 근로자들은 그들의 의견을 잘 수렴하여야 하며 우리나라의 경우 오픈·샐제도를 견지하고 있는만큼 건전한 노조로 육성될 수 있게끔 많은 사람들이 이끌어 주어야 할 것이다. 외국의 경우 노동조합이 지나치게 정치에 개입함으로써 오히려 조합원의 이익보다 몇몇 리더의 이익에

치중하는 경우도 있고 조합원의 공금을 관리하다 보니 부정이 개입될 소지가 커서 문제화되는 경우 또는 소수 지도급 대표들의 안이한 사고방식이 여타 근로자들의 위화감을 조성하는 등 그 부작용도 많은 만큼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아직 그와같은 부작용은 발견되지 않지만 앞으로 노조가 발전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될 것이다.

5. 勞使協調의 바탕과 과제

한 기업체 내에서 사용자는 근로자와 社内의 關心事項을 서로 의논하고 협의할 수 있으며 근로자는 노조를 조직한 후 대표자를 통하여 또는 勞組가 없으면 勞使協議會를 통하여 그들의 의사를 전달할 수 있다. 특히 노조가 있는 기업들은 사용자측과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파업이라는 마지막 수단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파업은 사용자에게 막대한 재정적 손실을 주게 되고 근로자는 그 동안의 임금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평균적으로 볼 때 근로자 1인이 하루 파업하게 되면 10만원의 손실이 발생하게 되는 점을 감안한다면 사용자는 좀 더 적극적으로 근로자를 관리하

고 분규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주력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社內의 여러 가지 사정을 관리자가 일반 근로자에게 정확히 전달함으로써 근로자들의 이해와 협조를 구할 수 있어야 하고 근로자들은 社의 실정을 무시하고 他企業의 경우를 남용하여 사용자에게 요구하는 관행을 없애야 할 것이다.

항상 근로자들은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낮은 임금으로 성장했다고 주장하지만 분명히 임금이 낮았기 때문에 실업자가 많이 고용되었던 것도 사실이고 그런 차원에서 기업의 공과가 없었던 것도 아니다. 반면 기업가의 입장에서는 반드시 근로자들을 생산시설의 일부로 생각하는 관념을 버리고 사업의 동반자라는 인식하에 人間的으로 존중해주는 자세가 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 최근 태풍의 피해가 있었던 一部 企業의 근로자들이 여름휴가를 반납하고 회사의 피해를 극소화시키는데 앞장서 일했던 사실은 정말 뿌듯한 것이 아닐 수 없다.

우리나라의 경우 勞使가 協調하고 妥協한 經驗이 不足하여 시행착오도 많았지만 반드시 個別社의 經營狀態를 中心으로 勞使가 自律的인 해결책을 도모한다면 머지않아 安定된 經濟를 달성할 수 있고 그러한 가운데 成長도 계속할 수 있을 것이다.

논 단

우리나라의 領空

— 航空 / 宇宙法的 考察 —

辛 聖 煥

(소령·공군대학)

目 次

◎ 序

I. 우리나라의 空域

- FIR
- KADIZ
- 領 空

II. 우리나라 영공의 범위

- 수평적 범위
- 수직적 범위

III. 우리나라 領空侵犯과 武器使用의 限界

- 領空侵犯의 종류
- 領空侵犯 措置의 現況과 慣行
- 우리나라의 領空侵犯과 武器使用의 限界

◎ 結

◎ 序

우리 空軍은 祖国 領空守護의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보다 완벽한 領空守護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領空에 관한 國際法的 考察이 필요하다.

- 領空이란 무엇인가? 즉 領空의 法的地位란 무엇인가?

- 空域에 있어서 FIR과 KADIZ는 무엇이며, 특히 KADIZ는 어떤 法的인 地位에 있는가?

- 領空의 범위는 어디까지이며, 서해 5도 주변해역의 法的地位는 무엇이며, 대한 해협과 제주해협에 있어서 領空의 범위는 어떠한가?

- 領空과 宇宙와의 한계는 어디인가?

- 領空侵犯에 대한 조치에 대한 國際慣行과 現況은 어떠한가?

- 領空, KADIZ 侵犯時 武器使用의 限界는 國際法上 어떠한가?

이상과 같은 문제점들이 領空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위해 제기될 수 있다.

本文에서는 I. 우리나라의 空域, II. 우리나라 領空의 범위, III. 우리나라 領空侵犯과 武器使用의 限界에 대하여 要約하여 서술하였다.

아울러 本文은 단지 本人의 個人的인 見解이며, 현재 작성 중에 있는 '우리나라의 領空'의 論文에서 略하여 서술하였다. 특히 우리나라 領空侵犯과 武器使用의 限界는

政策的으로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

I. 우리나라의 空域(FIR, KADIZ, 領空)

1. 비행정보구역(FIR : Flying Information Region)

비행정보구역(FIR)이란 해당 정부나 관련기관이 책임을 지고, 모든 民航機나 국가 항공기가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항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항공정보를 제공하고, 항공교통관제를 실시하며, 조난 항공기에 대한 탐색, 구조지원을 하기 위한 구역으로서 인접한 당사국 간의 協定에 의해 설정되며 UN 산하 기구인 國際民間航空機構(ICAO :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대구 FIR은 원래 우리나라의 空域을 포함하고 있던 동경 FIR로부터 독립할 것을 1959. 5. 10에 ICAO 임시 태평양지역 항공회의에서 案으로 제기하였으며, 1963. 4. 10에 ICAO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서 1963. 5. 9부터 한국의 대구 FIR이 유효하게 되었다.

2. 방공식별구역(ADIZ : Air Defence Identification Zone)

가. 외국에 있어서 ADIZ 운영의 현황¹⁾

(1) 美国 : 美国政府는 1950. 12. 행정명령에서 國家의 安全을 위하여 美国의 領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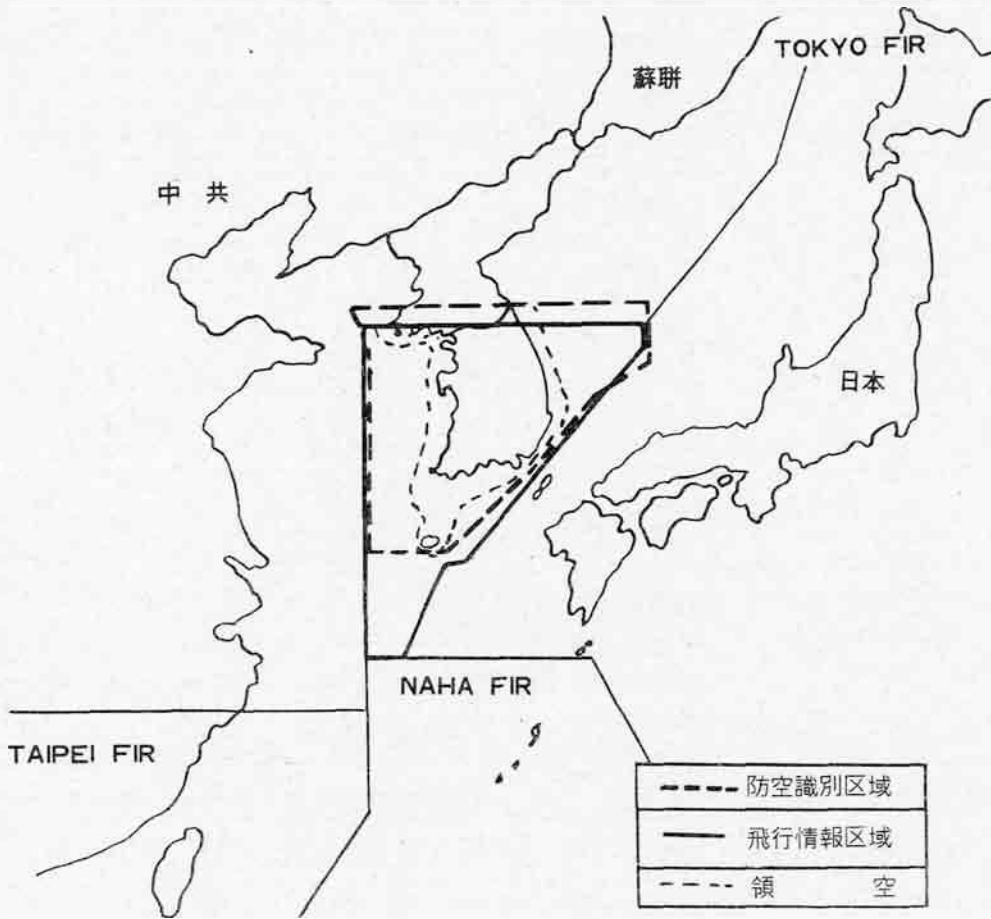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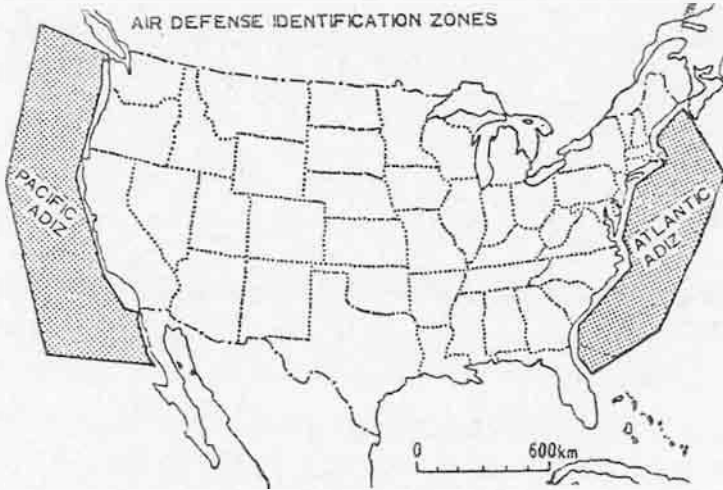
그림 1. 한국의 공역

上空에 관할권을 가질 것을 선언하였으며, 國家의 安全을 위해 民間航空局長이 ADIZ로서 지정하는 구역 내를 비행하는 美國 및 타국의 항공기를 식별하고, 위치선정을 하며, 관제하는 일이 필요하다는 目的으로 만들어졌다.

이 規定은 또한 美國 항공기이거나 외국의 항공기이거나 불문하고 모든 항공기는 美國의 ADIZ 內에 들어오기 전에 適當한

항공관계 부서에 위치보고와 비행계획을 제출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으며, ADIZ의 범위는 外國의 항공기가 ADIZ에 들어올 경우, 또는 항공기가 美國으로부터의 직선 코스로 항속거리가 1時間 이상 2時間 이내에 있는 경우에 外國 항공기가 보고를 하게 되어 있다.

그러므로 현재의 일반적인 항공기의 속도로 볼 때 ADIZ의 범위는 美國의 해안으로



Brittin, B.H. and Watson, L.B.: International Law for Seagoing Officers, 2nd ed., 1960. p.741 참조.

그림 2. 美国의 ADIZ

부터 600海里, 또는 그 이상의 公海上空에 까지 미치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ADIZ 에 관한 規定을 위반할 때에는 1年 以上の 징역과 10,000弗까지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ADIZ의 고도에 있어서는 어떠한 制限도 하고 있지 않다.

(2) 캐나다 : 캐나다 정부는 美国의 ADIZ 규칙 제정 5개월 후인 1951年 5월에 여러 면에서 美国의 ADIZ 규칙에 유사한 것을 제정하였다. 그리고 이 규칙으로 설정되는 空域은 ADIZ 앞에 Canadian의 C를 붙여 CADIZ 라고 불리운다.

이 CADIZ도 國家의 安全을 위하여, 이 구역 내에서 항공기는 즉시 식별되고, 위치가 선정되며, 또한 관계되도록 제정되었다. 캐나다의 규칙에는 刑事裁制는 定해져 있지 않지만, 이에 위반하는 항공기는 군용기에

의해 비행을 저지당하며, 이러한 저지는 파괴를 의미하지는 않지만, 규칙위반이 계속될 경우에는 군용기가 軍事的 措置를 취하는 일이 있을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이 CADIZ의 범위로는 태평양에서는 ADIZ의 1/3이며, 대서양에서도 연안으로부터 30海里 이상은 되지 않는다.

또한 1951년에는 고도의 제한을 두고 있었지만

1955년에 개정하여 고도의 제한을 명시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美国의 규칙이 美国内로 들어오는 항공기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반하여, 캐나다의 規則은 그 目的地에 관계없이 CADIZ를 통과하는 모든 항공기에 위치보고를 요구하고 있다.

(3) 日本, 프랑스 : 日本은 1969年 자위대 내부의 훈령으로서 그림 3과 같은 방공식별권을 설정하였는데 이 ADIZ 내를 비행하는 자위대 항공기의 기장에게 사전의 비행계획보고서를 의무화시킨 것에 지나지 않으며, 실제로 이 구역 내에 위치보고를 하지 않은 항공기가 들어오면 레이다로 추적하고, 또한 일단의 국적불명의 항공기로 경계하며 전투기로 추적한다.

프랑스는 방공식별권 (Zone D'identification de défense aérienne)이라 불리우는 구역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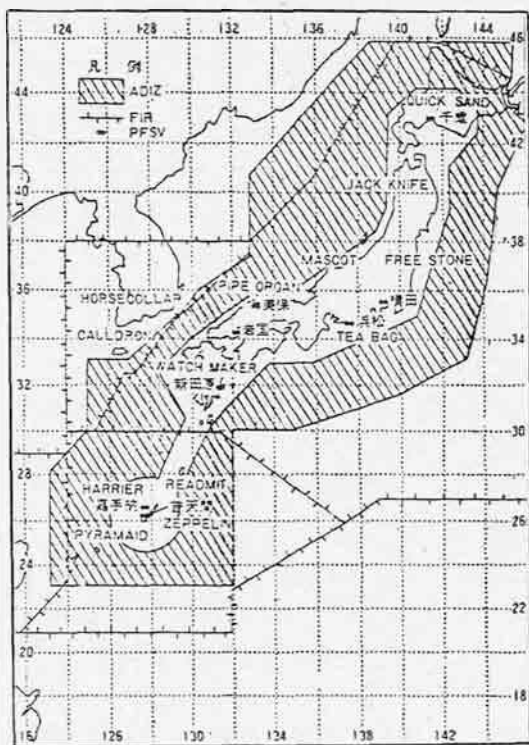


그림 3. 日本의 ADIZ

알제리紛争 중에 알제리연안에 설정하였었다. 이는 알제리紛争 중 반란군에 대한 外國 항공기의 공중원조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정한 것이었으며, 美國과 캐나다의 규칙보다도 엄격했으며 실제에 있어서도 規則대로 적용하였다. 이 프랑스가 제정한 規則은 비행계획서의 제출, 승객의 식별, 지정된 루트 내에서의 비행 및 지상식별소와의 연락 등을 요구하였다.

이 밖에도 도미니크 공화국은 公海上空 30海里에 방공식별권을 설정하고 있으며, 또한 아이슬란드가 1951년에 설정한 군사방공식별권(Military ADIZ)은 대서양과 북극해

상공 200海里에 이르고 있다. 이외의 여러 나라가 규칙의 적용은 다소 다르지만 연안으로부터 일정한 범위의 公海上空의 空域에 ADIZ를 설정하고 있다.

나. 우리나라에 있어서 ADIZ 운영의 현황
우리나라의 방공식별구역(KADIZ)은 1951. 3. 22. 태평양 방공체제의 일환으로 태평양 공군에서 極東防衛上 설정한 것으로서, 國家 安保上 空中航體를 식별하고 위치를 파악하며, 이를 통제하기 위한 規定된 범위의 공역이다(그림 참조). 이 KADIZ 内の 비행절차는 다음과 같다.

- 관제공역(Controlled Airspace) 내에서 인가된 비행시는 필수 보고지점이나 항공관제부서 요구시만 위치를 보고한다.

- 관제공역 밖(Off Airway)에서 비행시는 KADIZ 통과 예정시간과 통과지점 및 비행고도를 15분전과 30분전에 보고한다.

- 外國으로부터 한국으로 비행할 때는 KADIZ 통과 예정시간을 보고한다.

- KADIZ 내에서 공중작전 수행시는 최소한 이륙 30분전에 비행계획서를 제출하여 비행인가를 얻어야 하며, TACC, CRC로부터 출동명령을 수령하여 이륙할 시에는 자동적으로 계기비행 인가를 받은 것으로 한다.

- 방공관제기구의 직접관제 하에 임무수행시는 비행인가 및 보고절차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또한 우리나라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K-ADIZ 확장을 추진하고 있는데 첫째 1967년에

한국 내의 AC & W 現代化 完成으로 레이 다의 Coverage 및 관제능력을 보강하였고, 둘째 광주기지의 작전운영 및 최신에 전투기의 행동반경권이 확장되었으므로 제주도 를 경유하는 항로상의 항적을 포함하여 이 지역에 침투하는 항공위협에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고, 세계로 1963년부터 FIR의 설정으로 인하여 KADIZ 내로 진입하는 항공기의 식별시 KADIZ와 FIR의 이중적용이 되는 문제가 있어서 1963년 이래 주한미공군과 국방부에 수차례 걸쳐 건의하였으나, 日本은 1980年 日本 外務省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KADIZ 확장안을 거부하였다.

다. KADIZ의 法的地位²⁾

ADIZ의 法的地位의 문제는 일찌기 당시 領海의 범위가 3海里였을 때 美国뿐 아니라 발트연안제국 및 다수의 나라에서 밀수방지 등을 위하여 領海밖 12海里까지 내의 선박에 대하여 임검수사권을 주장하는 接統水域의 概念에서 유래되었다고 볼 수 있다. 즉 관세·財政·出入國管理·衛生上의 위반을 방지하고 처벌하기 위하여 領海에 접속한 일정범위의 水域을 설정하던 것이 오늘날 UN海洋法 協約 第33条 1項에 의해 인정되고 있으며 이 水域을 接統水域이라 하여 연안국이 특정목적을 위하여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目的의 接統水域의 설정이 그 空間에서도 가능하냐가 문제가 되었다. 그 한 例로서 Martial, J. A. 은 1952年의 'State Control of the air space over the

territorial sea, and the contiguous zone,"에서 接統水域 上空에 대한 연안국의 權利行使에 관해서, 연안국의 경제 및 安全에 관한 이익보호를 위해 연안국은 海上에서 보다 그 이상은 아니더라도 그와 유사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논술하고 있다.

또한 그는 「空間은 海上과 같은 利害關係가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空間에서는 그러한 利害關係가 한층 커지기 때문에, 연안국은 그러한 항공기의 침입을 방지하기 위한 감독의 권한을 인정받지 않으면 안 된다. 더우기 항공기의 스피드를 고려한다면, 國家는 연안으로부터 200~300海里 사이에서 감독을 허락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처럼 接統水域의 概念에서 유래한 ADIZ의 法的地位의 근거를 고찰해 보면, 첫째로 平時에 있어서 國家의 安全을 위하여 연안국은 스파이 정찰 등으로 인하여 自國의 軍事的 安全이 저해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하여 自國의 관할권을 公海上에서 가능한 한 넓히려고 하고 있다. 둘째로 外國 航空機의 武力攻擊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現在의 領海上空과 같은 좁은 空間에서의 관할권으로는 國家의 安全을 維持하기가 불충분하며, 公海上空에까지 방위를 위한 空域을 설정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견해를 들 수 있다. 이것은 주로 國家의 自衛權과 관련하여 그 논거가 주장되고 있다. 그러나 이 自衛權에 관한 주장은 약간의 문제점을 포함하고 있는데, 오늘날처럼 核을 장비한 ICBM이 배치되어 있는 상황에서 自國의 完全

한 安全保障을 피하려면 지구상의 전체에 걸쳐 防空을 위한 조치를 취할 權限을 요구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될 것이다.

또한 自衛權은 비상시의 例外的인 權利로서, 平時에 항상 一定한 범위의 公海上空에서 연안국의 관할권을 행사하고, 公海上空의 自由를 제한하는 ADIZ의 설정을 國家의 自衛權의 행사로 하는 것은 論理의 結論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오히려 ADIZ 내에서 外國機가 들어와 있는냐의 여부보다는 外國 航空機가 敵對的 行動을 했느냐의 여부가 自衛權의 문제가 된다고 할 수 있다.

1950年, 1951年에 美國과 캐나다가 설정한 ADIZ의 法的地位에 대한 문제에 관하여, 다른 나라들이 지금까지 그것을 묵인해 온 사실이 자주 논의가 되는데, 그러나 現在까지 이 묵인을 ADIZ 설정의 合法性의 근거로 하는 學說은 나타나지 않았다. 他國이 항의하지 않는 것은 설정국가의 우호관계 유지라는 국가정책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견해가 有力하다.

이 ADIZ의 설정은 戰爭이나 戰爭의 위협을 내포한 상태에서 설정돼 왔으나 平和回復後에도 계속 유지되고 있으며, 戰爭可能性이 적은 나라들도 ADIZ를 설정하는 경향이 늘고 있다.

이처럼 ADIZ의 설정은 지역관습법적인 성격으로서 나타나고 있으나 연안으로부터 과도한 범위까지를 ADIZ 구역으로 설정치 않고, 연안으로부터 領海와 接續水域 上空을 넘어서 어떤 一定한 거리의 公海上空까

지 연안국의 관할권을 행사하려는 ADIZ의 설정은 國際法 違反의 문제로 단정할 수는 없다.

특히 무력적화의 야욕을 버리지 못하는 北傀를 10여분의 항속거리를 두고 대치하고 있으며, 소련의 극동군사력이 팽창되고 있는 現實에서 무의미한 國際紛爭의 發生을 방지하고 우리나라 연안국에 접근하는 外國 航空機에 연안국의 安全에 害를 끼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이를 위해 航空機의 위치를 보고케한다는 것은 國際法上 不當한 行爲라고 볼 수 없다.

3. 領 空

領空이란 一國의 領土와 領海의 上部空間을 말한다. 航空機의 飛達로 인하여 領空의 法的地位에 대한 논란이 증가하였으며, 1919년의 Paris 條約을 거쳐 1944년의 國際民間航空條約(Chicago 條約)에서는 第1條에서 「締約國은 各國이 그 領域上의 空間에 있어서 完全하고도 排他的인 主權을 보유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領空은 無害通航 등의 制度가 있는 領海와는 근본적으로 法的인 體制를 달리하고 있는데, 이러한 領空主權에 관하여 기초적으로 보면 領空의 完全하고도 排他的인 主權으로 인하여 外國 航空機가 自國의 領空을 비행하거나, 領域에 착륙할 경우, 그 許可의 여부와 그 許可條件을 어떻게 규제하느냐에 관해 당해 國家가 完全한 自由意思로 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領空의 범위에 있어서 수평적인 범위와 수직적인 범위의 한계가 문제가 되는데, 수평적인 한계에 있어서 領空은 領海의 上部空間이므로, 領海의 문제에 있어서, 도서와 해협을 포함하고 있으며, 수직한계에 있어서는 主權行使가 不可能한 宇宙와의 한계가 문제시 될 수 있다. 領空과 宇宙에 관한 法的體制는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이다.

II. 우리나라 領空의 범위

1. 우리나라 領空의 수평적 범위

領空은 領土와 領海의 上部空間을 말한다. 가. 領海: 領海는 國家領域의 일부이며, 領海에 대한 國家의 權能은 領土에 대한 것과 같다. 그러나 領海는 領土와는 달리 國際法上 많은 制限을 받는다. 특히 無害通航權을 들 수 있는데, 無害通航權이란 외국 선박이 연안국의 권리를 저해하거나 위협함이 없이 그 관할수역을 航海할 수 있는 것이다. 無害通航權은 無害通航을 지키는 조건 하에서 통항할 수 있는 權利이기 때문에 無害가 아닌 通行에 대해서는 연안국의 제재를 받게 되며, 연안국으로서도 領海上 航海를 위협하는 위협을 알고 있는 경우에는 예고하여야 한다.

우리나라 領海法 第5條 1項과 2項에 외국선박의 無害通航權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同法 第8條에는 외국군함 등에 대한 特別規定이 있는데, 외국의 군함

또는 비상업용 정부선박은 우리나라 領海에서 無害通航權을 가질 수 없으며 우리나라 領海를 통과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당국에 事前 通告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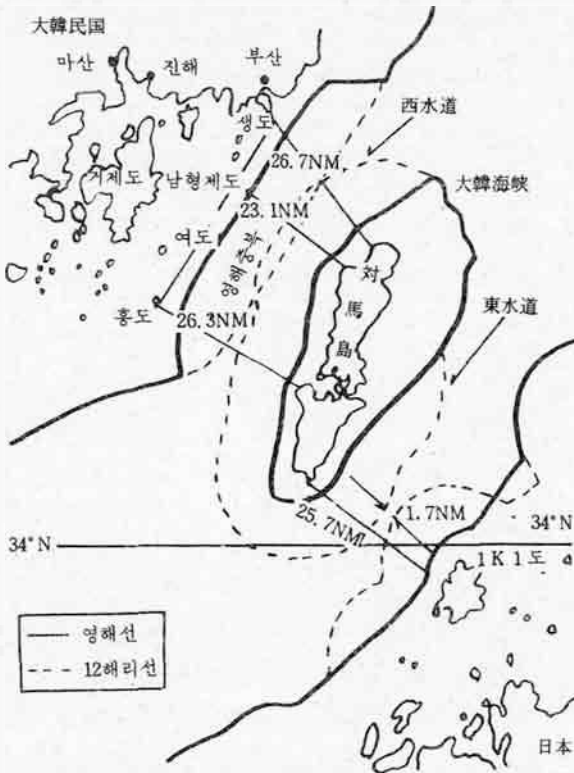
그러나 外國의 군함이나 비상업용 정부선박 또는 그 승무원이 領海法 및 기타 法令을 위반했다 하여도 領海法 第6條에 규정된 停船·검색·나포를 할 수가 없으며, 第7條에 규정된 벌칙을 적용할 수도 없다. 다만 이에 대한 시정이나 領海로부터 퇴거를 요구할 수 있을 따름이다(第8條).

우리나라는 1978년 4월 30일 국제적 추세에 따라 領海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내렸는데 종전에 우리 領海法은 3海里說을 따르고 있었으나 이 때부터 12海里로 규정하였다. 이는 동년 9월 20일부터 生效되었다.

나. 海峽(大韓海峽, 제주海峽)

海峽이란 지리적인 의미에서 두 큰 바다를 연결하는 매우 좁은 바다의 부분으로 항해에 사용되는 통로구실을 하는 것으로서, 國際海峽이 되기 위해서는 國際法 規則에 규제되는 條件을 충족해야 된다(條件 생략) 우리나라에서 大韓海峽은 國際海峽으로서 당연하나, 제주海峽도 國際海峽에 속하느냐가 문제가 된다.

제주海峽은 그림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35海里에 걸쳐 남해안의 領海와 폭 1海里 정도로 중복됨에 領海임이 분명하나 「Corfu Channel Case」의 원칙으로 보아 國際海峽임이 틀림없다.³⁾



資料 : 고종희, 주변국의 정세와 韓國安保, 해양전략 45호, 1986. 11. p. 38

그림 4. 大韓海峽

現在 이 제주海峽도 우리나라 海洋法 第 1 條 但書와 1978年 4月 29日 大統領令 第 8994號로 공포된 海洋法施行令에 따라 大韓海峽과 마찬가지로 領海의 범위를 3海里로 하고 있다.

따라서 소련 등의 敵性國 군함도 이 제주海峽을 통항하고 있다.⁴⁾ 그러나 제주海峽은 KADIZ 內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제주海峽을 통과하는 航空機는 KADIZ 통과절차에 의거하여야 한다.

또한 海峽의 통과에 있어서, 과거에는 無害通航이 적용되었으나, 第 3 次 海洋法會議에서 英國案을 기초로 하여 海峽에 있어서

通過通航이라는 새로운 더욱 자유로운 항행제도가 채택되었다. 이 制度의 內容을 보면, 國際海峽에서 '모든 선박 및 航空機는 방해받지 않는 통항권을 존유하며(제 1 조), 통과통행하는 선박이나 航空기는 지체없이 이 海峽을 통과할 의무가 있으며(제 38 조 2 항), 領土主權이나 獨立을 거슬러 武力을 使用하거나 그 위협을 주지 말 것(제 39 조), 불가항력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단순히 계속적이고 신속하게 통과할 것(제 39 조), 기타 관계 國際法規則을 준수할 것 등의 內容으로 되어 있다. 이 制度에 의하면 잠수함도 표면에 나타나서 통과할 義務가 없다.⁵⁾

다. 서해오도, 독도

현재 우리나라 領空守護에 있어서 가장 문제가 많은 지역은 바로 이 서해오도해역이다. 북괴의 서해오도 挑戩形態는 1956년부터 1972년까지는 주로 비무장 어선의 남북공작에 치중되어 왔으며, 이 기간 동안 12차례에 걸쳐 28척의 어선에 대하여 拉北·총격·격침·어부학살의 만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1973년 이후에 북괴가 서해오도해역의 領有權을 주장한 이후부터는 領海侵犯과 領海侵犯의 挑戩形態로 대폭적인 變化를 가져 왔다. 1974년부터 1985년 2월까지 3차례에 걸쳐 6척의 어선에 대하여 拉北·격침의 만행을 자행한데에 비하여 1973년에만 30여차례 領海侵犯을 하였고, 3차례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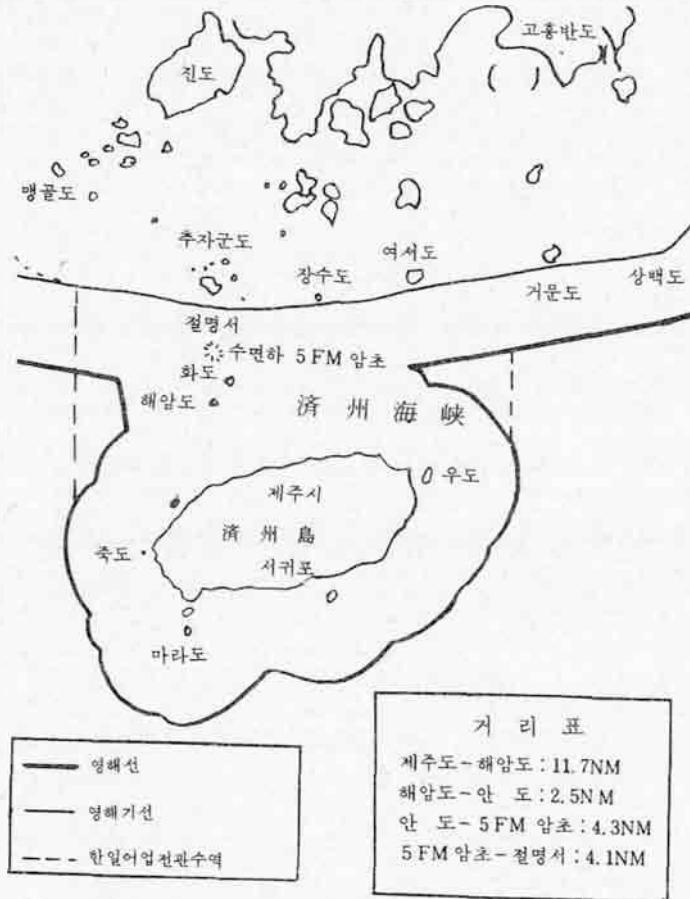


그림 5. 제주海峽

領空侵犯을 하였다.⁶⁾

북괴는 1973년 12월 1일 軍事停戰會議 第346次會議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남한해군은 근래에 와서 海上侵犯을 자행하고 있는데 停戰協定 第13項(L)目에는 백령도·대청도·소청도·연평도·우도의 5개 도서가 人民軍統制下에 있는 海域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이들 우리측 沿海에 있는 5개도서에 出入時는 事前承認을 얻어야 하며, 위반시는 應당한 조치를 받을 것이다.」

북괴의 이러한 주장은 백령도 등 서해오도가 UN軍통제 하에 있다는 것을 북괴도

인정하나 그 주변해역은 북괴의 領海라는 억지 주장인 것이다. 이는 休戰協定上 不明確한 서해오도의 海域을 그들의 沿岸海라 하여 그들의 관할 하에 두려고 획책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休戰協定上 서해오도에 관한 規定을 보면 同協定 第2條 第13項(L)目에는 서해오도의 관할권이 UN軍사령관 하에 있다고 規定하고 있다.

그러나 서해오도 주변 해역에 관해서는 아무런 規定도 두고 있지 않은데, 특히 軍事分界線과 南北方限界線은 육상에만 그어져 있으며, 海上에는 없다. 東海에서는 「軍事分界線 延長線(Military Demarcation Line Extended)」

이 우리측과 북괴측에 의하여 관

례적으로 인정돼 왔으나, 서해에서는 어떠한 軍事分界線도 없고 다만 休戰協定이 성립된 후 UN軍과 한국이 공동으로 설정한 서해오도와 옹진반도에 沿한 북괴의 沿岸과 의 중간선인 북방경비한계선(NLL)이 있으며, 이 한계선이 20년간 兩側에서 關係적으로 지켜오다가 돌연 1973년 10월 23일부터 북괴가 이 한계선을 침범하기 시작했고, 同年 12월 1日 軍事停戰 第346次會議에서 서해오도 해역에 대한 領有權을 주장하기에 이른 것이다. 이러한 상황으로 보아서 서해오도서의 주변해역에 관해서는 일반 국제법

에 의해 그 지위를 논할 수 밖에 없다.

一般國際法 原則인 等距離의 原則, 實效의 原則, 戰爭水域의 原則, 凝固의 원칙(The Principles of Consolidation)에 의하여 서해오도 주변해역은 분명한 대한민국의 해역이며, 북괴는 NLL 이하로 무력남하를 할 수 없다.⁷⁾

獨島는 비록 日本이 1952년 1월 18일 「인접해양의 주권에 관한 大統領宣言」, 즉 平和線을 宣布하면서부터 自國의 領土라고 그릇된 주장을 하고 있으나 명백한 대한민국의 領土임은 재고할 가치도 없다. 또한 獨島 주변 12해리 범위의 海上은 우리나라의 領海이며, 그 上部空間은 역시 우리나라의 領空이다. 그 國際法的인 논거로는 「Middleton V. U. S. Case (1929)」에서의 美國裁判所의 判例와 1958년의 「領海와 接續水域에 관한 協約」 第10條 1項과 1976년의 「修正單一交涉案」 第128條 第1項 및 1977년의 「非公式統合交涉案」 第121條 第1項에 의거하여 비록 사람이 살고 있지 않은 無人島라 할지라도 領海를 갖을 수 있다.

2. 우리나라 領空의 수직적 범위

가. 美國의 U-2機가 1960년 소련의 領空을 침범하였을 때 美·蘇 간의 정상회담이 결렬될 정도로 문제시 되었으나, 1957년 소련의 Sputnik- I 호가 宇宙空間에서 타국의 領空 위로 비행할 때에는 어느 나라도 이에 대하여 領空侵犯이라고 反對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完全하고도 排他的인 主權이 존재

하는 領空과 領有禁止의 原則이 존재하는 宇宙空間과는 근본적으로 法體系가 상이하기 때문이다.

현재 宇宙空間에는 6,000여개의 위성들이 비행하고 있으며, 이 중에서 실제로 人工衛星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은 약 1,600여개에 달한다. 또한 위성들의 비행 고도는 낮게는 고도100여km에서 고도33,600km의 대기권 밖으로까지 비행하고 있으며, 人工衛星들이 지구와 가까이 접근하는 고도는 통상 400km~1,000km 정도를 유지하고 있다.

더구나 航空宇宙科學의 발달로 인하여 T-AV(대기권 횡단기) 등의 고도 100여km로 비행할 수 있는 항공기들이 개발 중에 있어서, 領空과 宇宙空間의 한계를 구별하는데에 문제가 많다.

특히 宇宙의 利用이 産業化·軍事化됨에 따라서 宇宙의 軍事的 利用과 통신 위성이 위치하기에 적합한 고도 35,800km의 적도 상공은 후진 우주개발국들에 의하여 資源化하려는 움직임도 있게 되었다.

우리 空軍運用敎理(空本, 1986)에서는 防空의 概念을 定義함에 있어서 「大氣圈 內에서 敵機 혹은 적 유도탄이 攻撃을 감행해 올 때 空中攻撃의 효과를 무력케 하거나 감소시키는데 필요한 我側의 모든 軍事的 活動을 防空이라고 한다」고 定義하고 있어서 마치 大氣圈까지를 우리나라의 領空의 범위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 같으나 그렇다고 領空의 限界에 있어서 大氣圈說을 주장

〈表-1〉宇宙物体 現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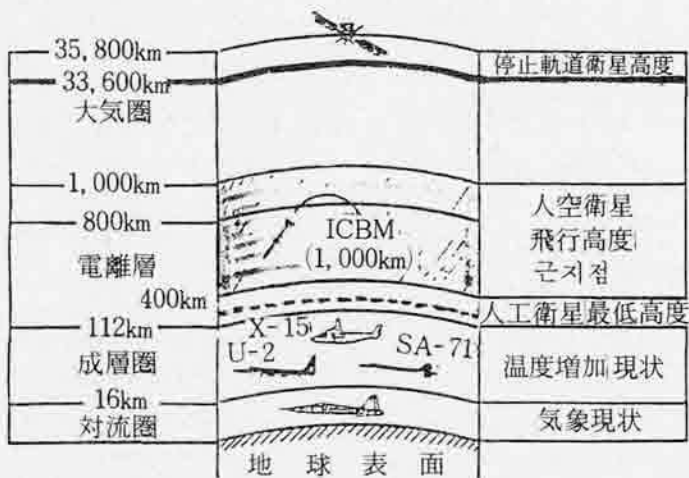
国名	衛星	附属物体	計	備考
美国	522	2,539	3,061	軍事・産業用
蘇聯	925	1,790	2,715	軍事・産業用
日本	29	38	67	産業用
캐나다	14	0	14	
프랑스	14	21	35	
其他	99	32	131	
計	1,603	4,420	6,023	

○美・蘇：5,776個(96%)

○軍事衛星：1,426個(美：351, 蘇：1,075)

資料：NASA, Project Operations Branch, CODE 513, GOODARD SPACE FLIGHT CENTER
SATELLITE SITUATION REPORT, 1986. 3. 31.

〈表-2〉衛星運動高度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領空과 宇宙의 限界가 어디까지냐에 따라 여러 學說이 주장되고 있으나 國際法上 確定된 學說은 아직 없으며 各 國家들의 利益에 따라 논란이 많은 대상이 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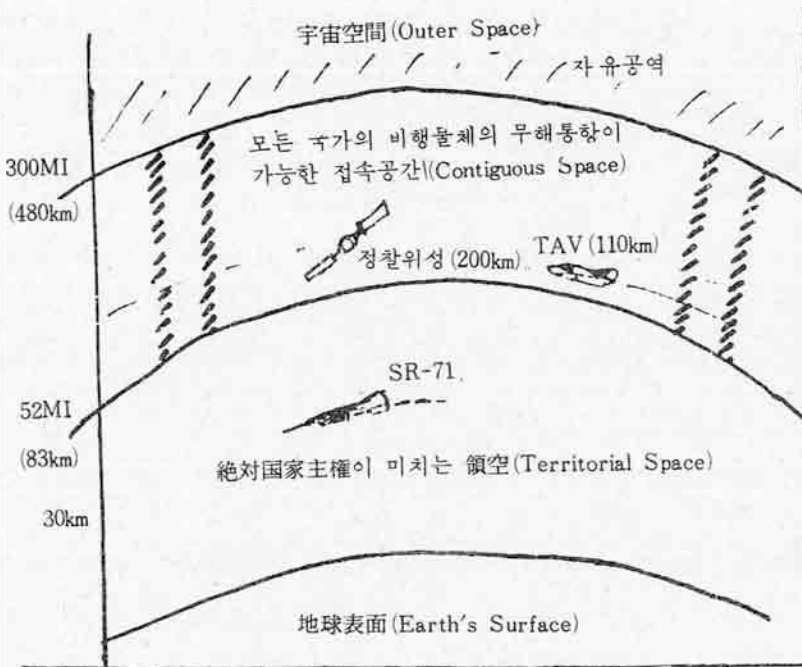
나. 領空과 宇宙와의 限界에 관한 諸 學說⁸⁾

(1) 領空無限說 : 國家는 그 上空에 대하여 高度에 關係없이 어떠한 制限이나 통제도 받음이 없이 수직방향으로 무한하게 그 나라의 權限을 주장할 수 있다는 說로 이는 로마 私法의 原理인 “土地를 所有하는 者는 그 上部도 所在한다”라는 법언을 公

法에 도입하여, 宇宙空間에 대해서도 下位國의 主權이 存在한다고 주장하는 學說로서 논거가 미흡하다 하겠다.

(2) 接統空說 : 國家의 上空을 領空, 接統空域, 宇宙空間으로 구분하여, 이에 對한 下位國의 主權行使의 차이를 두려는 學說이다. 이러한 三分說은 海洋法의 接統水域의 개념에서 응용되었는데 自由空域에서의 비행이 下位國의 安全에 과연 문제 없는지 의 여부와 接統空域에서는 非軍事的目的의 航行은 가능하다고 하였으나, 非軍事的目的의 航行이 어떤 것인지에 對한 明確한 개념을 定하기가 어렵다.

〈表- 3〉 Cooper의 접속공역설



George D. Schrader, "National Sovereignty in Space," Unpublished Thesis, Maxwell Air Univ. (Dec. 1961), p. 62.

(3) 引力說 : 지구의 引力이 소멸하는 곳에서 領空의 한계를 설정하자는 說이다. 그러나 지구의 引力이 어느 지점까지 적용되는지에 대한 正確한 한계를 찾아볼 수 없으며, 또한 地球는 타원이며, 지구상의 바다와 육지에 있어서 引力이 變하고, 달을 비롯한 다른 天體와의 引力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不正確하다.

지구의 引力은 지구중심으로부터의 거리의 자승에 반비례한다. 또한 지구의 引力에 의하여 고도 100km의 宇宙空間에서 낙하하는 物體는 공기저항이 영이라고 할지라도 지구 표면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약 2분 25초가 걸리는데, 그 時間 내에 지구의 자전으로 인하여 예상지점보다 약 67km 떨어진 위치에 낙하된다. 더구나 인공위성은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지구주변의 궤도를 돌고 있기 때문에 위성이 낙하를 시작한 지점에 떨어지기가 희박하다.

(4) 양력설 : 航空物體의 공기역학적인 특징에 따라 領空과 宇宙空間을 구별하려는 說로서, 1초에 25,000ft를 비행할 수 있는 目的物이 그의 기체역학적 추진력을 상실하고, 원심력이 작용하기 시작하는 地上으로부터의 약 275,000ft(약 83km) 上空地点에 Von Karmann 선을 확정하여, 이를 領空의 상부한계로 확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한다.

그러나 物理學者들 간에 아직 어느 지점에서 “空氣의 힘”으로 비행할 수 있는 航空機의 비행이 불가능한지에 대한 견해의

일치가 없고, Von Karmann 선 자체가 부정확하고 가변적인 것이므로 領空의 한계에 대한 正確한 설정이 어렵다.

(5) 實力說 : 下位國 國家가 실제적으로 통제가 가능한 上空까지를 領空으로 보자고 주장하는 說이다.

그러나 이 理論은 弱小國의 主權이 상대적으로 제한을 받게 되므로, 主權平等이란 國際法의 대원칙에도 반할 뿐 아니라, 宇宙空間의 探査와 利用에 있어서, 宇宙는 인류 공동의 유산이라는 國際法 原則에 위배되는 주장이다.

이러한 결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그 실효적인 統制可能性을 宇宙開發 最先進國의 표준으로 하여 決定하자는 주장도 있었으나, 결과적으로 그 표준의 설정도 또한 國力の 열세에 좌우되므로 역시 主權平等의 원칙에 반하게 된다.

(6) 大氣圈說 : 이 說은 國際民間航空條約에서 國家의 主權은 「大氣가 存在하는 限度의 空間」 즉 大氣圈을 가르키고 國家의 主權은 이 大氣圈 범위 내에서만 行하여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大氣圈의 고도가 33,600km나 되는데 비하여, 정찰위성은 고도 약 200km에서 비행하고 있으며, 대다수의 人工衛星의 근지점이 고도 400km~1,000km 내에 위치하고 있는 現況에서 大氣圈까지를 領空으로 하자는 주장은 一面 타당성이 부족하다 할 것이다.

(7) 機能說 : 領空과 宇宙空間 사이의 경

계를 구별할 필요없이 宇宙空間을 경계획정의 문제로 論하지 말고 活動의 문제로 전환하자는 說로서, 宇宙空間을 使用하는 것이 平和的 目的인가? 政治的 目的인가? 또는 下位國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한가에 따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설이다.

그러나 人工衛星이 고도의 과학기술의 집합체이고, 특히 군사위성의 비행에 있어서는 발사와 위성의 目的이 비밀로 되어 있으며, 더욱 航空宇宙 後進國들은 이를 확인하여 볼 수 있는 능력이 없는만큼, 이 機能說도 領空과 宇宙의 限界를 명확히 구별하기에 어려움이 많다.

Ⅲ. 우리나라 領空侵犯과 武器 使用의 限界

1. 領空侵犯의 種類

領空侵犯은 攻擊, 정찰, 밀입국 등의 不法目的으로 인한 領空侵犯과 악천후에 의한 조난, 航空機의 고장과 연료부족, 조종사의 부주의 등으로 불가피하게 領空을 侵犯하는 경우로 나눌 수 있다.

또한 航空機의 종류로 民間航空機와 國家航空機로 인한 領空侵犯으로 나눌 수 있다. 이와 같은 領空侵犯의 양상은 同一하지 않으며, 이에 대한 대응조치도 各國別로 同一하지 않다.

가. 不法目的으로 인한 領空侵犯: 國際民間航空協約(Chicago 協約)에서는 領空侵犯에 관한 규정이 없어서 최근 증가하고 있

는 領空侵犯에 대하여 國際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단, Chicago 協約 第9條에는 禁止區域에 대하여 規定하고 있다.

나. 조난 등의 기타의 경우: 조난기에 의한 領空侵犯에 대해서는 이것을 國內法令에 적용시켜 처벌할 것을 許容하지 않는다. Chicago 協約 第25條에서도 不時着이나 조난 등의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에 不可抗力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下位國은 侵入機에 대한 조치로서 航空機를 몰수하거나 승무원을 억류하는 등의 刑罰을 가할 수 없게 되어 있다.

그러나 領空侵犯이 조종사나 승무원의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조난의 경우처럼 특별한 대상으로까지 취급되지는 않는다. 또한 軍航空機나 경찰용, 세관용, 공공기관용 航空機인 國家航空機의 領空侵犯은 특권면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즉 下位國의 法令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⁹⁾

2. 領空侵犯措置의 現況

侵犯機에 대한 조치에 있어서 美國과 民主國家들은 共產國家들보다 人道的으로 처리하고 있다. 1946년부터 1983년까지의 領空侵犯과 관련되어 29대의 軍用機가 격추되었으며, 5대의 民航機가 격추당하였다. 또한 同期間동안 14대의 軍用機가 강제착륙당했으며, 2대의 민항기가 강제착륙을 당하였다.

다음 表 4¹⁰⁾에서 보면, 격추나 강제착륙을 시킨 國家들은 주로 共產主義 國家들

〈表-4〉領空侵犯에 대한 措置 現況

● 擊墜國別 件數 (1946년~1983년)

• 軍用機

가해국 \ 피해국	총건수	피해건수와 전수 국가
소 련	16건	미국 12건, 영국 1건, 스웨덴 2건, 이란헬기 1건
중 공	5건	미국 5건
북 과	3건	미국 1건, 미국헬기 2건
쿠 바	1건	미국 1건
불 가 리 아	1건	토르코 1건
유 고	1건	미국 1건
예 멘	1건	이란 1건
이탈 리 아	1건	불가리아 1건

• 民間機

가해국 \ 피해국	총건수	피해국가와 전수
소 련	2건	한국 2건, (1978, 1983)
이스라엘	1건	리비아 1건 (1973)
불 가 리 아	1건	이스라엘 1건 (1955)
中 共	1건	영국 1건 (1954)
		※ 소련이 프랑스여객기 공격은 불시착함 (1952)

• 軍用機 擊墜 年次別 件數

연 도 \ 국 가	총건수	군용기 격추국가와 전수(가해국)
1946~1948	2건	불가리아 1건, 유고 1건
1950~1959	13건	소련 11건, 중공 2건
1960~1969	11건	소련 4건, 중공 3건, 북과 2건, 쿠바 1건, 이탈리아 1건
1970~1983	3건	소련 1건, 북과 1건, 예멘 1건

〈表-4〉 領空侵犯에 대한 措置 現況 (계속)

● 強制着陸 件數 (1946년~1983년)

• 軍用機

명령국	총건수	피강제착륙국별 건수
소 련	8 건	미국 7 건, 벨기에 1 건
유 고	2 건	미국 1 건, 그리스 1 건
도미니카	1 건	미국 1 건
수 단	1 건	리비아 1 건
오스트리아	1 건	이탈리아 1 건
이스라엘	1 건	사우디아라비아 1 건

• 民航機

강제착륙명령국	총건수	피강제착륙국별 건수
소 련	1 건	프랑스 1 건 (1952)
이스라엘	1 건	레바논 1 건 (1973)

임을 볼 수 있다. 또한 美國의 軍用機가 領空侵犯을 가장 많이 한 것을 볼 수 있다. 그 이유는 共產國家에 대한 偵察로 인하였다. 소련은 “철의 장막”을 내린 후에 核實驗에 成功, 戰略爆擊機의 量産, ICBM의 실전배치 등 착실하게 보복력을 강화시키고 있었는데 비하여, 美國은 이에 대한 정보를 알 수가 없었다.

따라서 1955년 제네바 美·蘇 수뇌회담에서 美國은 軍비확장제한을 감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으로 航空機로 인한 各國의 領空을 定期査察飛行을 행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 案은 일명 Sky-Open 計劃이라고 불리었다. 그러나 서방세계의 軍비나 軍事시설이 거의 Open 되어 있는 것을 利用하고 있는 소련은 美國의 제안을 거부하였다.¹¹⁾ 이에 美國과 서방의 民主國家들은 自國의 安保와 世界平和의 견지에서 커다란 不安을 갖게 되었으며, 특히 美國은 소련의 軍備增強과 보복력에 관한 정보에 큰 관심이 있었고, U-2機 事件과 같이 偵察活動을 강화하였다.

3. 各國의 領空侵犯에 대한 措置의 慣行¹²⁾

가. 美國: 美國이 1953년 발표한 領空侵

犯에 대한 措置는 다음과 같다.

(1) 레이더를 가지고 國際水域上空에서 부터 外國機를 추적하며, 이어서 요격기를 발진시켜 同機를 추적한다.

(2) 侵犯機가 이미 비행하여서 領空을 侵犯한 경우에는 착륙할 것을 命令한다.

(3) 侵犯機가 실제 攻撃을 확정적으로 행하기 전까지는 武力行使를 하지 않는다. 侵犯機가 攻撃行為를 하는 例로는 폭탄창구를 열 경우, 폭격진로에 적합한 航路를 비행하는 경우이다.

美國은 Alaska 領空에 侵犯한 소련 정찰기에게 退去命令을 내리고 退去시킨 경우가 1963년, 1978년, 1982년의 3件이 發表되었으며, 1953년에는 북해도 근해 상공에서 소련전투기 2대가 侵犯하였을 때 美軍機는 이들 소련전투기들을 요격하고, 착륙할 것을 命令하였으나, 소련기들이 이를 무시하고 계속 統行하였기 때문에 美軍機가 攻撃하여 소련기 1대에 損害를 끼쳤다.

나. 노르웨이: 1957년 노르웨이 國防省이 제정한 “平時에 外國군함 및 外國군용기가 自國의 國家領域으로 진입할 때에 관한 規則”에서 領空侵犯 措置에 관한 內容은 다음과 같다.

(1) 空軍司令官 또는 該當 領域의 航空司令官은 통보를 하지 않고 自國의 영역을 진입한 外國항공기의 國적과 기종 등을 식별하기 위하여 航空機를 출격시켜야 한다. 侵犯한 外國기는 노르웨이의 비행장에 착륙하도록 유도하거나 領空 밖으로 退去시킨다.

(2) 侵入航空機를 식별할 수 없을 때에 또는 노르웨이와 상호관계에 있는 國家에 속하지 않은 外國軍用機일 경우에는 비행장에 착륙하도록 유도한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國際적으로 인정된 기호나 신호를 사용한다. 國경침범의 정도가 미약하고 國家의 安全을 손상시키지 않는다고 인정될 때에는 國家의 領域外로 유도한다. 해당영역의 航空司令官은 어떤 措置를 취할 것인가 결정한다.

(3) 기호나 신호로 인한 命令에 따르지 않는 外國機에 대해서는 侵犯機의 前方에 安全한 거리에 여유를 두고 경고사격을 가한다.

(4) 경고사격을 반복함에도 불구하고, 外國機가 명령에 응할 의도가 없음이 보일 때나, 「危難에 처해져 있어서 착륙을 희망하고 있다」라는 것을 표명하지 않는 경우에는 航空指揮官 또는 空軍司令官이 사격명령을 내릴 수 있다.

(5) 분명하게 노르웨이 國경 내의 육상, 해상 또는 空中에 있는 목표를 사격하고, 혹은 폭격을 하는 外國 軍用機에 대해서는 명령을 기다릴 필요도 없이 즉시 사격을 가할 수 있다. (6)은 생략.

다. 소련: 소련국경법(1983년 제정)에는 소련의 國경은 不可侵이고, 國境을 侵犯하려는 시도는 단호히 저지되어야 하며 다음과 같은 規定이 있다.

(1) 소련의 권한이 있는 합당한 허가없이 소련방 國境을 통과하고 또는 그 외의

소연방 국경통과 비행규칙을 위반한 航空機와 그 외의 비행장치는 소연방의 國境侵犯者이다.

(2) 국경경비대 및 防空軍은 소련국경의 경비를 함에 있어서 소련연방영역으로의 무장공격 및 侵犯을 격퇴하고, 소련 국경에서의 무장도발을 저지하며, 항공기상의 승객이 탑승치 않은 소련 항공기의 탈취를 방지하기 위해, 또한 소연방 국경침범자가 武力을 행사하는 것에 방지를 위해, 侵犯防止 혹은 侵犯者의 억류가 다른 方法으로는 할 수 없는 경우에는, 陸上, 水上, 空中에서의 소연방 國境侵犯者에 대해 무기 및 戰鬪裝備가 사용된다.

이러한 소련의 비인도적인 조치는 1952년 소련 전투기에 의한 스웨덴 軍用輸送機의 격추사건으로 強制着陸이나 發砲의 강경수단에 의하고 있다는 것으로도 알 수 있다.

4. 우리나라의 領空侵犯과 武器使用의 限界

가. 民航機에 의한 領空侵犯時: 民航機의 領空侵犯에 대하여 Chicago 協約은 특별한 규정이 없었으며, 第9條 3項에 禁止區域에 관한 규정이 있는데, 여기서도 禁止區域에 侵入한 民航機에 대해 착륙요구권을 明示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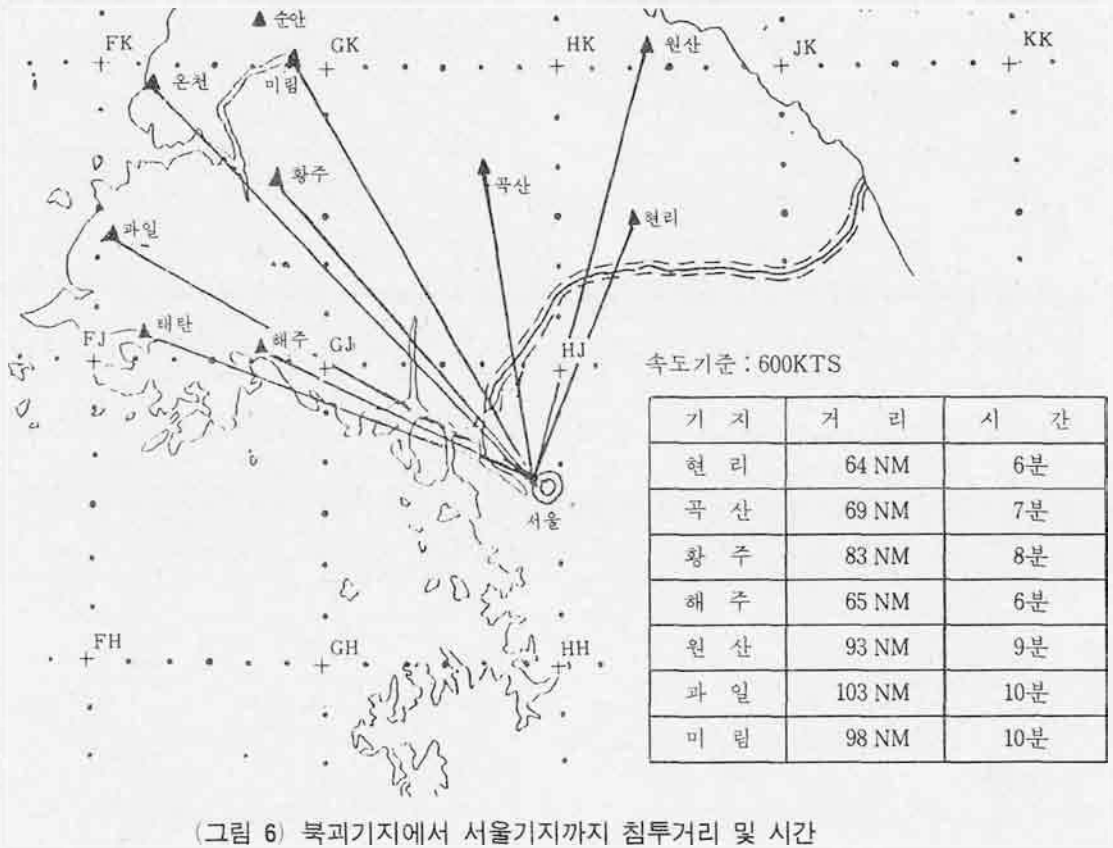
그러나 1983년 KAL機 피격사건 이후 열린 ICAO 第25次 總會에서 民航機의 安全에 관하여 第3條 2項이 신설되었으며, 여하한 경우일지라도 民間航空機에 대하여

武力을 使用함으로써 航空機의 安全과 탑승한 人名에 위해를 가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같은 특수한 안보상황 하에서는 民航機가 우리 領空을 侵犯하기 전에 KADIZ 통과시 먼저 KADIZ 통과절차에 의거 통보를 하게 되어 있으며, 이 때에 우리 관계기관에서 지정항로로의 복귀나 퇴거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명백히 무시하고 領空侵犯한 民航機는 일단 不法目的으로 보고 강제착륙을 시켜도 된다고 본다. 그러나 侵犯機가 이에 불응시 武器를 使用할 수 없다.

나. 軍用機에 의한 領空侵犯時: 우리나라는 DMZ에서 불과 40km 떨어진 곳에 수도 서울이 위치하고 있으며, 적화야욕의 망상을 버리지 못하는 北傀의 武力挑發을 休戰以後 끊임없이 받아왔다. 또한 그림 6에서 보듯이 北傀의 主要基地로부터 불과 6분~10분대의 침투시간의 거리에 수도권이 위치하고 있다.

따라서 北傀機는 休戰協定에 의하여 休戰線以南과 서해의 NLL以下로 남하하는 行為는 금지된다고 보아야 하며, UN 憲章 第51條의 自衛權의 發動이 「武力行使가 있을 때……」 自衛權의 行使가 가능하다고 하겠으나, 이는 우리나라의 특수안보상황 하에서 먼저 치명적인 일격을 당한 후에 2차 방어력을 행사하는 소극적인 自衛權 行使에 불과할 가능성이 많으므로 先制的 自衛權¹³⁾ 行使의 개념을 원용하여, 敵對行為로 간주,



(그림 6) 북피기지에서 서울기까지 침투거리 및 시간

武力行使를 할 수 있다고 보겠다.

北傀機가 아닌 外國의 軍用機는 오인받지 않기 위하여서, 領空侵犯 前에 반드시 KADIZ 통과시 KADIZ 통과절차에 의하여 事前에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없이 KADIZ를 침입하고, 이에 우리 관계기관의 경고를 받고서도 領空을 侵犯한 外國의 軍用機에 대해서는 경고없이 강제착륙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불응할 때에는 武力行使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例: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이 때에 侵犯機가 비상에 처한 航空機이거나 着陸할 것을 응답할 경우에는 武力을 行使하여서는 안 되며, 또한

我軍의 武力行使 後 항복의 표시를 할 경우에는 着陸命令으로 전환조치해야 한다(例: 덴마크). 아울러 도주하는 侵犯機에 대해서는 추적권에 의해 추격이 가능하며, 추격과 동시에 有效射擊을 할 수 있다. 이 때에 추적권이 미치는 범위는 自國의 領空을 넘어 公海의 上空까지 할 수 있으며 他國 領空까지의 추격은 금지된다.

다. KADIZ 侵犯時: KADIZ는 1975년부터 1986년 5월까지 24회에 걸쳐 침범을 당하였다. 그 중에서 소련에 의한 KADIZ 侵犯은 19회이며, 1983년 이후에만 17회나 된다. 이는 1978년 소련이 極東에 통합사령부

를 설치한 이후, 극동에서 소련의 軍事力을 증강시켰으며, 1980年 이후 한반도 주변에서 航空活動을 증가시키고 있는 이유에 있다. KADIZ 내에서의 外國의 軍用機 飛行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敵對行爲時를 제외하고는 武力使用이 금지된다.

美國은 自國의 ADIZ를 侵犯한 外國 航空機에 대하여 1年 以上の 징역과 10,000 \$ 以下の 벌금을 부과시키는 規定을 制定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어떠한 제재의 규정도 없다. 그러나 KADIZ는 1951年 이후 國際地域慣習法의 개념으로 설정되어 왔으며 이에 따라 KADIZ 출입절차를 무시하고 侵入한 外國 軍用機에 대해서 식별할 권리가 있으며, KADIZ 밖으로 비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結

우리나라의 空域은 FIR과 KADIZ, 領空으로 나누어지는데, KADIZ의 설정은 國際法上 定立되어 있지는 않으나, 國際法上 地域慣習法으로 인정된다고 볼 수 있다. 領空內에서는 領海內에서와는 다른 完全하고도 排他的인 主權이 Chicago 協約에 의하여 存在하며, Chicago 協約의 非加入國 일지라도 國際慣習法的인 性格을 띠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야 한다.

領空의 범위는 수평적 범위와 수직적 범위로 考察할 수 있는데, 수평적 범위로서 領空은 領土와 領海의 上部空間이다. 특히

領海의 범위에 있어서 서해오도 해역이 문제시 되고 있으나 서해오도 주변해역의 上空은 國際法上 明白한 우리나라 領空이며, 北傀는 休戰協定과 國際法의 一般原則에 의거 NLL 이하로 武力南下를 기도해서는 안 된다. 또한 海峽은 領海와는 다른 法的인 體制를 가지고 있으며 大韓海峽 上空의 外國 國民·軍 航空機의 통과는 海峽通過에 따른 國際法上의 通過節次에 따르면 許容된다. 그러나 제주海峽은 KADIZ 內에 위치하므로, 제주海峽 통과시는 KADIZ 出入節次에 의해야 한다.

領空의 수직적 범위에 대해서는 國際法上 定說이 없으며, 우리나라의 國益에 알맞은 說을 주장하기 위하여 研究가 필요하다.

領空侵犯에 따른 武器使用에 있어서 民航空機에 대하여는 新設 Chicago 協約 第3條 2項에 의거 武力使用이 禁止되고 있으며, 軍用機의 領空侵犯時는 KADIZ 出入節次를 위반하고 領空을 侵入하였을 때에는 不法目的으로 인한 侵犯으로 간주할 수 있으며, 강제착륙을 命命하고 이에 불응할 시에는 武力行使를 가할 수 있다. 또한 北傀 軍用機가 서해에서 NLL 이하로 南下하는 경우에는 이를 休戰協定에 위반되는 不法目的의 武力挑發로 간주할 수 있으며, 先制的自衛의 개념으로 武力使用을 할 수 있다고 본다.

KADIZ 侵入時는 敵對行爲를 하지 않는 한에서는 武力行使를 할 수 없다. KADIZ는 領空과 같이 主權이 存在하지 않으며, 識別이 目的이라 할 수 있다.

— 註 解 釋 —

- 1) 城戸正彦, 空域主權の研究, 風間書房, 1981. pp. 225~231.
- 2) 城戸正彦, 上掲書, pp. 231~238.
- 3) 李連淑, 軍艦의 通航權에 관한 研究, 梨大論文, 1982.
- 4) 고종희, 주변국정세와 한반도, 海洋戰略 45号. 1986. 11.
- 5) 柳炳華, 國際法 總論, 一潮閣. 1985, p. 485.
- 6) 資料: 북한 레이더(1977. 9), 陸本軍事評論(1976. 17호 부록), 軍史 12号(國防部), 空軍作戰司令部 資料(1986).
- 7) 金明基, 서해오도의 法的 地位, 국제법논총, 23권 1978. pp. 330~337).
- 8) 尹益洙, 宇宙法 理論에 관한 研究, 단국大논문, 1982.
盧明瀟, 宇宙法에 關連된 諸問題, 국제법 논총.——.
李永鎮, 宇宙活動에 있어서 國家의 法的 責任, 한국 국제법학의 제문제, 박영사 pp. 330~353.
- 9) 宋孝卿, 金載猷, 航空法 精解, 東明社, 1985. pp. 22~24.
- 10) 官崎弘毅, , 領空侵犯と国境警備, 国防. 1983. 11. pp. 8~20.
- 11) 安藤英彌, 스파이기의 전모, 軍事研究, 1986. 12月, '87年 1月, 2月.
- 12) 官崎弘毅, 前掲書, pp. 12~15.
- 13) 城戸正彦, 宇宙法의 基本問題, 風間書房, 1970. pp. 115~120.

開港期 韓中關係의 緊密化

清朝에서 이른바 藩邦문제에 대하여 새삼스럽게 주의를 기울이게 된 것은 두말할 나위 없이, 열강의 침략에 기인한 것이다. 淸의 변경에서 열강과의 분쟁이 자주 일어나고 그 위협이 가중됨에 따라 藩邦문제에 대하여 새로운 인식과 그에 부응하는 정책이 모색되었다는 것은 당연하다 할 것이다.

본래 宗藩관계는 中國과 주변국가 간의 국력과 문화적인 격차를 기초로 하여 형성된 동양적 국제관계였다. 따라서 구체적으로는 朝貢제도에 입각하고 있으나 흔히 일컬어지는 禮教질서를 위주로 하는 의례적이고 명분론적인 국교관계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국교관계는 열강의 침략에 의하여 다른 의미를 지니게 되었으니, 즉 藩邦문제는 점차로 명분론을 떠나 실질적이면서도 현실적인 淸朝의 변방문제와 직결하게 되었고 이른바 朝鮮에 대한 종주권의 강화라는 것도 淸朝의 국방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이다.

藩邦문제 중에서도 朝鮮문제가 중요시된 것은 다른 어느 藩邦보다도 淸朝의 국방상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판단된 때문이다. 특히 1860년~1870년대 朝鮮에 대한 서구제국과 日本의 침략위협이 가중됨에 따라 淸朝의 자강운동의 중심이었던 洋務官僚들에 의하여 그 위기의식이 지적되었고, 그 결과 朝鮮정치에 대한 불간섭정책을 탈피하여 점차

權 錫 奉

(中央大 教授, 東洋史學, 空軍9期各種,
空士 教授部 教官 歷任)

새로운 對朝鮮政策을 모색하였다. 그것이 곧 朝鮮의 외교문제에 대한 권도책이다. 淸朝는 이 정책을 발판으로 하여 朝鮮에 대한 종주권의 강화를 시도하기 시작한 것이다.

本 小稿에서는 이러한 淸朝의 새로운 對朝鮮政策의 수립배경과 그 전개과정을 이해하기 위하여 첫째, 朝鮮의 開港을 전후한 시기 洋務官僚들의 對朝鮮觀, 둘째, 洋務官僚의 對朝鮮列國立約勸導策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2. 1860년~1870년대 洋務官僚들의 對朝鮮觀

1866년 丙寅洋擾시기부터 1875년 江華島 포격사건시기까지 朝鮮문제에 대한 洋務官僚들의 인식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 그러나 1879년과 1880년, 日本의 琉球폐합사건과 淸·露伊犁환부교섭이 진행되는 동안 점차 변화해 갔다. 즉 朝鮮문제에 관한 洋務官僚들의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었고 특히 확고한 對朝鮮政策의 수립을 촉구해 갔다는 것이 그것이다.

藩邦문제 중에서도 朝鮮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된 것은 朝鮮의 위치를 東三省과 京畿重地의 울타리로 파악하였고, 따라서 朝鮮의 안보는 淸朝의 안위문제와 직결되어 있다고 인식한 데 있다. 특히 琉球폐합사건 이후 琉球의 경우와 비교하면서 朝鮮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을 보면 명백하게 알 수 있다. 더욱기 '外藩盡削'의 위기의식은 朝

鮮의 중요성을 더욱 절감시켰다고 생각된다.

朝鮮에 대한 佛·美·英 등 서구제국의 위협보다도 특히 露·日 양국의 위협에 대하여 주의를 집중한 것은 서구제국의 경우 그의 목적이 입약, 통상 내지 伝教에 있다고 본데 반하여 露·日의 경우는 영토적 침략에 목적이 있다고 판단한 결과다. 辛未洋擾시기에 總理衙門, 曾國藩, 李鴻章 등이 美艦隊의 朝鮮침공보다도 日本陰助說에 더 관심을 집중한 것이 그 좋은 예이다.

그러나 이와 같이 朝鮮의 중요성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朝鮮문제를 둘러싸고 서구제국과 露·日 등이 분쟁을 야기시켰을 때 淸측에서는 이른바 從中排解를 시도하였으나 그 성과는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다만 그 중요성 여하에 따라 朝鮮政府에 통고하여 豫籌辦理케 하는 방법을 택하였을 뿐이다. 즉 어느 경우이건 朝鮮문제에 대하여 淸측은 명실상부한 정치적 불간섭주의를 유지한 것이다.

따라서 이 시기에 구체적인 對朝鮮政策은 존재하지 않았다. 辛未洋擾 직후 總理衙門에서 '勸美國不必前往 此外別無可為代籌之策'이라 표명한 것이 그 단적인 증거이다. 淸측에서 구체적인 對朝鮮政策을 구상할 수 없었던 이유를 들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점이다. 첫째, 朝·淸관계에 있어서의 정치적 불간섭주의, 둘째, 淸朝자체의 국력의 한계, 셋째, 朝鮮政府의 閉關自守에 대한 확고한 결의 등이 그것이다.

日本의 朝鮮침략위협에 대하여 總理衙門

이나 北洋大臣 李鴻章은 淸·日約章 제1조의 규정에 침략억제력을 지니고 있다고 판단하였으나 江華島 포격사건이 야기되자 李鴻章은 그 억제력이 회의적이라는 것을 솔직히 시인하고 있다. 그것은 그 전년에 있었던 日本의 侵臺사건교섭의 경험을 통하여 얻어진 결론이었을 것이다. 따라서 李鴻章은 日使 森 有禮의 用武에 뜻이 없다는 말을 일단 믿는 토대 위에 ‘息事寧人之計’를 택하여 總理衙門에 진의 하였고 總理衙門에서는 奏請을 거쳐 그의 방안을 채택, 朝鮮政府에 일본과의 修好를 권고하게 된 것이다.

露西亞의 朝鮮에 대한 침략위협이 주목되기 시작한 것은 江華島포격사건 직후의 일이며, 그 이후 1879~80년간 주의가 집중되었다. 그러나 日本에 대한 대응방안의 경우와 같이 先禮後兵할 것이라는 판단아래 조약체제를 갖추므로써 침략위협을 벗어날 수 있다고 분석하였으며, 이 뜻도 또한 朝鮮政府에 전달되고 있다. 1880년 12월 道員 陳本植의 防俄論에 대하여 李鴻章이 군사비 증액의 불가함을 들어 반대하면서 주장한 것이 그것이다.

洋務官僚들의 朝鮮에 관한 일반적인 인식은 상반된 두 측면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朝鮮은 積弱한 나라로서 日本에 대적할 수 없으며, 위기에 직면하게 되면 결국 淸朝에 구원을 요청하게 될 것이라 보고 있는 반면, 나라는 비록 小國이나 인심이 굳건할 뿐만 아니라 濱江, 水路에 高山, 暗礁 등이 많아 방어하기 쉬우며 또한 進貢, 용병이 뛰어나

쉽사리 침공당하지 않을 것이라 보고 있는 것이 그것이다. 후자의 인식은 壬辰亂과 두 차례에 걸친 洋擾를 통하여 얻어진 것이다. 그 밖에 朝鮮에 관하여 입수하고 있는 정보는 단편적일뿐만 아니라 신빙성이 없는 풍문 등 극히 빈약한 것으로 예전대 洋擾에 관한 것과 朝鮮의 日本에 대한 進貢문제 등이 그것이다.

朝鮮에 告警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대하여 洋務官僚들의 주장은 적극 지원론과 신중론으로 양분되고 있다. 丁日昌, 劉坤一, 李璠, 陳本植, 梅啓照, 吳大澂, 姚文棟 등의 주장이 전자에 속한데 반하여 總理衙門이나 李鴻章의 견해는 후자에 속하고 있다. 그러나 신중론이라 하더라도 파병지원문제를 전혀 배제한 것이 아니라는 것은 李鴻章이 屆時量力度勢妥辦'이라 한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다만 淸朝의 대외정책수립에 있어서 핵심을 이루고 있었던 總理衙門이나 李鴻章 등이 신중론을 펴고 있었다는 점은 주목된다 하겠다.

江華島포격사건이 야기되기 직전에 英教習 카우리스(Cowles)에 의해 주장된 防日을 위한 朝鮮保護論은 정책으로 진전을 보지 못했으나 淸朝의 對朝鮮政策수립에 중요한 영향을 주었으리라 짐작된다. 그 이후 1880년, 1881년에 이르러 吳大澂, 姚文棟 등에 의해서 朝鮮保護論이 적극적으로 주장되고 있는 바 이것은 이 시기에 淸朝의 朝鮮에 대한 인식과 對朝鮮政策이 이미 변화를 나타내고 있었다는 증거라 할 수 있다.

3. 洋務官僚의 對朝鮮列國立約勸導策

清朝에서 朝鮮에 대한 새로운 정책으로서 列國立約勸導策이 모색된 것은 朝·日修約 이후 朝鮮에 대한 日本세력의 팽창문제, 日本에 뒤이어 서구제국이 朝鮮과의 입약, 통상을 기도할 것이라는 판단 및 '外藩盡削'이라는 위기의식 등이 기초가 되었다. 그러나 朝鮮정부의 閉關自守의지가 확고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던 清朝는 쉽사리 이 정책을 추진할 수는 없었다.

清朝에서 朝鮮에 대하여 佛·美양국과의 입약, 통상을 처음으로 권고한 것은 日本의 侵臺사건이 진행 중이었던 1874년 5월이었다. 侵臺사건을 담당하고 있었던 沈葆楨은 福州船政局 正監督이었던 지젤(Prosper de Vaisseau Giquel)의 제안을 받아들여 朝鮮과 佛·美立約論을 總理衙門에 진의하였다. 李鴻章은 이 제안을 반대하였으나 總理衙門의 奏請을 거쳐 동년 6월 22일 佛·美立約勸導의 뜻이 朝鮮정부에 전달되었다. 그러나 朝鮮정부에서는 8월 9일 齋咨官 李容肅을 파견하여 日本을 도우려는 佛·美 양국을 비난하면서 閉關自守의 의지를 재천명하고 있다.

그 다음 해인 1875년 江華島포격사건이 야기된 직후 朝鮮에서 李裕元이 王世子冊封陳奏使로 北京에 들른 후 귀로에 永平府知府 游智開를 통하여 李鴻章에게 서신을

전달하였고, 이에 대하여 李鴻章은 '略及外交之意'를 내용으로 한 復函을 李裕元에게 보내고 있다. 이렇게 하여 시작된 양인간의 文通은 거의 매년 있었으며, 이 文通은 朝·淸관계의 진전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 것이다.

李鴻章은 이 文通을 이용하여 日本세력의 朝鮮진출을 견제하려는 그의 정견을 전달하고 있다. 특히 1878년 9월 4일자 서함에서는 日本에 관한 정세분석과 함께 露西亞의 朝鮮에 대한 침략위험을 경고하여 '似不可不隱為之備'가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英·美 각국은 국교관계에 있어서 통상을 위주로 하고 타국에 대한 영토적 야심이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같은 列國立約에 관한 시사는 防日·露論에 입각하여 朝鮮의 안위문제에 점차 관심을 집중하기 시작한 洋務官僚들의 의사를 반영한 것이다.

그 다음 해인 1879년에 이르러 淸·露伊犁灣부교섭과 日本에 의한 琉球체합사건이 야기되어 露·日에 대한 경각심이 한층 고조되고 이에 따라 露·日の 朝鮮에 대한 침략위험에 관심이 집중되었다. 이러한 시기에 제의된 것이 朝鮮에 대한 列國立約勸導策으로서 이 勸導策은 동년 4월 25일 前福建巡撫 丁日昌이 상주문의 부건으로 올린 「海防應辦事宜十六條」중 제10조에서 진의한 것이다. 그의 주장은 防日·露論에 입각하고 있음은 물론이다. 특히 朝·日修約사실을 중시하여 列國立約으로 세력균형을 이

루고 日·露의 침략위협을 억제한다는 것이며, 아울러 입약 이후 조약국과 긴밀한 유대관계를 유지함으로써 自強策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도 들고 있다.

總理衙門에서 丁日昌의 이 제안을 채택하여 光緒帝에게 정식으로 건의한 것은 7월 4일이다. 總理衙門의 견해는 丁日昌의 의견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었으나 丁日昌이 使臣을 통해서 朝鮮정부에 密勸할 것을 제안한 반면 總理衙門에서는 李鴻章으로 하여금 李裕元에게 密函을 보내는 방법을 건의하고 있다. 光緒帝는 당일로 軍機大臣을 통하여 이 건의를 수락하는 論旨을 내리고 있다.

이 論旨에서 주목되는 것은 淸 朝廷로서는 朝鮮의 政教禁令의 자주성에 비추어 朝鮮이 원하지 않는 列國立約을 강요할 수 없다고 밝히고 總理衙門의 건의대로 李鴻章에게 명하여 丁日昌의 제안을 ‘作為該督之意’ 하여 朝鮮측에 전달토록 하였다는 점이다.

이 論旨에 따라 李鴻章이 列國立約에 관한 密函을 李裕元에게 보낸 것은 7월 9일이다. 李鴻章은 이 密函에서 우선 日·露의 朝鮮에 대한 침략위협성을 지적하면서 특히 日本이 歐美제국 및 露西亞와 陰結할 경우를 들어 경고하였으며, 이어서 이러한 침략위협성을 억제하기 위하여 ‘以毒攻毒 以敵制敵之策’으로서의 列國立約策을 勸導하고 있다. 그는 또한 이 정책의 실효성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強弱相維와 公法 및 通商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유리한

점을 들고 있다. 그리고 그는 이 密函의 말미에서 이 정책의 결정문제에 관하여 ‘此等大事 豈我輩所可干預’라 밝히고, 朝鮮國王이 廣集廷臣하여 결정해 줄 것을 희망하고 있다. 그러나 7월 14일 이 시말을 보고한 그의 상주문을 보면, 물론 朝鮮정부에서 列國立約을 결정하였을 때라는 전제이지만, ‘朝鮮臣民 未諳洋情’ 하고 또한 ‘約章利病 素未深究’하다는 이유를 들어 淸측에서 ‘妥為調處’할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이 정책이 실현될 경우 淸측의 개입이 예정되어 있었다고 할 수 있으며, 이 점은 그 이후의 朝·淸관계의 진전으로 보아 매우 주목된다 하겠다.

盛京將軍 岐元을 통하여 轉遞된 李鴻章의 密函을 李裕元이 받은 것은 7월말이었다. 그는 李鴻章이 희망한 대로 이 사실을 高宗과 廟堂에 알렸을 것이라 짐작된다. 그것은 2년 후인 1881년 11월 29일 保定府로 간 領選使 金允植이 李鴻章에게 보낸 密書 중에서 ‘自後連年書幣 皆出寡君之意’라 한 것으로 보아 알 수 있다. 따라서 李裕元의 회신은 朝鮮정부의 의사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李裕元은 8월에 출발한 憲書責咨官 李容肅편에 李鴻章에게 답서를 보냈으나 이 답서는 軍械學造事에 관한 내용이었고 列國立約에 관한 문제는 전혀 언급이 없었다. 그러나 游智開에게 보낸 서신에서는 이 정책을 거부하는 의사를 명백히 밝히고 있다.

李裕元이 李鴻章에게 답서를 보내어 정식으로 이 청책을 거부한 것은 11월 7일 辭

陞한 謝恩兼冬至正使 韓敬源편에 부송한 답서에서이고, 李鴻章이 받은 것은 그 다음 해인 1880년 2월 5일이다. 李裕元은 동 답서에서 우선 朝鮮의 정세가 ‘不暇外交’의 상태이며, ‘泰西之學’을 天主教로 간주하여 국법으로 금지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그 다음 이어서 李鴻章의 견해에 대하여 비판 내지 회의를 표명하고 있는 바, 첫째, ‘以毒攻毒說’에 대하여 ‘我先取敗而已’ 하고 ‘恐一遇毒而不能起’ 할 뿐이라고 하였고, 둘째, 強弱相維와 公法에 대하여 琉球멸망의 예를 들어 그 실효성에 회의를 표명하였으며, 셋째, 통상관계에 대해서도 간과적으로 日本의 전철을 밟을 뿐이라고 주장하면서 특히 朝鮮의 地產貨物의 沽惡을 들어 실제로 통상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李裕元은 이와 같은 세 가지 점을 지적하여 列國立約을 거부하면서 歐美제국과 日本의 滋擾에 대해서는 여전히 李鴻章이나 나아가 清朝에 依怙하려는 태도를 표명하였을 뿐이다. 李鴻章의 列國立約勸導 내용에 미흡한 점이 있고 따라서 李裕元의 거부의전에 타당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朝鮮측의 意識의 한계는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清朝의 對朝鮮列國立約勸導策은 朝鮮측의 거부로 일단 보류되었으나 곧 이어 새로운 轉機가 마련되었다. 즉 첫째, 1880년 3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美國의 슈펠트(Shufell) 제독이 日本의 알선을 통하여 시도한 朝·美통상교섭이고, 둘째, 슈펠트 제독의 행적에 대하여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었

던 駐日淸出使大臣 何如璋은 朝·美통상교섭이 실패한 다음, 李鴻章에게 요청하여 슈펠트 제독을 天津에 조치, 聯美論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었고, 셋째, 같은 시기에 派日된 修信使 金弘集을 통하여 何如璋·黃遵憲이 시도한 外交勸導策, 넷째, 朝鮮정부에서 추진하기 시작한 軍械學造事와 練兵事에 관한 교섭, 다섯째, 淸·露伊犁환부교섭에 뒤이은 露海軍의 南進 등이 그것이다.

軍械學造事の 咨請을 위해 別責咨官 卞元圭가 北京을 거쳐 天津에 도착한 것은 동년 9월 16일이며, 이 때 李鴻章은 軍械學造事와 列國立約을 ‘相輔而行’ 하여야 될 것이라 주장하였고, 특히 9월 22일에 있었던 卞元圭와의 회담에서 列國立約의 再勸導를 시도하였다. 그는 우선 佛·美양국이 朝鮮과의 입약, 통상만을 원하고 있는 반면 露西亞는 朝鮮의 東海岸으로 세력확대를 기도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露西亞의 경우도 ‘先禮後兵’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露西亞의 침략위험을 벗어나는 방법도 입약, 통상을 허용하는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琉球폐합문제에 대한 해명과 함께 公法이 ‘東土未必照行’ 한다는 냉혹한 국제관계의 사실을 시인하면서 列國立約, 즉 세력균형만이 一國의 강점을 억제하고 朝鮮을 보존할 수 있을 것이라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李鴻章의 列國立約再勸導에서 露西亞와의 입약, 통상까지도 권고하고 또한 公法의 실효성을 부인한 점은 朝鮮의 列國立約을 권도하는 면에서 불리한 증언이

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같은 시기에 朝鮮정부에서 修信使 金弘集이 日本에 파견되었을 때 清出使 日本大臣 何如璋과 參贊 黃遵憲은 이미 美国 슈펠트 제독의 日本의 알선을 통한 朝·美 교섭과정에 자극되어 清朝가 기도하고 있었던 列国立約勸導策을 적극 추진시키고자 하였다. 何如璋 · 黃遵憲은 金弘集과의 6차에 걸친 회담을 통하여 聯美論을 중심으로 한 ‘勸令外交’와 朝鮮의 自強문제를 논의하였으나 이 논의만으로는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여 何如璋은 黃遵憲에게 명하여 『朝鮮策略』을 찬술, 金弘集에게 전달하였다. 金弘集에 의해 『朝鮮策略』이 高宗과 朝鮮朝野에 전해진 다음 高宗과 穩健開化派를 중심으로 초기 개화정책이 추진된 반면 守旧派에 의해 이른바 衛正斥邪운동이 전개되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朝鮮策略』을 찬술한 의도는 물론 朝鮮의 외교문제와 자강문제에 대한 권도를 발판으로 朝鮮의 안전을 꾀하는데 있었다. 그러나 何如璋 · 黃遵憲이 궁극적으로 추구한 것은 朝鮮이 清朝의 屏藩으로 명분을 유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 즉 屬國으로 열강에 의해 멸망당할수 없어야 할 뿐만 아니라 美国과 조약을 체결하고 나아가 열강과 조약체제를 이룬다 하더라도 屬國의 명분이 상실되지 않도록 한다는 것이었다.

金弘集이 귀국한 이후 朝鮮정부의 반응에 대하여 주목하고 있었던 何如璋 · 黃遵憲은 高宗이 密使로 李東仁을 파견하여 朝議가

聯美論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림에 따라 사태의 진전에 대하여 희망을 갖었으나 그 이후 朝鮮정부에서 진일보한 반응이 없자 동년 10월 16일 후속조치로 <主持朝鮮外交議>를 작성하여 總理衙門에 진의하고 있다. 이 진의에서 그는 屬邦名分을 한층 강화하여 朝·美立約에 있어서 華員派遣主持할 것과 清朝에 奏明할 것 및 조약문에 朝鮮이 清朝의 屬國임을 明文化할 것 등을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總理衙門이나 李鴻章의 對朝鮮政策은 ‘勸導’의 한계를 지닌 소극적인 것이었으나 何如璋의 그것은 ‘主持’를 내세운 적극책이었다는 점에서 주목되며, 더우기 清朝가 朝·美조약 체결 당시 何如璋의 주장을 그대로 실천에 옮겨갔다는 사실로 보아 그렇다.

그러나 總理衙門과 李鴻章은 何如璋의 제안에 대하여 반대하고 계속 ‘密為維持保護’하는 정책을 취하도록 명하고 있다. 朝鮮의 정치적 자주권이 부정되면 입약자체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견해의 차이는 정책입안자와 정책참여자의 격차에서 오는 것이라 생각된다. 그러나 何如璋의 기대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朝鮮의 외교문제는 그후 朝·清 간에 軍械學造事의 교섭이 진행됨에 따라 總理衙門과 李鴻章이 주관하는 정식통로에 의하여 진전되었던 것이다.

요컨대 總理衙門과 李鴻章에 의해서 추진된 對朝鮮列国立約勸導策이 朝鮮정부와 李裕元의 거부로 침체하고 있던 시기에 金弘

集의 派日을 전후하여 何如璋·黃遵憲이 朝鮮의 외교문제에 대하여 관심을 집중시켰고, 더욱이 『朝鮮策略』을 찬술하여 朝鮮정부에 전달한 것은 朝鮮측에게는 물론 淸측에도 중요한 전기를 마련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특히 그가 淸의 對朝鮮守立權의 강화기도에 중요한 구실을 하였다는 점은 매우 주목되는 바라 하겠다.

4. 結 言

開港期 이전의 朝·淸관계는 總理衙門이나 洋務官僚들이 열강에 대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朝鮮은 비록 淸朝의 속방이나 政教禁畧은 자주적으로 행하며 淸朝의 간섭을 받지 않는다’라고 표명한 바와 같이 정치적 불간섭주의를 유지해 왔다. 따라서 양국 관계에는 朝貢제도에 입각한 의례적인 典禮이외 어떤 정책도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나 구미열강이 마침내 朝鮮과의 입약, 통상을 요구하기 위하여 朝鮮에 내항하고 이를 둘러싼 분쟁이 야기되자 淸朝에서는 점차 관심을 집중해 갔다. 특히 1874년 日本의 侵台사건과 그 다음 해인 1875년 江華島포격사건이 일어나자 종래 구미열강이 朝鮮과의 통상, 전교를 목적으로 교섭을 시도한데 반하여 日本의 경우는 朝鮮에 대한 영토적 침략의 위협이 있다고 판단, 이에 대한 경각심이 한층 고조되었다. 같은 시기에 露西亞의 朝鮮진출문제도 점차 중요

시 되었던 것이다. 그 후 이러한 日·露양국의 朝鮮침략위기의식이 결정적인 단계에 도달한 것이 1879년, 1880년의 琉球폐합사건과 淸·露伊犁환부교섭사건이었다. 이러한 위기의식은 물론 淸朝의 안위문제와 藩邦으로써의 朝鮮의 존재가치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인식에 기초한 것이다. 이러한 동북아시아의 정세변화에 따라 淸朝에서 對朝鮮政策으로 모색, 추진한 것이 이른바 以夷制夷정책인 朝鮮의 列國立約勸導等이었다. 勸導策에 머문 것은 우선 朝鮮정부의 閉關自守의 의지가 공고하다는 사실과 정치적 불간섭주의 및 淸朝자체의 국력이 ‘鞭長莫及之勢’에 있었다는 사실 등이 그 원인으로 지적할 수 있다.

丁日昌의 전의와 總理衙門의 奏請을 거쳐 李鴻章에 의해 추진된 列國立約勸導等은 형식상 朝鮮측의 李裕元에게 密函을 보냄으로써 실현되었으나 이 勸導策은 또 다시 閉關自守를 고집하는 朝鮮측의 거부로 일단 실패하였다. 그러나 이 정책은 修信使 金弘集의 到日에 따른 淸出使日本大臣 何如璋 및 參贊 黃遵憲의 勸令外交와 『朝鮮策略』찬술을 통해 새로운 진전의 전기가 마련되었고 1882년 朝·美조약체결의 방향으로 발전해 간 것이다. 결국 淸朝는 이러한 새로운 對朝鮮政策의 구상과 실천을 통해 朝鮮에 대한 대한 宗主權을 강화해 간 것이다.

美国의 外交政策과

동북 아시아

「U. S Foreign Policy and
Northeast Asia」

태평양 시대의 도래로 인하여 동북아시아는 세계정치
의 주요 변수로 등장하게 되었으며, 이에 대처한 미국의
관심이 어떤지를 알기위한 자료로서 여기 아시아 문제
전문가인 「스칼라 피노」 박사의 최근 발표된 논문을 소
개하는 바이다.

- 편집자 주 -

로버트 A 스칼라피노 (Robert
A. Scalapino)

우리는 인류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더 많
은 인간의 삶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
는 새로운 革命期에 돌입하고 있다. 현재
진행중인 혁명은 미국이나 프랑스 또는 러
시아에서 일어났던 革命같은 과거의 사
건들로서 상징되는 것이 아니다. 現存하는 정

권들이 폭력에 의해 전복되거나 새 集團이
나 계급들이 권력을 쥐고, 갑자기 대두하
는 일은 사실상 과거지사가 되어버렸다. 現
대에 革命은 유전공학이나 通信 및 宇宙와
같은 분야에서 인류가 살고, 생각하고, 남
과 상호작용하는 방식에, 그들의 문화적 軌
道 안팎에서 심각하게 영향을 주는 획기적
인 前進들로 요약될 수 있다.

이는 고르지 못하게 진전되고는 있으나

그 규모가 전세계적이라는 면에서 하나의 혁명이다. 어떤 사회라도 아무리 원시적이거나 멀리 떨어져 있다해도 이 영향에서 전적으로 벗어날 수는 없다. 石器시대로부터 거의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 있는 西이리안의 아스마트族조차도 눈 위에 세운 그들의 집속에 앉아 그들의 눈으로 직접 보지 못할 세계로부터의 비디오카세트를 구경하고 있다.

世界的 革命이 美国에 미치는 影響

그러나 현재 세계적 규모의 혁명으로부터 가장 깊은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은 보다 복잡하고, 경제적으로 개발되어 있는 사회들이다. 우리의 觀察을 美国内の 政治的 結果에만 限定시켜 본다해도 지도자에 대한 요구가 크게 늘어났다는 것을 먼저 발견할 수 있다.

미국의 理想的인 지도자는 國民을 효율적으로 動員하고 相衝하는 利害관계의 均衡을 유지하며 복잡한 제도적 구조를 관리하면서 끝으로는 자기 국민 뿐 아니라 다른 많은 나라 국민들에 영향을 미치는 決定的 최종적인 根源이 되는 사람이다. 카리스마적인 지도자의 資質은 없어지기는커녕, 혼란스럽고 급격히 변하는 시대에서 우리 市民들의 강력하고 自信感에 차 있는 國家元首에 의한 다짐을 바라고 있기 때문에 그 要求度도 더 높아지고 있다. 더우기 국민은 복잡한 문제들을 어떤 한 人物로 구

체화시키는 必要性을 느끼고 있고 복잡한 문제들을 그들이 理解할 수 있는 言語로 표현해 줄 수 있고, 그들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 一體感을 가지려는 욕구를 느끼고 있다.

오늘날에는 또한 이제까지 경험했던 것보다 더 급격히 진행되는 체제적 변화의 속도와 발맞추어야 할 것도 요구되고 있다. 결정을 내리는데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란 적어도 最大限의 결과를 남기를 기대한다면 크게 줄어들어 있다. 이는 특히 민주사회에서 심리적이면서도 정치적인 문제들을 제기한다. 국민의 마음을 준비시키고, 새정책들을 既存의 정책들과 통합시키는 必要性을 감안할 때 구조적 성격의 변화에 필요한 “자연적인 템포”가 있었으나 현재의 템포는 너무나 느린 것처럼 보인다. 그 결과 어떤 대책이 강구되어야겠다는 專門家の 認知와 무슨 대책을 쓸 수 있는가에 대한 정치인들의 認知가 점차로 서로 相異해지는 상황에서 긴장이 급속히 발생해 왔다.

한편 事態의 推移는 國民國家의 主權이 근본적인 정치적 권력의 根源으로 확립된 이래 國民國家의 主權에 대한 보다 큰 挑戰을 造成하고 있다. 다른 한편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문제들은 특히 都市化되고 공업화된 배경 속에서 급속히 倍增되고 있다. 中央정부는 이같은 문제들을 효율성 있게 다룰수 있는 경우가 드물다.

그러므로 市民들을 위해 그들의 직접적인 환경속에서 自治를 회복시켜야 한다는

요구가 증대되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정치적 권위의 주된 受託者로서 가능할 수 있는 국민국가의 능력은 위로부터 도전을 받고 있는데 그 挑戰은 하루에도 수십억달러에 달하는 돈이 국경을 넘나드는 資本移轉과 통화 환율의 변동이 국내에 미치는 충격, 테러행위의 急增, 그리고 地政學의 전통적인 개념을 시대에 뒤진 것으로 만들어 버린 교통, 통신 및 武器類 등에서의 劇的인 變化같은 형태로 나타난다. 현재의 지역적 및 국가적 기구들이 補完기구로서 不適切함에도 불구하고 主權은 국가적 차원에서 침식을 당하고 있다.

美國國民은 이같은 맥락에서 외교정책의 중심적인 문제들을 파악해야 한다. 먼저 본인은 절망에 빠져야 할 이유는 없다는 주장부터 펴고싶다. 여론조사나 그밖에 이용 가능한 자료에 나타나는 증거를 보면 전체적으로 보아 국민은 매우 어려운 시기에 타당성 있는 성숙도를 가지고, 그리고 위협의 上昇이라고 자주 선언되는 그런 유형의 극단주의를 피하면서 調整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주요 국가들의 거의 모든 국민들과 마찬가지로 오늘날 미국인은 비싼 댓가를 치른 국제적 公約으로 수십년을 지낸 후 위협도가 낮고 경비도 덜 드는 외교정책을 원하고 있다. 여기서 “公正性”이나 “相互性” 같은 用語들이 人氣를 얻게 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 후 미국은 경제적이거나 정치적 또는 전략적인 어떤 尺度에 의해서건 모든 主要국가들 가운데 가장

국제적인 나라였다는 인식이 성립되고 있으며, 이를 뒷바침할 만한 강력한 傍証들도 있다. 人力을 포함한 미국의 자원은 愛他主義가 흔히 생각되어온 것보다 더 큰 역할을 담당할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너무나 험하게 쓰였다고 말하기도 하지만 남을 위해서 아낌없이 사용되어 왔다.

西유럽을 포함하여 다른 곳에서는 그다지 강력하지 못했던 선교사적 정신은 世俗的인 형태이긴 했으나 1945년 이후의 미국에서 새로운 項點에 달했다. 세계를 飢饉, 질병 및 공산주의로부터 救出하라는 宗務이 미국의 義務로서 아니면 적어도 미국의 反應이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과업으로서, 여러가지 형태로 선전되었다. 미국인은 그들의 지도자들과 대다수 選良들로부터 발전과 민주주의의 메시지를 전세계에 전파하자는 사명을 부여받았다. 西유럽과 東아시아에 관심의 焦點을 맞춘 가운데 전략적 考慮의 우선순위가 확실히 정해졌다. 그러나 미국의 관대성은 다른 많은 나라들에 베풀어졌으며, 대체로 말해 미국인은 그들의 풍요로움의 일부를 불평없이 남에게 나누어 주었다. 다만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승리가 목표가 아니었던 제한된 전쟁에의 직접적인 참전이 심각한 반대를 이 야기시켰다.

미국을 포함하여 세계에서 일어난 여러 변화와 함께 미국 내의 무드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었다. 참으로 놀랄만한 일이 한 가지 있다면 그같은 무드

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다는 것이다. 이제 미국민은 그들의 자원의 보다 많은 부분을 국내 문제로 돌리고 盟邦들이 부담을 더 많이 분담하기를 요구하며 미국과의 관계를 추구하는 나라들의 경제적 정치적 정책들을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기를 원하고 있다. 이러한 무드에 附隨하여 미서널리즘의 係數가 오르고 있고 미국인이라는 긍지가 새로이 나타나고 있으며, 불확실한 세계 속에서 미국의 특정 價值들의 보전에 다시 献身하려는 機運이 싹트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어떤 선동가들이 危機의 경고를 말하는 것과는 달리 國粹主義나 孤立주의가 미국의 새로운 경향의 지 배적인 특성을 이루고 있는 것은 아니다. 미국시민의 대다수는 미국이 세계에서 외따로 떨어질 수 없는 일부라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 相互依存性이 널리 容認되고 있다. 문제는 균형을 유지하자는 것이지 철수하자는 것이 아니다. 이는 경제면에서 뿐 아니라 정치 전략적인 면에서도 사실이다. 議會에서 리처드 게파트나 다른 議員들이 제안하고 있는 貿易立法은 誤導될 수 있거나 또는 非효율적일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들 스스로는 이를 “親貿易”적인 것이라고 내세우면서 보다 큰 무역균형만이 전전한 경제관계를 증진시킬 수 있다는 假定下에 그들의 立法이 미국 상품에 대한 해외市場의 門戶開放을 증진시킨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경제적 相互작용의 모든 형

태를 고려할 때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개방된 경제를 가지고 있는 나라로 남아 있다. 그렇다 해서 이같은 사실이 지난 수십년간 스스로의 경제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미국의 책임이나 또는 미국의 競爭力低下의 원인이 된 民間분야에서의 어떤 문화, 國土적 결함의 존재를 흐르게 하도록 허용되어서는 안된다.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거의 모든 美國人들은 미국내의 就業기회나 미국산업의 生存가능성에 대해 外國의 商品들이 加하고 있는 충격에 깊이 우려하면서도 현재의 경제적 문제들을 이에 마땅한 복잡성을 가지고 處理할 用意가 있다는 사실이다.

美國이 세계로부터 전면적으로 철수한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미국의 현재의 지배적인 감정이 미국 公約의 급격한 속소를 지지하고 있지도 않다. 소련과의 광범위한 軍縮협상을 早期타결하는데 대한 公的인 지지가 널리 퍼져 있고 이는 오늘날 레이건 행정부도 同調하고 있는 바이지만, 그러면서도 세계적인 전략적 균형에서 關鍵的인 행위자의 하나로 계속 남으려는 미국의 意慾은 아직 남아 있다. 西유럽이나 한국 또는 미국의 방위공약이 존재하는 다른 지역으로부터 美軍을 철수시키라는 강력한 일 반국민의 압력은 현재 하나도 없다. 그러나 니카라과에 대한 군사적 개입에 대한 미국에서의 실질적인 반대는 미국민이 군사적 개입에 부과하고 싶은 制約과 과거를 회고하는데에서 오는 우려들을 반영하는 것

이다. 반대의견을 가지고 있는 일부의 미국인들이 벌이고 있는 선전활동에도 불구하고 여론 조사 결과는 미국시민들의 매우 상당한 대다수가 오르테가와 산더니스타파를 민주 민주주의에 대한 '反命題'로서 일반적으로 달갑지 않은 존재로 보고 있음을 명백히 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반대세력이 미국의 지원을 가지고도 버티나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있고 니카라과 정권이 현재 비싼 代價를 치르고 위험을 무릅쓰는 일을 정당화하리만큼 미국에 대한 심각한 위협을 加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다. 이런 유형의 정세는 그 자체의 독특한 특성을 지니게 마련이나 이러한 기본적인 고려사항들이 미국민의 태도 결정에서 優位를 차지할 것이다.

대체로 지금까지 나타난 것처럼 미국민들은 그들의 지원이 再배치되어 시급한 국내문제들이 보다 적절하게 처리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불과 몇년 전에 비하면 추가적인 방위비에 대한 지지는 제한되어 있다. 공식적인 淸外원조는 잠정적 人導주의적인 원조가 아니라면 국민에게 인기가 없다.

시급한 국내적인 필요성 외에도 과거에 미국의 지원을 받은 나라들의 부패와 濫用 그리고 고마워하는 마음의 不在 등에 관한 事例들이 미국有權者들의 意識속에 새겨져 있다. 그러므로 世界銀行이나 아시아 開發銀行처럼 미국이 다른 나라들과 함께 참가하고

있는 국제기구들이 제공하는 일방적인 원조에 대해서와 같은 정도의 반대를 받고 있지는 않지만 민간부문의 투자, 차관 및 합작사업을 통한 경계면에서의 實務的 관계를 유지하려는데 重点이 놓여 있다. 다시 한번 부담分担의 개념이 느껴지고 있다.

아시아의 盟邦들에 대한 安保公약에 관해서는 이른바 1969년의 '괘 독트린'이 指標的인 원칙이다. 위험을 받는 나라들은 그들 스스로의 源泉的인 방위를 맡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더우기 定義가 애매한 內乳에 미국은 말려 들려하지 않을 것이다 의부로부터의 침략을 받은 희생자들에 대한 미국의 군사원조는 주로 空·海 지원의 형태를 취할 것이다. 대규모의 美地上軍을 海外 과견하는 가능성이 배제됨으로써 그동안 미국 내에서 태평양, 아세아大陸, 淸 도서 戰略에 관한 오랜동안 계속되어온 討論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1940年代末로부터 越南戰시기까지 이 문제는 되풀이해서 제기되었었다. 美軍을 아시아 大陸에 投入하는 것이 현명했고 必要한 일이었는가? 미국의 국가이익은 安保公約을 일본으로부터 필리핀과 濠洲, 뉴질랜드에 이르는 섬으로 연결되는 緩衝地帶國家群 만으로 제한함으로써 충분히 보장될 수 있지 않았던가? 그러나 거꾸로 어떤 영속적인 均衡을 이룩하려면 경계와 정치의 兩者가 '大陸과 도서'에 관한 安保公約의 混合이 必要했던 것이 아닌가 등의 논쟁이었다.

적어도 현재로서는 이 문제는 전략적 토

론의 前面이 더 이상 떠오르지 않고 있다. '괘 독트린' 과 그 후의 施行조치들에 따라 미국의 安保公약은 大韓民國이나 泰國같은 大陸國家들과 아울러 일본이나 필리핀 같은 섬나라들을 함께 포괄하고 있다. 더우기 이제까지 걱정되었던 것처럼 태평양, 아시아 지역으로부터 철수하기는커녕 미국은 1970년대의 產物이었던 소련과의 惡化一路에 있던 균형을 시정하면서, 최근 수년간이 戰域에서의 美國의 軍事力을 크게 강화시켰다. 사실 현재 태평양, 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미국의 安保유대와 공약은 歷史上 그 어느때보다도 數가 많고 그 형태도 다양하다.

이같은 사실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信賴度에 대한 회의가 유럽에서처럼 아시아에서도 느껴지고 있는데, 아시아에서의 경우는 어느 모로든 美國이 越南을 포기한 결과 때문이다. 여론조사의 결과는 條約義務에 상관없이, 공격을 받는 경우 미국이 지원해줄 用意가 있는 나라들에 관해 美國人들 사이에 상당한 의견의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아시아에서는 일본만이 일반미국 국민 대다수의 지원 약속을 얻고 있다.

그러나 이런 여론조사 결과에 너무 큰 비중을 둘 것은 없다. 미국인이 戰時에는 大統領을 중심으로 결속하는 性向이 많다는 것을 生覺할 때 어떤 한 盟邦에 대한 실제적인 공격이 가해졌을 경우에 나타나는 여론의 반응은 문제가 추상적으로 제시될 때 나오는 반응과는 확실히 다를 수 있다. 그

러나 어떤 盟邦이 관련되는 간에 長期的인 制根戰爭에 대한 美國의 지속적인 公的인 支持는 거의 없을 것같지 않다. 이는 1945年 이후 時期에 얻어진 가장 강력한 교훈이며 美國의 어떤 지도자라도 잊지 않을 그런 教訓이다.

美國의 公約에 관련된 또하나의 주요문제는 人權 또는 政治的 開放性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말해서 美國이 그 義務를 安保公약과 경제원조 또는 政治的 支持 가운데의 어떤 형태로 취할 것이냐를 고려함에 있어 盟邦 내에서의 政治적 조건을 어느 정도까지 제산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대다수의 미국인들로부터 추상적으로는 나오는 대답은 政治적 조건들을 重視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의 과거의 행동에서 슬하게 나타났던 것처럼 情勢마다에 관련된 불가피한 복잡성 그리고 모순성 때문에 어떤 나라의 국내정치가 미국의 정책에 정확히 어느 정도의 비중을 加할 것이냐를 占치기는 매우 어려운 일이다.

1945년 이후로 미국이 세계적인 리더십을 취게 되었고 최근 수십년간의 非정상적인 사건들로 因하여 거의 모든 美國人들은 그들의 政治적 원칙들을 다른 나라에 移轉시키거나 그들의 理念的 가치에 알맞는 특정 정책들을 형성하는데 따르는 어려움에 관하여 많은 계몽을 받고 있다. 초기에 유고슬라비아가 스탈린으로부터 이탈했을 때 "共產主義라는 惡"에 대한 관념은 여전히 다해도 소련으로부터 독립하려고 투쟁하는

이 공산국가에 제한된 원조를 부여할만한 이유가 있었다.

1970년대의 中華人民共和國과의 관계 개선도 비슷하게 理實政策에 근거를 둔 것이었다. 많은 非공산 專制국가들에게도 전략적 또는 그밖의 이유로 해서 원조가 주어졌다. 확실히 어떤 경우에는 미국의 원조가 보다 큰 정치적 개방성을 향한 추세를 부추길 것이라는 희망을 품게할 수 있었고, 이는 언제나 실현되지는 않았다 해도 가끔은 실현을 보기도 했다.

세계적 및 지역적 평화가 어느 정도 세력균형에 의존하고 있는 시대에서 정치, 이념적인 線을 뛰어넘는 동맹이나 陣營형성 없이는 勢力均형이 美國에 의해 유지될 수 없었다. 人權問題에 큰 비중을 두려고 했던 카터 行政府조차도 특정 정책을 추구함에 있어 이같은 사실을 시인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와 동시에 최근 수십년동안 모든 사태 推移에도 불구하고 상당수의 美國人들은 유럽인들이나 日本人들과는 대조적으로 美國 外交정책에서의 道義的인 기반을 요구하고 있으며 그들은 이 道德性의 본질이란 정치적 선택과 관련된 유형의 開放性과 民主主義를 보증해야 하는 諸自由를 포함하는 정치적 차원에서의 人權존중이라는 定義를 내리고 있다. 그러므로 美國이 公約을 하고 있는 나라가 專制的 方向으로 나갈때에 대한 우려가 上昇하며 이 우려는 먼저 美國의 言論과 議會에서, 그리고 관련된 그 사회에 적용된 상호 작용의 규모와 정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부 엘리트들 사이에서 나타나기 시작했다.

思慮깊은 거의 모든 미국인들은 정치적 가치들을 외교정책과 어떻게 통합시켜야 하는가에 관한 기본적인 문제의 해답이 쉽지 않다는 것을 시인하고 있다. 적어도 미국에서는 이에 대한 여러 相異한 주장들이 지금까지는 잘 알려져 있다. 한편으로는 국민을 억압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미국의 자원, 특히 미국인들의 목숨을 바칠 하등의 이유가 없다는 주장이었다. 더우기 이러한 국가의 정부에 대한 지지는 워싱턴 당국과 그나라 정부를 한 패거리로 만들 것이기 때문에 그나라 국민을 미국으로부터 疏外시키게 된다고 이야기되고 있다.

다른 나라에 대한 內政간섭에 경고를 발하는 人士들의 주장에 답하기 위해 비평가들은 여러형태의 원조는 介入을 뜻하며 유일한 문제는 어떤 大義와 名分을 위한 원조이냐에 관한 것이라고 응수한다. 그리고 만일 安保에 얽힌 고려사항을 좁게 평가한다면 외국의 어떤 지도자라도, 그들이 아무리 부패했고 무능하거나 또는 專橫的이라 하더라도 그들이 미국에 대한 忠誠을 公言함으로써 미국의 支持에 계속 매달릴 수 있게 된다는 주장도 있다.

다른 한편 이러한 見解들에 대한 비판자들은 美國의 제도나 가치들이 문화나 발전 단계에 상관없이 다른 모든 나라에 적용될 수 있고, 적응되어야 한다는 가정은 천진난만한 것으로 제국주의와 유형의 오만함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反論한다. 또한 “專制主義”의 범주안에서도 專制的, 多元主義國家와 레닌主義 國家라고 이름붙일 수 있는 나라들 사이에는 실질적으로 상당한 차이가 존재한다고 주장되기도 한다. 전자는 갖가지 수준의 강제성과 제한을 수반하는 정치적 정책들을 추구하나 그들이 통치하는 폭넓은 사회들은 국가통제 밖에 있는 사회적 제도들과 아울러 民間부문이 실질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혼합경제를 허용한다는 것이다. 더우기 專制的 다원주의 국가의 거의 모든 정치 지도자들은 보다 큰 정치적 개방성을 향한 진전을 약속하고 있으며 그 과정이 고르지 않는으나 이같은 방향의 진전이 전반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레닌주의 國家에서는 사회 경제적 多元主義가 극히 제한되어 있고 정치적 公約은 恒久的인 一黨獨裁를 위한 것으로 權力을 사실상 진정으로 특권계급인 방대한 관료제도를 운영하는 單一지도자의 手中으로 강력히 集中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정치적 형태의 구조적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은 훨씬 더 제한되어 있다는 것이다. 미국이 정책이나 태도를 형성함에 있어 이같은 區別을 짓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 時代의 본질을 잘못 이해하는 것으로 이는 政治的 발전을 촉진시킴에 있어 美國에 제시된 機會이자 동시에 制根이기도 하다고들 말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盟邦정부에 대해 노골적인 위

협을 加하거나 美國이 어떠한 政治的 노선을 위해 직접적 介入을 하면 大衆 차원에서 民主主義의인 반응을 촉발하거나 既存 지도자들의 깊은 反感을 자아내기 때문에 逆效果를 내기 쉬우며, 따라서 代價에는 상관없이 非타협적 태도를 유발하게 된다는 주장도 있다. 또 이런 정책들은 다른 나라의 國內政治에 대한 어느 정도의 美國介入을 초래하게 되어 이는 美國國民의 感情 차원에서나 다른 나라 國民의 태도로 보아도 지속될 수 없는 성질의 것이라는 것이다.

외교정책의 수립에서 정치적 가치들이 맡을 수 있는 역할에 관한 일반적인 문제는 다른 어떤 主要國들 국민에 대해서보아도 美國人들을 더 괴롭히게 될 것이며 구체적인 해결이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에 대한 相異한 여러 接近策을 지지하는 個人들이 그들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道義的인 차원의 주장을 펴게 된다는 바로 그 사실은 힘이 타협을 必要하게 한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美國人들이 아직도 諸價值에 부여하고 있는 重要性을 보여주는 것이다.

日本-同盟관계는 살아남을 것인가?

이같은 배경에서 東北아시아에서의 美國 政策의 主要경향은 무엇이며, 당장 앞으로 다루어야 할 핵심적인 문제들은 무엇인가? 첫째, 세계의 어느지역도 미국에 대해 東北亞만큼 더 큰 意義를 지니는 곳은 없다

는 사실을 밝혀두어야겠다. 미국의 미래의 번영, 安保 및 정치적 가치들은 모두 이 지역의 발전과 밀접히 연결되어 있다. 이 지역의 主要國들이 겪게 될 상당 규모의 구조적 변화가 아직 앞날로 미루어지고 있는데 경제적 상호依存性이 태평양 周辺國들에서 최대의 試驗을 당할 형편에 있다. 21세기에서 지도적 역할을 담당할 운명에 놓여 있는 4大國, 즉 美國, 소련, 일본 및 中國 상호간의 관계가 전쟁과 평화의 문제를 포함하여 국제질서의 本質을 결정함에 있어 큰 몫을 차지하게 될 것도 東北아시아에서다.

그리고 專制主義로부터 政治的 開放性에 이르는 進展이 東北아시아에서 民主主義의 未來를 결정하게 될 것이며, 레닌主義的인 정권들이 점차로 專制的 多元主義체제로 대체되면서 보다 폭넓은 局面에서 정치적 발전을 촉진시키게 될 가능성도 있다. 東北亞에서의 美國政策의 특정사항들을 검토함에 있어 日本이 오늘날 어느 쪽의 当事國을 위해서건 現存하는 가장 중요한 單一의 雙務관계 당사국이기 때문에 먼저 우리의 관심을 일본으로 돌리기로 하자. 美·日관계가 상호 비난과 검증하는 경제적 보복의 위협이 있는 가운데 난경에 처해 있다는 것은 再言을 必要로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먼저 予測부터 내려보겠다. 美·日간의 혼인관계가 계속 바람을 불고 올 것이고, 가까운 장래에 보다 큰 규모의 위기들이 폭발할지도 모르나, 離婚이란 결코 없을

것이다. 경제적 상호의존성과 전략적 의존성의 結合이 두 나라의 結合관계를 보존시키게 될 것이다. 더욱이 경쟁과 협조의 結合으로 두 나라 社會는 마침내 강화되고, 그러한 발전과정에서 太平洋 주변지역의 일반적인 노선에 과거보다 더 크게 영향력을 미치게 될 것이다.

현재의 경제적 課業에서 이 두 나라는 본질상 아주 相異한 義務와 서로 닮았거나 비슷한 그 밖의 義務들을 지니고 있다. 미국은 뒤늦게나마 국내의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면서 支出의 삭감 및 歲入의 증가로 현재의 막대한 예산적자를 줄여야 한다. 경쟁력도 향상되어야 한다. 過多하게 평가된 달러貨는 엔貨에 대해 이미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앞으로 다른 나라의 通貨를 그리고 아마도 엔貨에 대해서도 더 많은 조정이 必要한 것이다. 저축과 연구 개발에 대한 투자가 장려되어야 할 것이다. 尖端기술, 기술集約 분야 및 서비스 産業으로 빠른 進入도 필수불가결하지만 美國은 제조업을 포함할 수도 없고 포기하지도 않을 것이다. 기술적 革新을 통해 일본의 제조업들은 살아 남을 수 있을 것이다.

日本과 이른바 新興工業國들이 美國 産業에 加하는 前例없던 위협으로 美國國民의 團結心이 강화되었고 上記 課業들은 거의 모두가 現在까지의 성과들이 서로 크게 다르기는 하지만 필수불가결한 것이라고 인식되고 있다. 가장 理想的인 조건 아래서라도 앞으로의 여러 해는 美國國民들에게 벽찬

시간이 될 것이며 이는 환경의 문화적 變
革의 상당 부분의 희생을 수반하는 급속한
변화가 요구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이
제 더 이상 그 資力 이상으로 살 수는 없
으며 生産해내는 것 이상을 소비할 수 없
다. 막대한 무역적자는 없어져야하며 이는
美國과 미국의 주요 交易국들이 다 함께
받아들여야 할 要件이다.

美國은 必要한 무역과 이와 관련된 調整
이 최소의 後遺症만으로 추진될 수 있는
경제적 상황을 조성해야 할 근본적인 債任
을 지고 있으나 다른 나라들, 무엇보다도
日本의 협력이 요구된다. 국내정책들과 국
제관계가 이토록 밀접하게 서로 얽혀 있던
때는 歷史上 일찌기 없었다. 美·日관계에서
경제적 상호 의존성은 日本政府와 민간부
문의 정책들이 다같이 미국경제에 아마도
결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고, 그 逆도 가
능할 수 있는 정도에까지 달하고 있다.

日本은 世界の 경제 大國으로서 새로 성
취한 地位에 걸맞은 의무를 받아들일 用意
이 있는가? 아마도 새로운 국제적 역할,
특히 추가적인 부담을 안는 역할을 떠맡을
충분한 준비를 갖추고 있는 나라들은 하나
도 없을 것이다. 실질적으로 거의 모든 다
른 主要國들이 低經費, 低위험의 外安政策
을 추구하고 있는 때에 日本은 그와 반대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요청받고 있다. 日本
이 그동안 걸어온 길과, 그 결과로 얻게
된 地位로 보아 이는 論理的인 귀결이긴 하
나, 日本은 國家가 축적해놓은 富에도 불

구하고 國民들 個個人은 아직 豊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은 마당에 이것이 쉽게 받
아들여지리라고 믿을 수 있는 근거는 없을
것이다. 생각의 폭을 가장 넓게 퍼볼 때 일
본은 國際的 大國이긴하나 아직도 국제주
의적인 태도와 정책에 적용을 해야 한다.
이 때문에 일본은 미국에 대해서뿐 아니라
일본과 주요한 경제적 交流를 갖고 있는
거의 모든 나라들과 어려움에 처해있는 것
이다.

1986년에 발표된 '마에가와' 報告書는 日
本이 나아가야 할 基本方向的 信號를 울렸
다. 國內市場이 확대되고 외부에 대해 보다
더 충분히 개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方式으로 과도한 外換 잉여가 줄어드는 限
이 있더라도 일본인들의 삶의 實이 개선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성취하기 위해서
는 특수한 새로운 農地改革을 포함하여 보
다 나은 實의 入手 가능한 주택공급을 가
능케 하면서 일본 정책에서 여러가지 改革
이 행해질 必要가 있다.

한편 정부와 日本의 소비자들이 쌀이나
그밖의 다른 식량생산자들에게 지불하고 있
는 막대한 補助金이 축소되어야 하고 供給
체제같은 日本경제의 다른 未備點들이 現
代化되어 일본市場을 외부세계에 대해 접근
가능케 하는 과정이 촉진되어야 한다. 끝
으로 開途國 특히 아시아의 開途國들에 대
한 日本의 경제원조는 이 원조를 일본 제
품에 연계시킴이 없이 확대되어야 한다. 市
場을 획득하기 위해 막대한 정력과 에너지

가 소비되었으나 일본의 민간 부문은 일본의 低開發交易國들의 발전을 돕게 될 類型의 투자가 기술 이양을 추진하기를 훨씬 더 꺼리고 있다.

결국 미국과 일본이 직면하고 있는 雙務的 경제문제들은 현실적으로 그 성격상 多邊的인 것이며 현재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경제적 혁명에 관련된 긴장을 완화하게 될 보다 효율적인 지역적, 국제적 정책들의 탐색에 두 나라가 함께 참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아시아에서는 유럽형의 경제공동체를 형성할 조건들이 성숙되어 있지 않으나, 現存하는 기구들을 기반으로하여 태평양 아시아의 협력은 강화될 수 있고 협회도 보다 충분히 규정될 수 있을 것이다. 특별 정상회담은 우리 앞에 놓인 문제들에 대한 회담을 가져다 줄 수 없으며 危機外交는 응급치료가 交能을 나타낼 수 없는 문제들에 대한 最適의 접근책이 결코 될 수 없다. 이미 東北아시아에서는 柔軟한 형태의 地域主義가 대두하고 있으며, 그 기반은 이 지역에서 이념적, 정치적 노선을 달리하는 국가들 사이에 존재하는 강화된 경제적 관계에 놓여 있다. 이같은 地域主義는 제도적 구조를 缺하고 있으나 그 重要性은 의심할 여지가 없으며, 보다 더 온건한 차원에서 볼 때 정치적 및 전략적인 지역협력은 경제적 유대의 부속물로서 나타나고 있다.

보다 폭넓은 규모로 우리가 아시아化라고 부를 수 있는 과정이 이 지역 전역에 걸쳐

일어나고 있으며 이는 아시아 國家들 相互間的의 雙務的 및 多目的인 모든 형태의 관계 강화로 나타나고 있다. 이것이 汎아시아主義를 예고하는 것은 아니다. 주요 아시아 국가들의 국제적 유대는 이제 벗어던지기에는 너무나 중요해졌으며 이는 특히 일본, 중국 및 新興工業國家들의 경우 그렇다. 그러나 現存하는 이같은 同盟들의 테두리 안에서 보다 高度의 독립係數를 가지고 있는 아시아의 전부는 아니더라도 거의 모든 나라들에서 장차 보다 서로 相異한 외교정책이 나오리라는 것을 우리는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참으로 세계적인 水準에서의 基本的인 추세는 同盟으로부터 提携로 즉, 과거를 특징지었던 同盟國들 간의 비교적 긴밀하고 포괄적인 公約들로부터 大小當事國들의 상호관계에서 보다 느슨하고 보다 신축성 있는 一聯의 公約들로 옮겨가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미·일관계도 다른 나라들의 관계들과 마찬가지로 이같은 추세의 영향을 받을 것이다. 政治的으로 아시아나 또는 보다 큰 세계적인 舞台에 관하여 두 나라 정부의 견해에는 이렇다 할 차이가 없다. 더욱이 相異性은 서로가 인식하고 있는 것보다는 훨씬 더 크기는 해도 두 나라의 정치적 가치나 제도에는 기본적인 相互兩立性이 存在하고 있다. 그러나 두 나라의 社會에서 막연히 민족주의 또는 내셔널리즘이라 이름붙일 수 있는 경향이 증대되고 있다.

앞서 지적한 대로 美國에서 이 경향은

愛國心의 증대와 外부로부터의 위협에 대해 미국식 生活方式을 보호하려는 決意라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최근 수십년간의 성과에 대한 만족감이 일본이라는 궁지와 결부된 自信感을 회복시켰으며 어떤 경우에는 오만함을 부활시켰다. 아시아의 다른 나라 社會에서처럼 日本社會에서 人種의식은 강하다. 어떤 읍서버들은 최근의 사태를 주목하면서 일본에서 超國家主義가 성장할 것으로 우려하면서 1930年代 때와 비슷한 결과를 초래하게 될 수도 모른다고 두려워하고 있다.

언론매체는 이 위협성을 과장시켰다. 일본에서는 1945年 이후의 시대 상황에 전혀 타협하지 않은 周辺집단이 언제나 있어왔다. 1930年代와 1940年代 시대의 사건들에 관한 修正主義로 나타났다. 이 범위를 넘어서서 日本人들이 現在의 독일인 世代들이 느끼고 있다고 전해지는 것처럼 제 2차 世界大戰時의 일본의 처사에 대해 비슷한 개인적 및 집단적 罪의식을 느끼고 있는자는 한번 따져보고 넘어가야 할 문제이다. 그러나 급격히 변천하는 아시아의 성격과 일본에서의 광범위한 변혁들을 함께 생각해볼 때 復古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은 없다. 1945年 이전의 일본의 軍國主義는 農·都간의 심각한 격차의 산물인 農民, 軍人 계급에 그 기반을 두고 등장했던 것으로 이는 어느 모로는 힘의 真空상태 또 어느 모로는 植民地가 판을 치던 아시아의 상황속에서 대두한 것이었다. 이같은 조건 가운데 오늘날 적용되는 것은 하나도 없다.

그러므로 일본 軍事力의 발전은 계속 자연 증가의 한계속에 머무를 것이며 일본 군사력의 완전한 사용을 허용하는 어떤 헌법 개정도 내다볼 수 있는 미래에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安保차원에서 일본은 제한된 지역적 책임을 맡고 있으나 자체의 안보에 관해서는 근본적으로 미국에 의존하게 될 것이다. 분명히 미국은 이 形局에 대해서는 어떤 兩面等価的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워싱턴 당국이 일본의 군주주의에 대한 아시아 다른 나라들의 우려를 인식하고 있고 일본의 核武器를 保有하거나 전략정책에서 先導權을 쥐게되는 사태를 默過하려는 의도가 없는 반면에 美國은 日本이 그 경제적 힘을 가지고 방위 부담을 더 많이 분담하기를 원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美國당국자들은 정확히 어떤 安保책임을 일본이 “現想的”인 조건하에서 떠맡게 되기를 바라고 있는지를 아직 定義내리지 못하고 있다.

사실 美國은 현재의 추세와 현재의 미·일 安保관계에 대해서 대체로 만족하고 있다. 일본과의 약속하에 지역적인 空·海 감시활동을 위한 합동기획과 演習, 장비의 가일층의 현대화 및 駐日美軍기지들의 유지를 위한 재정적 지원이 적어도 현재로서는 충분한 것이다.

일본으로 하여금 일본의 安保작전 범위를 아시아에서 더 널리 확장시키도록 유도하려는 어떤 노력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며 이러한 試圖가 있을 것 같지도 않다. 정치적 영역에서도 미·일간의 異見은 거의 없

으며 신중하게 처리되고 있다. 중동정책과 같이 일본정부가 미국과는 다른 의견을 가지는 문제들에 있어 일본은 조용히 미국의 정책으로부터 線을 긋고 있다. 지적된 바와 같이 시간이 흐르고 힘에 대해 일본이 익숙해짐에 따라 미·일 두 나라가 정치경제적 이니셔티브에서 서로 다른 길을 걸게 되는 사례들이 늘어날 것이다. 앞으로는 非공식적 또는 정부적인 次元에서의 보다 定期化된 協議체계에 重点이 놓일 것이다. 美·日 雙務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면서 대두하는 문제들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이러한 사태 진전의 속도가 빨라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特別 정상회담과 危機외교가 맡아서 처리해야 할 문제들은 아직 많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미·일관계는 가장 폭넓은 次元에서 볼 때 先進工業國들이 서로 적용하고 이 어려운 시대에 세계에 적용하려는 데에서 오는 最首位級의 挑戰을 반영하고 있다. 調整작업에서 경제가 主된 內容을 이룰 것이나 공통적으로 지니고 있는 정치적 및 安保的 목표들로 경제관계에서의 反目的인 側面들을 완화시킬 것이며 경제분야 자체에서는 상호의존성이 앞날에 가로 놓여 있는 再發하는 危機가능성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내셔널리즘의 완전 승리를 저지하는 制動장치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中華人民共和國, 非同盟傾斜는 계속될 것인가.

미·中關係를 또다시 考察해 보자면 國內事情 및 政策과 外交政策 間に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가장 근본적인 의미에서 중국은 다른나라들과 마찬가지로 그 外交政策에서 두 개의 우선적 목표 즉 安保와 開發의 영향을 받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은 이 두 목표를 달성하려는 과정에서 갖가지 그릇된 出發을 한 다음에 北京의 지도자들이 非同盟主義의 하나라고 선언한 政策을 추구하기로 결정했다. 中國의 엘리트 간에 퍼져 있는 강한 내셔널리즘 경향을 나타내는 이 政策의 목적은 中國이 그 精力 및 資源을 開發課業에 집중시킬 수 있게 해주는 外交政策을 이루려는 데 있다. 그러므로, 특히 蘇聯과의 긴장완화는 매우 重要하게 된다.

그러나 中國지도자들이 인정하고 있듯이 “非同盟” 政策은 等距離政策이 아니며 傾斜는 日本과 先進西方側, 특히 美國쪽으로 기울어져 왔다. 그 이유는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安保에 관해서는 최근의 中·蘇和解 노력에도 불구하고 제거할 수 없는 地政學上的 要因들이 소련에 대한 계속되는 염려를 가리키지만, 美國은 현재(中國에게) 위협을 주는 나라가 아니며 또한 앞으로도 결코 그런 나라가 될 것같지 않다. 둘째 中國지도자들은 그 급속한 經濟現代化的 추구에서 最新 기술을 원하여 일본 및

西方側の 과학 기술 및 資本을 導入하기를
바라고 있다. 소련은 훌륭한 科学技術과 軍
事力을 가지고 있는데도 中国은 소련을 아
직도 여러점에서 後進國으로 간주하고 있
다.

그러므로 經濟面, 文化面 또는 戰略面 등
어느 面으로 측정해 보아도, 中国의 對日
및 對美관계는 현재 對 소관계보다 훨씬 광
범위하다. 中国의 對日貿易은 對蘇貿易의 6
배이며 美·中貿易은 蘇中 貿易의 3 배를
웃돈다. 投資는 非蘇聯圈으로부터만 들어오
며 과학기술 移讓도 압도적으로 西方側으
로부터 이루어지고 있다. 美国에서 修學하
고 있는 中国 留學生은 약 19,000명이나 되
는데 반하여 蘇聯內의 中国留學生은 200명
에 불과하다. 더우거나 잘 알려져 있듯이
中華人民共和國은 현재 낮은 수준의 對美
戰略 關係를 가지고 있어 발달된 美国軍事
裝備에 강한 관심이 있음을 보이고 있을뿐
아니라, 美国의 防衛訓練센터 및 研究所들
과 더불어 연락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分析을 이것으로 끝맺는 것은 불완
전할 것이다. 眞相에는 또 하나의 側面에
있다. 요즘의 中国지도자들은 그들의 19世
紀 先人들처럼 그들이 바라는 西方側의 과
학 기술과, 中国의 團結에 위협을 주고 그
들 자신의 政治的 本能에 반대되는 것이라
고 생각되는 西方側 價值觀과를 分離하고
싫어한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知識層을
통솔하기 위하여 精神的 汚染 및 “부르조
아 自由化”에 반대되는 운동을 되풀이하여

展開해왔다. 이것은 中国의 對內的 유연성
에 관계될 뿐 아니라 美国과 같은 開放社
會들과의 관계에 관한 깊은 문제들을 제기
한다. 미래의 일들의 進路는 中国의 經濟
및 政治추세의 정확한 성격에 左右될 것이
다. 經濟改革의 과정이 비교적 순조로워서
成功이 문제들을 억누르고, 鄧小平 이후의
시기에 최소한도의 쇼크로 領導力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면, 政治的 開放性은 보다
큰 機會를 갖게 될 것이며, 民主世界와의
접촉은 보다 균형있게 확대될 수 있다. 한
편, 현재 實施되고 있는 經濟政策들이 社
會主義와 未知의 市場經濟를 결합하는 길
로 나아감으로써 결과적으로 연달은 위기를
초래하고 權力鬭爭이 앞으로 여러 해 동안
되풀이하여 나타난다면 中国에서 政治的 自
由가 擴大될 條件은 좋지 않게 될 것이다.
이러한 情勢하에서는 中国의 富와 国力을
증진시키는데 절대 必要한 것으로 간주되
는 접촉들을 제외하고 西方側과의 관계는
위태로와질 것이다.

美国의 對中国政策은 이러한 脈絡에서 탐
색되어야 할 것이다. 대체로 보아서 현재
의 美·中關係는 워싱턴 행복감에 陶醉되어
있지도 않고 침울감에도 빠져 있지 않은
만족할만한 상태라고 定義될 수 있다. 19
70年代를 풍미하던, 中国에 관한 美国의 낭
만주의는 대부분 냉철한 現實主義로 代替
되었다.

우선 이 거대한 나라의 現實化는 最適條
件하에서 일지라도 21世紀 沒歲이까지 계

속될 課業이 될 것임이 인정되어 있다. 經濟的으로 발전되어 가고 政治的으로 安定된 中國은 대체로 美國에게 有益하다고 간주되고 있다. 왜냐하면 이러한 中國은 질서있고 平和로운 世界에 한층 보다 큰 利害關係를 갖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더우기나 기타 국가들과의 특히 기타 아시아 國家들과의 그 相互作用에서 이러한 中國은 그 나름의 經濟的 및 文化的 奇功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강대한 中國이 갑자기 登場하게 되면, 中國社會에서 강력하고도 깊게 흐르고 있는 내셔널리즘 傾向이 이웃 國家들과 충돌할 갖가지 가능성이 있음이 認定되고 있기 때문에 美國은 中國이 그 軍事力을 급속히 확대하는 것을 크게 바라고 있지 않다. 復活되는 日本에 대하여 기타 아시아 人들이 느끼는 우려가 認識되고 있듯이 復活되는 中國에 대하여 기타 아시아 人들, 특히 東南아시아 人들과 日本人들이 가지고 있는 우려를 美國은 인식하고 있다.

다시말하겠는데, 美國內에서는 이러한 두려움들이, 적어도 단기적 내지 중기적 관점에서 과장되어 있다는 느낌이 있다. 다만 그 장기적인 위험성은 현재로서는 예측할 수 없지만 그러나 美國內에서는 1970年代의 政策論議를 지배하던 논란의 자취가 남아 있다. 즉 美國에서는 아직도 소련에 대항하여 中國과의 전략적 提携를 찬성하는 人士들이 있는가 하면 美國은 公平性을 가지고 中國과 소련의 중간에 위치하여 美國 및

世界의 平和에 이바지하게 되기를 바라는 人事들이 있다. 그러나 이 두 경우의 어느 경우에 있어서나 美國은 여러가지 이유로 해서 中國에 대한 軍事지원을 매우 신중하게 다룰 것이며 中國當局도 그들 나름대로의 이유로 現時點에서 美國과 광범위한 戰略관계로 들어가기를 바라고 있지 않다.

그러나 經濟面에서, 中國은 보다 큰 相互作用에 강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요즘의 문제들이 가장 긴급한 상태에 있는 것이 바로 이 분야에서이다. 中國은 중요한 美國市場이 장차 보다 덜 開放되게 됨으로써 外貨를 벌어들여려는 中國의 노력이 방해받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美國內의 保護貿易주의 추세를 염려하고 있다. 美國의 염려는 주로 民間部門으로부터 나온다. 최근 갖가지 救濟조치가 취해졌다고는 하지만 美國의 실업률은 예의없이 中國에서 사업하는 조건에 여전히 매우 불만을 품고 있다. 사실상, 모든 활동들은 미래를 거는 도박이며, 현재의 利益이 確保될 수 있는 狀況이 아니다. 中國지도자들이 제아무리 진지하게 노력하려든다 할지라도 대부분의 분야에 대한 投資의 保障을 충분히 약속해주는 條件을 造成할 수 있는가의 여부에 관해서 의구심이 증대되고 있다. 日本의 業界도 앞서 投資 및 技術移讓에 대해서 이와 비슷한 結論에 도달했으며 최근에는 주로 貿易에만 주력해 왔다.

政治面에서는 美國과 中國이 아세아, 아시아, 印度支那 및 아프가니스탄 등과 같

은 아시아가 직면한 문제 등에 대해서는 대체로 비슷한 견해를 가지고 있지만 어떤 세계적인 문제들 특히 소위 “제3세계에 관한 문제들에 대한 態度 및 政策에 관해서는 심하게 엇갈린 見解를 보이고 있다. 더우기나 美国은 中国이 美·蘇에 言綴할 때에 “美·蘇 兩國에 다재앙이 있으라” 라는 접근방법을 채택하는 中国의 性向을 불만스럽게 여기고 있다. 그러나 앞서 약간 말했듯이, 현재의 관계에 말썽이되고 있는 보다 큰 정치적인 문제는 中国内の 政治 추세들에 관계된 것이다.

中国의 政治 및 社会秩序에 대해서 根本的인 의문을 提起하는(中国) 知識人들을 겨냥한 反復되는(반대) 運動들이 西方則과의 커무니 케이션 經濟의 狹小化 現象을 결과적으로 초래할 것인가? 고르바초프의 글라노스트(開放性) 장려가 蘇聯内の 自由를 伸張시키고 있는 것같이 보이고 있는 이 時點에 中国이 다시 과거의 傳統的인 패턴으로 되돌아간다면, 그것은 사실 아이러니한 일이 될 것이다.

그러나, 아마도 대폭적인 社会 經濟的 變化를 장려하는 한편 政治的 安定을 유지하려는 노력이 거듭됨에 따라, 振子は 兩社会에서 왔다갔다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振子가 왕복함에 따라(中国의) 外部世界와의 관계는 새로운 방향 전환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經濟의 필연성과 이 시대의 가장 폭넓게 퍼져있는 추세들을 감안해본다면 레닌주의 社会들은 갖가지 우여곡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츰 先進市場 경제들과의 보다 큰 相互作用으로 들어갈 수 밖에 없게되어 있다는 것이 筆者의 所信이다. 이러한 사실에 대한 政治的 방향은 国内的인 것이건 國際的인 것이건 앞으로 수십년동안의 가장 중요한 單一事態進展을 이룰지도 모른다.

이러한 情況에서 美国이 未來를 바라보고서 中華人民共和國과의 좋은 관계를 계속 추구하는 것은 당연하다. 美·中 兩國에서 새로운 世代의 中国學生들에게 고급훈련이 제공될 것이다. 美国의 民間部門은 兩國의 사정에 따른 制限内에서 中国이 몇 단계를 뛰어 넘어서 高度의 尖端技術 시대로 進入하는 것을 도울 것이다. 적당한 戰略關係도 유지될 것이다. 광범위한 문제들을 망라한 公式的인 수준에서의 定期協議가 이루어질 것이며, 마찬가지로 중요한 정도의 民間 또는 半官半民의 個人 및 團體들간의 寬汎한 접촉으로해서 「美·中」 兩社会의 政治, 社会 條件 및 경제문제에 관한 情報 交流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될 것이다.

定期的으로 「兩國」관계가 지나치게 접근하게 되는 위험을 느낄 때면 중국당국이 나서서 위험하다고 고려되는 側面들을 줄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언제나 中国지도자들은 어느 정도의 外國人 혐오감과 그들의 견해로 중국을 위해서 가장 좋은 것에 집중되는, 단연 實利的인 考慮를 뒤섞은 관계에 입각해서 그들의 立場을 결정하게 될 것이다. 실용주의는 열렬하게 이데올로기를 선언한

마르크스主義를 누르고 승리했다. 美国은 美国자신의 강한 감정적 및 이데올로기上的의 傾向을 억제해가면서 똑 같은 방법으로 対応할 것이다.

臺灣未來의 危險인가?

북경당국은 臺灣에 대한 가장 큰 장애요인이라고 누차 지적한다. 최근에 그들은 兩政府(中國과 臺灣)를 正式 協商으로 誘導하는 일에서 美国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하기를 촉구했으며 이에 鈴木 美国國務長官은 協議에 의해 論爭을 평화롭게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부드럽게 말했다.

대만은 美·中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주게 되는 언젠가는 폭발하고 말 火藥庫인가, 아니면 대만의 발전과 대만의 中國本土와의 관계가 그 최종 결과는 무엇이건 간에 長期的이고 平和的인 것이 될 것인가? 이 문제에 정확히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한편 미국정책은 '대만관계법'(TRA)과 그리고 中華人民共和國과 共同으로 발표한 3개의 커뮤니케에 모순이 들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文書들에 의해서 형성되고 있다. 즉 美国은 中國, 臺灣 관계의 平和的인 해결을 주장하면서 대만의 안보는 미국의 중요한 권익에 관계된다고 선언해 왔는가 하면 다른 한편으로 미국은 하나의 중국 개념을 수락하며 대만에 대한 미국의 군사관여는 시간을 두고 차츰 감축하겠다고 공약했다.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平和的인 접근방

법을 바라는 것은 미국만이 아니다. 中國이 武力을 사용하거나 대만을 중대하게 위협한다면 모든 非共產아시아 國家들이 놀라 무서워할 것이며, 그것은 아시아 全地域과 中華人民共和國과의 관계를 저해할 것이다. 한편 대만은 그 강한 경제업적의 덕으로 대만국민의 生計를 대폭 向上시켜 많지 않은 現代化된 社會들 중의 하나가 되었다. 最近에는 보다 많은 開放性의 方向으로 나아가는 주요한 政治的 變化가 생겼다. 최초로 진정한 野當의 結成이 허용되었다. 그 政黨의 精確한 法的 地位와 活動범위는 아직 더 두고 보아야겠지만 적어도 현재로서는 鄧小平의 一國二體制 主張에도 불구하고 대만과 中華人民共和國의 政治적 추세들은 서로 엇갈리고 있어 중국재통일의 개념은 생각하기 더욱 힘들어졌다.

홍콩의 운명, 中國과 대만의 기본적인 추세들, 그리고 世界의 事情 등을 포함하는 많은 要人들이 이 두 社會(中國과 대만)간의 미래의 관계에 영향을 줄 것이다(이 두 社會간). 이미 非公式 수준에서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있는 經濟 및 文化관계가 확대될 가능성은 질지만 가까운 장래의 平和的인 再統一은 아무도 予期할 수 없다. 한편 中國當局이 가장 걱정하고 있는 것은 대만독립운동의 힘과 대만국민의 85%를 차지하는 대만원주민들에 영합하는 臺灣 共和國의 創津이다. 美国政府는 물론 대만과 어떤 유형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기타 國家들의 政府들도 이러한 事態發展이

초래하게 될 國際的인 복잡성을 감안하여 이러한 事態發展을 찬성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臺灣의 정치적 構造는 계속 존재할 수 없는 變則的인 것이며 사실상 대만은 오랜 세월동안 獨立되어 있었다.

모든 蓋然性에서 볼 때에 대만내의 政治發展은 正式 獨立에까지는 이르지 못할 것이다. 대만 社會內的 온건파들은 本土 피난민들의 제 2世代와 함께 차츰 政權을 장악할 것 같다. 中華人民共和國과 臺灣간의 정확한 관계는 앞으로 있게 될 경제적 및 政治的 收斂의 정도에 달려있기 될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결과는 中華人民共和國內의 事態發展에 밀접하게 關係될 것이다. 미국은 대만을 전적으로 포기하거나 아니면 불행한 '마셜 使節團'의 경우에서처럼 또 다시 仲裁者로 봉사하려 들거나 하는 있음직하지 않은 경우를 除外하고는 문제들에 영향을 줄 수 있는 限定된 능력 밖에 가지고 있지 않다.

이 두가지 행동은 그 어느쪽도 현명하지 않을 것이다. 현재 미국의 對中國, 臺灣政策은 第2次大戰이래 일찌기 實現되어 본적이 없는 정도로 超黨的인 支持를 받고 있으며 上述한 두 가지 政策중의 그 어느 政策도 美國民들과 그들의 政治的 代表者들간에 심각한 見解의 분열을 초래할 것이다. 現時點에서 現政策들을 변경할 必要性은 없다.

韓半島 機會와 問題

美國이 처음 한반도로부터 철수하고 大韓民國을 共產主義자들의 席卷으로부터 구출하기 위해 뒤늦게 되돌아온지도 이제 거의 40년이 된다.

그동안에 南韓에서는 엄청난 변화들이 일어났다. 오늘날 南韓은 급속한 社會的 및 경제적 변모를 이룩하는 社會들의 最先頭를 달리고 있는데, 年平均 성장율은 8%내지 10%에 달한다. 教育에 힘쓰고 都市化를 추진하며, 풍요를 추구한결과 韓國人들의 생활방식에는 큰 변화가 생겼다. 남한은 또한 주로 전통적인 정치 질서와 活力에 넘친 社會, 경제적 환경사이에 긴장이 점차 증대해 온 社會들 중에서 가장 代表的인 사회이기도하다. 정치과정에 관여하고 있는 많은 당파들이 政治的 現代化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지금 들을 수 있다. 하지만 적절히 政治節次와 政治制度에 대한 合意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民主主義가 효과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불가결한 요소인 妥協은 좀처럼 이룩될 수 없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때문에 폭력과 強壓이 여전히 정치 무대의 두드러진 양상으로 남아 있는데 이는 權威主義에서 보다 큰 政治的 開放性으로 移行하는 過渡期에서의 노력을 특징짓는 不安定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美國에게는 점점 더해가는 우려의 根源이 되어왔다. 지난날에 피로 다져진 미국의 對韓安保 公약은 여전히

확고하다. 이 公約은 南韓이 널리 확산된 内部的 暴力사태로 해서 大 혼란속으로 瓦解되는 경우에만 再考될 것이다.

北韓이 또 다른 南侵을 감행할 힘이나 意圖가 없다는 中国과 다른 나라들의 거듭된 주장에도 불구하고 美国政府는 北韓이 아직도 잠재적 威脅이라고 믿고 있다. 더욱이, 잘 알려져 있다시피 南韓内の 미군사시설은 대한민국의 안보는 물론 지역적 안보, 심지어는 全世界的 安保와 관련되어 있다.

비록 駐韓美軍철수안이 1990년 이후의 어느시점에 가서, 南韓이 그 시점에서 北쪽으로부터의 侵略에 대한 막강한 抑止力인 충분한 軍事力을 보유하게 되리라는 假定으로해서 再檢討될지는 모르지만 레이건 大統領 다음에 누가 美国大統領이 되든 카터 行政府의 현명치 못했던 駐韓미군철수안과 같은 제안은 이제 다시는 제기되지 않을 것 같다.

하지만, 문제들이 国会內에서 토의되는 것이 아니라, 거리에서 문제해결을 위한 치열한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마당에 미국에서는 과연 南韓에서 民主主義에로의 移行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것인지 그 여부에 대해 또 全斗煥大統領을 계승하는 政府의 正統性이 많은 南韓 사람들에게 의해 의문시될 것인지의 여부에 대해 관심이 증대해 왔다. 美国內에서는 現在의(韓國政府의) 교착상태에 대한 責任이 누구에게 있는가에 대해 見解차이가 있다. 많은 精通한 관측자들은 雙方에게 다 같이 責任이 있다고 生覺한다.

韓國政府가 중대한 過誤를 범했으며 그러나 主要野黨人士들이 必要的 團結力이나 柔軟性을 보이지 않았다고 論難한다.

다른 관측자들은 韓國政府에게 현재의 難局에 대한 기본적인 責任이 있으며, 그 이유는 韓國政府에게는 진정으로 開放的이고 公平한 政治制度를 이룩하기 위한 모험을 선뜻 무릅쓰려는 적극적인 의사가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큰 고뇌를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美国은 韓國인들이 選舉과정을 신임할 수 있도록, 또 1988년에 탄생하는 次期政府가 國民의 지지를 받고 다스릴 수 있도록, 모든 당사자들에게 특히 韓國政府에게 最大限으로 開放性을 촉진시키고 民主的 節次에 대한 公約을 시범해 보이라고 권고하는 이상으로는 나아가지 않을 것 같다.

그러나 만약 이 忠告가 무시된다면, 또 美国民과 美国議會가 韓國의 政治과정에 대한 신뢰를 잃게 된다면, 그 결과는 매우 심각한 것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의 數年이 한국전쟁 이래의 그 어떤 다른 期間보다도 한·미간의 정치관계에서 더 중대한 시기가 되는 것도 당연하다.

韓美關係의 經濟的 側面이 역시 문제들을 제기하고 있으나 이 경우에는 문제들이(韓國經濟의) 失敗가 아니라 成功의 산물인 것이다. 韓國經濟의 비상한 成長과 이 경제의 對美市場 輸出에의 큰 依存은 兩國間의 貿易均衡에서 미국의 貿易赤字가 점점 늘어나는 한 요인이 되었다.

이 不均衡은 계속 심화되고 있다. 그 위에 (韓國側의) 不公正貿易慣行에 대한 비난이 확산되어왔고 韓·美 雙方에게 다같이 불행한 사태를 야기시키고 있다. 대체로 봐서 韓國政府는 이들 문제에 대한 警覺心을 보여왔고 輸入自由化 조치를 취하기 시작했는데 일부 自由化조치의 경우에는 民間部門의 반대를 무릅쓰기까지 했다. 그러나 이들 自由化조치의 施行은 그 양상을 크게 달리해왔는데 官僚主義가 日本에 못지 않게 한국에서 장애요인이 되어 있다. 美國生産品에 대한 韓國市場의 가일층의 開放, 不公正慣行의 제거 그리고 元貨의 對 달러 貨 換率의 再調整에 대한 美國側 주장은 계속될 것이다. 하지만 이 時代에 당면한 문제들에도 불구하고 韓·美間에 다져진 경제적 유대는 이를 다시 풀어헤칠 수 없을 정도로 두 나라에게 다같이 중요하다.

한편 수십년에 걸친 相互作用의 열매가 지금 文化面에서 거두어들이어지고 있다. 한국과 미국의 知識人들 사이의 접촉은, 아마도 美國社會와 어떤 다른 아시아社會 사이의 접촉보다 더 深度 있고 그 수가 더 많을 것이다. 이같은 關係에는 우리 한·미 두나라 國民 사이의 調和的 兩立性을 증명해주는 親近感과 따뜻함이 깃들여 있다. 實業界, 官界, 專門職 그리고 學界 등 (韓國의) 各界 各層에 진출해온 수만명의 한국인들은 미국에서 얼마간 教育을 받은 일이 있는 사람들이다. 반대로 數십萬의 美國人들이 軍服務를 통해서나 어떤 다른 資格으

로 한국에서의 生活을 경험해왔다. 모든 것을 참작할 때 이같은 경험들은 긍정적이었고 하나의 영속적인 흔적을 남겨놓았다. 이외에도 美國에 永住하는 韓國人들의 大規模的 地域社會들은 미국사회의 異質文化에 공헌한다. 한국과 미국은 韓國戰爭의 암울할시기에 어찌면 상상될 수 있었던 것보다 더 긴밀한 관계를 함께 이룩해 왔다.

分斷된 韓半島의 다른 한쪽인 北韓의 사정은 어떠한가? 北韓內의 두가지 事態進展이 지금 면밀한 주의의 대상이 된다. 하나는 이레닌主義國家의 對內政策들에 관련된 사태진전이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 통치하고 있는 北韓지도자 金日成이 그의 아들 金正日에게 日常的 統治 業務를 맡기고 있는 가운데 지금 權力移讓이 진행 중에 있다. 이 승계가 '시나리오' 대로 성공적으로 완성될 것인가? 젊은 金正日이 北韓의 軍部和 年礫한 官僚엘리트들에게 유능하고, 받아들여질 수 있는 존재임을 입증해 보일 수 있을 것인가?

이같은 문제들과 관련된 것이 둘째 사태진전인데 이는 즉 北韓政府가 스탈린主義의 大分發 經濟戰略을 수정하기로 한 결정이다. 重工業과 高度로 中央集權化되고 통제된 경제에 力點을 두면서 最大限의 自給自足政策을 추구해온 北韓지도자들은 그들의 경제적 성과가 부진하고 점점 더 落後해가는 것을 보아왔다. 南韓과 對決하고 있는 마당에서, 이는 경제적 및 정치적 함축성은 물론 安保次元의 함축성을 갖는다. 그러

나 中国이 그리했던 것처럼 經濟池滯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이룩되어온 것보다 더 큰 경제적 조정이 必要함은 물론 이에 政治的 위협이 수반한다. 이 딜레마는 대부분이 여전히 미해결로 남아 있다.

한편 南北韓關係에는 지금까지 진전이 거의 없었다. 北韓은 앞서 南北韓對話를 결렬시킨 후 會談의 再開를 제의해왔는데, 그러나 그들은 鄧小平의 “1 國家, 2 制度” 방식의 北韓版 方式으로 조속히 韓半島統一을 이룩하는 것을 겨냥하는, 해묵은 事項들에 力點을 둔 議題를 내놓았다. 남북한 간의 경제 文化關係를 지향하는 움직임의 展望은 현 시점에서는 밝을 것 같지 않다. 그러나 情勢는 유동적이고 변하기 쉬운 것으로 보이는데 앞으로 개최될 올림픽大會가 남북한 관계에서 흥미로운 요소들의 하나가 되어 있다.

美國은 금년에 對北韓政策을 크게 바꾸지 않았다. 오래전에 美國은 交叉承認을 지지한다는, 즉 만약 蘇聯과 中国이 대한민국을 승인한다면 미국도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을 승인하겠다는 적극적인 의사를 표명한 바 있다. 미국은 또한 남북한의 유엔(同時)가입을 지지해왔다. 이같은 提議들은 그때마다 번번히 平壤政權에 의해 거부당했다. 그러나 北韓은 南韓도 역시 會員으로 가입하고 있는 몇몇 國際機構들의 會員임은 물론 60개가 넘는 나라들의(南韓과 함께 北韓을 승인하는) 그중 승인을 받아들이고 있다.

최근에 美國은 美國外交官들의 社交的 모임과 이와 유사한 모임에서 북한 관리들과 실질적 사항들을 논의하는 것을 허용하는 政策을 다시 시작했다. 美國人들, 특히 미국학자들과 北韓人들 사이의, 비공식 접촉을 거의 방해하지 않는 것이 또한 美國의 政策이다. 時間이 경과하면 유대의 한 작은 網組織이 형성되어 어떤 公式的인 상투적 발언들을 제쳐놓고 서로 상대방의 견해에 귀를 기울이는 직접적인 親密關係를 雙方關係에서 가질 수 있게 될지도 모른다. 하지만 미국의 對北韓政策이 南北韓關係의 解氷이 일어나기전에 또 일어나지 않는 한 크게 擴大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리고 北韓이 추구하는 主目的 즉 駐韓美軍撤収는 앞서 略述한 상황이 일어나지 않는한 달성될 것 같지 않다.

요약하자면, 지난달 자신이 치른 희생을 잘 아는 美國은 南韓社會가 유례 없는 경제적 성공에 政治的 現代化를 더해가면서 發展을 계속할 것을 강력하게 요망한다. 美國은 남북한의 商業 文化的 關係가 현재의 敵對關係를 대치하는 平和로운 韓半島를 바란다. 미국은 後者の 目的이 소련을 포함하는 이 地域의 모든 強大國들에 의해 서로 함께 추구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하지만 미국은 남북한에서의 또 그들의 相互關係에서의 對內的 사태 진전과 관련하여 否定的의 可能性들이 있다는 것을 인식한다. 비록 美國이 또 다른 韓國戰爭을 방지하기 위해 미국이 천명한 安保公約에 의지하고 있다

할지라도 미국은(韓半島) 對內문제들에 効課的으로 대처하는 政策을 거의 갖고 있지 않다.

蘇聯의 아시아進出

마지막으로 소련의 현재의 政策, 특히 그 對아시아 政策에 대한 美國의 態度에 관해 한마디 하겠다. 현재 미국에서는 蘇聯內의 사태진전 全般과 이것이 美國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안다. 이 논쟁의 한 側面은 고르바초프의 政策의 범위와 그의 政策의 있음직한 결과에 관한 것이다. 즉 새로운 소련지도자와 그가 이끄는 힘이 시간이 경과하면 소련제도를 근본적으로 바꾸게 될 교습효과가 크고 構造的 성격을 지닌 개혁을 과연 추구하기로 다짐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소련제도가 보다 훌륭히 운영되도록 만들고자 기도된, 그리고 그 제도를 기본적인 의미로는 변화시키지 않을 것같은 戰術的 변천들을 목격하고 있는 데에 불과한 것인가라는 논쟁이다.

이 물음과 관련은 있으나, 이같은 논쟁의 두 관점중 그 어느 편에도 반드시 결부되어 있지 않는것이 고르바초프의 성공의 가능성에 관한 推定이다. 美國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논쟁의 둘째 側面은 다음과 같은 물음을 다루고 있다. 즉 어느편이 美國의 長期的 國益에 부합하는가, 점진적으로 성공을 거둬가는 보다 活力的이고 改革的인 소련인가, 그렇지 않으면 문제들을 안고 있

는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소련인가라는 물음이다.

1986年 7月 27日 고르바초프의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행한 연설과 이에 뒤 따른 對아시아 政策에 관한 그의 발언과 행동은 위에서 말한 논쟁을 엮두에 두고 평가될 수 있다. 나의 의견으로는 고르바초프의 改革 노력은 매우 진지하게 받아들여져야 하지만 그 노력의 성공은 적어도 短期的으로는 여전히 疑問視된다. 이런 것을 참작할 때 모험요소가 있기는 하지만 만약 소련이 시장경제국들과의 보다 큰 相互作用으로 끌려들어와, 그 과정에서 목표를 수립하고 결정을 내리는 일들이 보다 복잡한 절차를 거치게 된다면 美國을 포함하는 世界는 형편이 더 좋아질 것이다.

하여튼 소련은 가까운 지난날까지만 해도 압도적으로 軍事的 성격을 띠고 왔던 對아시아 政策에 경제적 및 정치 국면을 추가하고 싶어한다는 것은 명백한 것 같다. 소련의 視線은 무엇보다도 먼저 對中國關係를 개선하는데에 固定되어 있다. 이 경우에도 그 결과는 그다지 두드러진 것이 못될 것 같다. 中·蘇 관계는 앞으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개선될 것인데, 두 나라가 다같이 긴장완화를 바라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들의 관계는 親密하거나 信賴的인 것이 되지 못할 것이다. 日·蘇관계의 개선은 양국간에 감정적인 장벽이 있는데다가 日本의 北方領土문제가 해결을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보다 더 어려울 것이다.

그렇지만 만약 日·蘇관계가 개선된다면 그 성격이 주로 경제적인 부문에서의 상호 이득을 위한 突破口가 마련될 것이다. 최근에 소련은 북한에 대한 경제적 및 원조를 증가함으로써 또 中国의 “두 韓國” 政策에 대한 平壤의 不快監에 힘입어 대북한관계를 크게 개선해왔다. 이같이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이룩함으로써 소련은 그 존재를 고려에 넣어야 하는 強大國으로서 韓半島에 다시 進出했다. 하지만 北韓 소련관계는 앞으로 계속해서 雙方이 다같이 서로 “삼가는” 그리고 同盟과는 상당히 거리가 먼 관계가 될 것이다.

要約컨대 소련은 지금 과거 30년간의 政策보다 훨씬 더 세련된 일련의 對 東北아시아 政策을 펼치는 과정에 있다 하지만 여기에는 地政學的, 경제적 및 문화적 장벽들이 있기 때문에 그 政策의 成果는 더디고 고르지 못할 것 같다. 관건적 중요성을 지닌 한 變數는 고르바초프가 추진하는 對內的 개혁의 운명이다. 國內에서의 성공은 소련 政策을 海外에서 強化시키는 것을 보다 쉽게 그리고 보다 論理的으로 만들 것이다. 실패는 계속적으로 軍事力에 의존하도록 만드는데에 이바지할 것이다(고르바초프의 改革이). 성공하는 실패하는 간에 美國은 아시아의 盟邦들과 더불어 소련 政策路線에 적절하게 대응하는 방도를 준비해야만 한다. 武器制限 분야에서 유럽과 아시아는 지금 밀접히 연계되어 있다는 것이 분명하고 이 상호간의 연계는 경제와 정치

에서도 역시 사실이라는 것이 직접 더 뚜렷하게 증명될 것이다.

結 論

이 時点에서 우리가 미국의 대동북아시아 政策을 검토할 때, 몇몇 요소들이 強調되어야 한다.

첫째는 점점 높아가는 相互依存性이 歷史上 前例없이 對內政策과 對外政策을 하나로 묶어 놓았다는 점이다.

둘째는 美國을 포함하는 거의 모든 主要 國家들이 부분적으로는 國內문제들에 보다는 큰 주의를 돌리기 위해 對의 政策의 비용과 모험을 줄이고 싶어한다는 것이다.

셋째는 美國은 지난날에 그랬던 것보다 가일층 더 安保의 경제적 및 정치적 公約을 맺고 있는 對象國家들의 政府에 경제적 및 정치적 成就에 대한 說明을 요구할 것이고 그같은 公約은 특정한 지도자나 政府에가 아니라 그들이 대표하는 社會에 부여되었던 것으로 간주될 것이라는 점이다.

네째로 美國은 무거운 짐을 分擔하는 일을 더욱 늘리는 것과 함께 協議와 共同決定的 목이 더욱 확대되어야만 한다는 사실을 점차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인데, 이는 큰 무거운 짐을 부담하는데에 또 주로 單獨으로 결정을 내리는데에 익숙해졌던 나라에는 어려운 변화이다. 게다가 集團的 결정을 내리는 制度化된 방편이 개발되는 속도는 지금까지 더디었다.

다섯째로 美國은 앞으로 계속해서 특정

한 國家들과 地域들에 알맞게 급격하게 區
分化된 淸아시아政策을 추구할 것이고 이
경우 몇몇 일반 원칙만을 세우고 이들을
함께 묶은 견고한 연계장치가 마련되리라는
점이다. 그 이유는 아시아 자체가 區分
化되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역적 유대
가 커짐에 따라 상호간의 연계가 더욱 가
능해질 것이며 더욱 必要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그 첫 증거를 東北아시아의 經濟 및
安保的 領域에서 본다.

마지막으로 美國이 經濟나 政治나 戰略
등 諸分野에서 東아시아로부터 撤収하거나
이곳에서의 存在 규모를 축소하게 될 것이

라는 징후는 없다는 점이다. 美國의 장래에
대한 이 地域의 중요성은 증가하고 있지 감
소하고 있지 않으며 이 사실은 앞으로 계
속해서 美國정책에 반영될 것이다. 美國이
유럽과 맺고 있는 문화적 및 정치적 유대
는 여전히 강력한 것이고 앞으로 수십년동
안에는 否定的 성격의 많은 事件들이 美國
으로 하여금 西半球, 특히 이 半球의 南部
地域에 보다 크게 주의를 돌리도록 강요할
지도 모른다. 하지만, 太平洋地域은 美國의
장래에 점점 더 영향을 미칠, 어쩌면 이를
좌우할 활력적인 요인들을 안고 있다.

태평양 주둔 소련군의 전력 분석

-Soviet Pacific-Based
Strike Forces-

張 京 煥 訳
(중위 제6751부대)

최 근까지도 태평양 주둔 소련해군 항공대(SNA: Soviet Naval Aviation)에 대한 분석적인 연구는 별로 행해지지 않았으며, 특히 아시아 言論에 있어서 더 그러하다. 이것은 SNA가 태평양에서 재래식 전쟁을 수행하기 위한 소련 태평양주둔 군대 중에서 가장 강력한 부대라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다소 놀라운 일이다. 數年동안 SNA는 소련의 軍部隊 중 가장 動員 키 어려운 부대였다. 그러나 최근 몇년간 質的, 量的인 변화가 있어 SNA는 그 火力面에서나 生存性面에서 큰 증가를 하였다. 지난 3년간 일어난 변화를 고려해 보면 태평양상의 소련 군사력에 있어서 이 부대의 중요성을 재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

소련 技術의 두 가지 중요한 發展이 SNA의 파괴력(Strike Power)을 증강시키는데 기여했다. 첫번째는 장거리비행 Tu-95/Bear의 광범위한 전개배치이고, 둘째는 Tu-95 및 Tu-16/Badger 항공기에 戰術 ASM보다 실질적으로 우수한 것으로 간주되는 새로운 對함정 미사일(AS-1 및 AS-2 미사일을 대체하는)로 장착한 것이다. AS-3 및 AS-4와 같은 이 새로운 미사일들은 SNA의 파괴력을 현재와 같이 만들어 놓았다. 1980년대 초기부터 태평양 또는 인도양에서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Tu-22M/Backfire-B 초음속 폭격기가 중앙아시아 및 시베리아 비행장에 급속히 증가 배치되었다.

파괴임무(The Strike Mission)

SNA의 戰時 주요임무는 적함을 색출·파괴하는 것으로, 특히 US/NATO 항공모함 기동부대, 탄도미사일적재잠수함과 그에 대한 설비물을 파괴하는데 주안점이 주어진다. 처함정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SNA는 Stand-off 처함정 미사일을 다중 적재한 지상

주둔 중·장거리 비행폭격기를 사용한다. 주요한 전투에서 SNA를 지원하는 것은 소련空軍의 장거리비행 항공대(L. R. A: Long-Range Aviation)일 것이다. 왜냐하면 양측의 지원부대 항공기가 공중비행정찰을 하거나 極東地域에서 해군기동부대를 상대로 모의 파괴 임무를 수행하는 것을 보는 것은 흔한 일이기 때문이다.



A U.S. Navy F-14 intercepts a Soviet Badger.

SNA에서 사용되는 기본 항공기는 Tu-16/Badger, Tu-95, Tu-142 Versions of the Bear와 Tu-22M/Back-B 초음속 전폭기이다. 파괴임무를 수행할 때 上記 항공기를 지원하는 것은 전자식 및 사진촬영정보정찰(ELINT 및 PHOTINT), 감시 및 목표사

격지원, 중간계도 처함정미사일 유도과 공중급유를 제공하도록 전문화된 多種의 항공기들이다. 또한 SNA의 항공기는 비록 현행 소련계획이 후자쪽을 강조하고 있기는 해도 공격적 기뢰부설과 방어적 기뢰부설의 양 임무에 사용될 것이다.

처잠수함 임무(The Antisubmarine Mission)

SNA는 처잠수함戰의 역할을 수행하는 기본적인 부대로서, 핵탄두 미사일 장착 잠수함을 탐색, 파괴하는 전략적 임무가 강조된다. 미국이 Polaris잠수함을 배치한 것을 소련이 인지하게 되자 Moskva계열 CHG 헬기를 해상에 띄우는 등 SSBN 순회에 대응하고, SSBN추적을 위해 지상 주둔 항공기를 배치하는데 박차를 가했다. 전술 ASW문제의 중요성이 분명해졌고, 궁극적으로 1976년 처음 의뢰한 Kiev계열 CVHG 운반함을 만들도록 소련의 의사결정에 작용하는 요인이 되었다.

현재 지상주둔 ASW임무는 Tu-142/Bear-F(여러 종류의 개조품들)와 장거리 비행공해(Open-Ocean) 임무를 위해 Il-18/May가 수행하고 있다. 방어적 해안임무라 명칭되는 것은 Be-12/Mail을 비롯한 多種의 고정 날개 항공기와 여러 종류의 헬기(Ka-25/Hormone A, Mi-14/Haze)에 의해 기본적으로 수행된다. Tu-142와 IT-18은(태평양 임무를 띠고) Vietnam의 기지(인도양 임무를 띠고), Aden/People's Democratic Republic of Yeman의 기지를 포함한 해외기지로 지속적으로 배치되고 있다.

Berier Be-12/Mail 항공기가 월남공군에 해안정찰용으로 공급되었고, 특정량(25기로 추정)의 Ka-25/Horemone SW Utility/Helicopter가 또한 제공되어 왔다. SNA는 소련

태평양함대(SOVPACFLT: Soviet Pacific Fleet)에 단거리 비행 ASW임무 작전을 수행할지도 모른다. 막강한 중공남부함대(China South Fleet) 잠수함의 위력을 생각할 때 더욱 큰규모의 Tu-142 및 IL-38를 통한 ASW정찰임무뿐 아니라 그러한 임무는 당연한 것이라 볼 수 있다.

공중 지원임무(Air Support Missions)

SNA는 Baltic지역에서 여러 해에 걸쳐 유사한 세력을 형성한 후 極東에서 Su-17/Fitter-C/D전폭기(Strike Air Craft)의 항공연대를 만들었다고 일본의 보고서에 나타나 있다. 그들의 기본임무는 북태평양상의 호카이도와 중공연안설비 및 섬에 대한 작전을 비롯한 소련해군보병부대(Soviet Naval Infantry Forces)의 작전을 지원하는 것이다. 항공모함주둔요격기(Interceptor Fight)는 YAK-36MF/Forger VSTOL항공기만이 띄워진다.

실용임무(Utility Missions)

ASW가 기본적 임무이기는 하지만 SNA는 다른 해군항공대와 마찬가지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실용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헬기들은 ASW와 자료연결감시(Data-Link Surveillance)/처함정용 미사일 목표제시와 같은 기본임무 외에도 SNA를 위해 다양한 실용편의를 제공한다. ASW Mi-4/Hound헬기는 해안 ASW 임무가 줄어들고 수

송 및 병참지원임무를 위해 일부가 대기 되어 있다고 믿어진다.

「해상 헬기 사용(The use of Helicopter at Sea)」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M. Belov대령이 말한 바에 따르면, 헬기들은 레이다초소 밀착방어 및 보호제공과 해안 및 강 어구 순찰과 같은 역할을 위해 사용되어 지고 있다고 했다.

조직과 기지구축(Organizing and Basing)

소련 태평양함대사령관은 G. A. Khvatov 이고 태평양함대 해군항공대의 사령관은 P. Ryzhkov소장이다. Ryzhkov는 1979년 중공-베트남 분쟁이 종결된 후 바로 이 과제를 부여받았던 것으로 생각된다. 각 SNA함대 조직의 주요 간부는 부사령관, 수석정치장교와 상임기사(技士)이다.

정치지휘부(Political Directorate)의 수석 대표자(The First Deputy Chief)는 I. G. Smirnov소장인데, 그는 SNA사령부의 상임 정치장교이기도 한 것으로 믿어진다.

현재 전세계에 퍼져있는 SNA군세(軍勢)는 헬기포함 약 1,700기이며, 그 중 30~33%가 소련태평양함대에 주둔하고 있다. SNA부대는 지난 10년 동안 약 225~250개의 항공기가 증가했다. 아시아·태평양지역에 있는 SNA군세는 500기의 항공기가 되는 것으로 현 미국과 일본의 국방성은 추산하고 있다. 극동부대의 숫자와 병력이 증가된 주된 이유는 1980년대초 Backfire-B 폭격기와

Su-17C/D “극동연대”의 창설에 기인한다.

소련의 기지구축은 전 북태평양을 지원하는 중요시설물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평시 훈련을 제외하곤) 정상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많은 소규모의 산재한 기지를 포함하여 대부분의 비행장은 Vladivostok-Nakodka 군사지역 주위에 밀집해 있다. 확인된 비행장으로는 Artem North, Vladivostok와 바로 옆지역에 있는 Nikolayevsk에 있는 중요 시설물들을 포함하고 있다. 더 북쪽으로(Sakhalin섬 반대편) Alekseyevska와 반도 남동해안의 Petropavlosk에 있는 Tu-95/Bear 기지는 Tu-95기지구축과 북태평양 횡단작전을 위한 중간착륙시설물을 대표하고 있다. Vladivostok콤비나트지역 내의 다른 시설물로는 Novonezhino비행장과 Romanovka-west비행장이 있다. 때로 특히 훈련시 소련은 Magadan(Okhotsk해북부)에 있는 시설물을 사용할 것이다. Bering해 순찰과 Alaska 해안에 대한 침투훈련을 지원하는데 Anadyr(Alaska해안 맞은편)에서도 유사한 기능이 수행된다. 또 하나의 시설물이 섬의 북부에 있는 Alesandrovsk-Sakhalinsky에 있다. 그러나 SNA시설물로서의 사용은 일본 간행물에서만 보고될 뿐 현재까지는 활발히 사용되는 시설물같지는 않다.

북태평양에 있는 기지群은 소련에 있어 항공작전을 약 1,500해리(2,850km) 동쪽과 Petropavlovsk반도의 남동부에까지, 쉽게 지휘할 수 있게 하는 집중복합체(Centralized Complex)가 된다. 美国해군은 이 지역을 戰

時 고도로 보호된 항공모함 기동부대만이 통과할 수 있는 “고도의 위협(High Threat)” 지역으로 보고 있다. 그러한 거리는 또한 戰時 적에 대한 최적 “파괴거리”로 간주하는 현 소련독트린과도 일치되고 있다. 2,500해리(4,750km)를 넘지 않는 지역을 감시와 최초 사격목표 집중지역으로 간주된다. 2,500해리를 넘어선 지역은 “중간위협(Medium Threat) 지역(F-4/Phantom II - Capable 항공기에 기동부대 항공방어를 의존하는)으로 보고 있다.

각 소련함대 사령관은 이 전폭요격항공기들을 직접 작전통제한다. 소련은 폭격기들 ‘항공연대’로 조직하고, 그 각각을 다시 3개의 ‘중대’로 편성했다. 항공연대는 항공기의 수가 일정치 않다. 폭격기연대는 보통 25~28기로 구성되고, 전투/전폭기연대는 40~45기로 구성된다. 소련 ‘항공사단’은 2개, 3개의 ‘항공연대’로 구성된다. SNA에 속하는 소련태평양함대의 총인원수는 알려진 바는 없지만 18,000~20,000명(비행사, 지상정비원, 참모 등등) 정도로 추산된다.

SNA항공기의 두 가지 기본임무는 미사일 장착 잠수함의 파괴와 “저항공모함전투(ACW: Anticarrier Warfare)”의 범주로 국한된다. ACW임무는 1950년대 SNA를 새로 만든 첫번째 이유이다. 그 10년후 이 부대는 서구기동부대를 상대로 해안, 중거리비행 및 제한된 장거리비행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항공기로 구성되었다. 중거리 비행능력은 Tu-16/Badger 폭격기의 강력한 힘을

기초로 생겼다. Tu-95/Bear D 폭격기의 미려한 힘에 기초했던 제한된 장거리 비행능력은 소련장거리비행항공대(LRA: Long-Range Aviation)의 Tu-95와 M-4/Bison 폭격기에 의해 바꾸어졌다.

해안의 저함정임무는 Frontal Aviation의 IL-28/Beagle과 SNA의 Tu-1을 포함한 1940년대 후기의 항공기 기종으로 수행했다.

SNA부대의 두 가지 기본임무를 음미해 보면 각 타입의 소련항공기의 임무를 이해하기가 쉽다. Sergei Gorshkov 소련함대 제독은 “Sea Power of the State” 1976년, '79년도 판에서 다음과 같이 말함으로써 융통성있는 多目的의 조직을 바람직한 “균형된” 함대로 보았다. 「잘 균형된 함대란 구성이나 무장에 있어서, 핵전쟁에서나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는 전쟁에서나 그에 부여된 목표를 완수할 수 있고, 평시에는 바다에서 국가이익에 보탬이 될 수 있는 함대를 의미한다」.

그와 같이 SNA는 함선(Surface Ships)과 타 항공부대(LRA 포함)를 포함하는 여타 함대의 요소를 독립적으로, 그리고 결합해서 작전할 수 있도록 의도하고 있다.

소련 항공기(Soviet Aircraft)

Backfire 폭격기가 소련태평양함대에 도입되자 더욱 장거리, 고속 저고도 침투비행을 포함한 임무수행능력이 향상되었고 현존 Tu-16 계열 항공기보다 더 빠른 속도로 탄두(Payload)를 향상하게 되었다. “일본국방 1983”

(Defence of Japan 1983) - 일본국방성발행 연두백서 - 에 따르면 70개 이상의 Backfire 폭격기(SNA와 소련공군 각 35/35 포함)가 태평양 지역에 배치되었다고 보고되고 있다. 이제 소련은 극동에 2개의 완벽한 체비를 갖춘 Backfire항공연대를 극동에 배치시켰다. Backfire의 위력은 1개(혹은 2개)의 핵 장착 AS-4/Kitchen미사일을 적재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중요하다. 고고도비행, 음속 3배의 속도, 급강하(Terminal dive) 성능을 갖고 있어 해군의 SAM미사일로 대응하

기가 매우 어렵다.

이 미사일은 1961년에 Bear와 Blinder 폭격기의 기본무장으로 도입된 이래 두 세차례 개작을 거쳐 성능이 향상되고 있을 것이다. Backfire/AS-4의 결합은 북태평양지역에서-재래식이건 핵이건-SNA로부터의 중대한 위협이 되었다. 이 결합이 Vietnam의 소련기지(Cam Ranh Bay나 DaNang기지)에 도입된다면 국지전 상황에서까지도 남지나해의 미국, 중공, ASEAN국가의 방위 문제를 크게 복잡하게 할 것이다.



The Bear : Tu-95와 Tu-142항공기종 (Version) 들은 공군 및 해군항공부대에 적극 활용중인 유일한 Turbo-Prop전략 폭격기로서의 특징을 갖고 있다. SNA에서는 Bear-D와 Bear-F만이 사용되고 있음이 확실하다. 그러나 Bear-G 전략정찰기종 (Bear-C를 개량한 것으로 믿어짐)이 LRA에 현재 사용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SNA에도 계획되고 있을 것이다. Bear-D는 해군정찰/미사일 표적기종 (Missile Targeting Version) 이며, 이 역할수행에 있어 공격용 무기는 적재하지 않는다. Bear-F는 장거리비행 처잠수함기종으로 레이다, 자기 검파기(MAD:



(Magnetic Anomaly Direction) 기타 잠수함 탐지시스템을 광범위하게 갖추고 있고 ASW무기로 음향부표, 핵수중폭탄과 ASW 어뢰(IL-38/May항공기가 적재하는 무기와 유사) 등 광범위하게 적재되어 있다. Bear-F

에는 세 가지 개량기종-Mod-이 확인되어 있는데 항공기 등면 수직안정판(Fin)위 또는 후미 동체의 양면을 따라 안테나와 레이더(레이다 안테나 보호용 덮개)이 설치되어 있다.

최근에 확인된 개량기종(Mod)Ⅲ은 MAD 시스템으로 추정되는, 항공기 수직안정판 윗부분에 유선형 구조의 안테나를 갖고 있다. Bear-D는 Backfire폭격기의 음속 2배, 고고도 돌진능력은 Bear-D와 Backfire폭격기의 결합은 가공할만한 처합정결합이 되었다. 북태평양에서, 그 결합은 최선에 요격기에 의해서만 대응할 수 있었던 즉각반응 전투력(Quick-reaction Strike Force)을 SNA에 제공하는 것이었다. "Chin" 운항레이다와 "Big Bulge(푹튀어나옴)" 배쪽레이더 덮개 <목표감시/자료연결/미사일유도용>의 특징을 갖고 있는 Bear-D는 어떤 특정시기에 Vietnam에서 2기의 항공기가 정상적으로 주둔해 있기 때문에 남지나해상에서 자주 목격되었다. 9,000마일(14,080km)의 비행거리로, 이 항공기는 Darwin(북부호주)나 Guam같이 먼지역의 전략정찰에 사용될 수 있다. Bear-D/Backfire폭격기의 결합은 Coral해와 같은 극남부지역도 공격할 수 있으나 미국과의 태평양전역에 걸친 전쟁에 있어 "비중 높은" 해군 목표에 대해서만 사용될 것으로 보인다. 항공기는 다른 목표를 공격하도록 조정될 수 있다. 소련독트린에서는 지휘통제 시설물, SSBN기지구축, 또는 전략적 정찰능력을 제공하는 것들과 연관되었

을 때 상당히 가치있는 "해안목표"로 간주하고 있다.

The Badger : Badger계열의 항공기는 해상 및 육상목표에 대해 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중거리 비행 폭격부대의 50년대 이후(해군 인도가 50년대 말기에 시작됨) 발전과정을 나타내고 있다. 소련 항공기에 관한 자료의 대부분이 하나의 Badger기종과 다른 것을 구별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때때로 사용 중인 지원 Badger항공기의 기종을 결정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다. 그러므로, 그런 자료들을 "최선의 평가"로 취급되어야 하며 전체적인 軍事力을 안내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사용 중인 Badger기종은 다음과 같다.

- Badger-A : 폭격기, 공중급유, 작전 훈련기, SNA의 통제 하.

- Badger-C/G : 미사일 전폭기, 2개의 AS-2(현재 사용 감소추세) 또는 AS-5 AS M장착, Badger-G는 AS-5 또는 AS-6미사일 장착 "Short Horn"레이다 사용.

- Badger-D : 전자 정찰 기종, "Putt Ball" 레이더 시스템 사용.

- Badger-E : 공중사진정찰 기종.

- Badger-F : 전자 공중사진정찰 기종.

- Badger-H와 J : 전자 장비 항공기로 전투기편대 호위 및 적 전자기기 제압용.

- Badger-K : 전자정보(ELINT) 및 전자 장비기종.

구형 Badger-A 항공기는 북태평양과 Vietnam에서 계속 보여지고 있다. Vietnam에 주둔한 미사일 전폭 기종(G-기종) 항공기는

AS-5미사일을 발사하도록 구상되었다. 이제 남지나해의 해안변경을 가진 나라에서는 Vietnam통제 하에, 95~100마일 거리의 목표물을 파괴할 수 있는, 공중발사의 처함정미사일을 대처해야만 한다.

가공할 위협을 모르고 지나가는 것을 피하기 위해 소련 전략항공부대(Soviet Strategic Air Component)라고도 언급되는 소련 장거리 비행항공대(LRA)에 의해 작전되는 Bear-B와 Bear-C기종에 대해 언급되어야 한다. Bear-C는 425km(255mile) 비행거리 AS-3/Kangaroo미사일로 무장되어 있으며 해군부대 및 연안시설물에 중대한 위협을 주고 있다. Bison-B와 Bison-C폭격기 뿐만 아니라 LRA의 Bear-B와 Bear-C기종은 때로 한꺼번에 미군 항공모함 기동부대들을 상대로 작전하기도 한다. '83. 3~4월 한미 "팀스피리트-'83"훈련과 그에 관련된 함대-'83훈련동안, 소련의 LRA와 SNA부대는 두 가지 훈련에 대하여 약 120개의 임무를 수행했다. 편대작전은 대규모 Bear와 Badger항공기가 결합된 것으로 때로 4대의 Backfire기로 구성된 편대들이 처함공모함 미사일 공격 모의훈련을 같이 하기도 했다. 초현대식 해군 함대만이 이런 성격의 多重空中공격을 견뎌낼 수 있다. 소규모 해군함정은, 남지나해에서 보여졌듯이, 이런 상황에선 방어하기가 매우 어려운 것이다.

처잠수함 전투용 항공기(ASW Aircraft)

소련은 처잠수함 전투의 문제를 서방 SS

BN의 파괴와 관련된 "전략적인" 것으로 보고 있다. 전략, 전술적 방어의 관점에서 이것을 일찌기 인식하게 한 것은 "Oceal Duel"이란 책에서 1968. 6월 Iv, Kotysh가 쓴 Red Star라는 기사에서였다. 저자 Kotysh는 항공기와 ASW해상부대(특히 비교적 새로운 Moskva계열 CHG헬기를 가진 순양함을 염두에 두고) 사이의 연합작전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ASW의 일반적인 문제점을 취급하면서, 그는 잠수함 탐색은 양날과 같은 문제라고 지적했는데 항공기가 잠수함 잠수함의 위치를 찾기 위해서는 대기와 물이라는 "두개의 바다"를 통해야 하기 때문이라 했다. 결론에서 저자는 잠수함 활동이 의심될 때 그 지역을 즉각적으로 봉쇄하는 것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 지역은 "모든 기술적 자원을 동원 그 범주내 경계를 강화" 하는 모든 단위부대를 가지고 집중조사와 보호의 주제가 되는 지역을 말한다. 要는 2차 대전식 봉쇄와 조사 작전이다. 소련의 2급 기관장(Engineer-Captain Second Rank)인 V. Denyanov는 1966년에 쓴 "기술과 무장"(Moscow 66.6) 기사에서, 현존 ASW무기와 탐지장비를 조사하는 일반 기사를 실었고, 방식과 기술의 향상이 시급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추가해서 그는 이러한 역할에 있어 Air Cushion Vehicle이 나타나므로 해서 위대한 미래가 올 것을 예견했다. 20년전 새로운 개념과 아이디어가 받아들여지는 대중 戰略 ASW문제에 소련이 봉착했다는 또 하나의 표시였다.

태평양에서 SNA는 효과적인 탐색과 ASW작전 봉쇄에 중대한 지형적인 제약에 직면했다. "Open Ocean"과 "해안" 작전에 관련된 가장 큰 문제점은 하나의 환경에서 잘 기능하는 탐색장비가 다른 환경에서는 그렇지 못한 환경의 문제이다. 저주파음과 감지기는 대양(Open-Ocean)에 알맞도록 만들어져 있지만, 협소한 해안지역에서는 기대하는 결과를 낳지 못할 때가 있다. 소련이 "점검지역(Check Point)"과 해안가를 감시하기 위해 사용하는 저-중주파 시스템은 - 일본해, South China해, Okhotsk해에서는 이상적임 - 태평양 분지의 널찍한 지역에서는 비효율적이다.

태평양 지역에서, SNA는 ASW를 위한 소련이 유일하게 의존할 만한 원천이 된다. 주로 대양감시는 Bear-F가 한다. 3,000+ 플러스-마일(3,334km)의 행동반경은 오랜 탐색과 순항시간을 연장시켰다. 그의 통행시간이 느려 음파추적에서의 효용이 떨어지는 하지만 그 항공기는 대양 전체에 걸쳐 잠수함을 추적할 수 있는 비행거리를 갖고 있다. 이 임무를 맡을 때 Bear-F를 보조하는 것은 IL-38/May이다. 보통 이 항공기 1대씩하여 2대가 광범위한 정찰과 ASW순찰에 사용된다. Turbo-Prop IL-38 항공기는 반경 1,400해상 마일(2,660km)에 걸쳐 ASW 탐색을 수행할 수 있다.

그리고 2대면 비교적 단시간에 약 2,500 평방 마일을 이론적으로는 탐색할 수 있다. 소련은 통상 Vietnam과 Aden에 늘 IL-38기

를 각각 2대씩 유지하고, 훈련 중에는 추가하기도 한다. 베트남에 있는 Bear-F는 보통 남지나해를 건너 동쪽으로 필리핀해까지 ASW정찰을 지속하는데 사용되며 Malacca해협을 지났던 것이 보고되었다.

IL-38과 Tu-42는 항공기의 MAD 시스템 및 잠수함 위치확인을 위한 음향 부표와 합쳐진 양식으로 내장된 화력통제컴퓨터를 조작할 수 있다. SNA는 해안 ASW임무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보통 Be-12/Hormone A와 Mi-14/Haze-A 헬기에 의해 수행된다. 많은 숫자의 기도입된 Mi-4/Hound기가, 훈련용 및 비상대비 예비장비로 쓰이고 있기는 하지만 사용이 줄어들고 있다. Vietnam 공군으로 인도된 것으로 추산되는 25기의 Ka-25도 역시 해안 ASW用인 것 같다. 특히 중공 잠수함기지 인접이라는 점에서 그 러하다. 실험적인 R & D An-12/Cub 항공기는 아직 태평양 지역에서 보고되지 않았다. 미래 ASW개발은 IL-76/Candid Four-Engined Turbofan으로 집중될 것 같다. 후자가 특히 5,250mm(9,975km)의 임무수행 능력을 갖고 있어 더 잘 맞는 것 같다. Bear-F 항공기의 향상된 철과 결합되면 10년 이내 이지역 미래 ASW개발을 대표할 것처럼 보인다.

SNA 함정갑판(Shipboard SNA)

SNA는 2개의 태평양 주둔 Kiev계열 항공모함(Novorossysk와 Minsk)에서 작전하는 고정날개의 YAK-36 MP/Forger VSTOL

항공기의 분견대로서 역할을 한다. 어떤 특정 시점에 이것은 약 35기의 항공기로 구성되고 추가적으로 훈련용 및 예비 항공기가 해안가에 배치되기도 한다. 헬기부대는 Ka-25/Hormone-A, -B와 -C(ASR)기종과 신형 Ka-27/Helix-A 헬기가 태평양과 인도양에 있는 합정 갑판에서 출발하여 작전하게 된다.

핵무기化(Going Nuclear with Their Weapon)

태평양 분지에서 전쟁 시나리오에 관련하는 소련 계획자들은 중대한 문제를 직면해야 한다. 그 문제는 단순한 것이다. 소련이 SNA에게 핵무기사용을 허용해야 하는가? 열강국간 핵 "교체" 없이 어느 정도의 전쟁에서 소련은 ACW와 ASW 임무를 수행할 때 SNA(그와 유사한 임무를 수행하는 LRA/SSA)에 핵무기 사용을 허용해야 하는가? 어느 명백한 답안은 없지만 좀더 자주 깊이 있게 토론되어야 할 과제이다. 이 문제는 처항공모함戰과 특히 처잠수함戰 수행시 핵무기가 다른 시도보다 훨씬 쉽게 완전사살(Hard Kills)의 가능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제기된다. 핵탄두는 탐지된 잠수함을 아주 정확하게 추적하는 문제를 간단하게 만들었고 ASW어뢰는 목표를 찾을 것이다. 핵무기는 공중투하 또는 함상투하된 수중폭탄, 로켓발사보다 훨씬 큰 살상반경을 갖고 있으며 소련도 이것을 인식하고 있다. ACW와 ASW를 취급하고 있는 소련의 여러 문헌을 조사해 보면 소련 저자

들은 통상 "재래식" 혹은 "핵"탄두의 문제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971년 소련함대의 V. Kasatonov 장군은 Red Star라는 글을 통해 적기동부대, 항구, 호위선, 해군기지와 상대되는 잠수함을 탐지, 추적, 파괴하는 힘에 "강력한 핵미사일 공격"을 가할 수 있는 SNA의 힘을 격찬했다. Red Star에서 그런 기사가 보여진 이래 15년간 소련 문헌은 재래식 무기의 사용에 더 강조를 두는 경향이 있었다. 더우기 5년전부터 재래식 사용을 핵무기에 상대적인 것으로 취급하는 경향을 보이게 된다.

비록 다른 전쟁에서는 재래식으로 수행한다 할지라도, 이것은 아시아 최대 잠수함(약 100기) 보유국인 소련이 ASW 임무를 수행할 때, 바다에서 핵무기 사용에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는 강한 증거도 있다. 이것은 중공에게는 심각한 문제이다.

결 론(Conclusion)

태평양 소련 해군항공대는 그 주제가 광범위하고 SNA가 관련되는 중요 정보의 편차(Gap)로 인해 아주 어려운 주제이다. Badger의 비행거리 확장에 대한 계속되는 노력에서 흥미있는 개발이 계속되고 있다. 최소한 Badger-KK 한대가 미해군의 북태평양에서 "Fleetex-83" 항공모함 전투부대 훈련 중 보여졌는데, 표준 날개-날개 재급유시스템을 갖춘, 공개된 ECM/EW 기종의 첫번째 함상사용機였다.

이미 말했듯이 미국 해군의 항공모함전투부대(CVBG)의 북태평양 및 일본 해 작전 소련 영토에 인접한 곳에서의 작전에 대한 소련의 대응을 평가하려는 것으로 의도된 것이다. 전투부대 내의 항공모함 2대를 대상으로 실시된 120여개의 정찰과 모의 미사일 공격-일시에 3개의 항공모함이 있었다-은 적위협에 대한 계속적 공격("파도(Wave)"공격 독트린)을 위해 항공기를 집중시키는 SNA의 결정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1982. 9. 14 11기의 Tu-22M/Backfire-B 폭격기가 일본해의 광활한 전 지역에서 모의 처함정공격을 수행할 때, SNA, LRA/SSA의 장거리 비행 수행력을 더욱 확인하게 되었다. 항공기는 Wajima, Ishikawa 県(일본중부)에서부터 220km로 날아왔고, 그 중 일부

(5대의 Backfire 그룹을 포함한)가 일본 요격기에 의해 추적 요격되었다.

북태평양에서 유용한 부대집중방식은 남지나해의 기지와 관련하여서는 추구되지 않았다. 기지시설물과 획득하는 방법은 Aden, Egypt, Syria, Somalia에서 이미 행해졌던 것과 그리 다른 것이 아니었다. 최근 보고에 따르면 소련은 TU-16S 16대, Tu-95 Bear D/F 8대, MiG-23C/G 비행중대를 Vietnam에 주문시켰다. 미국 John L. Butts제독(전해군 정보부장)은 Cam Rahn만 종합기지(Complex)를 "모스크바의 최초 진실한 海外기지"라고 상원해군소위원회(Senated Armed Services Seapower Subcommittee)에서 밝혔다. 다소의 과장이 있을지언정 소련 해상항공대가 거기 대기 중인 것이다.

軍用航空機의 費用予測에 관한 有意性 檢討

許 鍾 俊

(소령, 공군본부)

이제 우리도 점진적인 항공산업의 발전과 더불어 부분적인 항공기 조립생산 혹은 전체적인 항공기 생산이 이루어질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 항공기의 생산 혹은 획득에 있어서의 비용추정에 관한 문제는 정량적 측면에서 국방자원을 다루어야 할 예산집행자 또는 분석가들에게는 더 없이 중요한 일이 될 것이다.

본 문은 1976년도 Operations Research에 기재된 Dennis P. Tihansky 의 論文 "Confidence Assessment of Military Airframe Cost Predictions"을 번역한 것이다. 본 문은 軍航空機의 비용예측 측면에 많은 도움이 될 줄로 믿는다.

— 역자 주 —

第 1 章 序 論

武器體系獲得에 대한 經濟的 分析은 지난 수년 동안 劃期的인 발전을 거듭었는데 이는 國防費支出 즉 過多한 支出과 新技術開發費用에 대한 정부의 관심 때문이었다.

지금까지 이러한 分野에 대한 대부분의 노력은 精確한 費用予測技法(Methods of Cost Prediction)을 개량시키기 위함인데 있었고 長期的인 計劃을 樹立하는데 있어 정

군사지식

확한 費用予測모델을 사용할 필요성이 있었으며 이는 生産者와 購買者 쌍방이 지출비용을 評價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필요성의 증대로 인해 總費用과 部分費用을 결정짓는 武器体系의 기본적인 設計基準과 媒介變數에 관계하는 CERS(Cost Estimating Relations)을 사용하게 되었으며 軍用機에 대해서는 CER'S에 관한 수 많은 경험적 연구가 인용되었는데 그 중의 하나는 個別的인 設計明細를 導出하기 위한 單一費用評價(Single Cost Estimate) 방법이다. 그러나 單一費用評價技法은 비용에 대한 反應度를 지나치게 단순화시키므로 계약시 외부인에게는 정연하고 간결하거나 또는 모든 명세에 있어 선명하게 보이게 만든다. Hitch와 Mckean은 이러한 단순성이 주어진 設計技法 또는 주어진 費用評價를 위해 資金配分을 너무 조기에 이루어지도록 하게 한다는 사실을 경고했다. 또한 Mendershausen은 여기에 대해 비록 航空機 生産問題가 마치 모든 것이 확실한 것 같이 취급되고 있지만 모든 문제는 不確實하다고 언급하였으며 그는 다음 몇 가지 方策을 따를 것을 권고했다. “즉 몇 가지 不確實性에 대해서는 確率的 취급방법을 사용해야 하며 이러한 變數는 觀測可能한 變數와 관계가 있고 確率의 分布로 推定할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이러한 분포의 매개변수는 이미 알고 있는 標本의 平均보다 不確實한 사건에 대해 보다 많은 정보를 제공해 줄 것이다.

본 연구는 航空機 費用을 推定하는데 있어 不確實性を 評價하기 위한 새로운 技法을 개발하고 적용하는데 있으며 많은 回歸方程式(Regression Equations)을 포함한 CER'S에 대해 予測區間을 계산할 수 있고 각각의 回歸方程式은 航空機 開發과 生産의 상이한 費用構成 項目을 나타내고 있다.

총비용예측은 단지 구성적 예측치의 합에 지나지 않으나 유의성 평가는 統計學的 復合 予測區間에 기초를 두고 있기 때문에 보다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부품별로 합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總事業費用 方程式을 도출하고 있다.

또한 예측구간을 계산하기 위한 적절한 標準節次가 있으며, 다양한 모델형태를 檢証, 評價하기 위해서 실제 세계 각국의 비용평가문제를 반영하는데 대한 정확성을 측정하며, 예측치에 대한 誤差分析은 많은 分析家들이 현재 不適切한 모델을 사용하고 있음을 증명해 주고 있다.

第2章 모델개발

分析은 정상적 제약기간에 걸쳐 美航空機의 混合費用을 予測하기 위해 일반화된 비용평가가 관련요인을 도출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다중회귀(Multiple Regressions)는 총사업비용뿐 아니라 계약의 상이한 단계를 설명하는 構成的 費用에도 관련된다. 開發단계는 開發支援과 飛行檢査費用을 포함하며 対象航空機에 대한 생산단계는 製造勞動時間, 製造材料費用, 工學的 勞動時間 그리고 現場勞動時間으로 구성되고, 航空機의 Fly-Away費用을 나타내면서 이러한 항목들은 地上裝備, 部品, 訓練支援 및 質統制를 위한 製造施設과 같은 지원적 역할에서 일반적으로 채택 가능한 여타 항목을 제외시켰으며, 航空機用役会社들에게 돌아가는 利潤은 減하였다.

勞動時間은 적합한 임금구성요인에 의해 금액(\$)으로 환산되는데 1970년 不變價格으로 조정되었으며 實際契約費用을 측정하는데 있어서의 1970년도 임금은 제조부분에 있어서는 시간당 10\$, 엔지니어링은 16\$ 그리고 현장노동에 대해서는 시간당 11.70\$로 평가하였다.

이러한 平均數値는 直接勞動費用, 責任 또는 間接費, 一般 및 行政費用 그리고 部內直接費用, 즉 초과노동시간, 여비, 출장비, 보험료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固定비율 간접비의 가정은 航空機 費用研究에 있어 전형적이고 여기에 주어진 構成費用(\$)들은 제안된 자치로서 이는 다른 여타의 정보를 쉽게 획득할 수 없다 하더라도 사용 가능하며 特定用 役者と 그의 임금지급에 대한 지식은 비용모델에서 이러한 구성치를 대체해야만 한다.

第1節 獨立變數

費用研究는 3가지 設計變數, 즉 航空機 數, 速度, Ampr무게가 대부분의 비용을 설명하는데 충분함을 예시해 준다. 航空機 數에 대한 자료는 모든 비용평가치와 마찬가지로 계약말기의 습으로 측정되며 速度値는 적절한 고도(Best Altitude)에서 낼 수 있는 最大速度이며 반면, 무게치는 생산된 최종단위에 관계된다. Ampr무게는 航空機의 순무게에 관계된 것이므로 바퀴, 타이어, 엔진, 추진력 공급장비, 기총 그리고 환풍기 등과 같은 부

군사지식

작물을 뽀 상태에서이다.

일반적으로 미시경제이론에서 單位費用은 生産率이 증가함에 따라 감소한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법칙은 航空機製造에 있어서는 모순인데 航空機製造費用은 生産率에 의한다기 보다는 누적 생산량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航空機費用과 總生産量과의 逆關係를 學習曲線의 效果(Learning Curve Effects)라고 하며, 일반적으로 $C=aQ^{\beta}$ 로 표현된다. 學習이란 特定한 工程을 사용하여 總生産量을 증가시키면 生産單位당 勞動力이 감소되는 현상을 말하며 생산량의 계속적 증가에 따른 學習의 正規的 形態를 學習이라 부른다. 이 관계는 일반적으로 常分數(Constant Fraction)로 표현되며 常分數는 生産量이 두 배가 될 때마다 限界單位에 필요한 입력량이 감소되는 비율이다. $C=aQ^{\beta}$ 에서 C 는 Q 번째 航空機의 費用이며, a 는 처음 항공기의 비용, β 는 -1과 0 사이의 값을 가지는 學習率을 나타내고 아래 그림 1은 학습율이 0.8, 첫째단위 생산에 소요되는 비용이 70千원인 공정의 한 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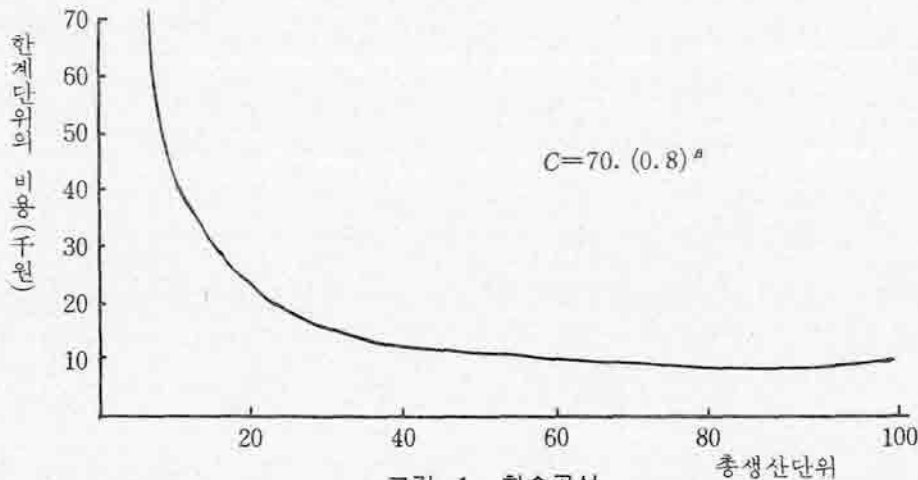


그림 1. 학습곡선

第2節 保存資料

CER'S의 보존자료는 2차대전 후 생산된 항공기 相關자료로부터 派生된 것이며 輸送機, 戰闘機, 爆擊機, 訓練機 등이 航空기 항목에 포함된다. 대부분의 航空機들은 美空軍

이 사용한 것이었고 단지 몇 대 만이 美海軍이 구입한 항공기였다.

그림 2에 나타난 분석은 26대의 航空機를 124번 관찰한 결과를 토대로 한 것이며 Ampr 무게와 速度(同標本과 관련된)의 区間値를 예시해 주고 있다. 항공기는 Type과 식별수에 의해 구분되며 관찰 숫자는 괄호안에 명시되고 있다. 어떤 임의의 항공기에는 대개 몇 번의 관찰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각의 관찰은 연속적인 계약을 완료한 상태이다.

예로써 F-84機의 첫번째 관찰은 처음에 28대의 항공기를 포함하고 있으며 반면 두번째의 관찰은 그 다음의 75대의 항공기를 포함하여 누적치로서 103대를 뜻하고 있다.

費用과 時間에 대한 대부분의 자료는 항공기 용역회사가 제공한 것이며 일반적으로 이 정보는 個別的인 契約時 獲得可能하나 航空機製造에 소요되는 勞動時間値는 필요한 경우 航空機 製作会社의 計劃報告書에서 원용된 자료를 토대로 보강되며 이 報告書는 勞動時間 所要를 生産水準까지 구체화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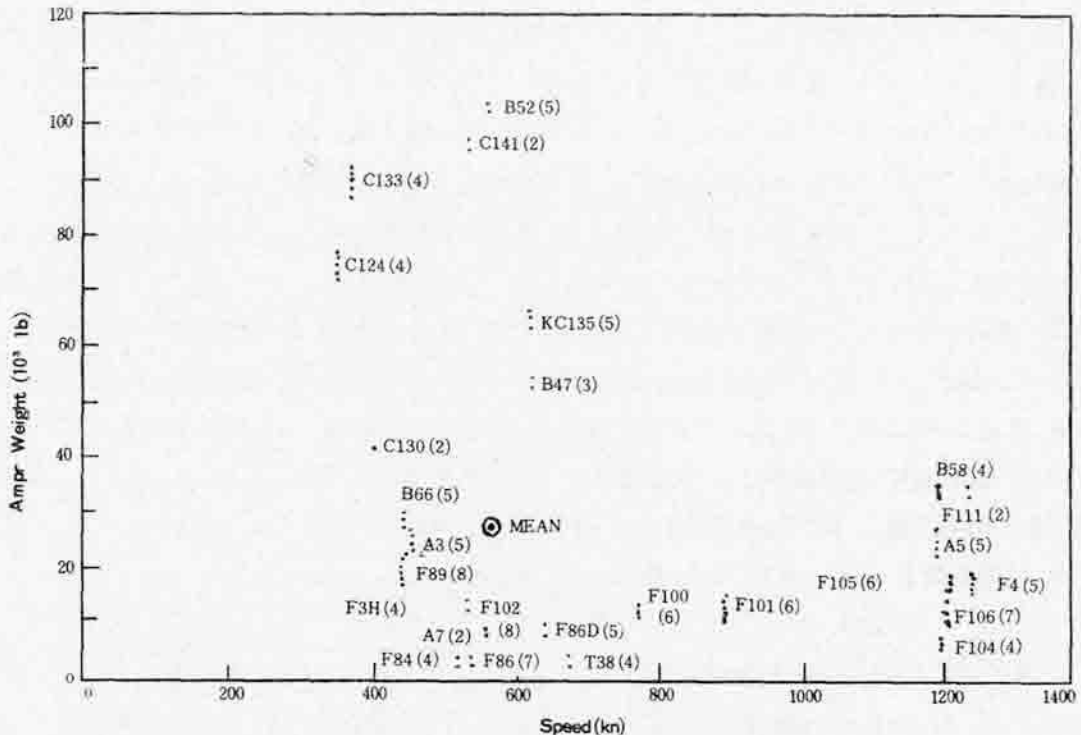


그림 2. Data Base for Aircraft Designs.

군사지식

1. 回帰分析(Regression Analysis) CER' S자료를 토대로 한 變數들은 다음과 같이 定義된다.

- A : Ampr 무게 (Pounds)
- S : 速度 (Knots)
- Q : 生産量 (누적 단위)
- Y_1 : 試驗飛行費用 (千\$ 單位)
- Y_2 : 開發支援費用 (")
- Y_3 : 製造人力 " (千時間 單位)
- Y_4 : 製造原料 " (千\$ 單位)
- Y_5 : 工學人力 (千時間 單位)
- Y_6 : 單純勞動 (千時間 單位)
- Y_7 : 總計劃費用 (千\$ 單位)

數量變數(Quantity Variable)는 각각의 航空機 觀測에 대해 2개의 값을 가지며 檢査, 開發 등 生産단계의 飛行檢査 航空機의 數와 一致한다. 그리고 나머지 기간(총 프로그램을 포함한) 단계에는 累積台數를 表示하며 여기에는 檢査를 위한 航空機도 포함된다.

時間은 또 하나의 중요한 媒介變數가 될 수 있는데 이는 費用所要에 관한 技術的 變化의 영향 때문이다. 또한 航空機 엔진費用을 分析할 때 Nelson과 Timson은 單位費用을 상승시키는데 있어 —상승원인은 보다 비싼 원료, 예를 들어 티타늄 그리고 칠센 複合的인 接着, 鑄造技法을 사용함에 따른 변화이며 單位費用 증가에 따른 時間變數의 有意性을 發見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航空機 生産研究時 時間變數는 統計的 有意度를 지닌 어떤 모델도 導出하지 못했다. 이러한 事實은 최근의 Boren과 Large의 航空機費用 모델, 그리고 Alchian의 航空機製造의 人力費用에 관한 초기연구에서도 나타나고 있으며, 學者들은 “時間變數는 航空機速度, 生産率 등과 같은 여타 決定因子와 밀접하게 關係하고 있으며 時間變數를 포함시키는 것은 原모델의 適合性(Goodness-of-Fit)을 그다지 향상시키지 못한다”고 하였다.

CER (Cost Estimating Relation)의 分析方法은 線型計劃, 代數轉換, 指數式으로 나타낼 수 있으며 이 3가지 방법에 대한 數學的 표현은 다음과 같다.

$$\text{線型: } Y = a + bA + cS + dQ + \epsilon$$

$$\text{代數: } Y = e^a A^b S^c Q^d \epsilon$$

指数: $Y=e^a A^b S^c Q^d + \epsilon$

여기서 Y는 費用變數, e는 指數函數, ϵ 은 誤差를 나타내며 a, b, c, d는 係數이다. 代數, 指數式은 誤差項의 假定에 差이 有고 指數와 線型式은 平均이 0인 正規分布를 따른다. 즉 式으로 表現하면 $\epsilon \sim N(0, \sigma^2)$ 이다. 또한 代數모델은 다음 전환에 의해 線型化될 수 있다.

$\ln Y = a + b \ln A + c \ln S + d \ln Q + \ln \epsilon$

誤差項 $\ln \epsilon$ 은 中間値와 平均이 0인 정규밀도함수이며 이는 ϵ 인 中間値는 Unity 이고 平均은 약간 큰 값을 지닌 Log-Normal인 代數的 表現으로 推論할 수 있다. 즉

$\bar{\epsilon} = \exp(\sigma^2/2)$

여기서 σ^2 은 오차 $\ln \epsilon$ 와 관련된 실제 分散이다.

軍事目的의 航空機에 대한 費用관찰로부터 個別的인 分析型態를 지닌 回歸式을 導出하였는데 線型모델은 즉시 Reject되었다. 그 이유는 資料, 즉 決定係數 R^2 의 係數値가 적합치 못하기 때문이다. 즉 총프로그램비용의 R^2 값이 단지 0.5이고 또한 부가적인 方程式도 관찰된 費用관련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統計的 觀點에서 代數와 指數方程式은 훨씬 유용하다. 왜냐하면 이전의 모델은 費用대수를 기초로 하고 있으며 실제 자료에 대해 R^2 가 적절했기 때문에 두 모델방정식은 비교 가능하기 때문이다.

回歸方程式의 結果値가 아래에 例示되었으며 모든 계수치들은 기각치 $\alpha=0.01$ 수준에서 는 모두 有意하며, $\alpha=0.02$ 수준에서는 Y^2 를 제외하곤 有意하며 팔호안은 標本 크기를 나타낸다.

〈代數 回歸方程式〉

- $Y_1 = e^{-11.80} A^{0.88} S^{1.68} Q^{0.67}, \quad R^2=0.69, \quad [26],$
- $Y_2 = e^{-10.90} A^{0.53} S^{0.921.62} Q^{0.61}, \quad R^2=0.78, \quad [26],$
- $Y_3 = e^{-8.30} A^{0.89} S^{0.66} Q^{0.61}, \quad R^2=0.91, \quad [124],$
- $Y_4 = e^{-4.83} A^{0.74} S^{0.77} Q^{0.82}, \quad R^2=0.89, \quad [124],$
- $Y_5 = e^{-9.42} A^{0.73} S^{1.50} Q^{0.19}, \quad R^2=0.72, \quad [124],$
- $Y_6 = e^{-6.87} A^{0.82} S^{0.94} Q^{0.30}, \quad R^2=0.69, \quad [124],$
- $Y_7 = e^{-3.32} A^{0.79} S^{1.00} Q^{0.45}, \quad R^2=0.88, \quad [124].$

〈指数 回帰方程式〉

$$Y_1 = e^{-13.60} A^{1.16} S^{1.37} Q^{1.28}, \quad R^2 = 0.93, \quad [26],$$

$$Y_2 = e^{-11.71} A^{0.87} S^{1.89} Q^{0.35}, \quad R^2 = 0.84, \quad [26],$$

$$Y_3 = e^{-3.46} A^{0.74} S^{0.53} Q^{0.52}, \quad R^2 = 0.85, \quad [124],$$

$$Y_4 = e^{-3.72} A^{0.70} S^{0.66} Q^{0.80}, \quad R^2 = 0.93, \quad [124],$$

$$Y_5 = e^{-11.10} A^{0.82} S^{1.62} Q^{0.19}, \quad R^2 = 0.77, \quad [124],$$

$$Y_6 = e^{-5.62} A^{0.76} S^{0.90} Q^{0.23}, \quad R^2 = 0.66, \quad [124],$$

$$Y_7 = e^{-1.48} A^{0.70} S^{0.88} Q^{0.42}, \quad R^2 = 0.84, \quad [124],$$

相関係数(Correlation Coefficients)는 두 모델방정식을 비교 가능하며 代数方程式은 종 프로그램비용에 대해 약간 값이 큰 R^2 값을 갖게 되고, 무게와 수량변수의 指数値는 飛行 檢査를 제외하고는 Unity보다 적다. 그런데 飛行檢査는 航空機 規模 혹은 數가 증가됨에 따라 더욱 집중적으로 되며 開發支援, 飛行檢査 그리고 공학단계에 있어 速度指數는 모두 1을 초과한다.

또한 費用은 音速突破, 즉 Mach 1에서 천천히 상승하고 그 이후를 지나면 급격히 증가한다. Mach 2 이상에 도달할 때는 티타늄과 같은 새롭고 비용이 엄청난 材料에 의해 알루미늄이 대체되어야 하는데 알루미늄도 이 속도에서는 압력을 견딜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떤 材料도 이러한 論爭을 검증하는데 확보될 수 없었다.

指數모델에서의 回歸係數는 近似値가 될 수 있는데 非線型으로 自乘殘差(Squared Residuals)의 量을 最適化함으로써 可能하다. 假設檢証을 채택하기 위해 最尤推定函數(Maximum Likelihood Function)에 대한 漸近解와 같은 係數를 推定하였는데 Bard는 解와 係數의 共分散行列(Covariance Matrix)과 같은 것의 統計的 特性을 論議한 바 있다.

第3章 予測区間(Prediction Intervals)

R^2 와 같은 표준통계가 모델의 資料適合 정도를 지시해 주는 반면 모델의 미래 사실 予測力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설득력이 없다. 予測区間은 모델이 새로운 항공기 계획의 單一 費用額가 特定確率로 나타나는 한계를 특정지어주며 미래의 항공기가 원래의 자료에 의한

범위 내에 포함되는 한 예측구간은 유효할 것이다. 予測區間의 폭은 回歸變數의 平均値에 있는 가장 근사치로부터 平均値가 무의미한 Monotonically Wider 치까지 상정 가능하다.

第1節 構成費用

單一費用回歸方程式에 국한된 예측주기는 특수한 모델방식에 기초를 둔 Standard한 표현으로 계산가능하다. 代數方式에 대한 數學的 公式은 대부분의 數學冊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아래와 같다.

$$\bar{Y}_0 \pm t_{n-k-1}(\theta) S_t [1 + X'_0 (X'X)^{-1} X_0]^{1/2}$$

여기서

- \bar{Y}_0 는 미래설계벡터 X_n 에 근거한 CER로부터 산출된 예측비용치이며 $X = [A, S, \theta]$ 는 예측주기가 추정되는 수준의 어느 값도 취할 수 있다.
- X' 는 X 의 Transition Matrix인 반면 X 는 X' 에 반비례한다.
- $t_{n-k-1}(\theta)$ 는 $n-k-1$ 의 自由度(Degree of Freedom)와 θ 의 확률수준(n 은 관찰횟수 K 는 독립변수의 수)에서 Student t 값을 뜻한다.
- S_t 는 추정치의 表準誤差이다.

指數方式에 의한 유도방식은 보다 복잡하며 Confidence Measure는 3가지의 가능한 구성오차의 Source에 영향을 받으며,

첫째의 Source는 回歸係數를 계산할 때 발생하며 비선형적 最適化는 最小自乘解를 구하는데 필요하며(비록 最適値로 수렴한다는 보장은 없지만) 이렇게 구한 解는 實際解의 近似値이다.

두번째 誤差는 予測區間의 폭에 대한 近似値로부터 파생되며 區間幅을 추정하기 위한 指數方式은 Truncated Taylor Series로 환원해야 하며 이로써 제거된 부분의 誤差의 和과 일치한다.

마지막으로 구간의 한계는 回歸方程式에서 導出된 予測費用에 의존하는데 이는 潛在誤差의 세번째 Source이다. 왜냐하면 回歸係數의 數理的 近似値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區間の 限界에 대한 도출은 이와 같이 數學的으로 복잡하나 近似値는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widehat{Y}_0 \pm t_{n-k-1}(\theta) S_t (1 + Y_0^2 \psi^0)^{1/2},$$

군사지식

$$\psi_0 = (l_n X_0)' V l_n X_0$$

여기서 V 는 회귀係數의 분산-공분산(Variance-Covariance) Matrix이며 $l_n X_0$ 는 각각의 要素에 대한 代數를 포함하고 있는 벡터이다. 이러한 公式은 總費用予測의 不確實性을 보다 精確히 산출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第2節 總費用

航空機의 總費用予測에 있어 有意性測定은 몇 가지 모델형태와 혼합방법에 의해 가능하며 몇몇의 경우에 기존의 理論은 이러한 가치를 평가하기 위해 발전되어야 한다.

代數와 指數方式에 대해 한 가지 方法은 단지 총프로그램비용 회귀에 의존해야 한다는 것이며, 이것은 단순모델이므로 위의 표준공식은 予測區間을 계산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 모델이 과도하게 단순화되어 있고 따라서 航空機 獲得에 대한 設計費用의 Trade-off을 이해하는데 필수적인 것이 결여되어 있다는 비평을 받고 있다.

이를 위한 대안으로서는 構成費用의 합에 대해 신뢰할 수 있는 統計方式을 도출하는 것이다. 또한 이 값은 指數에는 適用되나 代數方式에는 不可한데 그 이유는 代數의 합, 즉 $l_n Y_1 + l_n Y_2 = l_n Y_1 Y_2$ 와 一致하기 때문이다.

합의 접근을 위해 회귀誤差는 상호 독립하고 상호관계가 있는 것으로 취급되며 誤差의 독립성을 가정할 때 統計的 推論은 Student t 分布에 의존하며, X_0 에 국한된 군사비용은 $\Sigma, Y_0, \pm t_{\mu}(\theta) (\Sigma, S^2, \Omega_0^2)^{1/2}$ 로 表現可能하고 여기서 \hat{Y}_0 는 構成費用의 予測值이다($j = 1, 2, \dots, 6$). 그리고 $\Omega_0^2 = 1 + \hat{Y}_0^2, (l_n X_0)' V, l_n X_0$ 이다.

Student t Factor는 아래식과 군사적으로 精確하다.

$$\mu = (n - k - 1) (\Sigma, S^2, \Omega_0^2)^2 / \Sigma, S, \Omega_0^2$$

이 分析은 構成回帰誤差사이에 독립성이 존재함을 알 수 있고 따라서 t Statistic 사용을 精確화 시킨다. 만약 誤差가 상관계수가 존재할 경우 t Statistics는 더 이상 意味하지 못하다. 후자의 경우 Normality는 總費用殘差分布의 近似值로서 가정할 수 있으며, i 모델과 j 모델사이의 표본의 共分散은 다음과 같다.

$$S_{ij} = \Sigma_m (Y_{im} - \hat{Y}_{im}) (Y_{jm} - \hat{Y}_{jm}) / (n - k - 1).$$

여기서 $Y_{im} - \hat{Y}_{im}$ 은 i 번째 모델을 통해 m 번의 관찰로부터 얻어진 殘差誤差이고, 總費用에 대한 予測區間の 제한성은 이와 같이 어떤 有意水準 θ 에서 近似值로 되며 이는

$$\sum_j Y_{0j} \pm n(\theta) (\sum_i \sum_j S_i^2 \Omega_{0i} \Omega_{0j})^{1/2}$$

로 나타낼 수 있다. 여기서 $n(\theta)$ 는 표준정규분포(Standard Normal Distribution)의 100 $(1+\theta)/2\%$ 점이다.

직관적으로 판단해 볼 때 構成 CER'S는 Independent 하기보다는 오히려 Correlated하다고 볼 수 있으며 航空機를 開發, 生産하는 과정에서 애로사항과 해결책은 프로젝트의 다양한 국면에 걸쳐 동시에 개선될 수도 악화될 수도 있을 것이다.

여기서 工学과 勞動時間間에 陽의 相關係數(Positive Correlations)가 존재함을 예측할 수 있으며 또한 陰의 相關係數(Negative Correlations)가 존재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관련성은 특히 새로운 航空機 費用予測時 중요하며 상관관계가 강하게 나타나면 다양한 CER'S로부터의 予測誤差는 독립적인 것으로 간주될 수 없으며 費用評價와 관련된 有意性은 獨立性과는 차이가 있다.

표 1. 지수 회귀잔차의 상관관계

	Y_1	Y_2	Y_3	Y_4	Y_5	Y_6
Y_1	1.00	0.12	0.06	0.08	0.31	0.34
Y_2	0.12	1.00	0.01	-0.03	0.26	0.06
Y_3	0.06	0.01	1.00	0.18	0.19	0.59
Y_4	0.08	-0.03	0.18	1.00	0.45	0.41
Y_5	0.31	0.26	0.19	0.45	1.00	0.47
Y_6	0.34	0.06	0.59	0.41	0.47	1.00

〈表 1〉은 指數方式에 의한 비용구성항목 간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으며 工学노동(Y_1)과 단순노동(Y_6) 비용, 제조노동(Y_3)과 단순노동(Y_6) 간에는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개발단계와 생산단계와는 독립적인 관계가 존재하며 일반적으로 거의 모든 相關係數가 正의 값을 가진다함은 어떤 특정 항공기관찰에 있어 구성요소에 대한 予測이 實際費用보다 일률적으로 높거나 낮거나 하기 쉽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종속성에 대한 유의도는 검증가능하며 標本의 相關係數 r 에 대한 Wishart 確率函數는 平均이 0인 信賴區間을 導出하는데 사용가능하다. 26台的 航空機에 대한 90% 信賴區間은 $-0.33 \sim 0.33$ (개발비용 포함시)이며, 124회 관찰시 信賴區間은 $-0.15 \sim 0.15$ (생

군사지식

산비용 포함시)이다. 표 1로부터 대부분의 標本의 相関係수가 위의 信賴區間內밖에 있음을 명백히 알 수 있고 결과적으로 獨立性에 대한 檢證은 부정된다. 이러한 結論은 相互從屬性을 확인하지 않고 構成費用을 淸算하고 있는 費用分析家들에게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第 4 章 計算結果

總費用 및 構成費用에 대한 予測區間은 앞에서와 같은 理論的 分析으로 계산할 수 있으며, 總事業費用 回歸方式에 대해서는 그림 3 과 그림 4 에 의해 68%와 95%의 有意度를 지닌 Band가 묘사되고 있는데 이는 각각 正規分布의 1σ (表準偏差)와 2σ 에 해당된다.

곡선은 모델형태의 핵심적인 몇 가지 특징에 맞추어 代數 Scale로 그려졌으며 두 모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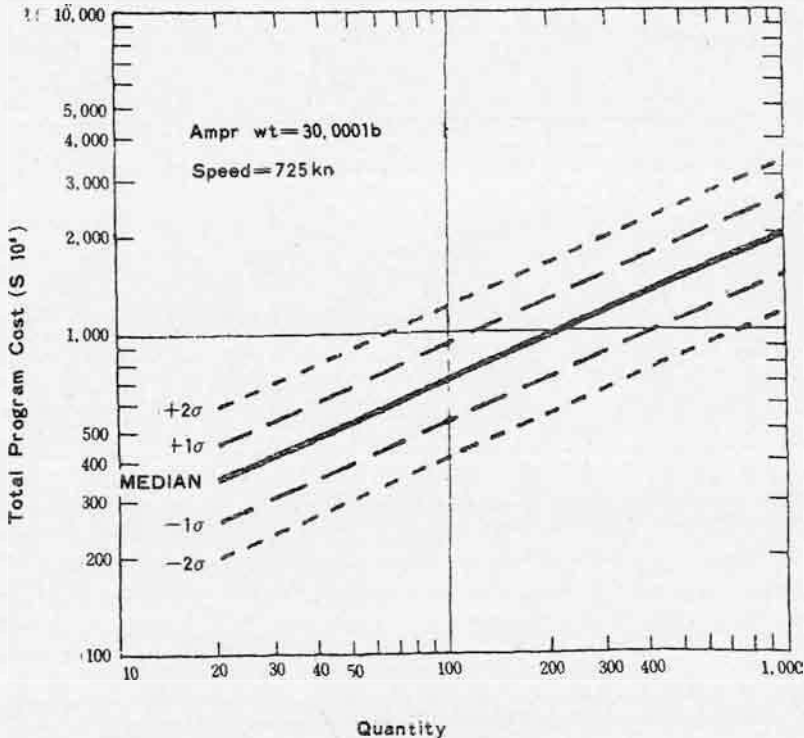


그림 3. 대수모델에 대한 신뢰구간

은 誤差項을 취급하지 않을 경우 同一한 函數型態가 되기 때문에 직선상에서 中間值費用을 予測해 주고 있다. 또한 信賴區間은 代數모형에서는 대칭이고 指數모형에 대해서는 Low Quantity 때는 비대칭이거나 발산된다. 아울러 代數 Scale을 사용함으로써 指數모형의 予測區間이 一定한 Quantities에서는 負(-)의 값을 포함하게 되는데 이와 같은 차이점은 誤差分析의 차이로 인해 발생된다.

誤差分布에 대한 앞서의 언급에서 中間值를 표시하는 선이 指數모형에 관계된 平均值와 一致하게 되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나 代數型에 나타나는 平均值線은 여러 가지 要因에 의해 中間值 위에 놓이게 되며 이러한 要因의 값은 Goldberger의 特定회귀方式에 의해 推定가능하다. 그러나 대개의 값이 Unity의 1 내지 2% 범위 내에 위치하고, 또한 그 값을 계산하는 작업이 지루하기 때문에 연구목적상 고려하지 않고 있다.

中間值予測線을 비교해 볼 때 不確實性을 나타내는 영역은 매우 넓으며 代數모형을 사용할 때는 95%의 영역이 予測費用의 -43%에서부터 75%까지 범위가 다양하였고, 指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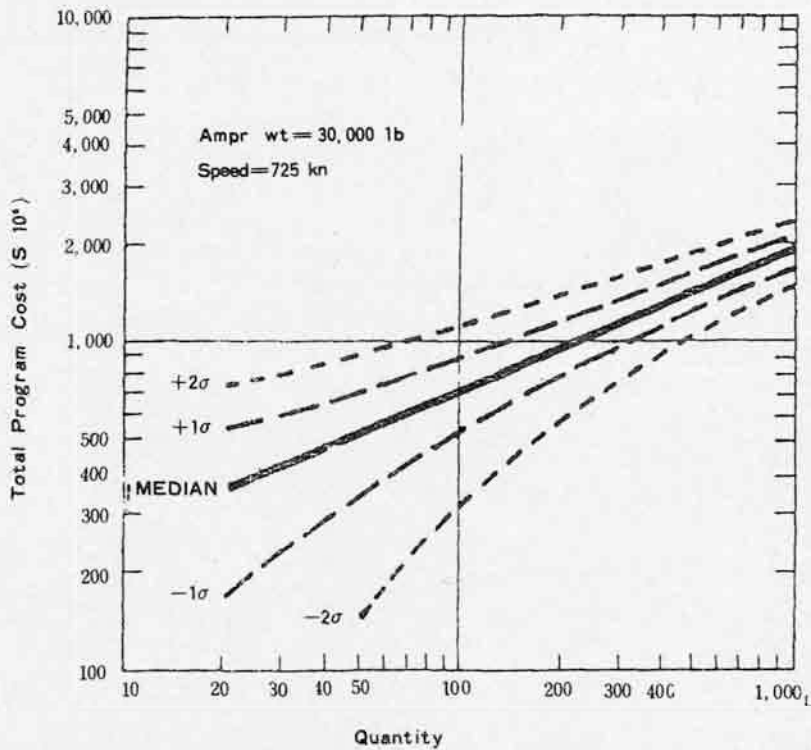


그림 4. 지수모형에 대한 신뢰구간

군사지식

모델을 사용할 때의 범위는 대략 標本 航空機費用에 근접한 ± 400 万불 정도이거나 100台的 航空機 生産水準에서는 予測値의 $\pm 55\%$ 정도가 된다.

다음으로 予測統計値는 構成別 CER을 종합함으로써 도출가능하며 信賴區間의 幅은 個別的인 回歸方程式間의 相關度를 반영하고 있다. 또한 指數모델의 경우 予測區間을 計算해 보면 獨立性을 갖는 것에 비해 39% 더 범위가 넓다. 이러한 결과는 Ampr 무게, 속도, 양의 결합방식에 대해서도 타당하며 이러한 상호의존성을 무시하는 것은 費用予測範圍를 과소평가하는 중대한 오류를 범하는 것이 된다.

표준적인 CER이 広範圍한 영역에 걸쳐 正確性을 가진다는 觀察은 相似한 航空機의 구성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超音速 航空機, 戰鬪機, 輸送機, 爆擊機, 亜音速戰鬪機 등과 같은 조합으로부터 導出된 모델은 正確度의 범위로 접근가능하나 관련된 비용을 책정하는데 사용하기엔 제한적이다. Boren과 Large는 航空機費用予測區間(爆擊機 對 戰鬪機와 같은 2개의 주요조합에 해당된)은 거의 標本の 予測區間만큼 범위가 넓다는 사실을 발견했으며 이와 같은 몇 가지 경우에 航空機형태에 따른 發散度를 감소시키는 것은 予測의 不確實性을 크게 제거시키지는 못할 것이다.

第5章 모델선정

予測區間의 幅이 費用評價에 있어 不確實性을 설명해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만으로 모델을 선택하기 위한 基準을 제공해 주지는 못한다. 차라리 모델선정은 ① 개별적인 모델의 適合性에 관련된 統計値에 의존하거나 ② 現實과 비교된 函數型態의 타당성에 의존하거나 ③ 現實과 비교할 때 誤差項의 처리의 正確度에 의존해야 한다.

歴史的으로 볼 때 代數關係는 1960년 초반기의 費用研究에 사용되었다. 특히 指數回歸方程式을 위한 最適代數函數로서 본 모델은 보다 상세적으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모델형태를 選定하는 문제는 여간해서는 量的인 근거를 토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하나의 예로서 영국의 연구가 있었는데 이는 部品에 대한 費用推算을 위해 代數關係를 취급하였음을 주시해야 하며 위 結果에 따르면 最適의 統計値와 두 가지의 모델 형태에 의해 예측된 中間值費用들은 그다지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며 不確實範圍는 두 가지 경우 모두 폭이 매우 크다. 함수형태 또한 同一하며 항공기 비용의 경우 한 형태를 選定하는 것은 殘

差分析과 관련이 있다. 또한 代数모델에 있어 誤差分布는 非对称이며, 0에서 無限大의 범위를 가지고 대략 일정한 상수비율가를 취하게 된다. 반면 指數的 回帰方程式의 誤差分布는 对称이며, $-\infty$ 에서 ∞ 의 범위를 가지고 대략 상수절대가를 취하게 된다.

이와 같은 航空機 特性和 觀察間의 一致性은 Priori와 Posteriori로 분석될 수 있다. Priori 즉, 代数的 誤差項目은 期待費用의 分散을 보다 명확하게 나타내 주고 있으며 ① 大規模費用分은 大規模 Underrun보다 더 발생가능성이 높으며 분포는 비대칭이다. ② 실제비용은 0보다 결코 작지 않으며 이와 같은 영역은 (-)가 될 수 없어야 한다. ③ 常数 比率誤差는 합당하다.

Posteriori 즉, 指數回帰方程式에 관한 殘差誤差는 그것이 어느 하나의 分布나 또는 그 이외의 分布에 일치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總事業費用의 殘差는 그림 5와 7에 점으로 표시되어 있으며 殘差値는 0과 1 사이에 있다. 代数尺度를 사용한 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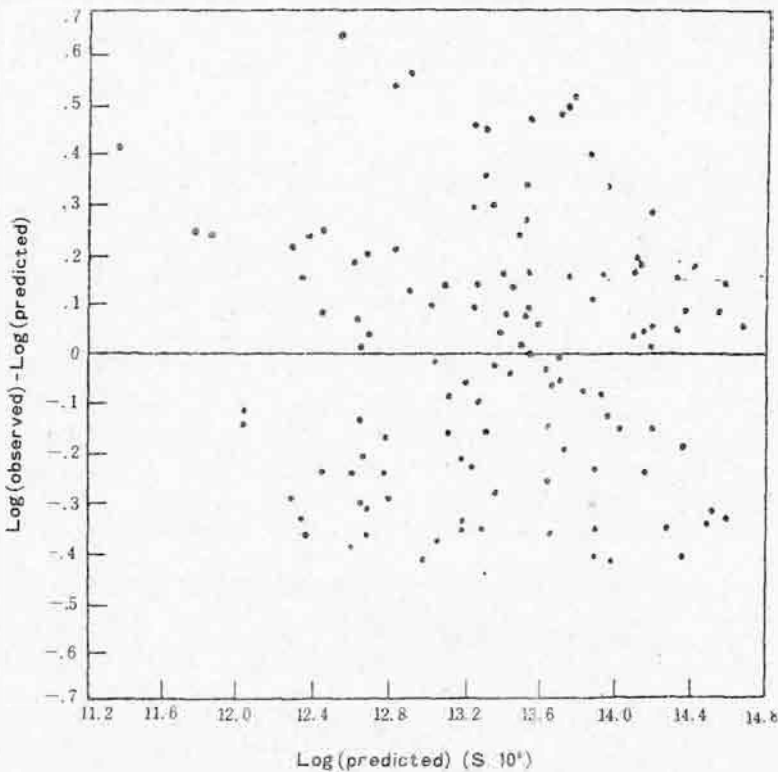


그림 5. 총비용에 대한 대수모델의 로그잔차

군사지식

래프상에서의 殘差는 로그선형관계에서 기대했던 바와 같이 대략 正規分布하고 있으며 그림 6은 이러한 代數를 직선가로 전환시키고 있으며 비용에 관계없이 殘差 Multiplier 를 매우 균일하게 나타내는 分布는 常數比率誤差를 의미한다.

指數모델의 경우 도표 7에 나타난 殘差는 일반적으로 高費用에 대해서는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와 같은 불균형적인 형태는 誤差分散의 代數型態를 확실히 해준다.

그림 8은 構成的 回歸方程式으로부터 집합된 비용과 관련한 잔차를 표시해 주고 있다. 이것과 이전의 그림사이의 현저한 유사성은 構成的 모델의 승에 대한 代用으로서 總事業費用 回歸方程式의 사용을 선호하게 해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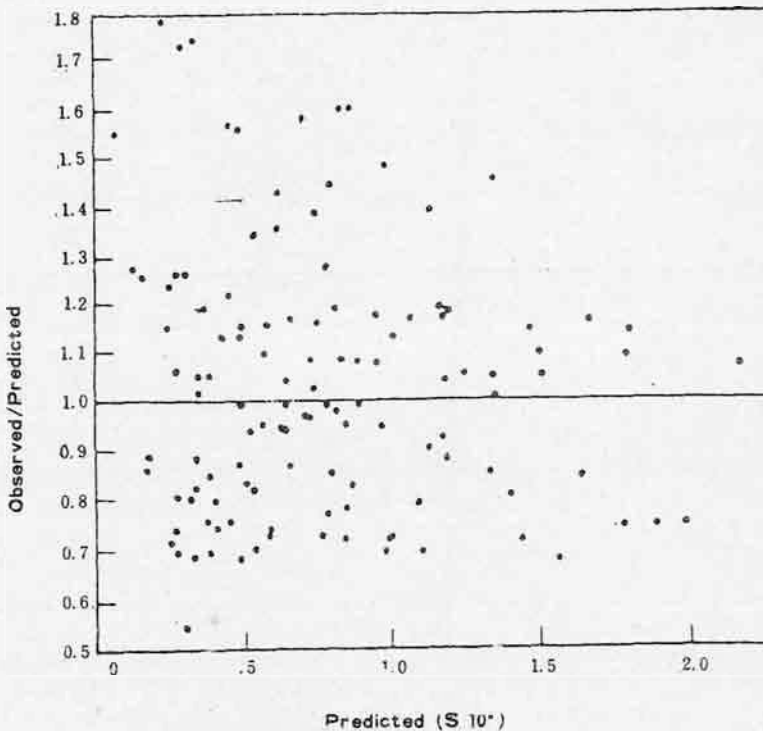


그림 6. 총비용에 대한 대수모델의 잔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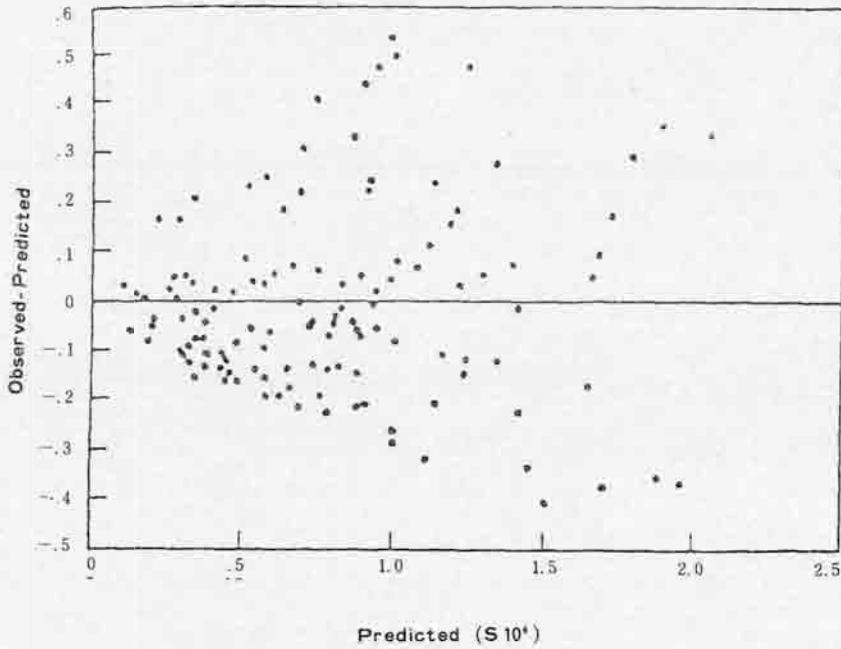


그림 7. 총비용에 대한 지수모델의 잔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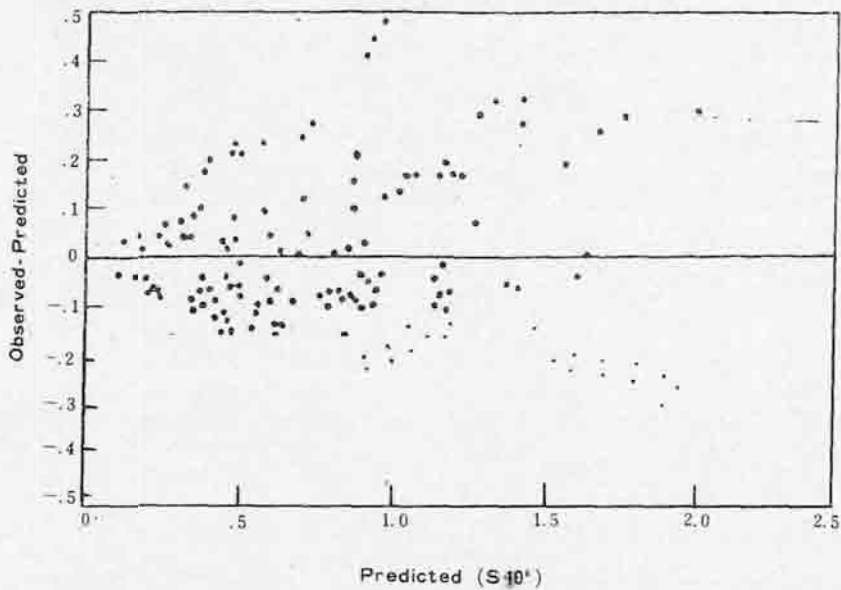


그림 8. 구성적 비용모델에 대한 잔차

第6章 結 論

본 연구는 많은 회귀모델과 관련된 예측에 있어 内在된 不確實性を 數量的으로 분석하기 위한 모델을 개발 적용시켰고 予測區間은 특히 軍用機의 開發 및 生産費用에 대해서 도출하였다.

代數的 그리고 指數的 모델에 의해 予測된 비용은 不確實性領域의 規模와 관련해 볼 때 確實하게 상이하지는 않으며 이러한 형태들 간의 선택문제는 誤差項目의 分布를 근거로 한다. 航空機費用의 경우 代數的 모델이 선호되며 指數的 관계를 보다 자주 사용하는 쪽으로 기울어지고 있는 최근의 비정상적 경향과는 대조적이다. 이러한 선택은 회귀모델의 殘差에 대한 Posterior分析에 관련된 Prior지식의 결과라 하겠다.

航空機 總費用은 두 가지 方法으로 予測될 수 있으며 航空機費用의 6개 構成部分에 대한 개별 회귀方程式의 습이 그 하나이고 총사업비용 관찰로부터 방정식을 도출하는 것이 나머지 하나이다. 전자의 경우 總費用 不確實領域은 構成的 予測에 있어 不確實性들을 임의로 조합시키는 것 때문에 범위가 작을 것으로 기대될 수 있다. 그렇지만 구성적 회귀 오차는 밀접하게 상관되 있고, 따라서 區間幅을 증가시키게 된다. 有意評価를 단순화시킬 목적으로 오차의 독립성을 가정하는 것은 이와 같이 잘못된 일이다.

不確實性區間은 어떠한 모델이 채택되더라도 범위가 매우 넓다. 航空機設計에 대한 Data Base의 범위를 넘어서 指數모델의 不確實性범위는 급격히 증대되며 이러한 사실에 대한 유용한 의미는 武器獲得管理者들이 고정가격 용역에 대한 초창기의 협상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費用의 不確實性を 인지해야만 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여러 가지 항공기의 조합에 근거를 둔 비용모델들은 限定的 價格策定에 대해서는 사용될 수 없으나 比較財務分析과 敏感度分析에는 有用할지도 모른다.

보다 광범위한 政策決定에 있어 費用予測區間은 무기체계의 다양한 조합에 의해 비교가 가능하며 위험회피성향을 가진 管理者에 대한 선호함수가 주어지면 期待費用만이 자산선택 여부를 결정하지는 않으며 Hirsheifer가 언급했듯이 予測費用의 分散 또한 政策決定에 매우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고 실로 不確實性, 측정수단을 포함하게 되면 현재의 資金配分 優先順位를 급격하게 변경시킬 수 있다.

새로운 空對空 유도탄

— AMRAAM — 紹介

김 용 홍

(소령, 공군본부)

1. 유도탄의 發展趨勢

北区神話의 우뢰를 내리는 神인 “돌” 이 가지고 있는 마법의 몽둥이인 “물넝”은 던지면 相對方을 正確하게 一擊을 加하고 넘어뜨린 後에 “돌”의 손으로 날아서 되돌아 온다고 하며, 또 그리스 神話의 酒神인 “제우스”나 印度神話의 “인도라”神도 標的에 失敗함이 없이 몽둥이로 적을 쓰러뜨린다는 神話가 오래前부터 伝해 내려온다.

멀리까지 날아가서 目標物에 正確히 命中하는 武器의 이야기는 世界의 神話나 伝說에 자주 言及이 되듯이 이러한 神話 속에 나오는 이야기가 現在 現代武器體系에서 使用하고 있는 유도미사일은 되돌아 오지는 않지만 마법의 兵器로서 考案해 낸 것이다.

미사일은 原來 날으는 道具란 뜻이다. 空對空 미사일은 기관총 혹은 기관포나 Rocket彈을 代身하는 兵器로서 화려하게 등장하였다. 1940年代末 美空軍/海軍은 全天候 狀態下에서 全方向 攻擊可能한 미사일을 要求하였으며 이러한 要求에 依하여 簡單히 Jet Engine에서 나오는 強力한 熱(IR Source)을 自動追跡할 수 있는 Passive 미사일인 AIM-9을 開發하게 되었으며 또한 航空機에서 送信된 信号를 受信하여 目標物을 追跡하는 Semi-Active 形式의 AIM-7을 開發하게 되었다.

이러한 미사일의 性能에 對한 最初의 實戰評価는 1958年 自由中國 空軍의 F-86과 中共의 MiG15/17 사이의 空中戰에 依해 必要性이 立証이 되었다. 이 때 F-86은 AIM-9B形의 미사일을 裝착하여 29대의

MiG15/17을 격추하였으며 특히 注目할 만한 事實은 한 대의 F-86損失이 없었다는 것이다.

勿論 이 當時 中共의 空中戰術은 二次大戰時 使用해 왔던 上方에서 공격한 후에 下方으로 加速回避하는 Hit & Run 戰術을 구사하였으나 공격 후 回避機動時 後方に 처한 AIM-9의 射程距離內에 位置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戰果를 올리게 되었다. 空中戰에 처한 기종의 無用論과 미사일의 優秀性이 立證된 以後로 1950年代 後半에는 F-106이나 F-4와 같이 기종을 장착하지 않고 오직 AAM(Air to Air Missile) 일변도의 戰鬪機 時代가 만들어졌다.

이러한 AAM의 價值가 再證明된 것은 베트남 戰爭을 通한 結果이다. 왜냐하면 베트남 戰爭에서 AIM-4(Falcon)와 AIM-7(Sparrow), 그리고 AIM-9(Sidewinder)의 3種이 使用되었는데 특히 不平이 있었던 것은 AIM-7이다. 全 戰爭期間中에 發射된 Sparrow는 全部 589發中 이것으로 격추된 台數는 55機로써 격추율(Probability of Kill)은 겨우 9.3%라는 낮은 숫자였다.

또 다른 統計에 依하면 베트남 戰爭末期 1972년 5月부터 翌年 1月까지의 作戰期間中에는 총 216發을 發射했으며 이 중 23台를 격추했다. 격추율은 10.6%로 向上되었으나 가슴이 시원할 만한 成果는 아니었다. 덧붙여서 위의 期間中 AIM-9의 結果

는 총 100發로 10대를 격추, 10%의 成果를 維持하고 있으며 近來의 포클랜드戰에서 AIM-9L은 23發 發射中 19台를 격추하여 約 83%의 높은 격추율을 보여주고 있다.

AIM-9의 價格이 Sparrow의 1/3밖에 안되는 것을 생각해 보면 Sparrow의 不信이 큰 것도 無理가 아니다. 그러나 最初 Sparrow 開發時 狀況이 原來 Sparrow는 大型이며 機動力이 좋지 않은 目標, 即 폭격기를 相對로 만들어진 것으로 小型이며 機動力이 좋은 戰鬪機를 追跡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는 事實이다. 특히 베트남 戰爭 樣相은 空中戰時 敵, 我 識別의 곤란으로 반드시 目標를 肉眼으로 識別, 把握한 後에 공격해야만 했었기 때문에 交戰距離는 數 km 以內가 되므로 Sparrow의 長距離發射 利點도 쓸모가 없었던 것이다. 따라서 베트남 戰爭에서 보여진 Sparrow의 意外의 부진에는 이러한 것도 하나의 原因이 되었다.

2. Amraam의 開發背景

베트남 戰爭에서의 經驗으로 戰鬪機 사격 거리에 처한 혼란은 Radar 유도인 Beyond Visual Range AAM에 처한 不信感이 定着되었고 BVR-AAM의 不要論까지 主張하게 되었다. 따라서 YF-16이 Radar를 장착하지 않은 狀態로써 시험기가 製作되었고, F-16으로 實用化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Sparrow

를 장착하지 않도록 한 것도 이러한 主張의 배경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美國의 境遇를 볼 때 空中戰鬪에서 BVR-AAM 開發을 끝까지 포기할 수는 없는 狀態이다.

왜냐하면 바르샤바 同盟의 戰鬪機 세력이 NATO보다 數的 優位에 있기 때문이다. 万若 Dog-Fight 戰鬪가 되면 個個의 航空機나 操縦士의 優劣보다는 數的對決이 問題가 된다. 美國으로서는 Dog-Fight에 들어가기 前에 優秀한 장거리 Radar와 미사일로 可能한 적기의 數를 감소시켜 놓고 싶은 것이다. 多數의 敵機와 조우하는 경우를 생각하면 射程距離가 멀다해도 Sparrow 같이 Semi-Active Radar Homing(SARH) 방식의 AAM은 不利하다.

왜냐하면 이러한 유도方式에서는 미사일이 目標物에 到達할 때까지 항공기의 Radar에 의한 追跡을 계속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다. 現在 戰鬪機의 大部分은 相對方으로부터 Radar 追跡을 回避할 수 있도록 Radar 경보기(Radar Warning Receiver)가 장착되어 있으므로 Sparrow 미사일을 發射時 自身의 位置가 쉽게 노출이 되고 계속적으로 目標物을 追跡하기 위하여 Radar가 하나의 目標에 固定이 되므로 다른 目標物의 움직임을 알 수 없는 취약점을 갖고 있다.

따라서 發射한 後에 母機가 関与하지 않아도 좋은 Fire & Forget 形式의 미사일

이 이러한 境遇에는 理想的이다. 勿論 AIM-9(Sidewinder) 赤外線 Homing 方式으로도 Fire & Forget이 可能하나 全天候 發射可能性이라든가 長距離 射程能力이 缺如되어 있는 短点이 있다. 그래서 美國에서 考案된 것이 미사일自體의 Radar로 目標를 追跡하는 Active Radar Homing(ARH) 方式으로 이 方式을 實用化시킨 AAM은 結局 高價이며 大形인 AIM-54(Phoenix-ARH와 S-ARH를 並用) 밖에 없다.

美空軍과 海軍의 統合 System 계획실이 新形 中距離空對空 미사일 계획을 發射시킨 것은 1976년 11월이다. 이 미사일은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의 머리글자만 따와서 AMRAAM(Air Medium Range Air to Air Missile)이라 가칭되었다. AMRAAM은 AIM-7의 후계가 되는 中距離用 全天候 AAM으로 사정거리는 Sparrow와 同級이고 Sparrow탑재기에도 그대로 積載할 수 있으며 外部의 크기도 대략은 같으나 단지 重量만 AIM-7F의 70%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다. AMRAAM은 全方向 공격이 가능하며 Fire & Forget 미사일로 하방공격능력이나 ECCM(Electronic Counter & Counter Measure) 能力이 要求된다.

이 要求에 對해서 Hughes A/C, Raytheon, Gd 등의 회사가 應모하였으며 1979년 2월에 이 중에서 Hughes, Raytheon 2個社가 選定이 되어 試驗製作에 依한 競争試

군사지식

일 시	요 격 기	T G T	성 공 여 부
86. 12. 18	F/A-18 19,000' M 0.7	QF-86 최저고도, M 0.7	성 공 (Look Down & Shoot Down 정면공격)
87. 3. 31	F/A-18 15,000' M 0.8	QF-86 5,000' M 0.8 순항비행	성 공
4. 9	F-15 15,000' M 0.8	QF-100 10,000 M 0.85 Chaff 및 High-G 기동	실 패 (Software에 원인)
4. 27	F-16 2,000' M 0.9	QF-100 5,000' M 0.7 우수한 Jamming 기술적용	성 공
4. 29	F-15 15,000' M 0.95 2기 연속발사	2QF-100 10,000' M 0.88 2대의 Drone 사이 거리유지 (수 NM)	2대 격추 성공 (첫번째 TGT은 전파 방해실시 하에서 비행)
5. 1	F/A-18 15,000' M 0.9 2기 연속발사	2QF-4 10,000' M 0.85	성 공
6. 12	F-15 1,000' M 0.9	QF-100 500' M 0.95 요격기에 대해 90° 각도로 비행	실 패 Out of Control

〈최근 시험발사 결과〉

驗發射에 들어갔다. Hughes社의 AMRAAM 最初試射는 1980年 11월에 遂行이 되었고 1981년 8월부터는 유도형의 시험이 始作되었으며 当初 予定은 1986년경에 實用化하도록 되어 있으나 Sparrow보다 적은 空間에 많은 電子裝備를 배치시키는 어려움으로 因하여 開發은 予定보다 늦어지고 있다.

今年 6월 5일까지 AMRAAM의 시험발사는 총 36회를 실시하여 이 중 30회가 成功으로 看做되었으며 全 規模 開發終了는 1988년경이 될 것이며 아마도 就役은 1989年初가 될 것이다.

최근의 AMRAAM 시험발사 結果는 위의 부표에 있다.

現在 AMRAAM에는 AIM-120의 名称이 賦与되었으나 아직 애칭은 定하여 지지 沒하였다. AMRAAM은 量産이 始作되면 Raytheon社도 第2 供給源으로서 生産에 参加하게 되어 있으며 또 使用은 美空軍, 海軍, 海兵隊 뿐만 아니라 1980년에 美国, 英国, 서독, 프랑스 사이에 決定된 次期 AAM 開發에 関한 合意文書에 따라 NATO 国家들도 AMRAAM을 共同中距離射程 AAM 으로 採用하도록 되어 있다. AMRAAM은 現在 Sparrow를 탑재하고 있는 F-4, F-14, F-15, F-18外에 Europe의 Tornado F2와 Mirage 2000, 그리고 서독의 F-4F에도 탑재예정이며 또한 BVR 미사일을 現在 장착하고 있지 않은 F-16이나 Sea Harrier에도 積載하게 된다. 영국과 서독과의 合意에서 AMRAAM開發은 新型 單距離 空對空미사일(ASRAAM)의 開發과 한 Set로 되어 있으며 이 ASRAAM은 영국과 서독이 共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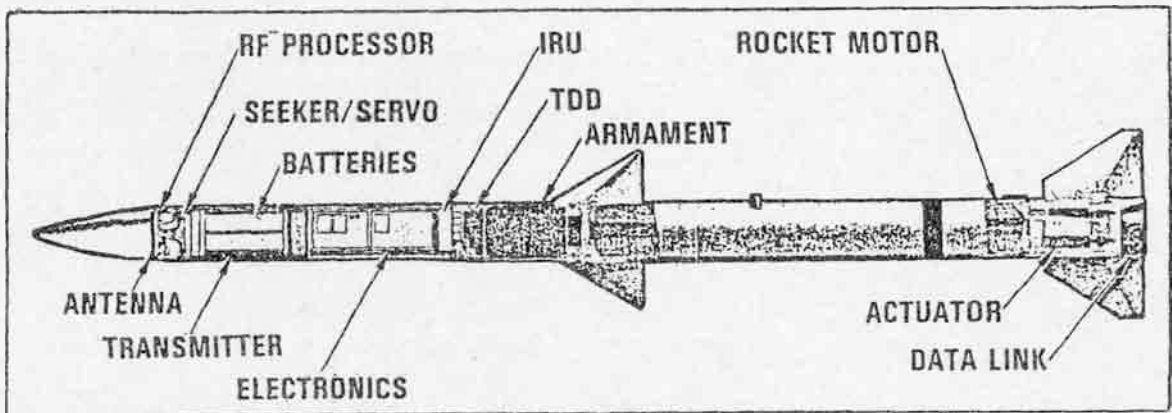
開發하여 美国에도 AIM-132로 採用하도록 되어 있는 바 ASRAAM의 特徵은 AIM-9 (Sidewinder) 보다 小型, 輕量化되어 있고 多数目標機와 全方向攻撃이 可能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1990年度에 生産할 予定이다.

3. AMRAAM의 特性

AMRAAM의 各 部分品에 對한 명칭은 아래와 같다.

AMRAAM의 直徑은 Sparrow보다 약 2.5 cm 작은 17.8cm이며 全長은 대략 같은 365 cm (AIM-7F : 366cm)이다. AMRAAM은 철과 알루미늄에 Electronic 장비와 작약, 고체 로켓트 추진체로 가득 채워져 있다.

Mach 4 以上の 飛行速度에서 공기역학적인 加熱 影響을 피하기 爲하여 從來의 알루미늄 合金을 鉄로 교체하여 탄체를 만든 것이 AMRAAM의 特徵中 하나이다.



AMRAAM의 형태

군사지식

미사일의 Head部分은 세라믹이며 주익과 Fin은 耐熱금속인 티타늄으로 되었으리라 判斷이 된다. 이러한 高速의 미사일 彈體가 充分한 양력을 發生하는데 주익은 不必要하나 AMRAAM에서는 Sparrow와 같은 위치에 작은 삼각형의 주익이 있다. 이것은 저속시의 機動性을 確保하기 위하여 있는 것이다. Sparrow에서는 주익의 부착각을 변경하여 飛行經路를 制御하고 있지만 AMRAAM은 주익이 고정되어 있고 후방의 Delta Fin을 움직여 비행경로를 조종하는데 이런 형식은 미사일의 기동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 주익전방의 彈體內에는 위의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Active Radar Seeker의 Antenna와 Battery, 레이더 송수신기, 유도전자부품, Inertia Reference Unit와 목표 탐지장치 그리고 탄두가 배치되어 있다. 주익으로부터 뒤로는 고체 Rocket Motor가 차지하고 Delta Fin 부근에는 보조조정 장치와 Data Link 수신 안테나가 있다. Rocket Motor는 일반적인 Dual Thrust 가속용 Booster와 순항용의 2 종류 추진제를 하나의 용기에 충전 시킨 것이며 추진제의 개량으로 무연화가 검토되고 있다.

추가해서 말하면 종래의 AAM이 백색으로 도장한 것과는 달리 AMRAAM에서는 회색이 표준으로 되어 있으며 이것은 비행 중 Missile의 시인성을 저하시킬 뿐 아니라 탐재기가 발견되지 않는 장점이 있다.

AMRAAM의 Fin이나 안테나의 Servo는 미국의 AAM으로서는 처음으로 전부 전기적인 구동방식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전기적인 구동방식은 Missile 자체의 신뢰성이 향상되며 또한 자체 고장탐지가 가능하다.

레이더의 송수신기는 진공관의 일종인 TWT(Traveling Wave Tube-진행파관)이 사용되고 있으며 그 외의 전자부품은 LSI(Large Scaled Integration)화 되어 있다. Phoenix 미사일의 성능을 상회하는 기술을 이렇게 Compact化 한 것은 回路의 集積化 덕분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實際는 一般시장품이나 반주문품의 LSI가 다른 곳에 사용되어 價格引下에 공헌되고 있다. 航法과 Auto Pilot, Data Link, Radar, 신관, 자동 자체진단 등 重要한 機能은 全部 하나의 Micro Processor가 Control하고 있다.

4. AMRAAM의 複合誘導 方式

AMRAAM은 위에서 上述한 바와 같이 많은 戰鬪機에 搭載되나 第一 혜택을 받은 것은 F-16이다. F-16C/D에서는 이미 AMRAAM의 탑재가 계획되어 있고, F-16部隊에 最于先 배치하도록 되어 있으며 約 100發의 試射를 예정하고 있는 全規模 AMRAAM 開發에서도 F-16發射가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F-16C/D의 APG-68 Radar는 Track While Scan의 技能에 依해 10기까지

同時目標 追跡이 可能하며 APG-68 Radar에서 얻은 目標物 Data로 目標物의 未來位置를 計算하고 AMRAAM Computer에 入力이 된다. 發射된 AMRAAM은 內장된 관성항법 System에 의해 目標의 未來位置를 向하여 發行한다. 目標의 一定한 距離에 가까와지면 AMRAAM은 Computer에 入力된 자료에 의해 自體의 Radar로 목표를 포착하고 Homing 追跡을 한다. 따라서 母機는 AMRAAM의 유도에 關係없이 다른 目標의 追跡을 계속할 수 있다. 그러나 目標의 方向이나 速度가 變하면 目標의 最終位置도 變하게 되는데 變更된 目標의 方向을 探知한 Radar는 수정된 최종위치를 Data Link를 通하여 AMRAAM에 보내게 된다. 다시 말하면 AMRAAM은 無線指令유도의 一種을 並用하고 있는데 母機와 미사일과의 通信 Link에 통신방해를 받을 가능성은 있으나 이것은 Data Link 受信 Antenna에 後方指向性을 갖도록 하고 暗号化로 대처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暗号化에 의해서 모기의 Radar는 同時에 여러 발의 AMRAAM을 통제한다. 또한 目標物이 심한 Jamming을 하는 경우에 AMRAAM은 Jamming Source에 對하여 Homing하는 Home on Jam도 可能하다. 관성항법에서 ARH (Active Radar Homing) 혹은 HOJ (Home on Jam)의 변환은 AMRAAM 自體의 Micro Processor가 判斷하므로 實제의 飛行

Pattern은 그야말로 無數하게 많게 된다.

現在까지 AMRAAM의 射程距離는 定確하게 公表되지 않았으나 實제에 의하면 約 55~75km가 되리라 予想이 되며 AMRAAM自體 Radar의 유효거리는 모르지만 Phoenix의 Active Radar Homing시 16km 程度임을 미루어 볼 때 AMRAAM도 크게 잡아서 그 정도 的 거리가 예견이 되나 Phoenix missile의 口径보다 작은 것을 감안할 때 그 以下가 될 것이다. AMRAAM 發射의 大部分은 관성항법으로 비행하게 되며 발사시 목표와의 거리가 missile에 장착된 Radar 유효거리내에 있으면 AMRAAM은 Active Radar Homing의 完全 Five Forget AAM 기능을 한다.

生産 Cost面에서 1986년 美空軍/海軍用 24,000余發에 62억불이라는 금액이 美國防省으로부터 發表가 되었으며 한 發에 約 25만불로 原來 예상액에 2倍, Sparrow의 당시 단가보다 約 3~4할이 증가되었으나 現在 時点에서 開發過程의 난이도를 고려할 때 最初 量産時에는 最小限 이보다 價格이 2~3倍 程度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 이러한 높은 價格 때문에 한 때는 美의 회에서 AMRAAM의 開發을 即刻 중단하고 Sparrow의 개발에 注力해야 된다는 의견도 提示되었으나 最近의 시험발사에서 AMRAAM이 전자방해 상태에서 비행하고 있는 2개의 目標物에 대한 同時 공격의 成

군사지식

功으로 의회로부터 승인을 받아 생산준비를 本格的으로 始作하는 단계에 들어와 있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AMRAAM이 量産단계에 돌입을 할 경우에는 생산량의 증가를 위해 Raytheon社도 生産会社로 참여를 하게 되어 연 3,000~4,000발의 생산능력을 갖추리라 展望이 되며 또한 NATO 國家에서는 Co-Production을 하기 위한 会社가 현재 설립이 되어 있는 상태이다.

아울튼 1989年 初에 美空軍/海軍은 새로운 空対空 미사일을 장착하고 飛行을 할 것

이라 예상이 되며 新空対空 미사일 AMR-AAM이 未來의 航空機에 어떠한 양상을 보일지는 아무도 예측을 할 수는 없으나 空対空 무기체계에 새로운 章을 연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따라서 당분간 AMR-AAM의 개발과 진행사항에 對하여 모든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한시라도 잊혀지지 않을 것이고 未來의 항공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리라 추측이 되는 AMRAAM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를 주의깊게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競争이 激熱한 航空衛星 Service

黃 正 和 訳

(4급, 공군본부)

- 차 례 -

- 通信, 航法, 監視를 衛星으로
- 充實한 VHF Data 通信網
- INMARSAT는 機内 電話부터
- Leade하는 INMARSAT
- 航空專用 商品의 AVSAT
- Service 開始는 遞延될 것인가?
- 美国 以外 参加会社는 적다.
- AVSAT에 加入을 바라는 SITA
- 航空界의 期待는 軍一組織
- 航空界를 위한 衛星通信 Service

FANS = Future Air Navigation Systems.
INMARSAT = International Maritime Satellite Organization.
ARINC社 = Aeronautical Radio Inc.
CNS = Communication Navigation Surveillance.
GPS = Global Positioning System.
NAVSTAR = Navigation Stars.
ESA = European Space Agency.

國際民間 航空機關(ICAO)의 將次 航空航 앞으로 25年間, 즉 2010년에 이르는 民間航
法에 관한 特別委員會(FANS)를 設置해서 空航法 System의 發展에 對하여 研究할 것

군사지식

을 決定, 本委員會가 人工衛星의 技術을 中心으로 檢討를 進行하고 있는 것은 이미 알려진 事實이다. 이 FANS特別委員會의 活動에 依해서 일을 始作하게 되겠으나, 衛星에 對한 技術이 數年來 急速히 發展하였기 때문에 航空衛星 Service에 對한 움직임이 急激히 活潑해졌다.

여기에서는 航空衛星 Service의 內容과 여기에 進出해 보고자 하는 INMARSAT(國際海運衛星機構)와 美國의 通信公社인 ARINC社가 中心이 되며, 結成하려고 하고 있는 AVSAT 間에 Service의 爭奪戰에 對해서 記述하고자 한다.

通信, 航法, 監視를 衛星으로

ADS=Automatic Dependent
Surveillance
IS =Independent Surveillance
VHF=Very High Frequency

FANS特別委員會는 CNS라고 부르나, C는 Communication(通信), N는 Navigation(航法), 그리고 S는 Surveillance(監視)로서 요컨대 航空交通管制라고 생각하여도 좋을 것이다.

通信은 音聲通信과 Data 通信이 包含되나 앞으로 通信의 主体는 機上의 Computer와

地上의 Computer를 直接連結하는 Data 通信이 되며, Data通信의 補完으로서 音聲通信을 使用할 것으로 생각된다.

機上의 航法 裝置에서 Data 通信에 依해 自動적으로 發信되는 自動從屬監視를 위하여, 位置通報, 運航管理者가 機長에 보내는 航空情報, 氣象情報, 또는 飛行計劃 등, 그리고 音聲通信에 依한 緊急通報도 包含된다. 또 航空會社의 業務通信으로서, Engine Data 등을 機上에서 直接 整備 Center의 Computer로 보내는 通信, 機內用品의 Stock Control의 Message, 旅客을 위한 乘便의 連絡도 있다. 機內電話는 勿論이며, 旅客 Service用의 Facsimile 등도 생각할 수 있다.

航法은 이미 一部에서 利用하고 있는 美國 國防省의 GPS의 NAVSTAR와 ESA(歐州 宇宙機構)가 提案하고 있는 NAVSAT 등의 航法用 衛星을 利用할 方向으로 推進, 慣性 航法에 依한 現在의 INS와 이것을 다시 改良한 IRS보다도 航法の 精密度 및 信賴性은 한층 더 改善될 것이라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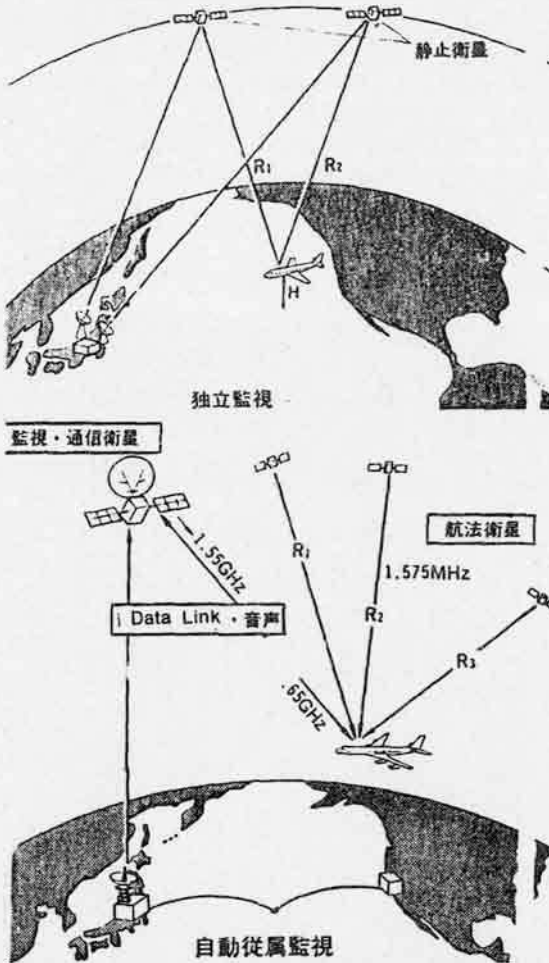
監視는 航法衛星을 利用해서 算出한 機上의 航法裝置에 依한 機體位置를, 自動從屬監視(ADS)를 토대로 Data通信을 地上의 管制機關에 發送하며, 管制機關은 海上 등 Radar 覆域外에서도 Radar에 隕적할 만한 監視可能性을 期待하고 있다. 勿論 이 때에 航空機의 位置가 不安한 境遇에는 管制機關이 自己스스로 衛星을 利用해서 機體位置의

測定을 하는 獨立監視(IS)도 利用할 수 있을지는 알 수 없다.

充實한 VHF Data 通信網

日本은 航空法의 衛星을 利用한 CNS 의 Service는 B. 747의 400型 導入과 거의 같은 時期인 1990年頃부터 급속히 展開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S, 즉 航空交通管制의 利用은 一部の 空



域을 除外하고 管制側의 施設投資가 좀 遲延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監視를 위해 Service 開始는 數年이 지연된다 할지라도, 運航管理通信, 業務通信, 機內電話 등 航法을 위한 利用은 급속히 進行될 것은 틀림없을 것이다.

한편 이미 VHF에 의한 Data 通信을 全面的으로 利用할 수 있는 美國 國內은 말할 것도 없고, Canada 南部를 爲始해서 Europe 全域, 中東, 東南아시아, Australia에 이르는 地域에서 VHF에 依한 Data 通信의 利用이 급격히 增加하고 있다.

특히 이미 VHF Data 通信을 利用하고 있는 美國系의 代表的인 큰 航空会社를 차지하고 Europe系의 航空会社는 VHF에 依한 Data 通信을 衛星通信을 前提로 생각하고 있다.

VHF Data 通信을 위해서 社內에 Computer System을 갖추어 놓으면 運航 뿐만 아니라 營業, 客室 Service 등에도 언제든지 衛星을 利用한 Data 通信을 展開할 수 있기 때문이다.

衛星을 利用하면 音聲通信도 Data 通信도 利用할 수 있으나, 將次 VHF의 覆域에서는 VHF에 依한 Data 通信이 利用될 것으로 생각된다.

군사지식

航空衛星의 利用形態

CNS	分	類	
C	ATC	ATC (Air Traffic Control)	航空交通管制通信
	ATS	(Air Traffic Service)	航空交通情報通信
	AOC	(Airline Operatioonal Communication)	運航管理通信
	AAC	(Airline Administrative Communication)	業務通信
	APC	(Aircraft Passenger Communication)	公衆通信
N	2次元 Data	(GPS / NAVSAT 等)	2次元航法 Data
	3次元 Data	(GPS / NAVSAT 等)	3次元 Data
S	ADS	(Automatic Dependent Surveillance)	自動從屬監視
	CIS	(Cooperative Independent Surveillance)	協調獨立監視

INMARSAT는 機内 電話부터

BTI=British Telecom International

AVSAT=Aviation Sateillte

現在로서 航空機에 衛星에 依한 Service를 提供할 수 있는 것은 INMARSAT 뿐이다. 게다가 INMARSAT는 Data 通信의 實驗을 1985년부터 1986년에 完了하였으며 今年中에 機内電話도 實驗을 予定하고 있다.

今年末頃 KDD가 INMARSAT를 利用하여 日本航空 旅客機와 또 英國의 BTI(日本의 KDD에 相當하는 INMARSAT의 指定企業)가 英國航空旅客機를 利用해서 機内電話 實驗을 始作한다. 現在 海上通信用 周波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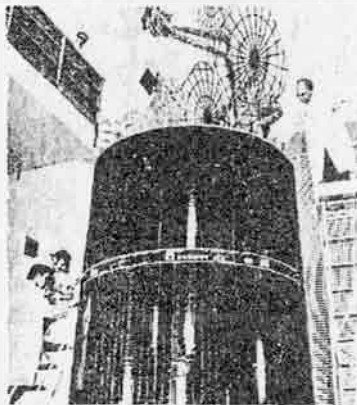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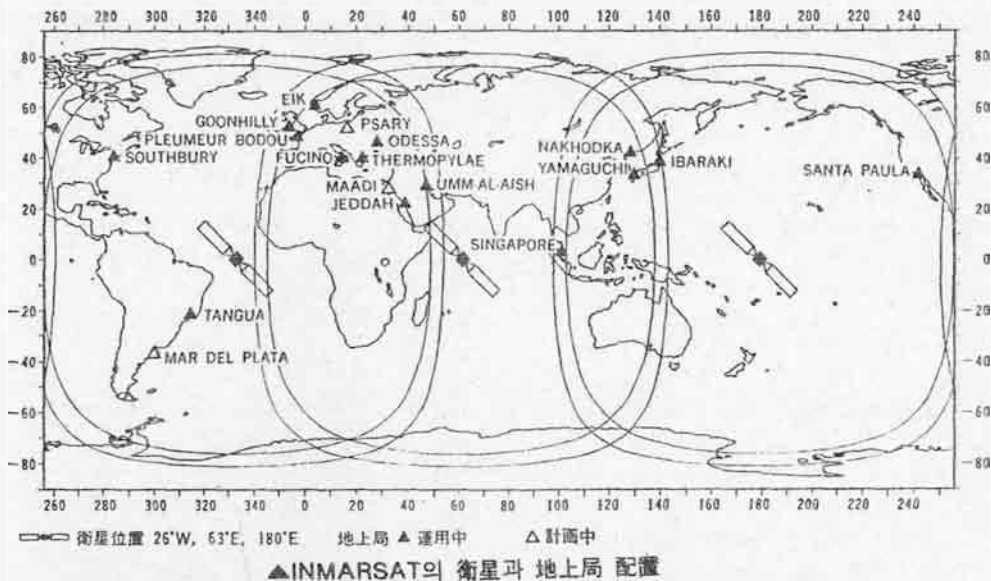
를 利用해서 實驗을 實施하나, INMARSAT는 1989年 以後에 發射해 올릴 第二世代의 衛星에는 航空通信用의 Transponder를 積載할 予定이며, 1991년까지는 全世界的으로 衛星에 依한 Service를 提供하리라고 본다. 特히 機内電話에 對해서는 英國航空機의 實驗에 이어서 1988년에는 大西洋上의 衛星을 利用하여 Singapore의 通信公社가 Service를 始作할 것으로 보인다. 太平洋地域에서는 現在의 計劃은 發表된바 없으나, KDD도 BTI 등의 案을 默認하고 있지는 않을 것이다.

INMARSAT를 利用하는 機内電話에 對해서는 成功할 것은 틀림없으나 全般的인 航空에 對한 Service를 생각하면 INMARSAT는 航空界에 있어서 반드시 有利한 것만은 아니다 하는 意見도 있다. INMARSAT는

本来 船舶을 対象으로한 衛星이기 때문에 基本的으로는 衛星自體의 出力을 可能한 制限하고 船舶의 Antenna는 부득이 大型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다. 그런데 航空機는 大型의 Parabora Antenna를 裝備하는 것은 어찌피 不可能하므로 機體의 Antenna를 可能한 小型으로써 輕量의 것이 要求되고 있다. 그래서 衛星의 Antenna는 어

는 程度 大型化할 것을 생각하고 있는듯하다.

本来 海上通信專門用인 INMARSAT가 航空에 經濟的인 Service를 提供하는 것이 不可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그리고 KDD의 國際電話의 例를 볼 것도 없이 各國에서 한 企業이 獨点的으로 運營하고 있기 때문에 極히 高價의 Service가 되지않을까 하고 의심하고 있는 것이다.



▲ 發射되기 前에 엄격히 点檢을 한다.

Leade하는 INMARSAT

그러나 INMARSAT의 長點은 모든 것을 利用할 수 있는 衛星이며, 美本土의 一部와 兩極圈을 除外하고, 거의 全世界를 覆域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地上의 電話網을 장악하고 있는데다가 各國의 郵政當局과 密接한 關係가 있으며, 將次 同一한 機關의

군사지식

運輸当局에 衛星을 利用하여 管制通信을 中繼할 경우에는 信賴性面에서 다른 순수한 民間組織보다도 有利하다고 보고 있다.

INMARSAT는 現在로서는 確實히 Leade 하고 있는 것은 틀림없으나 國際海上衛星이라는 이름에서 나타내고 있는 것과 같이 어디까지나 海上主体의 衛星으로서 航空은 2次的인 Service만이 받는 것이 아닌가? 하고, 혹 海上에 関한 通信量이 增加할 境遇에 航空에 関한 通信은 Service가 低下(減少)되지 않을까 하는 航空關係者가 念慮하고 있는 點은 全然 根拠없는 것은 아니다.

航空專用 商品의 AVSAT

INMARSAT에 對抗할 AVSAT는 美國의 通信会社로서 株主가 大部이 美國의 航空會社로 構成되어 있는 ARINC社가 提案한 航空專用의 衛星 System을, 航空會社가 運營하는 會社名이다. 美國의 한 私企業으로서 登錄된 非營利의 株式會社로서 株主는 이 System計劃에 參加하는 航空會社이기도 하다. 그리고 이 衛星 System도 AVAAT라고 부른다.

우선 運營管理通信, 航空會社의 業務通信,

INMARSAT VS AVSAT의 比較

	INMARSAT	AVSAT
宇宙部分	INMASAT 衛星 R	衛星通信會社로부터 “리-스衛星
地上部分	各國通信事業體(KDD, BTI 등)(全世界)	AVSAT社(美國의 “아나포리스”“하와이...)
事業體性格	國際機關	美國의 私企業(株主는 航空會社)
衛星系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lobal beam • 現用 3個, 予備 4個配置濟 • FDMA (=時分割多元接統方式) (回線數不足?)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pot beam과 Global beam 併用 • 이제부터 發射해 올림 • TDMA (=周波數分割多元接統方式) (制御技術開發中?)
Service 開始時期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88年 公衆電話試驗開始 • 1990年 全面 Service 	• 1989~90년에 Service開始(?)
Service範圍	世界全 域	太平洋에서 시작하여 世界로 廣大
通話料 金	\$2.75 / 分 + 國際通話料 金 (宇宙部分) (地上部分)	\$2.20 / 分 + 國際通話料 金 + \$87.5 / 機·日·地域 (宇宙部分) (地上部分) (基本料 金)
主 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國際的인 組織이며 航空管制通信의 中立性을 가지고 있다. • 公衆通信을 主力으로 하나, 業務通信, 管制通信은 ARINC, SITA에 양보해도 좋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航空專用衛星으로서 長期安定된 航空管制通信과 業務通信을 未 수행 • 公衆通信 Service도 取扱

旅客의 機上電話 및 Facs(Facsimile) Service 등에 Data와 音声通信으로 提供하며, 需要가 있을 때 前述한 監視에 関한 通信을 수행, 航空에 関한 모든 衛星 通信 Service를 提供하려고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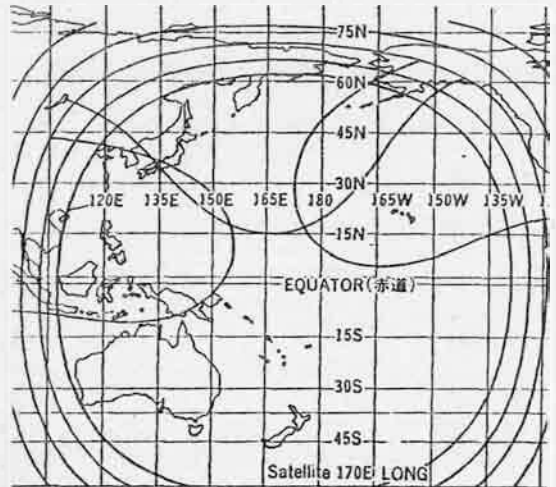
AVSAT의 特徵은 航空專用의 通信을 取 級하려고 하는 点에서, INMARSAT와 같 이 또 다른 Service를 위해 設備 및 投資할 必要가 없기 때문에 廉價로 Service를 提供 할 수 있다고 主張하고 있다. 다만 機内電話 Service를 할 境遇에는 各國의 電信電話 会社의 抵抗도 있어서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Service開始는 遲延될 것인가?

1989年 1/4분기부터 太平洋에서 Service를 始作하여, 1990년에는 全世界에 Service를 한다고 發表하고 있다. 그러나 衛星發射의 Schedule이 遲延되고 있기 때문에 AVSAT는 当初 Transponder(中繼器)를 다른 衛星에 合乘시킨다 하더라도 그 合乘用의 衛星이 1990年보다도 以前에 發射해 올리는 것은 無理하다고 내다보고 있다. 또 計劃과 같이 全世界에 Service를 擴大하는 것은 各地域에 利用可能한 衛星이 없으면 아니되며, 또한 있다하여도 그러한 衛星의 存在도 疑問視하고 있다.

그리고 AVSAT는 美国内에서도 연방通信

委員會(FCC)와 對立關係에 있으며 航空通信의 認可에서도 障害가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다가, 全世界가 衛星을 利用한 航空通信을 担当하는데는 各國의 郵政當局과도 法規上, 또 各國의 通信会社와의 運營上 問題點 등이 山積하고 있으나, 이것을 잘 헤쳐 넘어 갈 수 있을지 없을지는 不明確하다.



AVSAT의 太平洋 地域에서 G dbal beam 과 Spot beam의 覆域

美国以外 参加国(会社)은 적다.

AVSAT는 各 航空会社에 参加를 慫慂하고 있으나 American航空, United航空 등 航空機 台數가 많은 美国航空会社가 参加를 申請하고 있다고 하나, 美国以外の 航空会社의 反應은 冷淡하다.

Europe의 航空会社로서 “스칸디나비아”航空, Finland航空 등 4 個社가 参加申請을 하

군사지식

였다고 報道하고 있다. 그 외의 地域에서는 中東의 “요르단” 航空, 亞細亞에서는 大韓航空, “Singapore 航空, 全日空 航空이 參加를 表明하고 있으며, 日本 航空은 態度를 明確히 表明하지 않고 있다.

Europe의 航空會社가 參加하고 있는 理由는 今年 9月부터 10月까지 開催되는 世界 無線通信 主管庁會議에서 이제까지 航空 通信 衛星으로 割當되어 있는 周波數가 다른 移動體業務에 割愛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周波數의 必要性을 主張하기 爲해서이다 라고 報道하고 있다.

AVSAT에 參加를 바라는 SITA

SITA=Societe Internationale de
Telecommunications Aeronatiques

IATA=International Air Transport
Association

ICAO=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SITA(國際航空通信協同組合)는 全世界 航空會社가 參加하고 있는 航空會社를 爲한 通信會社로서, 前述한 Aring社는 航空通信 網을 가진 美 國內을 除外하고, 全世界의 通信網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SITA는 各國에 通信網을 展開하는데 있어서 各國 郵

政當局의 支援을 얻어놓고 있을 뿐만 아니라 各國의 郵政當局 通信會社와도 密接한 連繫를 가지고 있다.

SITA는 獨自의인 衛星通信 Service의 計劃은 없으며, INMARSAT 衛星을 利用 Data 通信의 實驗을 하기 위하여 各 航空會社에 實驗에 參加를 바라고 있다. 同時에 Aring社에 對해서 美 國內에만 通信網을 築가진 Aring社나, 全世界의인 衛星通信網을 展開하는 AVSAT計劃이나, 어느편이라도 現實的으로 不可能하기 때문에, 全世界에 通信網을 가졌고 또 全世界의 郵政當局에 信賴가 있는 SITA를 AVSAT 計劃에 50:50으로 計劃에 參加시켜야 한다고 主張하고 있다.

民間航空會社의 團體인 國際航空運送協會(IATA)는 航空界는 海上을 主体로 한 INMARSAT에 依存할 것 없이 獨自의 航空衛星 System을 가져야 한다는 立場에서 SITA와 ARING의 協力下에 AVSAT 計劃을 擔當하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ARING社는 個性이 강한 “만사” 會長의 意向이 있고 어디까지나 單獨으로서 計劃推進을 固守하고 있어서 현재로서는 SITA의 提案과 國際航空運送協會 등의 意向을 받아들여야 하지 않고 있다.

航空界의 期待는 單一組織

航空界에서는 INMARSAT와 ARING社間의

航空衛星 Service 爭奪戰을 좋아하지 않고 있다. 國際民間 航空機關(ICAO)도, 國際航空運送協會도 航空衛星 Service 提供者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要件을 檢討해서 決定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다.

- ① Service의 提供者는 單一組織으로서, 또한 非營利的인 團體라야 할 것.
- ② 費用面에서 有益하고 充分한 檢 討와 檢 証을 할 것.
- ③ 航空用衛星通信에 對한 各國의 運輸 및 郵政의 立場을 充分히 留意할 것.
- ④ 우선 基本的으로 技術仕樣式을 確固하게 決定할 것.

衛星과 衛星發射에 所要되는 費用 만으로도 750億원(地上運營費 除外)에 達하며, 航空界가 보다 더 우려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無益한 競爭을 하여 그 費用을 航空界가 分擔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데 있다. 또 仕樣式이 相異한 衛星通信 System이 混合되어 있다면 航空機가 充分히 通信 Service를 利用할 수 없을 때에 航空會社의 負擔도 자연

히 增加하게 된다.

航空界를 為한 衛星通信 Service

우리들이 원하고 있는 것은 앞으로 몇십 년 후에 運用될 것으로 생각되는 衛星通信 Service가, 短期的인 視野에서 利權獲得 때문에 利用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航空用의 衛星은 基本的으로는 運航管理通信, 航空交通管制通信에 利用되어 航空機 運航의 安全性을 飛躍的으로 向上시키기 為하여 利用하게 되는 것이다. 機內서 旅客 Service 에도 크게 利用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나, 機內 電話에 依한 收益 등에 過大한 期待를 하는 것은 極히 危險하다는 것을 알지 않으면 아니된다.

將次 航空機의 運航에 밝은 展望을 가져다 주는 衛星通信 Service이기는 하나 너무도 過激한 Service의 爭奪戰에는 危險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분란의 위협과 대응책

김 석 우

(소령·공군본부)

역자가 “분란의 위협과 대응책”이란 본문을 번역 게재하게 된 동기는 국가 정치목적 달성의 최후 수단인 되고 있는 군사력의 관리자인 군인으로서 핵시대 이후 “다른 수단에 의한 정치의 계속”인 전쟁이란 폭력수단의 사용변화 추세에 대한 인식이 필수적이란 판단에서이다.

즉 국제사회에서 국가정치목적 달성의 합리적 도구로서 주권국가들에 의한 저강도수준의 분쟁형태인 게릴라전, 분란전, 테러리즘, 인민전쟁 등의 대리전적 사용은 무력사용의 질적변화를 가져오고 있으며, 비록 미국이란 강대국의 시각이지만 이러한 수단으로서 무력사용 양태에 대한 원인과 이에 대한 대응책을 비교적 간결하게 제시 설명하고 있는 것이 본 논문이란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논문의 출처는 미국군사관련 전문지인 Military Review (January 1986)이며, 이 잡지에 게재된 저강도수준 폭력에 대한 특집 중 미공군대위인 Steven E. Daskal 이 쓴 것을 번역한 것이다.

제 2차세계대전이 끝난 후로 많은 사람들이 비록 핵전쟁의 위협에 대해 걱정하고 있지만, 세계전쟁의 주류는 저강도 수준의 분란전이었다. 몇몇 대분란작전(Counter Insurgency Operation)이 성공하여 온 반면에, 다른 것들은 그렇지 못했다. 그러면 분란전이나 저강도수준 분쟁에 위협을 당하고 있는 국가들에 대한 원조를 결정하는데 있어 어떠한 요소들을 고려해야만 하는가?

세계 각처에서 지난 30년동안 분란(Insurgency)이 그 양이나 복잡도에 있어서도 매우 극적으로 증가되어 왔다. 많은 재래식 전쟁의 규칙들이 왜곡되거나 적용될 수 없는 곳에서, 분란전은 완벽하며 자기만족적 군사술이 되었다. 분란은 일정한 조직에 의한 조직적인 시도로서 확고한 국가나 기존 정부에 대항 이를 붕괴시키거나 전복하려고 하며, 때때로 현상의 타파를 위하여 결정적으로 무력을 사용한다. 광범위한 의미에서 분란은 소규모전쟁, 게릴라전이라 하는데, 아프카니스탄, 중앙아프리카 그리고 남아프리카에서의 분쟁들이 이러한 류에 속한다.

분란전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손자(Sun Tsu)의 저술에 의하면 중국은 이미 2500년 전에 분란에 대해 연구했다.

영국인들은 스코틀랜드나 아일랜드 그리고 미국사람들에 의해 분란에 직면하였고 스페인사람들은 나폴레옹·보나파르트에 대

항해서 분란을 사용했다.

분란전은 몇 가지 이유에서 발전되어 왔다. 가장 뚜렷한 이유는 오늘날 재래식 분쟁에 엄청난 전비가 소요된다는데 있다.

현대전에 있어 전투기 한 대의 운영비용은 제2차세계대전 때의 일개 비행대대가 사용하는 장비와 연료 및 인력의 비용을 요구한다. 현대전의 탱크는 고도의 자동적으로 조절되는 기계장치에 의해 동력을 얻는 정말로 매우 복잡한 통신과 제어장치, 그리고 무기체계를 갖춘 군수공장이며, 그 유지비용은 제2차 세계대전 시대의 일개 소대를 움직이는데 드는 비용과 맞먹는다. 그리고 자원과 숙련된 인력을 유지하는데 소요되는 이러한 막대한 비용은 군사력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많은 국가들의 능력범위를 벗어나고 있다.

또 다른 요소는 전도된 기술적인 복잡성과 현대무기의 비용에 있다. 우리는 스펙트럼의 한쪽 끝에 고가이면서 강력한 비행기와 장갑차를 '가지고 있는 반면, 또 다른 스펙트럼의 끝에서는 현대적 전투기나 탱크를 순식간에 파괴시킬 수 있는 정교하고 작동이 손쉬운 무기를 가지고 있다. 전착식 미사일은 헬리콥터나 경장갑차를 파괴할 수가 있으며, 약간의 큰 무기들은 제트전투기나 탱크를 파괴할 수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무기들은 기습을 달성키 위해 기동성과 비밀유지에 고도로 의존한다.

군사지식

휴대용무전기와 전화기에 의한 동시적 통신과 정밀한 미립전자 경보장치의 시대에 있어서의 재래식 군사력 작전보완의 유지가 점차 어려워지고 있는 반면, 분란자들에게 의한 기술의 달성은 매우 용이한 것이 되었다. 특히 이러한 사실은 개개인의 자유가 거의 제한받지 않고 있는 나라에서 특히 사실이다.

분란작전 (Insurgency Operations)

분란전을 위한 기술적인 기준은 분란의 일부분에 불과한 것이다. 분란자들은 심각한 불만족의 조건 속에서 작전을 수행한다. 그들은 일상적인 정부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대도시 범죄지역이나 또는 고립된 산악지나 정글, 사막 등지의 캠프에 숨어 산다.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분란을 선택하게 만들고 있는가?

분란자들은 다양한 요소들에 의해 동기를 부여받는데, 아마도 가장 중요한 동기는 이상주의(Idealism)에 있다. 그것이 근본주의적인 종교이든 마르크스-레닌주의든, 소수민족의 민족주의 또는 이러한 것들과 다른 도그마적인 신념들이 결합된 것이든, 분란자들은 진실된 “신념의 소유자들”(True Believers)이다. 그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것들을 거부하는 체제를 파괴시키기 위해서

키꺼이 열악한 환경조건 하에서 살며, 때로는 죽음을 무릅쓰기도 한다. 그들 중 일부는 그러한 삶을 사랑하게 되어 전문적인 반란주의자나 테러리스트가 되기도 한다. 그러나 그들 중 대부분은 자신들이 주장하는 사실에 대한 정당성이 옹호되기를 바라고 있으며, 원하는 새로운 정부와 사회가 탄생되는 날이 도래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분란자들에게 걸어로 볼 때에 전혀 희망 없는 행동들을 계속하도록 자극을 주는 것은 급박한 변화 속에서 이와 같은 열렬한 믿음이며, 믿음을 실현시키기 위한 폭력사용의 필요에 대한 신념에 있다.

이와 같은 행동들은 분란자들로 하여금 기습을 유지할 수 있는 잇점을 제공하여 주며, 때때로 이러한 투쟁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한 사람들이나 정부로부터 다양하게 동정을 받게 만들어 준다.

때때로 그러한 행동들이 정말로 모두가 잘못된 것만은 아니다. 세계 모든 나라의 2/3 정도는 40년 이하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민족적, 경제적으로 흩어져 살던 식민통치로부터 탄생된 국가들이다. 이러한 신생국가들은 종종 토착상인과 전문계급의 결핍으로 정직하고 안정적이며 효과적인 정부를 수립하는데 많은 제약이 따른다. 경찰과 법원 그리고 군조직의 능력이 훈련, 규율, 기동성 그리고 타격력의 부족에 의해서 제

약을 받고 있다.

권위주의와 무경험 그리고 부패, 특별한 족벌이나 단체에 대한 편애 등이 새정부의 정통성을 약하게 하고 있다. 많은 국가들이 공통의 역사와 언어 또는 신념을 공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서로 다른 민족적, 종교적인 단체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특별한 집단을 국가 내의 "최고"의 위치에 놓고자하는 분리주의와 혁명적 행동경향이 존재하고 있다.

상승하기 위한 끊임없는 투쟁은 종종 억압과 폭력을 야기시키며, 제도와 보상의 법적수단이 없음으로 해서 심각하게 불평을 하는 계급집단들이 점차 늘고 있다. 이러한 깨달은 사람들은 그들의 기질이나 개인적 손해 또는 의무감 때문에 일부는 분란운동에 능동적인 또는 동정적인 지지자들이 되고 있다.

가난은 분란을 야기시키는 중요한 요소가 아니며, 물질적인부만으로 분란발생을 방지할 수는 없다. 튀니지, 파라과이, 보스와 나와 같은 몇몇 가난한 나라들은 매우 안정되어 있다. 상대적으로 독일이나 이탈리아와 같이 광범위한 사회개발계획들을 가지고 있는 부유한 국가들이 테러에 시달리고 있으며, 아르헨티나와 레바논과 같은 중간수준의 나라들은 분란전과 테러분자 활동에 의해 좌초되어 있는 실정이다. 보다 진지한 문제는 평화적인 발전을 희망하며 보기를

원하는 "인지" (Perception)에 대한 강조와 함께 분란을 야기시키는 인지된 부정의와 무능력의 문제이다.

많은 나라들의 정치적 취약점은 소규모 분란집단의 능력이 군사적 측면에서 효과성이 높아지고 있는. 사실과 세계사의 흐름을 변경시키기 위한 폭력사용의 필요성 인식의 증가는 스스로 지속적인 분란창출을 가져올 수 없다는 점과 관련되어져 있다. 분란자들은 성공에 대한 장기적인 희망을 갖기 위해서 대중의 지지를 필요로 하며 때때로 외국정부로부터 지원을 받는다. 이러한 지원을 획득하기 위해 분란자들은 자신들의 현재상황을 느끼도록 할 필요가 있다.

분란자들, 특히 도시테러분자(Urban Terrorist)들은 테러행위의 규모가 크면 클수록 더 좋다고 사람들에게 어필한다. 그 이유는 팔레스타인해방기구(PLO)나 레바논시아파(Lebanon Shites), 페루의 빛나는 길(Shining Path), 아일랜드공화군(IRA)과 같은 분란자들이 유혈테러행위를 하고는 즉각 라디오방송국이나 T. V 방송국 또는 신문사에 연락해서 자신들이 행한 행위에 대한 책임을 주장하기 때문이다. 아프카니스탄과 니카라과, 산디니스타 등을 포함한 많은 분란자들은 언론매체에 종사하는 사람을 자신들이 행하는 매복테러활동에 참가하도록 초청하며, 자신들의 생활과 활동, 그리고 자신들이 신봉하는 행위원인에 대한 헌신을

보도할 수 있게 한다.

분란자들은 왜 공공성을 필요로 하는가? 그들은 무력으로서 자신들의 적이나 정부에게 인상을 남기고 싶어한다. 또한 그들은 대개 자신들의 이슈에 대해 냉정하거나 무감각한 일반대중에게 자신들의 동기가 중요하며 도덕적으로도 정당하다는 것을 인식시켜야만 한다. 이것에 실패하면 분란자들은 테러를 통해 사람들로 하여금 정부에 대해 더 많은 법과 질서를 요구하도록 만들고 궁극적으로는 정부를 더 심한 강압정부로 몰아넣을 것이며, 이로써 새로운 지지를 유도해 내려고 할 것이다. 분란자들은 여러 가지 효과들이 잘 조화되어 정부정책을 변경시키거나 정부를 전복시키기를 희망하며 부분적으로는 자신들의 새로운 동조세력을 원하고 있다.

그들에게 감동된(Impressed) 사람들은 해당국 내의 사람일 필요는 없다. 몇몇 경우에 있어서 분란자들은 외국에 주재하고 있는 자국정부의 대사관이나 저명한 외국사람 또는 사업가들, 특히 그들이 바꾸기를 원하는 정부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주요국가와 관련이 있을 경우에는 더욱 이들을 공격할 것이다.

테러리즘과 언론의 이용을 통해 얻은 악명으로 획득하는 또 다른 이익은 외국후원자들의 지지이다. 또한 분란자들은 실제적인 신념이나 외국정부의 지지를 얻기 위해

어떤 핵심적인 내용을 열거할 필요성에 대한 냉소적인 인식으로 인하여 세계의 주요 국가들과의 이데올로기적 유사성에 관련한 견해를 선포한다.

앙골라의 완전독립을 위한 국가연합(UNITA)의 반란군이나 니카라과의 콘트라(Contra)는 반공주의와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을 선포하고 있으며, 반면에 빛나는 길(Shining Path)과 남서아프리카인민기구(SWAPO)는 마르크스-레닌주의를 신봉하고 있음을 선포하고 있다. 아프카니스탄 반군들은 반공주의와 이슬람국가 건설에 대한 열망을 공언함으로써 서구세계는 물론 주변국가로부터 지지를 얻으려 하고 있다.

모든 분란자들이 팔레스타인 해방 기구가 소련과 리비아를 통해서 받고 있는 것과 같은 완벽한 훈련과 장비지원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들은 많은 정부와 동료분란자 혹은 일단의 국가 내에 존재하는 개인들과 단체들의 지원을 받고 있다. 또한 대부분의 분란자들이 선호하고 있는 소형의 손으로 운반할 수 있는 고도기술 집약적인 무기들은 음식이나 의복 또는 피난처와 마찬가지로 비용이 들기 때문에 이러한 지원은 필수적인 것이 되고 있다.

분란과의 싸움 (Fighting Insurgency)

분란을 예방하는 것은 발생한 분란과 싸

우는 것보다 훨씬 쉽다. 확립된 민·형사법의 공정하고도 신속한 실행을 통한 자명한 부패와 편애주의 제거는 분란자들이 결합하는 것을 저지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비록 몇몇 나라들에 있어서 선호되고 있지는 않지만 또 다른 예방법은 언론 및 출판의 자유를 정부가 보장해 주는 것이다.

언론의 자유는 정부로 하여금 단지 듣기만 함으로써 국민들의 기질을 결정할 수 있게 해주며, 시민들과 분리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게 해준다. 국민들은 자유롭게 불평을 이야기할 수 있으며 어느 누구도 그들의 관심에 대해 염려하고 있지 않다는 감정을 줄일 수가 있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만성적인 불평불만자들을 예의 주시할 수가 있으며 그들이 불평불만과 파괴사이의 선을 넘기 전에 의지적인 혁명분자를 식별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비록 이러한 기본적인 행동들이 도움은 될지라도 항상 분란을 진정시키는 것을 가능케 하는 것은 아니다. 분란자들은 때때로 정직한 정부나 언론의 자유에 안주하려고 하지 않으며, 현 정부가 정직하고 효과적임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를 전복하려고 하는 외국세력의 도구가 되기도 한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들에 있어 보안수단의 강구는 필수적인 것이 되고 있다.

반분란(Anti-Insurgency) 보안수단의 강구

는 지나친 폭력이나 억압으로 일반대중을 고립시키는 것을 피해야만 하며, 대신에 기동성과 훈련 그리고 잘못을 뉘우치고 정부에 귀순한 반군들을 위한 잘 공영화된 계획의 발전에 의존해야만 한다. 그리고 무력사용이 필요할 때는 신속하며 정확하게 그리고 철저히 적용되어야만 한다. 대분란(Counter-Insurgency)는 기본적으로 해당지역 내의 모든 것을 파괴할 수 있는 대포나 공중폭격이 아니고, 경찰과 같은 행동이나 소규모 단위부대 전술에 의존한다. 권총만을 소지한 경찰도 적절한 대응은 되지 못한다. 무장한 분란자들은 일반범죄자들이 아니라 그들은 자각하고 있는 혁명가들이며 군인들인 것이다.

범죄자들과 달리 분란자들에게는 보다 불리한 무력 때문에 굴복한다거나 이성(Raison)에 반응하기를 기대할 수가 없다. 그들은 충분한 무력에 의해서 다루어져야 하며, 도망칠 수 있는 길이 전혀 없어야 하고 선택의 여지가 전혀없이 무조건 항복을 하는 길밖에 없도록 해야 한다. 협상은 적절한 대응책이 아니다.

만약 분란자들이 그들의 요구가 협상 가능하다고 정말로 느끼고 있다면, 그들은 무장반란을 통해서 보다는 평화적인 시위나 정치적인 행동을 통해서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노력했을 것이다.

또한 분란자들에 대한 군사작전을 시작하

기에 앞서 공영방송이나 근거있는 소문을 통하여 인질을 잡는 것이 행복이나 죽음으로부터 자신들을 구해줄 수 없다는 사실을 경고해 주어야만 한다.

신속하며 책임감 있게 취해진 적절한 행동이 정상적으로 분란을 진정시킬 것이다. 만약 분란자들이 대중적 지지를 거의 받지 못한다면 혼란과 억압을 야기시키는데 실패한다면, 비록 외국세력이 그들을 지지해 준다고 하더라도 분란은 사라질 것이다. 외국세력은 분란이 실패한 것을 깨닫는다면 지지에 따른 낭비와 예견되는 혼란을 피하기 위해 지원을 포기할 것이다.

불행하게도 일부 국가들은 이러한 문제들이 사라질 것이라 희망하면서 문제들을 무시하거나, 제엄령이나 시민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과 같은 강압적인 정책을 통해 과잉대응을 한다. 이러한 것은 결국 분란을 지속적으로 성장하도록 유도하며, 많은 시민들이 분란자들에게 가담하도록 유도한다. 분란은 점차 일부소수의 강경 급진주의자들에 의해 야기된 지엽적인 문제를 벗어나, 지역적이거나 거국적인 문제가 되며 혁명군이 무력으로 일정한 영토를 차지하게 되는 것이다.

마침내 일반대중들은 분란자를 막아내는 정부의 능력을 의심하게 되며, 어쩔 수 없이 자신들 사이에 분란자들을 수용하기 시작한다. 이것은 일반대중들이 분란자들을

지지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즉, 이와 동일한 무관심이 이데올로기가 없는 무장한 거리의 장패에 직면하고 있는 미국의 도시들에서도 발견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정부가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해야만 한다는 사실인 것이다.

게릴라형태의 분란과의 싸움 (Fighting Guerrilla Insurgency)

분란을 통제할 수 없게 되면 사면초가에 빠진 정부는 흔히 동맹국에 원조를 요청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미국은 공산반란군을 물리치는 것을 도와달라는 요청을 받고 있고, 소련도 역시 콜롬비아와 니카라과 그리고 앙골라와 같은 분산된 지역들에서 반공산반란군을 물리치는데 도와줄 것을 요청받고 있다. 이러한 국가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것은 어떤 종류의 도움인가?

미국이나 소련 양국의 가장 공통된 반응은 위협받고 있는 정부에 보다 더 많은 무기를 파는(또는 주는) 데 있다. 무기들 중에는 종종 중무장헬리콥터, 장갑차, 대포 심지어는 전투기들도 포함되어 있다. 미국은 가끔 풍부한 전술적 통신장비들과 박격포를 포함한 보병무기, 그리고 육지와 바다에서 사용하는 다양한 무기와 군대를 이동시킬 수 있는 수송기를 지원하는 무기에 첨가시킨다.

일반적으로 소련의 원조는 해당 정부가 자국주민들을 대량으로 죽이려고 할 때 매우 효과적인 것들이나, 미국의 지원장비는 극단적으로 효과적인 것부터 단순대응에 필요한 것에 걸친 다양한 것들이다.

미국의 원조에 있어 가장 큰 결점은 원조를 받는 군대의 전략과 전술 그리고 훈련 및 규율의 부족을 보충하기 위해 기계화와 자동화에 의지하려는 경향에 있다. 대부분의 제3세계 국가들이 첫번째로 요구하는 것은 반대자를 파괴시키는 화력보다는, 기동력에 의존하고 있는 반대자들의 위협에 효과적으로 싸울 수 있는 방법과 군대로서 효과적으로 작전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교육과 훈련이다. 그들은 고도의 동기를 가지고 때때로 잘 지휘되고 있는 반란군을 찾아내고 전투하여 이를 격퇴할 수 있고, 이런 임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자국국민을 공포에 몰아넣지 않는 응집력 있는 군대를 건설하는 방법을 배우고 싶어한다.

최근 외국국가들에 대한 미국의 훈련은 근접지원작전 협조와 공격지역에 대한 포격 지원준비, 그리고 대규모군대 이동과 같은 재래식전쟁 활동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결국 이러한 외국군대들은 한국이나 중부유럽같은 곳에서의 지상전을 위해서는 잘 훈련되었다. 그들이 받은 유일하고 유용한 훈련은 소단위부대 전술과 경보병 무기들에 관한 것이다. 이러한 훈련은 그들에게 적

절한 형태의 작전을 위해 준비하도록 하는데 충분한 시간과 강도가 될 수 없을런지도 모른다.

이러한 프로그램에 있어서의 또 다른 문제는 시간과 자금, 그리고 인력의 제약에서 기인되며, 훈련은 보통 중견장교나 고급장교들에게 제공된다. 미국인 강사들은 대개 일반군인들(사병)과는 제한된 접촉을 하고 있다. 이러한 군인들은 젊고 흔히 상대적으로 교육받지 못한 징집병들이다. 그들의 훈련은 엄격하며 때로는 동물적이고 통제되어 있다. 이러한 훈련은 흔히 동기나 동료의식 형성을 결여하고 있으며, 10대의 순박한 농부나 방앗간 일꾼을 효과적인 군인으로 만들 수 있을만큼 충분치 못하다.

장교들과 징집병들은 서로 상이한 나이와 교육, 사회계층 그리고 목표에서 성장하였으며 살아왔다. 만약 장교들이 이러한 차이를 건너 뛸 수가 없다면 이들은 미국인 강사들로부터 배운 지식을 사병들에게 전달할 수가 없다. 장교는 자신의 군대가 혼란에 빠지거나 불필요하게 죽고 또는 군대나 그가 대표하는 정부에 대해 주의하지 않음으로써 야기되는 결점까지도 책임을 져야 한다.

효과적인 대분란활동을 위해 작은 국가의 군대를 양성하는 문제들에 직면해야 할 일은 이러한 사회·정치적인 문제들의 효과적인 처리인 것이다. 만약 군대 내에서 장교

군사지식

들이 자신의 하급자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일하는 것을 기대할 수 없다면 그 군대는 성공할 수 없을 것이다. 만일 군대가 소총이나 자동화기 그리고 장갑차와 다목적 헬리콥터에 집중키 위해 탱크와 전함같은 대형무기들을 포기치 않는다면, 군대는 그들에게 배타적인 적을 발견하여 고정시켜 싸울 수 없을 것이다.

또한 군대는 대부분의 군인들이 싫어하는 유격대 임무와 같은 것들을 심리적으로 준비해야만 한다. 군대는 분란자들에게 위협받고 있을 듯한 모든 마을에 정부가 분란자들을 방어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주민들에게 확신시키기 위해 적은 규모 의 병력을 항상 주둔시켜야 한다.

이상적인 면에서 볼 때 이런 소규모 주둔병력은 지역 의용군을 훈련시킬 수도 있으나 이들이 그러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것을 해야만 한다.

○ 그들 자신의 무기와 전술, 그리고 적에 대해서 알아야만 한다.

○ 마을 사람들이 자신들을 존경하도록 마을사람들에게 충분히 관심을 가져야 하며 그 관심을 보여주어야 한다.

○ 무기사용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 주고자 하는 사람은 이런 기술을 가르칠 때에 인내심을 가져야만 한다.

○ 효과적으로 마을사람들, 특히 마을의 의용군들을 확신시켜야 하며, 분란자들이 들

아와서 마을 의용군이 도움을 요청할 때 신속하고 강력한 대응을 할 것임을 보여주어야 한다.

피훈련자 자신들은 물론이고 이들을 훈련시키는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기억해야만 한다. 즉 우리가 모택동이나 체·게바라 또는 카를로스·마리젤라(도시게릴라에 관한 소책자의 저자인 브라질인)등이 언급하거나 기술한 책에서 게릴라전 또는 분란, 인민전쟁이라 불리어지는 말을 듣거나 읽었을 때 그것은 지나친 단순화나 오역이 아니란 점을 명심해야 한다. 분란은 바로 이것이다.

위와 같은 전쟁들은 궁극적으로 영토획득을 위해서가 아니고 국민의 지지획득을 위해서 싸우는 전쟁들이다. 정부나 분란자들, 양자에 있어 이러한 전쟁들의 유일한 목표는 일반대중의 충성과 지지의 획득에 있다. 일반대중은 다음과 같은 매우 기본적인 관심들, 즉 자신들 가족을 부양하고 가족들이 성장할 때까지 평화스럽게 자신들의 땅을 지속적으로 경작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관심을 주로 가지고 있다. 이들의 필요에 대한 최선의 해답은 그들의 지지를 획득하는 것이 될 것이다.

도시분란과의 싸움 (Fighting Urban Insurgency)

도시분란자들 또는 테러리스트들을 취급

하는 것은 약간 다른 문제이다. 과밀한 인구집중으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제한된 공간 속에 다수의 분란자들이 은신할 수가 있다. 재래식 군사력을 사용하는 문제는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어려운 일이다. 도시분란자들은 농촌분란자들에 비해 종종 보다 나은 교육수준을 가지고 있으며 자금과 물자획득에 보다 숙달되어 있고, 고립된 농촌지역보다는 일국가의 중심부에서 활동하고 있다. 도시테러리스트들은 개인의 권리를 위해 보통 이상으로 보호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나라들, 즉 비교적 가난이 거의없고 향상된 기동력에 의해 많은 접근수단들이 존재하는 나라들을 공격할 수도 있다.

도시테러리스트들은 무장반란을 야기시키는 분명하거나 합리적인 비판의 존재여부와 무관하게 반란을 일으키고자 하는 열망에 의해서 동기를 부여받는다. 그들은 예외없이 중산층 출신이거나 부유한 가정 그리고 고등교육을 받은 지식계층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자신들의 배경과 가능성을 거부하고 그들 자신에게 이런 잇점들을 부여해준 사회를 공격한다.

그들의 요구가 사회정의와 전쟁의 제거 그리고 사회주의 세계질서를 강조하고 있지만, 자신들의 요구를 언급하는데 있어서 매우 순진하며 일치되지 않는 경향이 있다. 많은 분석가들은 이들의 진실한 동기가 부와 권력으로부터 관심을 획득할 수 있는 능

력을 가지고서 고상한 혁명가가 되는 낭만과 폭력사용을 통한 흥미의 추구에 있다고 보고 있다. 또한 일단의 심리학자들은 이들이 무의식적으로 자신들의 부모를 벌주려고 하거나 부모들의 관심을 얻으려고 한다고 지적한다.

여기서 기억해야 할 중요한 것은 이러한 도시테러리스트들은 농촌테러리스트와 케릴라들과는 다르다는 사실이다. 그들의 동기는 동일하지 않으며, 이들의 목표는 정의보다는 부정부상태를 더 지향하며, 다양한 개혁의 실천도 도시테러리즘을 예방할 수 없으며 그 발생빈도를 줄일 수도 없다는 사실이다. 도시테러리스트들은 정당한 폭력이 아니고 반사회적 폭력사용인 것이다.

붉은여단(Red Brigade)과 적군파(The Red Army Faction) 그리고 혁명세포(The Revolutionary Cells) 등과 같은 도시테러리스트들은 자신들의 방법과 동기에서 볼 때 정치적, 군사적인 불만자이기 보다는 폭력적인 범죄자들로 간주되어야만 한다. 그들은 정당한 비판이나 대중적 지지기반도 가지고 있지 않으며 정부에 대한 실제적인 위협도 되지 못하고 있다. 도시테러리스트들은 충분한 언론매체의 히스테리를 유발시키고, 질서의 회복이란 미명하에 억압적 형태의 질서가 이끌려지도록 하기 위하여 대중적 혼란을 유도하려는 일관된 목적을 가지고 저명인사와 죄없는 방관자들을 위협한다.

결국 이러한 억압적 질서유발은 테러리스트들에게 동정자들과 참여자 그리고 외국의 지원 획득을 제공해 줄 것이며, 그들로 하여금 정당하게 사회를 개혁하는 것이 아니라 파괴시킬 수 있도록 해주며, 분리된 준국가를 만들 수 있게 해준다.

산속에 있는 게릴라들과는 달리 도시테러리스트들은 군인에 의해서가 아닌 적절한 훈련을 받은 경찰력에 의해서 다루어져야만 한다. 테러리스트들에게 충분한 능력을 갖춘 분란이 되도록 허용할 수 있는 국가에 의한 억압이나 군사화를 초래해서는 안된다. 소련 및 반서방국가들은 도시테러리스트들이 서방세계의 사회·정치적 안정과 경제적 번영을 해치는 무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을 지원하고 있다.

분란의 국제적 측면 (International Aspects of Insurgency)

분란은 점차로 주권국가들 사이의 전쟁으로 그 규모가 커지고 있다. 월남에서의 분란은 곧바로 남·북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태일랜드 그리고 미국까지 포함한 전쟁으로 유도되었다. 이스라엘에 대항하는 팔레스타인분란은 이스라엘과 레바논, 시리아와 요르단 사이의 무력충돌을 불러 일으켰으며, 레바논대전을 야기시켰다. 이러한 경우들에 있어서 다른 나라들은 어느 한쪽에

대항해서 한편을 돕거나 일부러 침묵함으로써 간접적으로 개입되어 있다.

이러한 점차 규모가 커지는 분란의 뒤에는 분란자들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적을 파괴하거나 중립화시키려는 소련이나 북한, 리비아 등의 무기제공과 훈련시설들이 존재하고 있다.

미국인으로서 우리들의 당연한 대응은 좌익분란자들에게 공격받고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는데 있었으며, 때로는 미국군사력으로 직접적인 개입을 통해 도와주었다. 불행하게도 직접적인 행동은 종종 바람직스럽지 못한 반응을 야기시켰다. 소규모 국가들에 있어 많은 사람들은 미국의 원조에 대해서 감사하면서도, 많은 수의 미국사람들 특히 많은 군인들이 그들을 돕기 위해 자기들 나라에 들어오는 것에 대해 두려워하며 분개하고 있다.

베트남과 이란의 영향으로 심지어 서구국가들조차도 미국군대를 자국에 초치하는 것에 대해 조심성 있는 태도를 취한다. 일부국가는 미군의 주둔자체가 그들의 독립에 대한 위협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또 다른 일부국가는 미군주둔이 소련이나 급진적인 이슬람주의자들의 공격위협을 증가시킨다고 보고 있다.

문제들을 야기시키는 다른 지역은 문화적인 것이다. 보통 미국의 원조는 조그만 나라들이 원하지 않을 수도 있는 사회, 정치,

경제적인 변화에 대한 미국의 요구와 함께 이루어지며 때로는 원조가 불평을 무마시키기 위한 뇌물로 보이기도 한다. 미국은 미국인들이 돕고자 하는 국민들에게 두려움을 주거나 신뢰를 잃지 않도록 조심하여야만 한다. 미국은 침략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상황을 만들거나, 각국의 정부나 경제에 지나친 간섭을 하거나, 정치적인 논쟁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 미국인들은 조언을 하고 훈련을 시키며 장비와 군수품을 제공할 수는 있다. 그러나 미국인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국정부를 지지하도록 유도해서는 안 되며, 미국인들의 욕구에 맞도록 정부를 바꾸어서도 안 된다. 단지 각국의 정부와 해당국 군대만이 이를 할 수 있는 것이다.

미국은 세계 도처에서 미국의 동맹국들을 위협하는 분란들을 무찌르는데 도움을 주는 것을 포함하는 전세계적인 공약을 가지고 있다. 사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미국인들은 자신들이 도울 수 없는 상황속으로 군대를 파견하는 것보다는 간접적으로 도와주어야만 한다. 미국의 군사 및 민간조연자들은 궁극적으로 정부에 대한 국민들이 신뢰를 회복시키는 것이 그들 자신에게 달려 있다는 것을 해당국가의 지도자들에게 설득시켜야 한다. 각국 정부는 소규모 작전과 마을의 안전지원 그리고 분란자들의 은

신처에 대한 규모가 작으면서도 정확한 공격 등을 하기 위해 자국군대를 훈련시키고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미국이 분란자들을 도우려고 하는 외국인조를 방지하는데 도움을 줄 수는 있지만 각국 정부는 내적 문제를 해결해야만 한다. 미국은 공무원들과 군대를 훈련시킬 수 있으며 효과적인 기동력과 통신 그리고 화력장비를 제공할 수는 있지만, 해당 국가의 공무원들과 군대는 자신들 스스로가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가치가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만 한다.

분란을 다루는데 있어서는 초기의 정확한 행동이 매우 결정적이다. 반응은 위협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문제를 무시하는 것이나, 게엄령에 의존하는 것 그리고 정부테러리즘은 단지 문제만 더욱 악화시킬 뿐이다. 특히 이것은 도시테러와 가장 개방되어 있고 번영된 사회를 공격할 수 있는 기피하게 변형된 분란전을 다루는데 있어 진실이 되고 있다.

분란은 분란의 실체에 대한 건전한 이해와 위협에 대한 현실적인 접근을 통해 국가적 단합과 안정 그리고 군대의 전체적인 효과를 촉진시킬 수단들에 의해서 물리칠 수가 있는 것이다.

辨証法과 唯物論

權 泰 昌 訳

(소령 제5672부대)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哲學은 歷史的으로 헤겔의 辨証法, 物質論 및 經驗主義의 所産으로 평가될 수 있다. 그러나 어느 學門에서도 그렇듯이 哲學의 歷史的 分類는 誤謬을 범할 수 있다.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思想에서 獨步的이고 魅力的 要素는 그러한 잘못된 표현에 의해 부적절하게 전달되고 있다. 그것은 西洋文化의 모든 주요 사회전통과의 급진적이고 계획적인 단절 같은 혁명이념의 상징인 마르크스주의의 면모를 놓치고 있다. 또한 마르크스와 다른 철학자와의 주요 차이점을 명확히 하지 못하고 있다. 마르크스는 이들로부터 많은 것을 모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보다도 급진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다. 理想主義者와 經驗主義者 간의 주요 불합치점은 事實에 관한 문제보다도 方法과 價値에 관한 것과 관련이 있다.

이러한 不合致點은 항상 어떤 限界內에 있었다. 理想主義者인 피히테나 헤겔, 實証主義者공트, 自由主義者 밀, 進化 自然主義

者인 스펜서는 스스로를 社會革命主義者로 그들의 哲學이 胚胎되고 養育된 文化傳統으로부터의 背教者로 생각하지 않았다. 이들은 오로지 傳統을 명확히 하고, 醇化하고, 고치는데에 관심이 있는 批評家요, 改革家이지 全的으로 訣別할 의향은 없었다. 이들은 칸트 이후로 모든 철학자들이 포함된 치열한 理性的 危機에 介入되어 있었다.

이상론자와 실증론자 간의 哲學的 異見은 아무리 심각할지라도 自由主義者와 保守主義者 간의 連續的 議會討論의 단계로서 취급할 수 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들 모두가 부르조아 基督教 國家의 발전하는 制度的 生活을 保存하는데 關心이 있었다. 그것은 黨의 路線이 계속 명확하게 定義되고, 적어도 主要論點에서는 黨領이 보존되는 것에 관한 토론이었다. 마르크스, 니체, 키에르케고르에 오면 이 路線이 모호해지고, 이질적이고 더욱 급진적인 철학적 반대론이 출현하기 시작한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마르크스는 단순히 전통을 수정하

는데 만족하지 않고 나름대로 전통을 파괴하려고 노력하였다. 그가 추구한 것은 새로운 이념의 방법론이나 이성의 비판이 아니고 새로운 종류의 인간창조였다. 그러나 이것이 싫던 좋던 간에 우리 시대의 실제적 사상에 커다란 영향을 끼쳤고 존경할 만한 전통 이론이라기 보다는 敎義였다.

基督敎, 實証科學 및 政治自由主義 간의 文化的 統合 또는 折衷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마르크스, 니체, 키에르케고르에게는 명백해진다.

그들은 理性에는 관심이 없고 救濟나 成功에 관심이 있었다. 哲學의 問題는 세계를 이해하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變化시키는데 있다고 마르크스는 말했다., 니체에게 眞實 그 자체는 실질적으로 嘲弄의 용어가 된다.

眞實이 쓸모가 없는 곳에서 니체는 공공연히 고상한 거짓말에 의지하고 있다. 그렇지만 그의 要點은 항상 오해되고 있다. 그가 反對하는 것은 眞實이 아니라 合理性의 傳統的 基準의 客觀性과 普遍性에 관해 쉽게 내려지는 哲學的 가정이다.

어떤 基準은 目的을 위해서 자유롭게 受容되거나 공포나 습관 때문에 수동적으로 默認되었다.

니체에게 중요한 철학적 문제는 무엇이 진실인가? 무엇이 합리적인가? 무엇이 옳은가?가 아니라 나는 무엇을 하기를 바라는가? 무엇이 되기를 원하는가? 였다.

키에르케고르는 똑같이 反動的이다. 그는 우리 전통의 理性神學에 단호히 등을 돌린다. 그의 견해로는, 理性神學은 그리스도의 思想을 합리화시키기 위한 非그리스도적인 企圖였고, 世俗的 秩序의 부적절한 요구에 내적이고 주관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方法이었다. 그에게는 精神的 自由와 歷史的 必然을 일치시키는 것보다도 基督敎의 生活觀과 戒律이 主觀的 精神 또는 理性이라 認知한 歷史的 制度의 요구를 和合시킬 가능성이 없었다. 神學的 理性主義와의 그의 결별은 동시에 19세기의 부르조아 生活과의 急進的 단절이었다.

또한 마르크스와 니체의 경우와 같이 急進的이고 마지막 단절이었다. 세 사람 모두 現代에서 정신적으로 사회적으로 疎外된 사람의 困境을 代辯하기 위한 대담한 시도를 하였다. 그러므로 세 사람의 철학적 작업은 우연히 이론적이다. 그들의 목적은 매튜 아놀드의 所謂 “이러한 이상한 현대생활의 병”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행위 또는 理性의 죽음으로써 받아드리기를 거부한 사람들의 요구에 답변할 새로운 生活方式의 건설 이외에는 아무 것도 없다. 그들은 豫言者인가 미치광이인가? 그 解答은 분명하지 않다.

마르크스는 이 셋 가운데 가장 합리적이다. 이것은 方法論에 관한 그의 先入見에서 증명된다. 그러나 마르크스의 方法論은 마

정훈교육자료

르크스主義가 博識한 歷史家에게 제시한 가장 큰 混亂의 源泉이었다. 마르크스의 추종자들이 흉내내는데 결코 실증을 내지 않았고, 마르크스 자신은 진지한 社會科學者이어서 그의 歷史 發展理論은 後世代의 社會理論에 말할 수 없는 影響을 미쳤다. 그는 헤겔과 같이 人間歷史의 過程이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가를 処方하는 先驗的인 定立, 反定立을 만들어 낸 單純 辨證法論者가 아니었다고 마르크스 추종자들은 주장한다.

부분적으로 이 주장은 옳다. 그의 歷史唯物論은 社會變動의 主要 原因의 證明 可能한 理論에 대해 틀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이상주의자 헤겔 뿐만 아니라 물질론자인 포이에르바하도 비판하였다. 이 두 사람의 歷史哲學이 너무 과장되고 회미하고 또한 관찰 가능한 사회 인과관계에 너무 무관심하다는 이유 때문이다.

그러나 마르크스는 역사발전 이론을 정립한 과학자 이상이었다. 또한 豫言者이었다. 그는 이미 발생한 과거를 설명하고 어떤 역사 조건 하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을 예측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인간의 궁극적 운명을 예언하기 위해 그 나름의 역사이론을 사용하였다. 프롤레타리아 革命이나 최종적인 階級없는 社會는 마르크스에게 資本主義 經濟에 內在한 矛盾의 必然的 結果이었다.

이 결과는 어떤 경험적인 조건이 충족되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더욱 은밀하게 발생할 것이다. 헤겔이나 마르크스에게 인류의 역사는 모든 사회체제가 반대방향으로 파멸되어 버리는 필연적 발전으로서 이해되어야 한다. 헤겔과 마찬가지로 마르크스의 變化의 辨證法的 概念은 歸納的 一般化 라기보다는 역사에 대한 올바르고 합리적 사고에 특이하게 변증법적 형태의 것을 부과하는 엄격한 分析의 法則이다.

이와 같이 科學, 倫理, 終末論이 마르크스의 마음 속에는 무의식적으로 융합되어 있다. 이것은 聖經의 뜻을 잘 특성화하는 역사, 도덕, 예언의 고전적 융합의 현대판으로 간주될 수 있다. 이러한 요소들을 分離하면 마르크스주의에서 특정한 神秘感이나 全體 이데올로기로서의 막강한 호소력을 박탈하게 된다.

물론 마르크스는 공식적으로 反宗教的이었다. 그의 歷史哲學은 反精神的이고 物質的인 形而上學에 基盤을 두고 있다. 그의 唯物論은 그 때까지의 유물론자와 자연주의자의 이론과는 性向과 教義에서 매우 다르다. 먼저, 데모크리투스와 같은 前선 物質論者들의 思惟는 物質世界的 性質에 關心이 있는 반면에 마르크스의 最高 關心은 人間과 社會에 있었다.

데모크리투스는 마르크스의 歷史發展理論에 불가결한 質的 變化를 무시하면서 變化

를 운동의 문제로서 또는 場所의 變化로서 취급하였다. 사실 機械的이고 마르크스의 견해에서는 非歷史的 概念 때문에 以前의 유물론자들은 歷史란 어떤 중요한 접합점에서 사회조직의 물질적 기반이 급진적이고 예전에 없던 變形이 발생하는 非反復的 過程이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 이 유물론자들의 대부분이 태양 아래에선 실제로 새로운 것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謙遜과 冥想의 個人倫理를 설교한 靜肅主義者라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그러한 이유로 마르크스는 물질적 환경의 급진적 완화의 희망을 배제하는 것 같은 어떤 形而上學도 容認할 수 없었던 極端的 行動主義者이다. 말하자면 마르크스는 그러한 容認과 結별하기를 간절히 바랐기 때문에 歷史를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 밖에 없었다.

마지막으로 앞선 유물론자들은 흙스의 경우와 같이 유사한 社會理論이附隨되는 原子理論을 갖고 있었다. 여기서 社會란 단지 人間의 集合體이며 人間關係는 全的으로 個人的 決定과 理解에 의해 결정된다. 그러한 견해에 의하면 모든 社會秩序는 契約的 根拠에 의하며 따라서 社會契約의 違反은 社會 그 自體의 即刻的 分解를 의미한다.

한편 마르크스의 사회이론은 인간의 중요한 社會形態가 合理的 自己理解에 근거한 自律的 決定의 함수가 아니라 오히려 經濟的 階級的 構成員으로서 社會的으로 條件化

된 役割의 함수로 설명되기를 요구하였다.

흙스는 인류의 자연적 상태를 萬人에 대한 萬人의 鬭爭으로 看做했으며, 이것은 真正한 統治者에 의해서 除去될 수 있다. 마르크스에게 또한 葛藤은 人間生活의 法則이다. 그러나 그의 사회연구에 대한 제도적 접근방법 때문에 根本的 葛藤은 社會的이고 社會葛藤의 基本的 形態는 階級鬭爭이다. 그러므로 마르크스에게 受容된 唯物論은 社會가 人間 原子의 단순한 집합 이상이라는 定立을 심각하게 받아들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다는 것은 당연하다.

마르크스는 헤겔의 철학에서 史的唯物論에 필요한 모든 端緒를 제공할 틀을 발견하였다. 마르크스는 헤겔의 궁극적으로 이상론적인 역사해석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헤겔의 이상론적인 역사해석은 단순한 이상이나 이념에게 역사변화에 대한 통제력을 제공하는 것 같았다. 마르크스에게 모든 주요 사회변화는 경제적 생산의 물질적 방법의 변화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헤겔의 社會發展에 관한 實際分析은 항상 制度的 側面에 있었고 마르크스에게는 사회철학의 가장 큰 失手, 즉 사회에서의 인간의 역할을 순수히 인간의 偽善的 趣向과 選擇의 함수로서 해석하는 실수를 言及하지 않고 있다.

헤겔은 이상주의자이었다. 그러나 그는 객관적 그리고 절대적 이상주의자이다. 이

것은 실제적 목적에도 불구하고 사회변화의 과정을 결정하는데 개인의 목적의 효용성을 제도적으로 깎아내리는 반면에 정신적인 무언을 나타내게 해준다.

그러나 그것은 마르크스에게 영향을 준 변증법을 재해석하는 가능성이었다. 헤겔이 논리적 모순과 물질적 모순이나 갈등을 혼동한 경향이 있다는 사실은 마르크스를 당황하게 하지 못했다.

마르크스는 헤겔보다 公式的 論理의 성질에 관심이 없었다. 定立, 反定立 및 綜合의 변증법적인 法則은 論理的 推論의 이론으로서 가치가 없을 수도 있다.

그러나 마르크스에게 변증법이 역사발전의 실마리를 푸는 최고의 단서를 제공하였다. 단순한 思考의 法則으로 보다는 辨證法을 物質的으로 解釋함으로써 마르크스는 변증법이 어떻게 작용하는가를 보여준 최초의 사람이다. 헤겔은 定立과 反定立, 反定立과 綜合 간의 因果的 關係를 歸屬시키는데 확고한 물질적 근거를 갖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그의 변증법 사용은 항상 獨斷의이다. 이것을 再解釋함으로써 진지한 因果的 說明과 豫測의 目的을 만족시키는 결정적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마르크스의 의향이었다.

이와 같이 마르크스는 헤겔의 史的 辨證法과 唯物論을 統合하여 唯物論 自体를 思惟的 機械論에서 歷史發展의 哲學으로 그리고 명백한 獨斷的 思考의 法則을 証明 可

能한 歷史 因果關係의 法則으로 變換하기를 시도하였다.

아마도 마르크스의 입장에서 변증법이란 용어는 원래의 의미와 조그만 관련성까지도 잃었다. 사실 그것은 단지 단어의 문제이다. 마르크스에게는 根本이나 實體보다는 인간이 일하고 에너지를 소비하는 물질이 중요 관심사이었지만, 그의 변증법 해석은 사상가로서의 관심을 잘 나타내주고 있다. 중요한 것은 변증법적 유물론이란 이데올로기가 제목의 성격에 무관하게 그리스도 이래로 어떤 教義도 할 수 없었던 인간의 사고를 장악하였다는 사실이다. 마르크스는 그의 변증법이 과학적이라고 계속 강조하였다.

또한 헤겔에 의해 특성화된 바와 같이 마르크스에게도 흥미를 준 것이 있다. 그 중 하나가 헤겔의 合理性이다. 合理性의 二重的 意味를 조종하면서 헤겔은 아마도 어떤 합리적 과정도 지적이고 정의로와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었을 것이다.

知性和 適切性이 합리성의 모든 의미로 통합되기 때문에 합리성이나 변증법적 발전의 법적 속성을 주장하는 행위에서 沒人的 칭찬의 용어로 그 뜻을 사용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것은 이념적으로 外向的 價值判斷의 形態에서 合理性 認定을 표현할 필요성을 헤겔에게 열어 주는 利點을 갖고 있다. 아마도 마르크스는 자신이 무엇을 했는지도 알지 못하면서 그의 理念的 目的을 위해 헤

겉 변증법 중에서 核心的 規範의 側面만 채택하였다. 그러나 그 規範的 側面은 과학적 不偏性의 냄새를 유지 가능케 한 合理性이란 單語에서의 모호성이었다. 그것 덕분에 마르크스는 正邪에 대한 부적절하고 주관적인 판단을 강요함이 없이 변증법을 도덕적 차원까지 올릴 수 있었다.

이와 같이 進歩의 思想은 교활하게 辨證法이라는 憲法으로 쓰여졌고 마르크스의 物質的 歷史解釋은 革命的 社會發展이 항상 더 낳은 것을 향한 법칙적 운동이라는 表現되지 않았지만 중요한 의미를 辨證法 속에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마르크스에게 호소력을 갖고 있었던 또 다른 변증법의 측면이 있다. 이것은 必然性이다. 과학자인 마르크스에게는 이것이 사회변화의 조건을 설명하기 위해 충분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역사라는 위대한 윌츠를 必然的으로, 不可避한 것으로 代辯할 수 있는 思想家로서의 目的에 매우 중요하다.

물론 合理的 發展은 善意의 모든 사람들에 의해 우아하게 默認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러한 발전이 또한 불가피하다면, 마르크스가 프롤레타리아의 궁극적 승리가 도래할 것으로 주장했듯이 發展에 대한 抵抗의 의미가 없어진다.

마르크스의 옹호자들이 주장하듯이 유일한 실질적 문제는 時間表와 관계가 있다. 아

무 것도 필연적인 역사발전을 영원히 연기할 수 없다. 그러나 변증법은 오로지 변화의 방향만을 処方하고 있지 앞으로 도래할 시간표는 규정해 주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그 불가피하고 만인이 바라는 바인 계급없는 사회를 앞당기기 위해 공산당과 같은 革命 組織에 의해 뭔가 실천되어야 한다. 마르크스 批判家들은 마르크스 이론의 논리가 흠이 없는 것은 아니라고 종종 주장하고 있다. 必然主義者로서 마르크스는 自由를 위한 余地를 남겨놓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이념적 선동에서 요점을 박탈하고 있다.

이 문제에서 마르크스의 비평가는 不可避라는 용어를 어떤 사람에게는 격려의 용어로 또 일부에게는 終末의 용어로 보지 못했다. 그것은 科學記述의 言語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理念 葛藤의 言語에 屬한다. 그 기능은 인류의 인도자로서 세계의 노동자에게 역사적 임무의식을 일깨워 주는 예언적인 것이다.

어쨌든 마르크스는 實用的 분위기에 심취해 있을 때 주장했는지도 모른다. 마르크스의 역사해석의 다른 의미를 관찰해 보자.

마르크스에게 종교적, 철학적 또는 정치적 사상의 발전은 물질생산과 조직의 방법의 수정의 副産物이다. 그가 提議한 것은 헤겔의 觀念的 歷史 解釋을 뒤집어 觀念化된 上部構造가 社會體制의 決定的 基本變化의 原因으로 보다는 影響으로서 최초로 올

정훈교육자료

바르게 理解될 수 있었다. 이 顛倒의 결과는 마르크스가 精神的 自己發展이나 自由의 側面에서가 아니라 社会生活의 基本的 經濟條件의 向上的 側面에서 進歩를 解釋한 것이다.

인간 운명의 완화가 빈곤 문제 해결로 끝나지 않을지라도 그것은 최소한 경제조건의 향상에서 시작한다. 人間의 救濟, 不幸과 孤獨의 治癒는 이러한 문제의 근본적인 공격에 있다. 文明社会의 解剖는 政治經濟에서 追求되어야 한다고 마르크스는 주장한다. 또한 人間 進歩의 解剖에서도 그렇게 주장했을 것이다. 마르크스의 集産主義는 헤겔主義者로서 젊은 時節의 訓練의 産物이다. 初期부터 마르크스는 사회적 측면에서 인간활동 자체를 생각한 만큼 人間구제의 문제를 생각했다.

인간은 兄弟愛의 본능을 갖고 있기 때문이 아니고 사회제급의 구성원으로서 생각하고 활동하도록 조건화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적 동물이다. 개인으로서 自己에 관한 또는 他人에 관한 충동은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는 사회환경에 의해 결정된 채널을 통해 노동을 소유하고 있다.

Karl Popper 교수는 著書 “開放社会와 그의 敵들”에서 마르크스를 “社会学的 自治”를 말한 첫번째 사람이라는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이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한다. 헤겔의 歷史哲學은 精神的이지만 心理的 側面

다는 社会的 側面에서 형성되었다. 마르크스가 어느 制度化된 役割의 側面에서 인간 활동을 생각함을 배운 것은 헤겔로부터이다. 콩트는 분명한 용어로 社会学的 法則은 인간성의 심리학적 법칙에 국한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 측면에서도 포퍼의 주장은 또한 잘못이다. 그러나 우리는 다음 정도는 포퍼의 주장에 동의할 수 있다.

마르크스는 社会学的 自治를 人氣化한 19世紀의 어느 학자보다도 많은 공헌을 하고 있으며, 이전의 사회학에 고질적인 心理主義와 투쟁하는데 콩트나 헤겔보다 효과적이며 영향력이 컸다.

마르크스의 사회이론과 같은 이론은 여하한 倫理的 個人主義와 共存할 수 없다는 점도 덧붙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헤겔이나 콩트와는 달리 좋은 사회란 실제적으로 무정부의 상태라고 말하는 것이 마르크스에게는 적절하다. 善하고 階級없는 사회는 집단행동없이 건설될 수 없다는 것이 마르크스의 신념이다. 그러한 행동과 모든 제도의 궁극적 목표는 거대한 社会 有機體의 보존이 아니라 人間의 幸福이다. 이런 점에서 헤겔과는 달리 마르크스는 파시즘의 선두자로 간주될 수 있다.

마르크스의 唯物論 哲學은 인간 본성의 자기 중심적 이론을 포함하고 있다고는 도저히 생각될 수 없다. 마르크스는 환경론자이다. 그의 견해에 의하면 인간이 칼로 살

아왔다면 그것은 본능적 공격성에 있는 것이 아니고 사회환경의 조건이 공격적으로 행동하도록 강요하기 때문이다. 마르크스에 의하면 그것이 제국주의와 전쟁을 부추긴 자본주의이다.

그것은 資本主義者의 金錢萬能 思想을 낳은 인간의 타고난 타락성이 아니라 약탈적

이윤체계의 결과이다. 인간은 항상 늑대가 아니었고 단지 늑대가 되었다고 볼테르는 주장하였다. 마르크스는 그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 그의 일이라고 생각하였다.

한편 인간이 어떻게 하면 늑대의 행동을 멈추느냐에 관해서 인간에게 말해주는 것도 그의 일이라고 생각하였다.

I. 序 論

新帝國主義論 批判

공 진 구

〈소령·제5718부대〉

P. A. Baran의 제3세계 후진성
에 대한 고찰을 중심으로

目 次

- I. 序 論
- II. 主要論旨
- III. 評 価
- IV. 結 言

'86년 10월 10일 서울대에서 북괴 공식 기관지인 '민주조선' 10월 5일자 社說全文을 게재한 大字報事件을 계기로 명확히 드러난 학원가의 심각한 左傾化實狀이 11월 건국대 집거농성사건으로 極에 達한 느낌을 주었으며 특히 일부 急進左傾學生들은¹⁾ 現 韓國社會狀況을 美帝國主義의 지속적인 支配를 받아온 新植民主的 特性에 重點을 두고 해결해야 할 당면 主要모순을 帝國主義(美·日)와 民衆의 對立으로 규정하고 파쇼를 美帝의 新植民地 統治方式으로 보기 때문에 反美自主化를 우선과제로 내세우고 勞·農同盟을 혁명의 軸으로 학생운동의 지원을 강조함으로써 이제 그 이념이 反體制를 넘어 北傀의 主張과 相通하는 이념과 논리를 表出하면서 40년이상 대한민국의 自由民主主義 體制를 유지시켜온 反共論理를 무의미한 것으로 일축하고 있어 학원가의 左傾化現狀이 이제는 어떠한 方式으로든지 대처해야 할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으며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한 한 방법으로 이들의 思想的 武器로서 활용되는 急進左傾思想의 諸理論을 常識的 知識의 次元을 벗어나 보다 体系的으로 分析, 批判하며 이런 의미에서 新帝國主義論에 입각한 사회도대 분석의 시각을 가지고 있는 한국사회의 左傾化實態를 고려할 때 이 분야에 있어서 대표적 이론가인 미국의 P. A. Baran의 諸著

책을 中心으로 그 내용을 分析, 評價하는 것은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된다.

II. 主要 論旨

P. A. Baran의 글은 세계적으로 알려진 경제학 전문지에 게재되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올바른 평가나 소개조차받지 못하였다. '特殊한 後進國'에만 타당한 사실을 '一般化'하여 버렸다는 Baran의 分析方法이 '마르크스사상'에 입각하고 있다는 批判을 받으면서 그의 글을 主流經濟學에 依하여 무시되어 버렸다.

그러나, 後進國의 經濟狀態가 主流經濟學의 樂觀대로 개선되어 가고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특히 라틴 아메리카의 몇몇 나라에서는 Baran의 예상대로 土着政府와 外國資本의 橫暴가 밀접한 상호관련을 가지면서 전개되었기 때문에 Baran의 글은 1970年代에 들어와서 새로운 관심을 끌기 시작하였다.

Baran은 그의 著書「後進性的 政治經濟學」(1952)을 통해 後進國에서 資本主義가 西歐에서처럼 開化되지 못하는 이유를 분석하는 가운데 ①西歐資本主義의 對外膨脹이 後進國에 준 影響, ②後進國의 新興 부르주아계급이 封建體制를 打破하고 產業資本主義를 추진하는 歷史的 使命을 완수하고 있지 못하는 理由, ③後進國의 政府가 民族獨立과 經濟自立의 후진기구로 역할하지 못하고 對內的으로는 保守反動的 政府이고 對外

的으로는 買辦政府로 될 수밖에 없는 特殊한 環境을 설명하고 이를 克服하는 길로 社會的 政治的 革命을 主張하였다.

또한, 後進性的 根本原因을 糾明하는데 있어 「成長의 政治經濟學」(1957)에 나타나 있는 그의 思想은 後進國 모두가 西歐資本主義의 植民地였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後進性的 根本原因을 西歐資本主義의 侵略에서 발견하려고 歷史的인 分析에 集中하여 인도와 일본을 例로 들면서 西歐資本主義가 각각의 나라에 준 影響을 설명하고 있다.

III. 評 價

1. 接近方法

Baran은 經濟發展이나 經濟的 後進性을 研究하는데 있어서는 社會全體에 對한 파악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에 따라 後進國의 歷史에 깊은 관심을 가지면서 後進國에서는 社會的 政治的 條件들이 經濟領域을 규정하고 있다고 前提하고 西歐人들이 後進地域에 도착하였을 때 기후조건이 移民을 불가능하게 하는 곳이나 기후조건은 좋지만 固有文化가 뿌리깊어 西歐人들의 移民을 허용하지 않는 곳에서는 西歐人들은 掠奪의 方法으로 財物을 西歐로 移轉시키는 組織적인 取奪이 進행된 결과 금일의 後進國들은 西歐의 植民地로 轉落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또한, Baran은 植民地時代에 後進國이 입은 피해는 物質的인 것과 아울러 2) 國民精神이 받은 피해와 3) 社會構造上의 變化를

강조하고 있다.

한편 植民地의 독립과정에서 ‘買辦政府’(Comprador Government)와 民族資本家를 위한 ‘뉴딜형태의 政府’(New Deal-type Government)의 두 가지 政府形態가 나타났는데 이 중 買辦政府가 생겨난 근본적인 원인은 植民母國으로부터의 해방과정에서 社会的 革命을 이룩하고자 하는 勢力이 증대하여 新흥부르조아계급이 大衆的 革命勢力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었고 또한 外國의 軍事的 援助도 받지 않을 수 없었다는 事實을 들고 있다.

그 결과 買辦政府는 對內的 對外的으로 자기가 취할 수 있는 政策의 범위가 처음부터 限定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土地改革에 依한 封建的 地主的 沒落, 外國資本의 橫暴沮止, 特權的 大資本의 独立的 地位를 상실케 하는 經濟開發計劃의 樹立, 高所得層의 過剩消費規制로 因한 開發資金을 動員하기보다는 오히려 地主, 外國資本家, 獨点的 資本家, 商人, 高利貸金業者 및 投機業者를 擁護함으로써 買辦政府는 自身의 權力을 延長시키고 있다고 Baran은 말하고 있다.

이와 같이, Baran은 後進國의 問題를 考察함에 있어서 後進國 社會全體를 규정하고 있는 政治的 條件을 매우 중요시 하고 있지만 政治的 領域이 社會의 다른 領域들로부터 완전히 독립하여 存在한다고 보아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知識人들의 批判, 農民들의 不滿, 勞動者들의 要求 등은 그 強度의 크기

에 따라 政治領域에 反映되기 마련이다. 또한 政府가 항상 買辦政府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國內 政治勢力間의 鬭爭에 따라 政府의 性格은 變化한다고 보아야 한다.

아울러 Baran이 지적하는 바와같이 買辦政府는 自由와 生存을 要求하는 大衆勢力을 暴力으로 進압할 것이지만 그 暴力은 일정한 限界를 가지지 않을 수 없는 것이 勞動者, 農民 등 直接的 生産者들의 生産意慾과 生産能力을 파괴해 버리는 暴力은 스스로 파멸을 초래하는 결과를 가져 올 것이며 또한 世界적인 國際化와 民主化의 時代에 있어 國際的 孤立과 함께 暴力政權을 유지하여 온 外國資本도 國內秩序의 긴장상태에 놀라 다른 곳으로 移轉해 버릴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Baran처럼 後進社會를 變動이 없는 停滯社會로 파악, 현실에 기반을 두고 있지 않은 正體不明의 새로운 政治勢力이 나타나야만 後進性의 克服이 가능하다고 믿는다면 이것은 金일의 後進社會를 一面의 으로 본 것에 지나지 않는다.

2. 經濟剩餘의 概念

Baran에 의하면 後進社會에서는 投資財源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潛在的 投資財源’이 큰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잘못 사용되기 때문에 後進性을 면치 못하고 있다고 보고 이것을 나타내기 위하여 ‘現實的 經濟剩餘’(Actual Economic Surplus)와 ‘潛在的 經濟剩餘’(Potential Economic Surplus)와

概念을 창조하였다.

Baran이 말하는 '現實的 經濟剩餘'는 지금 실제로 工業에 投下되고 있는 投資財源을 가리키는데 現在의 生産量과 現在의 消費量間의 차이를 나타내며 後進國의 경우 매우 적다.

한편, '潛在的 經濟剩餘'는 後進國의 주어진 自然的 技術的 環境과 生産的 資源 하에서 生産할 수 있는 '生産可能量'과 '必須的 消費' 간의 차이를 뜻하며 '潛在的 經濟剩餘'는 '現實的 經濟剩餘'보다 클 수밖에 없다.

여기에서 Baran은 後進國의 社會組織을 改編함으로써 '現實的 經濟剩餘'를 '潛在的 經濟剩餘'의 水準으로 증대시킬 수 있으며 그것이 바로 後進性을 克服하는 길이라고 主張한다.

그러면 좀더 구체적으로 Baran이 지적하는 '現實的 經濟剩餘'와 '潛在的 經濟剩餘'의 차이가 취하는 형태를 살펴보면,

첫째, 過剩消費로서 客觀的⁴⁾으로 필요한 消費를 초과하여 사치생활을 하기 때문에 經濟剩餘의 一部가 投資財源을 형성치 못하고 있다는 점이고

둘째, ⁵⁾'非生産的 勞動者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현실적 生産량이 生産가능량보다 적다는 점이다.

그러나 여기서 '合理的으로 組織된 社會'는 客觀的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Baran이 자기 나름대로 지어낸 社會이기 때문에 非生産的 勞動者의 概念 역시 매우 모

호하다.

세계, 現在의 生産組織이 非合理的, 浪費的이기 때문에 現實的 生産量이 生産可能量의 水準에 훨씬 미달하고 있다고 Baran은 말한다. 즉 資本主義의 無政府性 때문에 過剩設備가 好況期에도 存在하며 동일한 用途를 가진 비슷비슷한 商品이 獨점적 경쟁에 의하여 만들어지기 때문에 대규모생산의 이익을 충분히 올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獨占體의 存在 때문에 새로운 企業의 출현이 저지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資本主義의 生産過程은 勞動生産性의 向上과 더불어 勞動의 從屬化를 심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勞動者들의 不滿이 高潮하여 勞動者들의 창조적인 能力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지 못한다. 더우기 週期的으로 發生하는 不景氣는 人的 및 物的 資源을 대규모로 浪費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것들을 經濟體制의 과감한 改革에 의하여 제거할 수 있으며 그 결과 現實的 經濟剩餘가 潛在的 經濟剩餘의 水準으로 增大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概念上 한 가지 냉철하게 区分해야 할 것은 Baran의 '經濟剩餘'의 概念은 결코 Marx의 '剩餘價值'의 概念과는 다르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Marx의 '剩餘價值'는 經濟領域에 內在하는 勞動과 資本의 階級葛藤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며 生産, 交換, 分配, 消費의 여러 측면 중에서 特히 生産部門에 있어서의 勞動者와 資本家의 對立關係를 부각

시키는 概念인데 반해 Baran의 '經濟剩餘'는 經濟剩餘가 어떻게 生産되는가에 대한 分析을 결여하고 있으며 단순히 生産과 消費의 차이만을 나타낼 뿐이다.

따라서 '經濟剩餘'는 通計的 計量化에는 有用할지 몰라도 '經濟剩餘'의 概念을 通하여 社會의 現實的 運動의 實體를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다시말하면 '經濟剩餘'의 概念은 '剩餘價值'의 概念과는 달리 그 속에 社會와의 葛藤과 矛盾을 內包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經濟剩餘'의 增大(혹은 縮小)를 自己의 行動目標로 하는 階級이나 階層은 않는다.

또한 Baran이 강조하는 '潛在的 經濟剩餘'의 概念도 現在의 經濟体制의 非合理性을 폭로하는데는 有用하며, 이 非合理性을 제거하고자 하는 實踐的 運動에 勇氣를 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潛在的 經濟剩餘'의 概念 自体도 現實과 어떤 理想社會(社會主義社會) 간의 차이를 묘사하는데 그치고 있기 때문에 現實의 經濟가 그 自体内的 葛藤과 矛盾에 의하여 特定한 理想社會로 移行할 것인가의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되어 있지 않다.

아울러 '經濟剩餘'의 概念이 生産量이 어떻게 分配, 消費되고 있는가에 더욱 큰 강조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直接的 生産者들(勞動者·農民)에 대한 파악이 부족하며 直接的 生産者를 統制, 規律하는데에서 나타나는 對立과 葛藤을 약화 내지는 무마시키는 과정 자체가 經濟의 變化, 나아가서는 社

會全體의 變化를 가져 오는 과정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後進社會의 內部的 運動樣式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Baran의 이러한 약점은 先進國의 獨占資本主義를 分析하는데 그대로 나타나 있는데 독점자본주의 하에서는 '利潤率의 低下傾向'보다는 '經濟剩餘의 增大傾向'이 支配하고 있기 때문에 증대한 經濟剩餘를 使用, 吸收하는 出口의 存在가 이 体制의 死活의 問題이고 獨占資本主義는 이 經濟剩餘를 戰爭, 軍事費, 社會福祉費, 宣傳廣告費, 販賣促進活動費 등에 '浪費'함으로써 번영을 유지하고 있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사실을 정확히 파악한다면 이러한 浪費는 企業의 利潤增大를 도모하기 위한 불가피한 경비였고 이러한 浪費가 오히려 企業의 利潤을 압박하여 不況으로 이끌어난 것이다. 금일의 不況아래 실행되고 있는 公共支出의 削減이나 企業經費의 絶滅運動을 Baran의 經濟剩餘의 概念으로는 도저히 파악할 수가 없다.

좀 더 나아가, 先進國에서 發見한 '經濟剩餘의 增大傾向'은 後進國에도 存在한다고 말해야 옳을 것이며 이러한 後進國의 經濟剩餘의 增大傾向 역시 後進國의 繁榮을 유지하는 방법이라고 보아야 論理的一貫성을 갖는 것이 아닐까?

3. 外國資本의 役割

Baran은 工業投資가 증가되어야 한다는 점을 크게 강조하면서도 外國企業에 의한

国内投資에 대해서는 매우 부정적인 評價를 내리고 있는데 흔히들 外国企業의 功으로 지적하는 몇 가지 점에 대하여 Baran 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첫째, 外国企業이 經濟剩餘를 海外로 移轉시키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 經濟剩餘는 外国企業의 投資가 없었더라면 存在할 수 없는 것이므로 그 經濟剩餘의 海外移轉은 後進國에 대한 實質的인 損失이 되지 않는다고 外国企業의 옹호자는 主張하는데 반해 Baran은 鉅物資源을 개발하는 경우에는 埋藏量이 枯渴되기 때문에 後進國은 實質的인 損失을 입게 되며 매년 生産되는 農産物의 경우에도 輸出用 作物의 單一栽培는 土地를 황폐화시키고 현지의 農民을 궁핍화시킨다고 말한다.

둘째, 外国企業의 活動으로 国内의 所得이 증가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現地 賃金水準의 低位와 最新機械의 導入에 따른 勞動需要의 低水準 때문에 国内所得의 증가는 미미하다고 Baran은 지적하고 있다.

셋째, 外国企業은 間接的으로 交通, 通信의 導入, 先進技術과 經營能力의 培養 등 社会間接資本의 形成을 促進하여 国内工業에 대한 外部經濟를 發生시키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 도로, 철도, 항만은 外国企業의 輸出入業務를 원활히 하기 위한 것이며 現地政府의 費用으로 建設되는 것임과 동시에 国内工業의 独占狀態 때문에 流通部門의 資本이 生産部門으로 移轉할 수 없는 條件下에서 社会間接資本의 補充은 流通部門의 증

대와 消費性向의 高度化만을 야기한다고 보았다.

네째, Baran은 外国企業이 後進國의 經濟發展을 자기들의 利益에 有害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그 原因으로 經濟發展에 따라 雇傭機會가 증가하면 勞動者들의 勢力이 증대하여 賃金水準의 引上을 요구하게 되기 때문에 外国企業은 後進國의 經濟發展을 원하지 않는다. 또한 經濟發展의 추진을 위하여 後進國政府가 外国企業에 대한 租稅 및 使用料를 요구하거나 外換統制로 利潤의 海外送金を 制限하거나 關稅政策을 강화하게 될 것이므로 外国企業의 利潤은 압박받게 된다. 따라서 外国企業은 모든 힘을 들여서 後進國의 經濟發展에 貢獻하는 社会的 政治的 條件의 成熟과 進化를 阻止하게 되며 아울러 後進國의 買辦政府를 支持하여 買辦政府를 반대하는 社会的 政治的 運動을 파괴하거나 買取하여 進歩的 勢力이 政治權力을 잡을 경우 그 政府를 파괴하기 위하여 本國政府의 軍事的 外交的 힘과 國際機關의 介入을 動員한다고 보고 있다.

한편 外国企業에 대한 이러한 批判的인 태도는 歷史的 事實에 의하여 充分히 정당화되고 있다. 즉 後進國에서 일어난 수 많은 쿠데타, 後進國에 대한 先進國들의 악랄한 軍事的 外交的 干涉, 後進性의 바다 위에 외로이 存在하는 近代的인 外国企業 등은 後進國에서의 外国企業의 役割을 雄辯하고 있다.

그러나 外國企業을 그 國籍의 相異만으로 매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國內企業도 外國企業과 비슷한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여 資本의 蓄積과 企業의 擴張을 도모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西歐에서의 本原的 資本蓄積過程이나 初期의 資本主義 發達은 결코 순탄한 調和로운 過程이 아니었으며 온갖 억압과 사회적 대립을 수반하면서 점진적인 사회변화의 과정에서 지금과 같은 物質的 豊饒와 政治的 自由를 누릴 수 있게 된 것이다.

여기서 外國企業의 橫暴가 심하다면 借款의 形式은 어떤가? Baran은 公共借款과 民間借款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지금의 현실을 예측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借款의 效果에 대해서는 언급이 거의 없다. 그러나 借款에 대한 元利金 償還의 부담을 크게 안고 있는 後進國이 많은 것을 보고 借款 그 자체까지도 부정적으로 評價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그것은 Baran이 주장하는 '非利己의' 外國援助의 범주에 民間借款은 분명히 속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西歐의 資本을 利潤을 추구하여 세계 각 地域을 侵透하는 것이며 지금과 같이 西歐金融機關에 貸

出財源이 充滿할 때는 後進國에 대한 資金販買競爭이 치열해진다. 그러므로 借款의 元利金償還에 차질이 생긴다는 것은 借款의 性格 그 자체에 理由가 있는 것이 아니라 借款導入國의 能力不足에서 由來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IV. 結 言

흔히들 後進國은 '帝國主義'라는 用語에 매료되어 자기 자신의 잘못이나 腐敗를 先進國에 전가시키려는 경향이 있으며 이에 따라 모든 문제를 後進國 對 先進國의 對抗關係에서 파악하려고 한다.

그러나 지금과 같이 資本主義 列強間의 競爭과 葛藤이 深化되고 있는 사정 아래에서는 先進國이 '帝國主義'보다는 國內의 모든 不條理가 더욱 큰 장애요인이 되고 있음을 상기해야 할 것이다. 外國企業이 後進國에 永住하여 國內企業으로 轉換되지 못하는 이유의 상당부분도 後進國 內部的 不正과 腐敗, 政治的 不安 등에 기인하고 있음을 자각할 때 後進性의 克服에 대한 實踐的 具體的 方法을 理論的으로 解明하게 될 것이다.

註 解 釋

- 1) “해방선언 2호”, '86. 4. 17
- 2) “국민 각자가 개인의 目前 이익에만 급급하여 다른 사람이 피해를 볼 때 전혀 관심을 나타내지 않는 야만인들의 自己中心主義(barbarian . egotism)에 빠져버린 점”을 지적.
- 3) Baran은 “西歐의 資本主義가 植民地를 철저히 資本主義化하지 않고 封建的 地主勢力을 穩存시켰기 때문에 後進國의 國民들은 封建主義와 資本主義의 基杻한 混合體制아래 二重의 搾取를 당하였다.”고 봄
- 4) 여기서의 客觀的 必要한 消費'란 “戰爭 등 긴급사태 하에서 실제로 등장하는 개념”이라고 Baran은 주장.
- 5) Baran에 의하면 ‘非生産的 勞動者들’이란 資本主義體制下에서는 存在하지만 合理的으로 組織된 社會에서는 存在하지 않는 勞動者로 軍需産業에 종사하는 勞動者, 政府官僚, 軍人, 牧師, 法律家, 脫稅專門家, 廣告代理人, 商人, 投機家, 등”을 일컫음.

시

38 선 휴 계 소

중 쉬 전 호 명

(제 3659 부대)

강원도 양양읍을 조금 못 미친 곳에
삼팔선 휴계소가
동해를 맞이하고 있다.
술래잡기하는 동해
강강술래하는 동해를

이곳에서 동네와 동네사이
산과 산 사이
강과 강 사이
그 너머 서해에 이르기까지
수 많은 아버지들이
수 많은 형님들이
바다처럼 밀고 밀리면서
미지개를 하였으리
조국을 부르면서
아버지를 부르면서
아들을 찾으면서

꽃잎은 서럽게 땅에 지고
비들기는 날지 못하고
둥지 안에 갇혀야 했던 세월

우리는 하나였는데
우리가 그은 것도 아닌
지구의 가로선 하나 때문에
괴뢰로 변한 무리를
겨레라고 해야 하는
비극의 역사는
그래도 침묵이다.
그 날
아우를 찾던 모습이
어머니를 찾던 모습이
38선 위도에 떨어져 있다.
믿음이 없는 얼굴도 걷고
똑 같은 이야기 그 시름도 걷고
고향으로 돌아가 쉬고 싶은
피곤한 모습으로,

바람이 불었다.
우리가 터 잡고 살던 땅에
꽂 맥힌 가슴이 터지는
시원한 바람이 불었다.
그 때에
다시 찾은 선

선 너머로 속초시도 있고 간성색도 있다.
저렇게 유명한 설악능선이 걸렸고
인제와 양구, 화천읍도 있다.
꿈이 있는 우리의 가슴이고
평화가 있는 우리의 마음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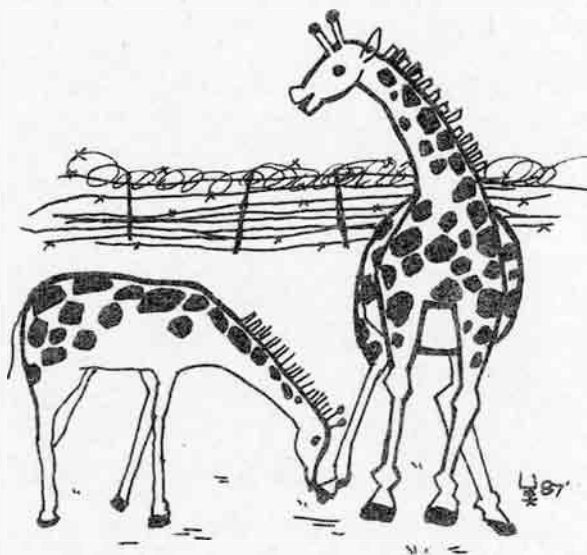
지금 그 고장에는
상처난 자취를 물어버리고
푸른 자연이
산새들의 속삭임이 있으.

빌딩의 숲 속에
그 아버지의 아들이
그 아버지의 딸들이 부르는
합창이 있고
무궁화가 있으.

동해는 그 날을 알고나 있는지
오늘도 그때처럼
미지개를 하면서
술렁거리기만 한다.
손을 잡고 아리랑
강강술래를 한다.

이땅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이 땅의 아버지와 아들

이 땅의 어머니와 딸들이
섬짓한 걸음걸이로
잠시 머물렀다가 길을 떠나는
38선 휴게소라는
관광지를 탄생시킨 채
동해는 술래잡기를 하고 있다.
강강술래를 하고 있다.



龍 門 山

銀 杏 나 무

孫 珉 鎬

〈중위·제3659부대〉

龍門山 동쪽 龍門寺 앞뜰에는 老巨樹 銀杏나무가 서 있다. 千年 以上の 歲月을 求道者의 모습으로 그곳에 그렇게 의연히 버티고 서 있다. 新鮮한 山氣流와 淸冷한 溪水의 祝福 속에 그 巨大함, 그 蒼蒼함, 그 威風堂堂함은 과연 龍門山의 터줏대감이다.

그는 伝說 속에서 탄생한다. 新羅 敬順王이 王建에게 降書를 보내자 이를 반대하여 皆骨山으로 向하던 麻衣太子는 龍門山에 이르러 잠시 걸음을 멈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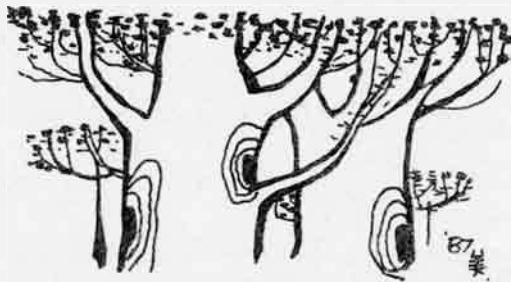
亡國 新羅의 마지막 自尊心을 지키고자 등진 世俗의 因緣이 너무도 짙겨 그를 번민케 하기에, 入山에 앞서 그는 마지막으로 그와 世俗을 連結하여 주던, 마지막 所有物인 지팡이를 마저 버리고자 決心한다. 出家하는 者는 모든 것을 일시에 버려야 하나니,

지팡이를 멈추어 섰던 자리에 박아 세우고는 표연히 皆骨山으로 들어선다. 그리고 그 지팡이에 뿌리가 내리고 잎이 돋아 오늘의 巨木이 된다. 이처럼 龍門山 銀杏나무는 麻衣太子의 亡國恨과 결연한 意志의 化身으로 탄생한다.

龍門山 銀杏나무는 주위의 모든 것과 同化하는 謙遜의 德과 微物이 함부로 범접할 수 없는 威嚴을 함께 갖추고 있다.

그가 결코 一声의 号令을 發한 적은 없지만 누구든 그 앞에 서면 발을 모으고 고개를 숙이게 된다. 그 威勢에는 아무도 항거할 수 없다. 이제 그가 두려워하는 것이 있다면 오직 하나, 하늘의 노하심인 벼락이리라.

바벨탑을 쌓아 올린 人間은 너무나 교만



하였다.

하지만 그는 다르다. 그의 지난날은 자연을 탐으려는 無限을 向한 苦行의 연속이었다. 그의 가장 작은 가지 하나까지도 하늘을 向하여서 하늘의 恩寵을 갈망하여 왔다. 그는 결코 빼어져 나감이 없이 自然 속에 調和를 維持하면서 그 精誠의 답을 쌓아 올렸다. 千年 以上の 期間에 걸쳐서 그리하여 62m의 胴體는 그대로 千年의 歷史이다. 서리서리 수 많은 事緣이 맺혀 있고 內面에는 온통 恩寵과 感謝와 精誠으로 가득하다. 自然의 外面으로 괴로울 때도 있었다. 그러나 그는 결코 소리하지 않았다. 떨어지는 낙엽, 꺾이는 작은 가지로 겨우 그의 깊은 슬픔을 表示하였을 뿐이다. 절망의 절규도 몸부림도 없었다. 조용한 기다림과 忍耐가 있었을 뿐이다.

큰 가뭄 때는 한일 두일 은행잎을 떨어뜨려 順應하였으며 6.25가 일어나던 해에는 잔가지를 스스로 꺾어 民族과 고통을 같이 하였다. 그러기에 뒤틀리지 않고 全體的으로 무리없이 的연함을 간직할 수 있었다.

그에게는 하늘을 向한 熱望 못지않게 大地에 대한 애착도 강하다. 그는 結局 大地에 의지하여 그렇게 的연히 살 수 있었던 것이다. 그는 大地로부터 하루에 무려 70리나 되는 물을 취하기도 한다. 내가 그에게 관심을 가지게 된 動機도 그 막대한 量의 물섭취 때문이었다.

그는 역시 충분히 큰 그릇을 가지고 있었다. 크나 큰 自然의 恩寵을 결코 흘려보내지 않고 모두 받아들일 수 있는 충분히 큰 그릇을 가지고 있다. 그 그릇의 크기는 그대로 그의 自然에 대한 謙遜함, 조용한 침묵 속의 뜨거운 갈망의 크기이기도 하다.

× × × × × ×

내가 그를 처음 대한 것은 수년전 어느 日刊紙를 통해서이다. 新聞 한 면을 가득 채운 그의 모습을 보면서 그 앞에 서는 것만으로도 많은 것을 배우고 느낄 수 있을 것 같아 가까운 時日 內에 직접 對面해 보고자 決心하였었다. 그리하여 그 해 聖誕前夜에 都市의 喧청거림을 피해 나온 나와 그간에 첫 對面이 이루어졌다.

龍門山 銀杏나무를 본 그 때의 느낌은 半失望, 半 確認이었다. 千年 以上の 勢月은 어찌할 수 없어 나무의 늙고 거친 모습이 먼저 눈에 들어왔다. 큰 가지는 모두 꺾이고 털뽀힌 닭처럼 멧없이 굽은 胴體에 잔가지만이 어울리지 않게 무성하였다. 큰 가지 두 개는 무게를 지탱하지 못하고 밑으로 늘어져 있었다.

그럼에도 그는 역시 강하고 당당한 모습이었다. 옆의 산과 뒤의 절과 비교해도 조금도 놀리지 않을만큼 충분히 크고 우람하였다. 지금껏 용케도 벼락을 피해온 것이 신비로웠다.

그 후 特任 政訓將校 教育을 받는 期間 中에 龍門山 戰跡地에 들리면서 한번 더 볼 機會가 있었다. 그 때도 한겨울이어서 앙상한 胴體와 대좌하였었다.

이제는 自然과의 同化를 지나 土壤化하는 듯한 인상을 받았다.

그때, 거만한 모습으로 銀杏나무를 보고 있던 나에게 老巨樹는 조용히 忠告하여 주었다.

“내가 보여준 삶 그대로 大地에 感謝하고 하늘에 敬虔하라. 나의 謙虛와 調和와 順応의 美德을 배워라”고…….

브라질 유학기

최영설

〈소령·공군대학〉

세계 속의 한국으로 성장해 온 우리들의 시각에 비춰지는 브라질은 축구, 커피, 삼바춤의 정열에 나라라고만 연상되어지지만 그러나 오늘날 브라질은 자원대국으로서 무한한 잠재력과 가능성을 가지고 미래 21세기를 향하여 무섭게 발전해 나가고 있다는 놀라운 사실이다.

필자는 남미의 종주국이라고도 할 수 있는 브라질의 리오데자네이로에서 약 1년 1개월('85. 12~'86. 12.)간 공군 지휘관 참모대학을 유학하면서 보고 느낀 브라질의 일반적인 것과 공군의 교육기관을 소개하며 미래의 나라 브라질에 대한 정확한 지식과 이해를 통하여 우리의 관심도를 높이고자 하는데 있다.

1. 지리적 환경

한국에서 약 20,000km 떨어진 브라질은 면적이 약 850만km²로 남한의 85배나 되는 남반구 최대의 국가로 세계에서 5 번째로 큰 나라이며 광대한 토지와 풍부한 천연자

원으로 축복받은 나라이다.

국토의 구성은 북서부 국경지대에 산맥이 있고 아마존강 유역(북부)에는 낮은 지대, 대서양 연안(동부)에는 약 7,408km의 해안선이 있고 남부에는 평원이 있다. 이상의 지대를 제외한 약 60%의 국토가 200m~900m의 구릉지대로 되어 있다. 기후는 북

반구와는 정반대로 한국이 겨울일 때 브라질은 여름이다. 북부인 아마존 평지는 전형적인 열대기후로 연간 고온다습하고 중앙부는 아열대기후, 남부는 온대기후에 속한다.

2. 인구와 인종

브라질의 인종구성은 대단히 복잡하다. 원래 인디오 원주민이 살던 곳을 16세기 포르투갈인들이 식민지화시킨 것을 시작으로 하여 처음에는 인디오인과 혼혈이 되었고 그 뒤 사탕산업의 노동력을 보충하기 위하여 아프리카의 흑인이 들어와 혼혈이 되었다. 그 후 19세기 이후로 포르투갈인은 물론 이탈리아인, 스페인인, 기타의 유럽계인이, 20세기에 동양인(일본, 중국, 한국)이 정착하게 되어 마치 “인종의 시장”이라고 불리울 정도의 사회가 되었다. 피부색으로 대분하면 백인 62%, 혼혈(갈색) 25%, 흑인 11%, 황색인 2% 등으로 구성되었고 인구는 1984년도 추정에 약 1억 3천 600만명이며 대부분 대서양 연안지대에 밀집해서 살고 있고 인구밀도(km²당)는 15명 정도이며 전인구의 반수 이상이 20세 미만의 젊은층으로 되어 있어 흔히들 젊은국가라고도 한다.

3. 언어와 종교

라틴아메리카의 대부분 나라들이 스페인어를 쓰는데 반하여 브라질만은 포르투갈인들이 개척한 관제로 포르투갈어가 공용어이

며 종교는 헌법으로 인정되어 있어 많은 종교가 있지만 국민전체의 90% 이상이 가톨릭교인이다.

4. 역사와 정치

오늘날 브라질 역사는 서기 1500년 4월 포르투갈 사람인 카브랄(Pedro Alvarez Cabral)이 발견하여 서구에 소개한 때부터 시작되었다고 한다. 브라질이 발견된지 약 50년 후인 1549년 포르투갈은 브라질에 총독을 두어 포르투갈 국왕을 대신하여 통치하도록 하였다.

당시 중남미제국은 스페인 국왕의 통치하에 있었으며 금, 은 등의 귀금속광이 발견되어 채광업이 성업을 이루었으나 브라질은 귀금속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목재의 벌목과 감자재배에 주력하는 농업국가가 되었다. 1807년 나폴레옹이 스페인을 점령하자 잃은 국가인 포르투갈은 위함을 느껴 국왕 동주앙 6세(Don Juan VI)를 브라질로 피신시켜 1808년에 리오테 자네이로를 수도로 하는 포르투갈 왕국을 브라질에 수립했다. 1820년 나폴레옹이 추방당하자 동주앙 6세는 포르투갈로 귀환하고 황태자인 동페드루(Don Peter)가 브라질을 통치하였다.

그 후 1822년 9월 7일 동 페드루는 포르투갈로부터 독립하여 브라질 제국을 세웠으며 스스로 동 페드루 1세라 칭하며 황제에 즉위했다. 동 페드루 1세를 계승해서 동 페드루 2세의 통치 하에서는 우루과이

파라과이, 아르헨티나 등을 정벌한 바 있었다. 1889년에는 제정시대의 군부에 대한 경시태도에 불만을 품은 군부세력이 왕권을 타도하고 혁명을 일으켜 공화정치체제를 채택하였는데 이후 브라질 역사에 군부가 개입되지 않은 때가 거의 없었다.

1985년 드디어 군의 양해와 감시 하에 민정이 들어서서 탕크레도가 간선제로 대통령에 당선되었으나 그는 취임도 못하고 급서했다. 따라서 샤르네이 부통령이 대통령에 취임('85. 4월)하는 과도정부의 성격을 띠고 있다.

정치체제는 대통령 중심제이고 임기는 5년이며 국회에서 간접선거로 선출하며 연임이 금지되어 있다. 국회는 상원 하원의 양원제이며 상원은 임기 8년, 하원은 4년이다.

브라질의 정부조직은 다음과 같다(표 1).

〈표 1〉

브라질의 政府組織

大 統 領
副 統 領
內 閣
法 務 部
財 務 部
外 務 部
企 劃 部
農 水 產 部
商 工 部
厚 生 部
教 育, 文 公 部
鉱 山, 動 力 部
勞 働, 社 會 保 障 福 祉 部
交 通, 土 木 部
陸 軍 部
海 軍 部
空 軍 部

國家情報局 地方連絡部 軍事委員會

5. 사회, 경제, 산업

브라질의 정식 국명은 브라질 연방공화국 (Republica Federativa Do Brasil)이며 자치권을 가진 23주, 1연방구로 구성되어 있고 국가조직은 입법(연방의회), 사법(최고 재판소), 행정(대통령)의 3권분립 제도로 되어 있다. 브라질의 주요산업으로는 먼저 농업을 들 수 있으며 주요 농산물로는 커피, 코코아, 면화, 사탕수수, 쌀, 옥수수, 감자, 콩 각종 과일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커피와 사탕은 세계 최대의 생산국이자 수출국이다. 비록 밀은 자급자족이 미흡 상태이지만, 그 외에 다른 농작물은 그 종류가 다양하고 생산량이 풍부하여 미국에 이어 세계 최대의 농산물 수출국으로 자리를 굳히고 있다.

또한 천연자원의 대국으로 500여년 간을 생산하여도 다 못한다는 철광석(세계 매장량의 1/3)을 비롯하여 우라늄·망간·알루미늄·보크사이트·인광석·니켈·석탄 등의 매장량도 무진장함을 자랑하고 있다. 석유는 70% 정도 자급자족하고 있으나 엄청난 수자원을 이용한 수력발전은 100만kw 이상의 발전소만 해도 20개에 달하고 이따이푸 발전소는 1,260만kw를 생산하는 단일규모로 세계 최대이고 이는 '84년도 한국의 총발전량과 같은 것이다.

이러한 풍부한 자원들을 배경으로 브라질은 농업국을 탈피하고 공업국으로 발전하여 최근에는 철강을 위시하여 자동차 농기구

전기전자장비 군수품(항공기·전차·대포·총기류·로켓트) 등을 남미제국, 아프리카, 아랍국가에 수출하고 있다. 병기류 수출만을 볼 때 제3세계에서 이스라엘 다음으로 많다는 사실('84년: 38억불, '85년: 50억불 수출)이고 다른 군수품까지 합치면 제3세계에서 제일의 수출국일 것이다.

최근 매년 브라질의 무역수지는 150억불 이상의 흑자를 내고 있다. 그러나 150억불 정도의 흑자도 1,000억불이 넘는 세계 제일의 외채 때문에 빚을 잃고 있는 것이다. 외채 도입과정에서 웃지 못할 일은 당시 관료들의 주머니로 절반이 들어가고 나머지로 국토개발에 사용되었다고 하니 관료들의 사망감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교훈으로 삼아야 하겠다. 1인당 국민소득은 '85년도 기준으로 2,300불 정도의 개발도상국이지만 비생산적인 향락취향의 국민성과 만연된 부정부패 심리를 타파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최근에 이러한 것들을 타파하게 될 교육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으며 유능한 정치인 및 경제인들이 브라질 경제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하고 있음을 볼 때 점점 좋아지리라 생각되어 금후 21세기를 향하여 자원대국으로서 자부심 이상의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된다.

6. 외교, 군사

브라질 외교정책은 친미 반공노선을 견고

있으며 비동맹에 가입('81. 9)하여 막강한 실력행사를 하면서 적극외교를 지향하여 전세계의 모든 나라와 친선을 도모하고 있다.

특히 아랍국가와는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한국과의 외교관계는 1959년에 수립되었고 북한과는 외교관계가 없다.

1985년 현재 브라질 총병력 규모는 27만 6천명이며 이 가운데 육군이 15만 8천, 해군, 해병이 6만 3천, 공군이 4만 5천명이며 헌법으로 1년 간의 병역의무를 규정하는 국민제병제도를 채택하고 있고 3군이 독립제이므로 내각에 국방부장관이 없고 육군, 해군, 공군장관이 따로 있다. 공군의 조직은 다음 표 2와 같다.

공군장관은 평시 4성장군이나 전시에는 5성장군이 된다.

특이한 사실은 대령에서 장군으로 진급되면 직접 2성장군이 된다.

필자는 우연한 기회에 브라질 공군조직내의 교육부 예하부대를 모두 견학할 수 있었기에 간단히 소개하면,

○ 공군대학교(UNIF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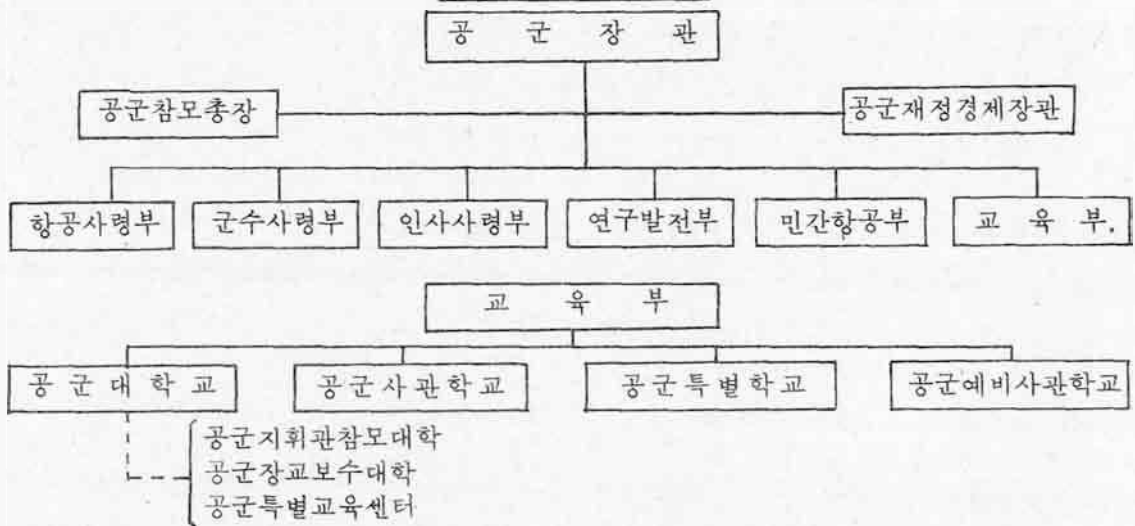
공군대학교 내에는 공군지휘관 참모대(ECEMAR: CSC 과정)와 공군장교보수대학(EAOAR: SOC 과정), 공군특별교육센터(CIEAR: 언어과정, 군의관 과정)로 구성되어 있고 리오데 자네이로에 위치하며 지휘관은 3성장군이다.

- 공군지휘관 참모대(ECEMAR)

1947년에 창설되었고 총장은 2성장군이다. 학생은 중령급 장교로 엄정한 선발시험

〈표 2〉

공 군 의 조 직



을 거쳐 해당자의 80% 정도 입과하게 되며 이 과정을 거쳐야 대령진급을 할 수 있다. 교육기간은 10개월이고 인원은 1년에 130명이며(외국장교 10명선) 1/2 이상이 조종사이다.

지휘관참모대의 특징은

- 철저한 선발제도에 의한 정예화 교육을 실시
- 3군합동작전에 중점을 두어 3군대학이 윤년제로 합동교육을 실시
- 강의시간에 담당교관의 해당학과 교관 전원이 참석하여 보충설명 및 질문에 답변을 하여 충분한 이해를 시킴.
- 외래강사 및 정부요인의 강의시간이 많고 주변국에 여행을 시켜 지휘관 참모로서 시야를 넓힘.
- 엄정한 월 1회 평가
- 졸업식에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여 군의 간부로서 자부심을 갖게 함.

- 공군장교보수대학(EAOAR)

학생은 대위급에서 선발시험을 거쳐 입과하게 되며 3개월의 과정을 마쳐야만 소령진급이 된다. ECEMAR와는 별도 건물과 강사진에 의해서 교육된다.

- 공군특별교육센터(CIEAR)

언어과정 및 군의관 과정이 있다. 군의관은 6개월의 교육기간을 마쳐야 장교가 된다. 외국에서 유학한 장교는 이곳의 언어과정을 이수하여야 됨.

○ 공군사관학교(AFA)

공군사관학교는 1941년에 창설되었고 교장은 2성장군이다. 교육기간은 4년이며 1년에 250명정도 입과하는데 70%는 예비사관학교(EPCAR) 출신이며 30%는 기타 고등학교 출신이다. 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의무복무는 5년이지만 대부분 군에서 봉사를 한다. 학교 내에 비행장을 가지고 있으며 비행훈련은 2학년에서 20시간(T-25: 브라

질 생산), 3학년에서 45시간(T-25), 4학
년에서 120시간(T-27: 브라질 생산)을 실
시하여 조종사가 되며 졸업생 중 60~70%
가 된다.

사관생도는 인종에 제한을 두지 않기 때
문에 흑인, 황색인종이 많아 보였고 특히
일본인 2세들의 입교자 수가 매년 증가하
고 있다는 관계자의 말을 들었을 때 일본
인의 뛰어난 현지 적응능력을 실감할 수
있었다. 생도생활 중 술은 할 수 없지만 담
배는 허용된다고 한다. 한국의 사관학교처
럼 절도와 규율을 요구하지는 않는 것 같으
나 질서는 잘 유지된다고 하니 신기했다.

○ 공군특별학교(EEAER)

공군특별학교는 사병 및 하사관을 양성하
는 교육기관이며 하사관일 경우 각 특기교
육을 시켜서 배출함.

○ 예비사관학교(EPCAR)

군사교육고등학교와 같은 성격의 교육기
관이며, 사관학교의 예비과정이다. 이 학교
졸업생도는 신체검사만 합격하면 무시험으
로 사관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특전이 부여
된다.

브라질 공군이 유지 발전되는 것은 이러
한 교육기관들을 통하여 양성 배출된 요원
들에 의해서인 것이다. 브라질 공군의 주향
공기는 F-5E와 Mirage III (F-103E)이며 현
재 이탈리아와 합작으로 전폭기 AMX를 '85
년부터 생산하기 시작했으며 수송기 및 훈
련기, 경비행기는 완전 자체생산하여 수출
하고 있다.

광대한 국토의 영향도 있었겠지만 21세기
의 항공시장을 겨냥하고 항공산업을 육성
시켰다는 회사사장의 말이 꽤 인상적이었다.

지리적인 조건과 광대한 국토, 그리고 인
구는 남미지역 국가 간의 관계 형성에 상
당한 영향력을 발휘하여 브라질의 안보상에
큰 기여 요소가 되기도 한다.

그러나 포클랜드 전쟁이후 남미 대륙에서
도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에 민감
한 반응을 보이고 있었고 특히 공군의 중
요성이 크게 대두된 가운데 공군력의 증강
에 역점을 두고 있다.

결 언

필자가 공군에서는 처음으로 브라질 공군
에 유학한 계기가 되어서 미래의 나라, 젊
음의 나라라 불려지는 브라질의 일반적인
것과 공군의 교육기관들을 본지에 소개하게
되었다. 조금이나마 독자 여러분이 브라질
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고 유익한 자료가
되었으면 한다.

장래 한국과 브라질의 군사외교활동을 위
해서라도 군사교육기관의 학생교류가 활발
해지기를 바라며 공군본부 정훈감실에 감사
한다.

역사상으로 볼 때 각 시대마다 강력한 양
극체제의 국가에 의해서 영향력이 행사되어
왔던 것이다. 고대 그리스, 로마시대가 그
랬고 포르투갈·스페인시대, 무한한 힘을 구
사하던 영국, 불란서시대도 존재했다 쇠퇴

했다.

분명 현재의 미국과 소련시대도 쇠퇴할 것이라고 하며 그 쇠퇴현상이 이미 보이기 시작했다고 주장하고 다음으로 등장할 나라

중 한 나라가 분명 브라질이 될 것이라고 논리정연하게 강의하던 브라질 공군대학교 수의 말이 지금도 귀에 쟁쟁하다.

간추린 음악사

최 성 근

〈부산음대 卒〉

음 악을 음식물에 비유한다면 생활의 조미료라 이야기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즐겨먹는 음식도 여러 가지가 있듯이 음악 또한 고전, 낭만으로 부르는 클래식음악과 가요, 팝 등의 대중음악으로 분류되어 개인의 취향에 따라 선택하여 즐길 수 있다. 여기서 필자는 클래식에 대하여 몇 자 적어보기로 한다.

우선 클래식 음악(Classic Music)을 이해하려면 약간의 음악사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음악의 기원을 말하자면 상당한 어려움과 문제점을 느낄 수 있는데, 첫째 제한된 지식으로 고대(선사시대로부터 기원 200년경까지) 음악에 관한 자료는 고대미술이나 건축, 그리고 문학에 관한 것보다 결여되어 있다. 음향, 즉 소리라는 것은 순간순간에 없어져 버리는 것이기 때문이다. 요즘에는 테이프 레코드에 녹음도 할 수 있지만, 고

대 선사시대에는 불가능했기에 우리는 추정할 수 밖에 없다.

둘째로는 지식의 원천으로 고대음악에 관한 제한된 정보는 회화적 제재, 즉 동굴벽화 따위로 어떤 사람이 악기를 연주하고 있는 모습과 정경 등으로 우리는 선사시대의 회화나 소묘는 적어도 그 무렵에 음악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해 주는 좋은 자료다. 또한 몇 가지의 악기가 고대 동굴이나 무덤, 예배당 등에서 발굴된 현존하는 악기 또한, 문학상의 자료나 오스트레일 뉴기니아, 남아메리카 또는 중국, 인도, 아라비아 등에서 조사연구한 민족음악으로 대충 알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아무튼 어떻게 또 언제 음악이 생겼는지 정확히 모르지만 선사시대에 있어 음악의 기원에 대한 수궁이 가는 몇 가지 이론을 든다면 선사시대에 인류는 정보전 달을위해

드럼이나, 트럼펫 따위를 사용했을 것이고 이 음향을 반주로 하여 무용과 노동의 리듬이 생겨났을 것으로 보며, 노래는 분노, 공포, 고뇌, 기쁨 등을 목소리로 나타내는 데서 발전했으리라 짐작된다. 그러므로 음악의 기원은 인간이 이 세상에 나타남과 동시에 발전해 나갔다고 보아진다. 다른 모든 분야의 역사와 마찬가지로 음악사도 그 기원에서부터 현대의 형식에 이르기까지 사상과 연주상에서 연대적으로 발전을 계속하고 있으며 그 관례로서 몇 개의 시대로 나뉘어 있다. 이들 시대 구분은 전(前) 그리스도교 시대(Pre-christian : Antiquity), 중세, 르네상스, 바로크, 고전주의 시대, 낭만주의 시대, 현대와 같이 부르며, 이 구분은 각각 일반적인 역사나 다른 예술사에서 볼 수 있는 유사한 시대와 일치하고 있다. 몇몇 시대는 다시 초기, 중기, 후기로 구분되어 있고 이들의 세밀한 구분의 주된 시대에는 가끔 중세의 아르스 안티카(Ars Antiqua), 아르스 노바(Ars Nova)처럼 특별한 명칭이 붙어 있다.

시대 구분은 역사상의 사건이나 발전의 구성에 따라 편의상 붙여진 것이지만 한 시대에서 다른 시대로의 변화는 갑자기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우선 바로크(Baroque)시대의 음악적 특성은 스타일과 형식에 있어서의 변화가 끊임없이 계속되었으나, 일반적으로 이시대 음악과 다른시대 음악이 구별되는 큰 특성이 있다. 바로크시대의 음악을 표현내용의

관점에서 본다면 그 핵심을 이루는 것은 "아펙트"이다. 그러나 아펙트의 표현은 낭만과의 미학(美学)에 있어서 개성적인 감정의 표현과는 질을 달리하며, 객체화되고 유형화된 인간감정의 묘사나 표현을 특질로 한다. 즉 아펙트라 함은 객관적으로 표상된 요소적인 인간감정의 여러 가지 상(相,모양)이며, 음악적으로는 그에 어울리는 조성, 선율형, 리듬, 화성법 등에 의해서 표현·묘사된다. 그러나, 그 조응(照応)관계는 부분적으로 볼 때 감각적으로는 명확히 파악되어도 항상 일의적(一義的)으로 분명하다고는 할 수 없다. 감성과 함께 오성의 작용이 요구되어, 각종의 비유적 또는 상징적인 표현을 매개로 하여〈나타내는 것〉과〈나타나는 것〉이 서로 결부되는 점이, 이 의미에 있어서 바로크 음악의 특색이라 할 수 있다.

일반적인 시대구분으로, 바로크 시대는 16세기말에서 바하, 헨델의 활약이 끝나는 18세기 중엽까지의 1세기 반을 포함하는 것이 정설이다. 그것을 또 특징있는 몇 개의 시기로 구분하면 초기 바로크를 1580~1630년, 중기 바로크를 1630~1680년, 후기 바로크를 1680~1750년으로 보고있다.

전체적으로 보아 18세기는 여러 경향의 스타일이 연대순으로 서로 겹치면서 복잡한 장식성을 나타낸 시기라고 말할 수 있다. 즉, 후기 바로크, 로코코, 전 고전의 과도기, 성숙한 고전주의 등 각 시대에 나타난 음악적 스타일과 형식에 관한 여러 가지 생각

이나 사용방법이 뒤 섞이고 있다.

1750년에서 1820년까지는 음악의 고전주의 대두와 그 전성을 나타낸 시대이다. 로코코(Rokoko)라는 말은 어느시기의 예술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의 예술 스타일을 지칭하는 말이다. 이 스타일은 18세기 전반에 프랑스에서 발전한 것으로서 증후하고 그나마 장대한 바로크 스타일과는 대조적으로 경쾌하고 정밀하면서 장식적인 요소를 가한 스타일이라 할 수 있다. 음악에 있어서는“호화로운 스타일”이라 불렸고 1750년 이후 독일에서 표정이 풍부한 표현이나 감상적인 요소가 가해져서 “다감 스타일”이라는 것이 되었다. 로코코 스타일은 1720년경에서 1775년경에 걸친 음악의 주요한 스타일이었고 따라서 후기 바로크나 고전 초기의 음악무대에 일관되어 함께 존재했던 스타일이다.

바로크에서 고전주의로 옮겨지는 시기의 음악은 일반적으로 전고전과 음악이라 부른다. 형식, 스타일 등의 변화는 대략 1740년부터 1770년경에 걸쳐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바로크와 초기 고전주의 음악사이에 명확히 하나의 선을 그어 구별할 구획선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들 스타일의 융합은 동일한 작곡가들의 작품 가운데서도 흔히 나타나는 것이다.

이 시기의 음악은 특히 뛰어난 재능을 발휘한 4명의 작곡가 즉, 하이든, 모짜르트, 글루크, 베테벤 등에 의해 지배되었다. 하이든(Franz Joseph Haydn, 1732~1809)은 이

들 4명 중에서 가장 많은 곡을 작곡했으며 어느 작곡가보다도 고전주의 교향곡 형식이나 악기편성법을 확립시킨 인물로 알려져 있다. 두 말할 필요도 없어 역사상 가장 위대한 천재의 한 사람으로 모짜르트(Wolfgang Amadeus Mozart, 1756~1791)를 손꼽을 수 있다.

그의 주요 작곡분야는 오페라, 교향곡, 협주곡, 실내악, 종교음악 등 이다. 글루크(Christoph Willibald Gluck, 1714~1787)은 이들 중에서 가장 활약분야가 좁은 작곡가이지만 오페라나 오페라·개혁면에서 주목되는 인물이다. 베테벤(Ludwig Van Beethoven, 1770~1827)은 모짜르트와 같이 고전주의 음악사에 있어서의 가장 뛰어난 불멸의 작곡가이다. 음악사에 있어 그의 위치는 후기 고전주의에서 낭만주의 음악으로의 교량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과 귀족의 보호로 예술가로서의 독립을 얻었다는 점에서 특히 중요시 되고 있다.

19세기는 일반적으로 낭만주의 시대라고 알려지고 있지만, 낭만주의적인 경향은 이미 1800년 이전에도 나타나고 있으며, 20세기가 되어도 그 경향은 계속되고 있다. 낭만주의(Romanticism)는 여러 단계에서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작곡가들은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독립하게 되어, 이제는 교회나 귀족의 보호를 받지 않게 되었다.

음악은 보통 두 종류의 청중을 대상으로 작곡되었는데, 하나는 콘서트 홀(Concert

Hall)이나 오페라 하우스(Opera House) 에 모이는 사람을 위해서였다. 또한, 작품의 길이가 극단적인 경향을 띠게 되는데, 아주 대규모적인 작품(교향곡, 협주곡, 오페라 등)이나 매우 짧은 작품(독창가곡, 기악소품 등)이 나타나게 되었다. 작곡가들은 전보다 훨씬 더 스타일의 특성을 발전시켰으며, 시와 문학, 미술에 친근감을 가졌기 때문에 표제음악(Program Music)을 즐겨 작곡하였다. 연주의 기교적 묘기(Virtuosity)는 기악곡에서 특징으로 나타나 연주자겸 작곡가인 대가는 매우 인기가 높았다.

독일과 오스트리아는 19세기 낭만주의 음악의 주도적 국가였다. 이 시대의 주요작곡가를 살펴보면 우선 가곡의 왕으로 알려진 슈베르트(Franz Schubert, 1797~1828)는 약 800여곡에 가까운 가곡과 다수의 교향곡, 피아노곡, 실내악 분야에 뛰어난 빈의 작곡가이다. 폴란드 태생의 쇼팽(Frédéric Chopin, 1810~1849)은 주로 피아노를 위한 음악을 작곡한 연주자겸 작곡가이고 이와 같이 리스트(Franz Liszt, 1811~1886)는 헝가리 태생으로 19세기에 있어 가장 기교파 피아니스트이자 작곡가로 교향시, 피아노작품, 표제음악적 교향작품, 가곡, 합창곡 및 오르간 작품 등을 작곡했다. 그 외에도 이 시대에 활약한 브람스, 멘델스존, 슈만, 말러 등과 이태리 작곡가인 베르디, 푸치니 등을 들 수 있다.

20세기에 있어 세계는 끊임없는 변동에 직면하게 되었고 그 규모는 지금까지 인류

가 체험한 것에 비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것이었다. 정치적, 사회적, 과학적 및 문화적인 역사상의 사건은 1900년 이후의 음악사 흐름에 피할 수 없는 영향을 미쳤고 1960년경부터의 세계는 여러 차례의 격심한 사회적 및 경제적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또 이것은 보다 심각한 문제로 발전되는데, 이를테면, 가공할 인구의 가속도적 증가, 생활환경을 위협하는 공해, 통화팽창에 따른 인플레이션, 도시기능의 마비, 그리고 세계 곳곳에서 볼 수 있는 극심한 빈곤이라든가 식량부족같은 문제이다. 역사적 관점에서는 20세기의 음악을 연구하는 데서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많은 특수한 여러 문제에 부딪치게 된다.

현대음악(Modern Music)이라는 용어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며, 다양한 내용을 내포하는 것, 같지만 특정한 뜻을 지니고 있지는 않다. 왜냐하면 이 말은 20세기의 음악 전체를 가리키는 경우도 있고, 또 몇 가지 점에서 낭만주의적 음악에 대립되는 것과 같은 핵심적인 음악만을 가리키는 때도 있기 때문이다.

1900년 이래, 팽대한 양의 음악작품이 작곡되고 있기 때문에 누구든 모든 음악에 또는 일부분에 친근할 수 있다. 확실히 19세기에 작곡된 음악의 양은 현대에 비해 그 양이 적다. 아 물론 이 시대 음악의 모든 분야에 있어서 학술적인 연구, 그 가운데서 특히 음악사학은 19세기에 발달된 이래 많은 진보를 보아왔으며 이 분야에서 사람들

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증거로는 악곡선
집(Anthology)이나 개개의 작곡가 전집(Co-
mplete Works)이 오늘날의 현대 악보로 수
없이 출판되고 있으며 그것을 각 도서관에
서 이용할 수 있다는 것과 음악에 관한 도
서와 학술적인 잡지의 수, 음악학이 고등교

육에 널리 받아 들여졌다는 사실, 뛰어난 음
악학자들이 늘어났다는 점등을 들 수 있다.

이상 대중이나마 바로크에서 20세기 현대
음악의 역사를 이야기함으로써 음악을 아끼
시는 모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
기를 바란다.



도시 공간 속의 미술

김 미 애

〈7급 공군분부〉

인간은 존재한다.

인간은 사고의 능력과 감성을 가졌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에게만 역사와 문화가 존재한다.

사람들은 생활하는 사회가 발달하고 문화수준이 높아질수록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정서적인면을 기울이게 된다. 美와 예술의 가치를 높이고 추구하는 것은 인간의 본연의 자세라 할 수 있다.

경직된 현대인, 도시화, 산업화, 과학화 기계화된 삶 속에서 유일한 인간미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예술, 美의 추구인 것이다. 이제 예술이나 미술품은 어느 특수한 그룹이나 특권계급, 특정인에게만 국한된 위안물이 아닌 우리 모두에게 영향을 미친다.

회색빛 콘크리트 숲의 도시에서 탈피하자. 기계화된 사회이지만 자연미를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자. 도시환경은 어느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닌 우리 인간 모두를 위한 일 이기에 더욱 중요시 되고 있다. 개인 혼자서 이를 수 없고 단시간 내에 조성할 수 없는 공간을 어떻게 좀더 풍요로운 삶의 공간으로 형성시켜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당면 문제인 동시에 끊임없이 연구되고 노력해야 할 우리 모두의 과제이기도 하다.

도시환경, 어떻게 만들어져야 할 것인가? 그리고 과거와 현대의 도시, 환경과 도시 공간 속에서 미술의 역할에 대하여 피력해보고자 한다.

원시적인 삶에서는 존재한다는 것이 곧 사는 것 자체였다. 겨울에는 좀더 따뜻한 공간을 그리고 눈, 비를 피하고 동물로부터 보호를 받기 위한 최소한의 공간을 서로 모여서 마련한 것이 주택의 시초가 된다. 어떤 멋이나 아름다움을 위한 것이 아닌 다

만 기후와 자연환경으로부터 보호를 위한 공간이었다. 자연, 그 자체 뿐이었다. 그러나 인구가 증가하고 산업화되면서 삶의 방향과 생활이 바뀌고 도시의 형태가 변화되었다. 그리고 지형이나 기후에 따라서 다양한 문화형태와 도시형태가 나타나게 된다. 도시는 한 나라를 평가할 수 있는 표면 기준이 될 수 있다. 그 나라의 생활수준과 가치기준, 사회, 문화를 그대로 드러내어 준다.

예술, 미술은 도시에서 독특한 개성을 표현하고 특성을 살리는 데에 있어서 주목할 만한 역할을 한다. 이제 미술은 어느 한 곳에 국한된 것이 아닌 모든 생활과 불가분의 관계인 것이다.

매일 쏟아져 나오는 신문, 잡지, 각종 출판물, 상업광고물, 도시의 벽화, 건축물, 다종다량의 기계제품, 자동차 그 외의 연극, 영화, 무용, 음악 등 우리들의 생활공간 자체가 예술인 것이다. 도시는 하나의 커다란 미술관으로 발전하고 있다. 아니 예술품으로 변화되어 간다. 예술의 효능에 대하여 스잔느랑거(S. Langer)가 지적했듯이 날씨가 청명하다고 바로 모든 사람의 기분이 상쾌해져야 할 이유는 없다. 하지만 그렇게 될 가능성은 확실히 존재한다. 바로 이런 이유에서 우리는 그림이나 조각만이 아니라 도시환경도 아름답고 의미있기를 바란다.

그림이나 조각의 경우는 흥미가 없고 보기 싫은 사람은 안 볼 수가 있지만 도시환

경은 누구도 피할 수 없이 접해야만 하는 세계인 것이다. 도시를 변화시키는 것만이 문제라면 우리는 미술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도시는 얼마든지 변화할 수 있는 요인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의미를 지닌 갖가지 형상들로 구성된 시각 환경의 도시, 어떻게 하면 도시를 의미 있는 환경으로 조성, 구성할 수 있을 것인가? 의미있는 도시는 어떤 것인가? 특정한 어떤 도시가 의미가 있고 예술적이고 아름다와 보인다고 해서 무조건 수용할 수는 없다. 프랑스의 파리, 덴마크의 코펜하겐, 이태리의 로마, 그리이스의 아테네가 아름답다고 해서 그것들을 우리의 것으로 끌어 들일 수가 있을까? 또 우리 것에 포함시킨다면 우리의 도시는 어떤 느낌일까? 우리는 우리 것이 있다. 우리 멋, 우리 특성을 지키고 발전시킬 때 진정한 우리의 도시를 구성할 수 있다. 아름다운 도시공간을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는 노력을 해오고 있다.

녹지공간을 확보하고 환경조각, 장식벽화 분수, 조명탑, 시계탑 가로등 환경조형물 설치에도 정성을 기울이고 있다. 그에 부응하여 건물을 지을 때는 반드시 미술품을 전시하든가 아니면 예술적 공간을 만들도록 하는 1%법을 규정하였다.

이 규정은 도시공간을 조형화하는데 기여 하리라 생각하지만 1%법을 어떤 방향에서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의 협의가 충분히 이루어진 후에 진행되어야 한다. 모든 예술

품은 시대적 환경과 역사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볼 때 현대는 정책적인 물리적 기능적 측면만 강조되고 있는 듯 하다.

예술적 공간을 조성하는데 가장 많이 만들어 지는 것은 조형물 중에서 조각품이 주류를 이룬다. 때문에 최근 조각에 대한 일반인의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조각인들의 활발한 활동이 전개되어 가고 있다.

환경조각을 세울 때는 행정당국과 건축주, 건축가, 조경가, 조각가들 간의 서로 협조와 대화로써 화음이 이루어졌을 때 진정한 공간조화를 이룰 수가 있다. 설계상의 공간확보나 환경과 조화에 따른 작품구상, 작품의 성격, 설정 등에 대해 충분한 논의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규정에 있으니 아무거나 무조건 세워놓고 보자는 발상과 너, 나 할 것없이 뛰어드는 조각가에 의해 의식도, 책임도 없는 행동이나 작품이 나타날 수 있다.

육외공간에 설치되는 작품은 실내공간에 놓여지는 작품과는 구분이 되어야 하고 주위공간에 대한 연구와 작품성격에 따른 장소 크기 재료 등을 고려하여 설치되어야 하는데 요즈음 야외조각장, 조각공원 등 대중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장소가 많아짐으로 조각에 대한 이해도를 증진시키며 도시와 지방과의 격차를 죽이고 있다.

만인을 위한 예술이 되려면 예술, 미술을 관람하기 위한 공간을 실내에서 실외공간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많은 변화가 되었지만

아직까지도 예술이나 미술을 음미하려면 정해진 시간에 오페라하우스나 연극공연장, 그리고 미술관, 전시관 등 닫혀진 공간에서 행해진다. 열려진 장소에서 예술행사가 행하여지고 어느 곳에서나 쉽게 조형작품을 접할 수 있어야 하겠다.

도시와 미술, 도시에 미술은 전혀 부정적 효과가 없다고 할 수 있다. 아무도 그들의 도시환경에 미술작품이 들어선다고 해서 더 나빠진 생활조건을 만들지 않기 때문이다.

콘크리트, 아스팔트, 강철자재 등의 남용으로 황량해지고 있는 도시, 기계를 닮아 가고 있는 도시를 미술 혼자만으로는 현대 도시를 빛나게 완성시킬 수는 없지만 덜 음산하고 덜 단순하고 나아가서는 이상적인 환경으로 발전할 수는 있다.

예술은 살아있는 거리를 만들고 도시를 인간화하여 시인적 공감, 참여의 폭을 넓히는 등 포괄적인 역할을 한다. 예술이 사회 속에 밀접할 때 예술활동이 각 개인의 독백에서 벗어나게 되고 일부 특정인의 점유물 또는 소장용의 역할에서 탈피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인간은 현실을 꿈처럼 살고자 하기도 하지만, 비현실적인 꿈으로도 살고 싶어한다.

이렇게 인간은 현명하게 나아가는 방법이나 가치관이 일률적이지 않다. 이러한 것에서 오는 부조화를 외해시킬 수 있는 것이 예술행위가 아닐까?

예술을 창작적 측면에서 볼 때 보편적인 미적 가치가 있는 것을 창조하고 표현함으로써 이를 객관화하여 타인에게 전달하고 사회적 기능을 가진 미적가치의 전달매개체이고 향수적 측면에서는 내면적인 재창조 작용을 통한 미적가치의 주관적인 자기표현에 의한 사회적 참여이다. 하나의 예술품은 창작주체와 그 작품을 감상하는 수용자와 각각 다른 의의를 가지게 된다. 예술가는 그 작품의 해석을 감상자 개개인에게 맡길 수 밖에 없으며 감상자는 그 작품 속에 들어가 그 각자의 해석을 통하여 자신의 정신에 美를 환기시킨다. 예술은 대중을 변화시키는 동시에 대중은 예술을 어느정도 변화개조시킬 수 있다.

예술작품은 예술가 곧, 창작 주체만의 독백이 되어서는 안 되며 언제나 대중을 향하여 열려 있어야 한다.

그것은 감상자 각 개인의 양식으로 환원되는데 절망감이나 비애, 불안, 공포의 느낌을 주는 예술작품이 오히려 희망을 느끼도록 할 수 있는 신비의 힘을 가지고 있다. 예술가는 많은 것을 잃어버린 도시인에게 새로운 생명력을 불어일으키어 생활의 활력과 감흥을 줄 수 있어야 한다.

그림의 궁극적인 역할에 대해 막스는 가상의 세계를 표현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세계를 개조하는데 있으며 오늘날의 지배적인 현실이 도시이고 피할 수 없는 환경이 도시환경이라면 미술은 미술관이나 아

틀리에에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큰 세계로 나와서 그 세계의 문제를 응시하고 분석하여 조명하고 해결하는데 참여하여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

도시환경에 예술적 향취를 더하고, 미술이 도시환경에 관심을 돌리는 일은 우선 작고 쉬운데서 시작되어야 한다. 버려진 벽에 벽화를 그리고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 조각품을 도입하고 교각에 색채를 구성하고 적당히 세운 벤치와 휴지통과 판매대에 미적격조를 높이는 등 작은 일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그러나 도시와 미술의 만남이 단지 치장하는데만 그쳐서는 안 된다.

세련된 감각, 눈을 끄는 장식, 아기자기한 장소연출을 배격할 이유는 없지만 우리가 보고 느끼는 것은 도시의 색깔과 형상의 그림만이 아니라 그것이 표현하는 보다 차원 높은 가치와 질서다. 그 가치가 우리를 왜소화하고 그 질서가 우리를 실망시킬 때 우리는 도시환경의 표면적인 연출이 숨겨지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 환경에 애착을 가지지 못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진정한 삶을 원하고 추구한다. 모든 예술품이 시대적 환경과 역사의식을 가진다고 볼 때 문화적 성숙도에 따라 도시환경공간도 변화되어 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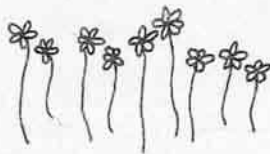
현대의 조형의식이라는 문제는 전통에서 출발되어야 하며 현대라는 특성이 다양한 개성으로서의 자유가 의미되어 진다면 그

조형적 표현에서는 다양한 자주성이 나타나야 한다. 현대 예술이라고 하여 현대라는 개념아래 우리의 체취와 감성을 버릴 수도 없다. 역사적인 소중한 우리의 건축환경을 보존하면서 우리의 도시환경을 보다 가치있게 개선해 나아가야 한다.

암스테르담보다, 빠리보다, 아테네보다 더

운치있고 분위기 있는 도시를 만들자. 비록 우리들은 그런 공간 속에서 호흡하지 못하더라도 우리의 자손, 그 다음의 세대에게라도 우리의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조상에게 감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

아름다운 도시공간에서 삶을 영위하고 싶어하는 것은 나 혼자만의 생각일까?



人生은 여행이다.
 저마다의 길을 간다.
 어느 길이 옳은 길인가는 아무도 알 수 없다.
 맹목적인 생존의 삶이 아닌답에야
 우리는 창조적 인생을 추구한다.
 "창조"
 인간만이 행할 수 있는 작업이다.
 무엇인가를 창조한다는 자체는 고통스럽다.
 하지만
 우리는 이룬 후의 기쁨이 더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희망을 갖고 삶을 살 수 있는 것이다.
 끝없는 도전과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우리는 어느 길로 가는 것일까?
 아마도
 그 길은 행복의 길이고 평화와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길일 것이다.

- 美 -

원 고 모 집

금속성의 목음 속에 존각을 다루는 영공초계 입부.

최첨단의 과학기술 장비를 다루는 작업 속에서 젊음을 불태우는 보라매들.

사색과 낭만을 즐기기에 너무나 각박한 시간들하기에 자칫하면 정서생활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장교 전문교양지인 「공군」은 여러분의 고귀한 생활속의 글들을 모집합니다.

오래전에 놓아버린 붓을 다시 잡고 원고지 한칸 한칸을 매꾸어 보십시오. 잃어가던 문학세계가 다시금 새로와질 것입니다.

힘들고 바쁜 생활속에서 나온 글들이기에 더욱 소중하며 값진 것입니다.

☆ 모집대상 : 장교 및 그 가족

☆ 모집부문 : 군사지식, 교양, 생활수기 등 문학작품 전 부문

☆ 마감일자 : 제한없음(연중무휴)

☆ 원고매수 : 30매 내외(200자 원고지)

☆ 제출처 : 서울 동작구 대방동 사서함 10호.

☆ 기타사항 : 제출된 원고는 소정의 고료를 지급하며, 게재된 작품은 연말 종합심사후 시상함.

☆ 문의전화 : (호) 5115, 5388
 (직) 813-2691

표지화

'87 호국기록화로 제작된 작품임.

작가 : 이 석 주(숙명여대교수)

제목 : 가야산 공비토벌과

팔만대장경보호작전

1987년 제3호(통권 202호)

1987년 11월 10일 인쇄

1987년 11월 15일 발행

발행처 : 공군본부정훈감실

인쇄처 : 공군교재창



범민협 '87표어 ⑤

좁는손 예쁜손 버린손 미운손

사람들이 처음 입장하는 공원이나 경기장은
아주 깨끗하고 단정합니다.

그러나, 얼마후에 한사람이 휴지를 슬그머니 버렸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를 본 다른 두 사람이 또 버리게 되고
그 뒤에 오는 사람들은 지저분하기 때문에 아무렇지도
않게 마구 버리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지저분한 곳에서 어떤 한 사람이 휴지를
줍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더이상 버리는 사람은 없어질 것이며,
곧 깨끗한 본래의 모습을 찾게될 것입니다.

함께 줍고, 함께 버리지 않는 것은 어떨까요.

좁는손과 버리는 손이 따로가 아닌 하나,
버리지 않는 손이 된다면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라도 늘 처음과 같은 청결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내가 먼저 시작을 해봅시다.



범민족올림픽추진중앙협의회